

여러 시대에 관한 신의 계획

성서의 연구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제 1 권

여러 시대에 관한 계획

“여러 시대에 관한 신의 계획”은 신의 성품과 통치의 해명이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악의 묵인함이 인류를 예언하신 황금시대로 안내해주는 교육이며 준비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황금시대에 위대하신 회복 자 이시고 생명주시는 자이신 구세주를 통해서 지상의 온 인류가족이 하나님을 아는 충만한 지식과 영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충만한 기회로 은총을 입을 것이다. (행 3:19-21) 이것을 이 책이 모든 성경말씀을 인정하고 조화를 보여준다.

왕 중의 왕 주중의 주이신 주님께 드림

양자 될 것을 기다리는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께 바친 성도들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믿음으로 식구가 된 사람들”

신임하고 고통을 당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피조물
.....을 위하여

이 책을 바친다.

“정해지지 않은 과거로부터 하나님 안에 숨겨져 온 신성한 비밀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람들로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모든 지혜와 분별력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
하게 하셔서, 그의 뜻의 신성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속으로 의도하신
자기의 기뻐하시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서,
지정된 때의 기한이 찼을 때에 있을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분 안에서”

엡 3:(4,5,)9, 1:8-10

1886 찰스 티. 러셀 (Charles T. Russell)

“여러 시대에 관한 신의 계획”

저자의 서문

작가와 발행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책의 보급과 그 결과로서 많은 굶주리고 목마르며, 당황하는 영혼들에게 빛, 기쁨, 평화와 하나님과 맺은 친교를 인지하도록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공공연히 인정하기를 바란다.

1886년도에 현재의 구성의 초판이 발행됐다. 그때이래, 한판이 다른 판을 빠른 연속으로 그 뒤를 이었고 20가지 다른 언어로 출판되었다. 지금 까지 전 세계에 걸쳐서 오백만 권의 책이 사람들에게 보급되었다.

우리는 이 모든 책들이 다 읽혀지게 되기를 희망할 수는 없으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전달되는 독자들의 편지는 이 책들이 어디에서나 사람들의 마음에서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해준다. 수천 명의 독자들이 우리에게 편지로 전달하기를 그들이 이 책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기술한다. 그들의 일부는 성경을 인류에게 주신 신의 계시로서 전혀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무신론자들이거나 대략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대의 참 하나님과 그의 참 계획을 전에는 알지 못했고 대체로 신조에서 그들 앞에 전개된 일들을 받아들이고 감사함을 느끼거나 숭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역의 관점에서 본서를 썼다. 이 책은 진리를 나타내고 진리의 힘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불필요할 뿐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무익하고 매우 해가되는 잘못된 점들의 제거를 시사하고 있다. 그래서 각 단계의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의 독자는 믿음이 굳건해 지고 주님께 보다 더욱 가까워지며 따라서 그가 올바른 길에 있다는 신념을 발견하게 된다.

사탄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어떠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에 대한 그들의 경의의 증대를 혐오하고, 인간신조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을 혐오한다. 따라서 사탄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성경을 매우 적대하고 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사탄의 능력과 교활함을 실감한다. 극소수만이 진리에 대항하여 싸우고, 그 진리의 영향력을 파괴하기 위하여 그 자신이 빛의 사자로 가장하는 사탄에 관한 사도의 말의 의미를 깨닫는다. 극소수만이 우리의 교활한 적 사탄이 진리의 빛을 비치는 것을 방해하고, 믿는 사람들부터 여러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최적이고 가장 활동적이며 가장 영향력 있는 자들을 이용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감지한다.

극소수만이 AD 325년 교리 만들기가 시작된 때로부터 1260년 동안 사실상 성서연구가 없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극소수만이 교회가 수백만 명의 마음 가운데 굳게 자리잡고 있는 동안에 그들을 무서운 과오들로 속박하고 그들로 하여금 신격(Divine Character)의 지혜, 정의, 사랑과 권능에서 눈이 멀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

단는다. 극소수만이 성경을 소유할 수 있게 된 종교개혁 이래, 선의로 출발했으나 미혹 당한 개혁가들이 과거에 잘못된 점들로 눈이 멀고 불구가 되었으며 다음으로 그들은 믿는 자들을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진력해 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극소수만이 사도들 시대에 초대교회에서 실천했던 것처럼 진실한 성서연구가 오로지 지금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선량한 일은 지속된다. 주 예수 안에 생명의 진하는 말씀은 접촉으로 전달된다. 이 책의 지금까지의 결과는 막대하다. 이 책의 축복이 과거에 있어서와 같이 비례적으로 크게 되기를 ...

작가와 발행인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모든 독자들의 행복을 빌면서.

주의 종

찰스 티. 러셀 (Charles T. Russell)

부루클린, 뉴욕 (brooklyn, New York)

1916년 10월 1일

편집 후기

위의 저자의 서문은 전체 서문 가운데서 발췌한 것임.

번역자의 서문

먼저 나에게 이 책을 소개해 주시고 이 책의 한글 번역판을 내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와 기도를 해 주신 제임스 비. 파킨슨 (James B. Parkinson) 장로님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한국인들이 그들의 기독교 신앙생활의 활력소와 길잡이가 되며, 더욱 장성한 신앙생활을 위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계기와 원천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기독교의 이해가 없거나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참 신앙의 횃불을 밝혀주는 계기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투시해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이 책에 포함된 모든 컴퓨터 도표와 책의 표지의 도안을 담당해 주신 루스 커닝햄(Ruth Cunningham)씨에게 감사를 드린다.

장채옥(Mrs. Chai Darmstadt)

Wyckoff, NJ에서
2005 9 월 1일

본서의 개요

이 책은 세월을 통한 시험을 잘 견디어 온 고전 작품이다. 그것은 창세기에서 요한 계시록 까지 성서 내면의 조화를 보이는 명작이다. 이 책은 많은 지극히 중요한 제목들에 관한 장들을 포함한다. 이를테면, 현재 정부들에 관한 하나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사약을 묵인하시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오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하고 기도는 하면서 하늘로 가기를 희망하는가?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책은 성서에서 밝혀진 독특한 시대 기간을 표시하는 점진 도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들과 다른 많은 중요한 성경 제목들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있다.

차 례

연구 1	아침에 기쁨	1
연구 2	지적인 창조자	15
연구 3	신의 계시	21
연구 4	획기적 시대들과 경륜	40
연구 5	숨겨진 비밀	48
연구 6	우리 주님의 재림	57
연구 7	사악의 묵인	76
연구 8	심판의 날	90
연구 9	속죄물과 만유의 회복	99
연구 10	별개의 본성들	114
연구 11	세 가지 길	135
연구 12	여러 시대에 관한 계획	144
연구 13	이 세상 왕국들	162
연구 14	하나님의 왕국	180
연구 15	여호와와의 날	203
연구16	끝맺는 사고	225

성서의 연구

연구 1

기쁨의 아침으로 끝날 지상의 죄악의 밤

- 눈물의 밤과 기쁨의 아침
- 진리를 찾는 두 가지 방법
- 여기에서 추적된 방법
- 이 책의 범위
- 경건한 성서공부와 위험한 추측습관의 차이
- 예언의 목적
- 두 가지 관점에서 본 현재 세계종교 상태
- 이집트의 암흑 [출 10:21-23]
- 무지개 언약 [창 9:13-17]
- 의인의 길은 점진적
- 대 배교의 원인
- 종교개혁
- 똑같은 원인이 참된 진보를 다시 훼방
- 지식의 완전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미래의 일

눈물의 밤과 기쁨의 아침

“여러 시대에 관한 신의 계획”인 이 연속연구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질서를 지키는 신의 계획안에서 질서 있는 진전을 낳으시 알린다. 단 이런 견지에서 우리는 신의 계시의 가르침들이 아름답고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믿는다.

죄악이 묵인되어 있는 기간은 인류에게 이제까지 잊지 못할 캄캄한 밤이었다. 그러나 메시아가 의의 태양으로 떠올라(말 4:2) 모든 사람 안팎에 충분히 그리고 분명히 비쳐주어, 치료와 축복을 초래하면서, 그가 안내할 의와 신의 은총의 영화스러운 날은 눈물, 한숨, 고통, 병과 죽음 속에서 오랫동안 신음하는 피조물들이 겪어온 두려운 밤을 충분히 상회하고도 남을 것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시 30:5)

모든 피조물들은 신음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마치 본능 인 것처럼 황금시대라고 부르는 그 날을 기다리고 열망하고 있다. 아직도 여호와의 인자하신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더듬어 찾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러한 시대의 가장 높은 관념은 장래에 실현될 실체 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다.

위대하신 창조자는 그의 피조물들이 깜짝 놀라고, 그들이 합리적으로 구하거나 바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넘치도록 풍성한 “기름진 요리로 연회”(사 25:6)를 준비하시는 중이다. 그 창조자는 모든 기대 이상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보고 믿기 어려워하는 피조물들에게 설명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사 55:8,9)

이 책으로 우리는 관심을 갖고 편견 없이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제시하고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 보다 더 조화를 이루며, 아름답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 일이 저자의 탁월한 지혜나 권능의 결과란 것은 단호하게 부인한다. 진실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이해할 때가 지금 도래한 “현재의 진리”(벧후 1:12)는 천년시대 날의 새벽녘에 의로운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드러내 주는 것이다.

회의론이 널리 퍼져있어 참 종교의 기초와 진리의 근거가 진실한 사람들에게까지 종종 의문시 되고 있다. 우리는 모든 믿음이 세워질 수 있는 근거인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밝혀서 그 증언의 신뢰와 확신이 불신자들에게까지도 납득이 되도록 노력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불신자들의 흥미를 돋우고, 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했다. 다음엔 바로 이 근거 위에 가능한 한 인간 판단력이 옳다고 용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서의 가르치심을 확립하려고 노력했다.

성경 말씀이 시종일관하고 조화된 계획을 드러낸다는 것이 이해가 될 때, 진실한 신앙인 모두의 마음을 틀림없이 얻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이 책은 서로 조화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도 조화하는 사고의 진로를 제안함으로써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학도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바람에서 출판되었다.

성경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의 계시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만일 성경말씀이 영감에 의한 것이라면,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그 가르침도 그 말씀 자체와 그 말씀의 저자인 신의 성품과 조화를 이루는 시종일관한 계획을 나타냄에 틀림없다는 것에 의심할 바 없이 동의할 것이다. 진리 추구자로서 우리의 목표는 완전하고 전체로 조화되는 신의 나타내신 계획을 획득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목표를 바랄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 “진리의 성령이 도래하면 여러분을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요 16:13)라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진리를 찾는 두 가지 방법

탐구자로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하나는 여러 교파들이 제안하는 모든 견해들을 조목조목 찾아서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만을 가려 취하는 방법(끓임없는 일)이다. 이 방법으로 마주칠 난관은 가령 우리의 판단이 편벽되고 꼬이거나, 우리의 편견이 어느 방향으로 기울여지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러한 난관들은 우리의 옳은 선택을 방해하여 우리가 과오를 택하고 진리를 거부할지도 모른다. 또 만일 우리가 이 방법을 채용하면 우리는 틀림없이 많은 손해를 볼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를 찾고 그 진리의 빛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는 점진적이고 완성된 날 까지 점점 빛날 것이지만(잠언 4:18) 여러 교파들의 가지각색의 신조들은 고정되어 있으며 변함이 없고 여러 세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견해가 어떠한 중요한 점들에 있어서 서로 어긋나고 있는 까닭에 대부분의 과오를 포함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이 방식은 어리둥절하고 혼동의 미로로 이끈다.

다른 방법은 모든 편견을 제거하고 다음 사항들을 기억하는 것이다: (1) 아무도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계획 이상은 알 수 없다. (2)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주신다. (3) 열심히 그리고 진실하게 지도와 교훈을 찾는 사람들만이 여러 가지 주께서 주시는 도움을 이용함으로써 이해할 때가 올 때 위대하신 저자의 지도로 그것을 이해하게 하신다.(엡 4:11-16)

여기에서 추적된 방법

이런 연구자들 부류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 책을 고안했다. 이 책의 참고 문들은 성서에 있는 예언의 성취를 증명하기 위해서 세속역사가 인용되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서만이 인용되었다는 것을 독자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현대 신학자들의 증언에는 무게를 두지 않고, 소위 초기교부들의 증언은 생략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제시한 견해에 동의함을 표명했으나, 우리가 믿기에 공통결점은 사람들이 현재뿐이 아니라, 언제나 어떠한 교리를 믿는 이유는 그들이 신용하는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과급하는 과오의 원인임이 분명하다는 것은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과오를 믿고 그들의 양심을 따라 가르쳤다는 것이다.(행 26:9)

진리의 추구자들은 모름지기 그들의 그릇에 담겨있는 전통적 과오인 흙탕물을 쏟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가득 채워야한다. 진리 추구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샘으로 인도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종교적 가르침에 중요성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 책의 범위

전 성서와 그 가르침을 대체적으로 급히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이 책은 너무 빈곤하다. 그러나 분주한 현대생활을 유의하여 우리는 주제의 중점이 소홀히 되지 않는 한 짧게 다루려고 노력했다.

경건한 성서공부와 위험한 추측습관의 차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에게 우리가 제안하고자 함은 내 비친 계획의 권능과 조화와 여기에 제안된 성서적 확증들을 단지 이 책을 곁핥기식으로 읽음으로서 납득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헛된 일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어느 학문이나 그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면밀하고 조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신의 계시도 이해하려면 면밀하고 조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책은 하나님께서 밝히신 진리들의 상설 일뿐이 아니라, 우리가 알기로는 이 진리의 검토가 어느 다른 책이 다루는 것과는 견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중으로 더 면밀하고 조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는 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소홀히 여기는 많은 제목들-그중에서도 특히 주님의 재림과 신구약성서에 있는 예언과 상징들-을 논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성서 가르침의 아주 현저한 견해를 제외하거나 생략하는 따위의 신학학설은 아무 것이나 제출되거나 인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에는 상식이 인정할 수 있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들로 미루어 예언과 다른 성경말씀을 진실히, 착실히 그리고 경건히 하는 공부와 신의 예언에 응용하게 될 때, 엉뚱한 학설과 막연한 공상을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너무 흔한 관습에 따른 조잡한 억측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위험한 습관에 빠지는 사람들은 대개 예언의 연구자가 되기보다는 예언자가 된다.

예언의 목적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목적을 연구하는 것처럼 숭고하며 숭고하게 만들어주는 일은 없다. -“이런 일들은 천사들도 자세히 살펴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벧전 1:12) 하나님의 지혜가 현재와 과거의 선언뿐이 아니라, 앞날에 있을 예언을 주신 사실 자체가 마태복음 5장이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데 충분하다고 말하며, 그들이 모르는 것을 핑계하고 성경 연구를 소홀히 하는 하나님의 어떤 자녀들의 어리석음을 경고하시는 여호와와 책망이다. 우리는 또, 예언이 단지 앞날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만 상상해서도 안 될 것이다.

예언의 목적은 명백히 하나님께 헌신한 자녀에게 아버지의 계획을 알게 함으로서 바로 그 계획에 흥미와 동감을 갖게 하고, 오늘과 앞날의 일을 하나님의 견지에서 고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주님의 일에 흥미가 있게 되면 단지 종복이 아니라, 자녀와 상속자로서 마음뿐이 아니라, 이해에서 우리나눔 봉사를 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미래가 어떤 것일지를 알게 하면 현재의 상태가 끼치는 영향을 상쇄 할 것이다. 주의 깊은 연구의 결과는 믿음을 강하게 하고 경건하게 되도록 북돋우지 않을 수 없다.

두 가지 관점에서 본 현재 세계종교 상태

죄악과 그 죄악의 영향에서 이 세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이름뿐인 교회가 현재의 상태(육신상태)에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임무를 가졌다는 틀린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거의 19세기에 걸쳐 복음을 전도해 온 후 오늘의 세상 상태는 잘못된 정보를 받고 있는 사려 깊은 사람들 마음속에까지 심각한 의심들을 일으킬 정도이다. 이런 의심들은 진리 이외에는 무엇으로도 쉽사리 극복되지 않는다.

실은 생각이 깊은 관찰자 모두에게는 둘 중에 하나가 명백하여 질 것이 틀림없다. 교회가 현재의 상태(육신상태)에서 교회의 직책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전향시키는 것이라고 상상하는 점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비참한 실패를 했다는 것이다. 어느 쪽의 궁지를 우리가 믿을까? 둘째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의심 할 바 없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불신앙의 견해가 은밀히 그리고 공공연히 커져간다. 이 둘째 것을 믿는 사람들을 도우려는 것이 이 책의 목적들 중에 하나이다.

페이지 6에 도표는 “런던 전도협회”가 발행한 것을 나중에 미국에서 “여성 장로 교회 전도회”가 다시 발간한 것이다. 그것은 “외방 전도 직무를 무언의 호소”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사람들 가운데 주신 이름들 중 우리가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이 하늘 아래 없는” 유일한 이름에(행 4:12)무지함의 슬픈 이야기를 하고 있다.

파수꾼 - 시카고의 “Y.M.C.A.” 일간신문에 이와 똑같은 도표를 게재하고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세계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 어떤 사람들의 개념은 매우 어렴풋하고 분명치 않다. 우리는 국내에서나 해외의 여러 곳에서 새로운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복음을 받아드리고, 큰 금액을 이 복음 전도에 바치고 있다는 훌륭한 부흥회의 소식을 듣고 있으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현재 통계적으로 예측한 세계 인구는 14억 2천 4백만이라고 하는데 이 도표를 보면 인류의 태반 -3분의 2 에 가까운 수 -이 **완전히 미개인**들이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모하메트 교도 아니면 큰 배교 교인들로서 그들의 종교는 거의 기독교화 된 우상숭배나 다름없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거나 가르친다고 거의 말할 수 없는 정도이다.

1억 1천 6백만의 이름뿐인 신교에 관해서도 독일, 영국, 미국에 있는 대부분이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미개인의 암흑 보다 더 짙은 암흑-에 빠져들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신적 관습을 통해 영적 눈이 멀어지고 극도의 무지함에 깊이 묻혀 있는지를 알아야한다. 그래서 8백만 유대인들은 아직도 나사렛 예수를 거부하고 있으며, 3억 이상의 주님의 이름을 지닌 교인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변절했는데, 1억 7천만 이상이 모하메트 앞에 굴복하고, 인류의 방대한 나머지는 아직도 나무와 돌, 조상들, 죽은 영웅들이나 마귀 자체를 숭배한다. 모두가 어떻게든 해서 영원한 은총이신 만유의 하나님, 창조자 대신에 피조물들을 숭배하고 섬기고 있다. 여기 이러한 사실들이 사려 깊은 교인들의 마음을 슬프게 할 만큼 충분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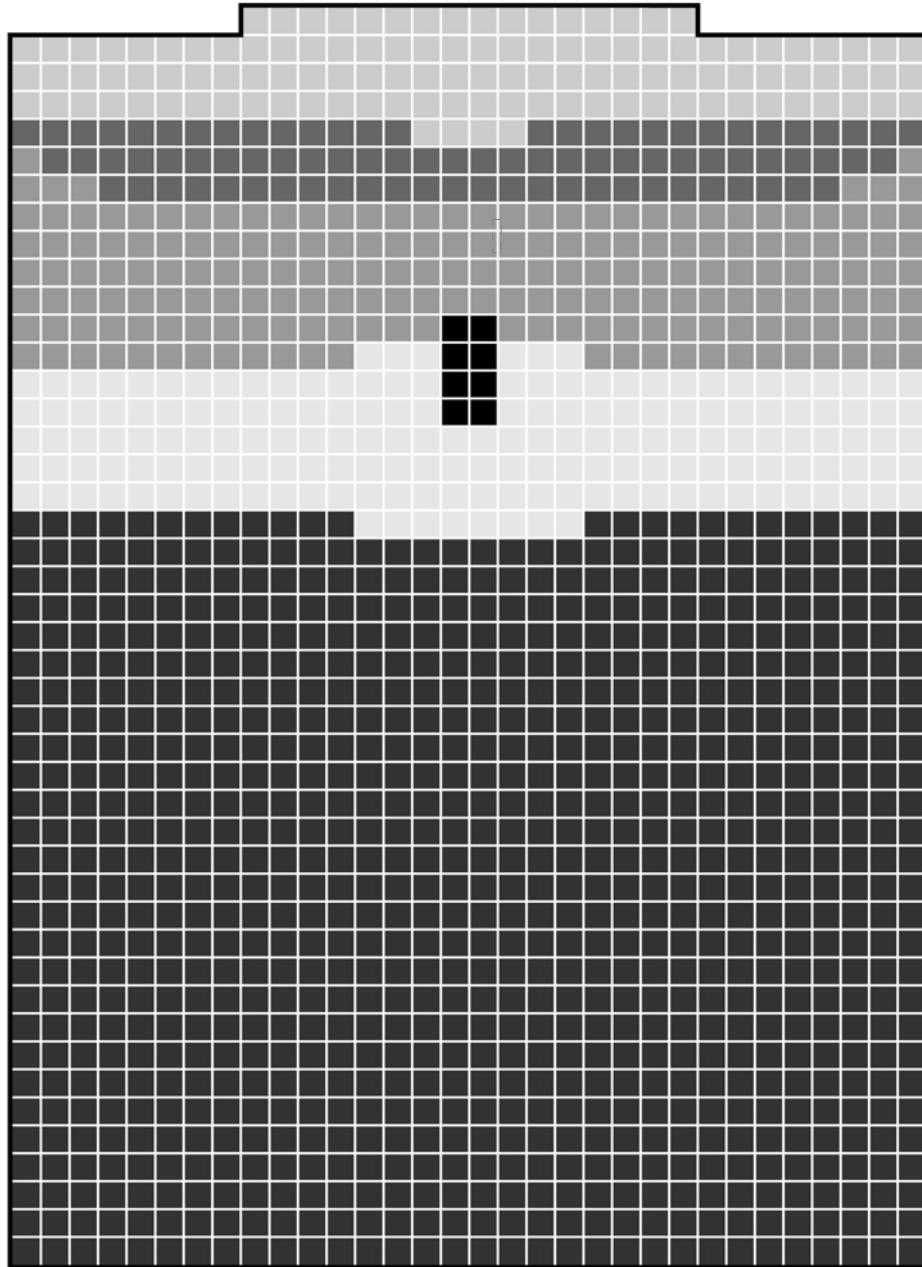
이것은 참으로 슬픈 상황이다. 이 도표는 미개인들, 모하메트 교인들, 및 유대인들 수와 서로의 비례를 의미하지만 전부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너무 작 다고 어떤 사람은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 반대이다. 이 도표는 이름뿐인 기독교를 가장 낙관적 상태로 보여준다고 본다.

예를 들면 1억 1천 6백만이 프로테스탄트라고 발표 된 것은 실제 보다 훨씬 초과하는 숫자이다. 우리가 믿는 바로 1천 6백만이 **성인층**이라고 자칭하는 교인들의 숫자라고 하는 것이 더 가까운 표시일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육체가 아니라, 영을 따라 행하는”(고전 1:2, 롬 8:4) 1백만이 “적은 무리”(눅 12:32)라고 해도 훨씬 지나친 견적이 아닐까 두렵다. 마음에 새겨둘 것은 교인들 수를 세는데 항상 대부분이 어린 아이들과 유아들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특히 유럽에서는 이것이 사실이다. 많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가장 어릴 때부터 교회인들 수에 넣는다.

그러나 암담한 사태를 이 도표가 보여주고 있지만 타락한 인간성이 증거 하는 것에 비하면 나은 셈이다. 위의 도표는 단지 현 세대의 인구만을 표시한 것이다. 우리가 그 밖의 지나간 6천년 동안 거의 대부분이 같은 무지함과 죄악에 쌓인 막대한 수의 대중이 매 세기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어 간 사실을 다 고려한다면 사태는 이보다 더 암담할 것이다!

도표

종교에 따라 분류된
인류의 실제와 상대적 수를 표시



미개인들	이슬람교도	유대인들	로마 구교인들	그리스 구교인들	신교인들
8억 5천	1 억 7천	8백만	1억 9천	8천 4백	1억 1천
6백만	만		만	만	6백만

이집트의 암흑 [출 10:21-23]

오늘날 여러 가지 신조들이 가르치기를 “사람들 가운데 주신 이름들 중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이 하늘 아래 없는” 유일한 이름(행 4:12)을 모르고 있는 수십억의 인류가 영구한 고통으로 향하는 지름길에 서 있다. 그 뿐이 아니라, 비단 1억 1천 6백만의 프로테스탄트 교인들도 아주 소수의 성인들을 제외하고는 마찬가지로 운명에 처해 있다. 그렇다면 이런 두려운 일들이 신의 계획이요 목적이란 믿는 사람들이 전도 사업을 진척시키는데 열성적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런 두려운 일로 격앙하지 않는 것이다. 참으로 그렇다고 믿고 그런 결론을 인정한다는 것은 삶에서 모든 기쁨을 빼앗을 것이며 모든 찬란한 인간성을 어둠 속에 가릴 것이다.

우리가 미개인들의 운명의 문제에 관한 “전통적인 관행”의 내용을 잘못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 도표를 만든 “해외 전도 사업에 관한 무언의 간원”이란 팸플릿을 인용한다.

“하루에 10만 명의 비율로 그리스도가 없는 낙심 속에 죽어 가는 10억의 인구인 해외의 막대한 세대들에게 전도하라.”는 것으로 문장을 끝내었다.

무지개 언약 (창 9:13-17)

그러나 이것은 인간 신념의 견해에서 보는 암담한 전망이긴 하나 성서는 더 빛나는 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지적하려고 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비춤을 받은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계획이 도대체 이런 실패로 끝나거나 실패로 끝나게 예정되었다고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난처한 자녀들이 선지자 이사야의 바로 이러한 흑암의 사태와 치유에 관한 예언을 알게 되면 위안이 될 것이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고, 흑암이 나라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네 위에서 여호와가 빛나고, 네 위에서 그의 영광이 보일 것이다. 그러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방인들)이 정녕 너의 빛으로 올 것이다.”(사 60:2,3) 이 예언에서, 무지개 언약(창 9:13)이 엄청난 암흑(무지함)을 밝혀준다. “여러 나라 사람들(일반적으로 지상 국민들)이 정녕 너의 빛으로 올 것이다.”

지속되는 고생과 세상의 어두움, 그리고 더디진 진리의 진척이 교회에게 수수께끼가 되었을 뿐이 아니라, 세상 자체는 그 사태를 깨닫고 감지했다. 이 어두움은 마치 이집트 땅을 덮었던 흑암(출 10:21)과 마찬가지로, 감지할 수 있는 어두움이 현재까지 있었다. 이 증거로서 필라델피아(Philadelphia) 일간신문에 났던 다음 글귀의 정신을 주시해 보기 바란다. 여러 가지 신념의 모순되는 신조로 악화된 의심과 암담함이 하나님 말씀에서 직접 오는 신의 진리의 빛으로도 작가의 마음에서 아직 없애버리지 못했다.

“생명!” 큰 신비!

유력하신 솜씨로 만드신 이 빈약한 진흙,
하나님께서 무슨 필요가 있으실 까고 누가 말할까?
마음, 물질, 정신, 완강한 의지
죽기 위하여 낳은. 틀림없는 운명(죽음).
그럼 어디로, 오오! 어디로 숨이 날아갈까?

살다죽고 오랜 고생을 겪은 셀 수 없는 무리 중
단 하나도 거대한 계획 -당신과 나의 것, 그 미래 -
을 알려주려고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 길을 지도해주는 새 빛을 간청합니다.
믿음으로가 아니고 더 밝은 시각으로
밤의 어두운 구름들을 쫓아 버리도록
이 의심, 이 불안, 이 떨리는 무서움,
이곳에서 우리의 축복을 망치는 생각.

이 미심쩍은 마음은 헛갈리게 하는
무조화의 교파들과 학교들이 그들의 권한으로
이성을 속박하려고 가르치는 당시의 교리를
더 대담한 권한으로 거부한다.

우리는 당신을 당신이심인 대로 알고 애 씁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자리
다음엔 우리가 이 거대한 계획에 참여 할 역할,
무한하신 창조자와 인간.

우리의 시각을 흐리게 하는 베일을 걷어 주시고
다시 한번 명하시기 원합니다. “빛이 있어라”
당신의 왕권의 비밀을 알려 주시기를,
우리는 어둠 속에서 미지의 것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는 답변한다.-

드러난 생의 신비는 이윽고 말하리라
하나님은 이 빈약한 진흙에 어떠한 즐거움을
가지시는지,
유력하신 숨씨로 만드신 진흙,
당신의 형상대로 새겨지고-마음과 의지,
죽기 위해서 낳는 것이 아니고-그것이 아니라, 두 번째 탄생
죄의 선고를 패배시키고-“세상에서 세상으로”
왜냐하면
살다죽고, 최대한 고생을 겪었던 셀 수 없는
무리 중 한 분이 죽음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당신과 나의 것, 그 미래-
을 증명하셨기 때문이다.

그의 말씀이 우리 길을 안내해주는 새 빛을 밝혀 주신다.
지금은 믿음에 근거하나 시각으로도 **확실히**,
밤의 어둠 구름들 -그 의심, 그 불안, 그 떨리는 무서움,
우리의 축복을 망친 생각을 쫓아 버리신다.

주님이시여 헛갈리게 하는 교파들과 학교들이
그들의 권한으로 이성을 속박하려고 가르치는

당시의 교리를 더 대담한 권한으로
거부하는 이 마음들이 지금 곧 구합니다.
당신을 당신이심인 대로 구하고 알 수 있도록.
당신과 함께 있을 우리자리
다음엔 우리가 이 거대한 계획에 참여 할
무한하신 창조자와 인간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들에게는
베일이 걷혀 만세로부터 감춰진
영광스러운 왕좌의 비밀을 완전히 나타내어
지금 알려주시고 계시다.

신의 목적의 드러남과 신의 말씀이 감춰져 있다가 밝혀짐으로 이런 축복이 이제 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 그 축복과 숨긴 것을 드러내는데 이 책이 한 몫을 차지한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한다.

의인의 길은 점진적

인간의 단순한 추측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너라, 우리가 우리사이에 문제를 바로 잡자.”(사 1:18)라고 하신 말씀을 이용하라고 우리를 청하심을 무시하지 않고, 성서를 연구하는데 시간을 바치는 사람은 축복된 무지개 언약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발견 할 것이다. 사람들이 믿음 없이,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되지 않고 진리를 똑똑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진리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시편의 작가가 말하기를, “의로운 자를 위하여 빛(진리)이 번쩍인다.”(시 97:11)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는 그 빛이 암흑의 태반을 그의 길에서 쫓아버리게 하는 등불을 주신다. “당신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시 119:105) 그러나 그 빛은 단지 “의로운 자들의 길”만이 “밝은 빛과 같으니, 완성된 날 까지 점점 빛날 것이다.”(잠 4:18) 실제로는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의로운 사람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롬 3:10) 여기서는 말하는 부류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된”(롬 3:28, 5:1) 계급이다. 그러므로 “점점 빛나는” 길로 걷는 것은 이 계급만이 갖는 특권이며, 오늘날 밝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뿐이 아니라, 앞으로 올 일도 깨닫기 위해서이다. 모든 믿는 사람 각각의 길이 빛난다는 것이 진실이지만 이 진술의 특별한 적용은 한 계급으로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된” 의로운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과거와 현재의 이스라엘 조상들, 예언자들, 사도들, 성도들은 점점 밝아지는 빛 가운데서 걸었다. 그리고 이 빛은 현재 그 이상으로 “완성된 날까지” 계속 밝아 질 것이다. 믿음의 길은 그치지 않는 한 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치지 않고 밝아지는 한 빛은 이해할 때가 다가오는 정도에 맞게 밝혀주시는 기록된 신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 언약이 달성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 너희 의로운 자들아,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라.”(시 97:12)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이 약해서 더 밝은 빛을 기대하지 않고 있고, 또 그들의 불성실과 무관심 때문에 그들을 어두움 속에 남아 있게 내버려두셨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밝아지는 빛 가운데서 걸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

셨을 것이다.

교회를 모든 진리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성령이 기록된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다.(요 16:13) 그러나 우리는 기록된 것 밖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서는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딤후 3:15),

아직도 “어두움이 땅을 덮고, 흑암이 나라들을 덮을 것이다.”(사 60:2)라고 하신 말씀이 진실이지만, 이 세상이 언제나 이 처지에 남아있지 않는다. “아침이 올 것이요”(사 21:12)란 말씀이 우리를 확신시킨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연의 태양을 악한 사람들에게나 선한 사람들에게 비취게 하시는(마 5:45)것같이, 천 년 시대에 온 세상이 이익 되게 의로운 태양을(말 4:2) 비취게 하셔서, “그가 어둠에 음밀한 것들을 밝히실 것이다.”(고전 4:5) 의로운 태양이 불쾌한 악을 일소하시고 생명을 주시며 건강, 평화, 기쁨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가 과거를 들여다보면 빛이 비치었지만 희미하였다는 것을 발견한다. 과거 여러 시대에 관한 언약들이 희미하고 불분명하였다. 아브라함과 다른 이들에게 세우신 약속, 그리고 육적 이스라엘 율법과 규례 가운데 전형적으로 표시된 약속들은 단지 그림자들이었고, 하나님의 기묘하고 은혜로운 구원계획의 희미한 개념만을 주었다. 예수님의 때가 이르자 이 빛이 밝아진다.

그 당시까지, 기대의 절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원수들에게서 구하실 구세주를 모셔오고, 이스라엘을 땅에서 택한 나라로 높이셔서, 권세와 권능의 위치에서 땅의 모든 가족을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의 대리로서 그들을 이용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권을 받는 제안에서 요구하시는 조건들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매우 다르고, 약속하신 고귀함을 도대체 얻을 수 있는 선정되고 있는 계급의 전망이 외견상으로 보거나 인간의 판단으로는 너무 참말 같지 않아, 소수를 빼고는 모두 약속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이 전갈(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권을 받게 되는 제안)을 믿음을 행사함으로서 충실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 그에게 주신 약속의 상속자로 간주될 하늘 아래 만민에게 퍼뜨리기에 적절하며, 약속하신 하나님의 왕국에서 같이 나누는 기회로 그들을 초대하기에 적절한 기약이 이르렀을 때, 전갈에 대한 그들의 무지와 반감은 자연히 증대되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이 오순절 후에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을 때, 교회가 알게 된 것은 세상을 위한 복들은 지속되는 성질이 있다는 것과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영적일 것이라는 것과 영적 왕국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가운데서 영적 본성과 권능으로 높이기 위하여 선택한 “적은 무리”(눅 12:32)인 참 이스라엘 사람들로 구성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좋은 소식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에 빛을 비추셨습니다.”(딤후 1:10)라고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 시대 이후 예수님이 그릴 것이라고 예고하신 대로, 빛이 아직 더 밝게 빛나고 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말할 것이 아직도 많으나 지금은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 그가 도래하면 여러분을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할 것이며.....다가오는 일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것입니다.”(요 16:12,13)

대 배교의 원인

그렇지만 사도들이 죽어 잠든 후, 교회 대다수가 등불을 무시하고, 인간교사의 지도를 기대하기 시작 한 때가 왔다. 그리고 교사들은 자만심을 일으키고, 칭호를 취하고, 지위에 취임하고, 하나님의 상속 재산인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는 점차 “성직자”라고 부르는 특별한 등급이 생겼다. 그 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믿음과 실행으로 인도하는 지당한 지도자들로 스스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 역시 그들을 그렇게 여겼다.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오류를 범하기 쉬운 인간의 가르침을 지나치게 존중함으로서, 머지않아 대 교황제도가 진전되었다.

종교개혁

진리를 무시함이 가져온 결과는 진실로 심각한 지경에 다다르게 되었다.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교회와 문명세계는 둘 다 거의 완전히 그 제도의 노예가 되었고, 인간의 전통과 신조를 숭배하도록 이끌렸다. 이런 노예상황에서 자유와 성경을 위하여 대담하고 복 된 항변을 했는데, 이것이 이미 알고 있는 종교개혁 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위해서, 대담한 투사들을 세우셨는데, 그들 중에는 Luther, Zwingli, Melancthon, Wycliffe, Knox,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교황제도가 성경을 제치고 교회의 신조와 교리를 대용하였다는 사실에 주의를 끌었고, 그들의 가르침들이 진리에 반하여 전통에 의거하였다는 것과 하나님 말씀과 상치되었다는 것을 밝히면서, 잘못된 몇몇 가르침들과 실행들을 지적하였다. 이 개혁자들과 신봉자들이 교황제도를 항변(protest)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믿음과 실행의 옳은 권세라고 단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신교도들(Protestants)이라고 불렀다. 종교개혁 시대에 믿음이 있는 많은 각 개인이 그 당시에 비친 빛 안에서 행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프로테스탄트가 조금밖에 진보를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튼 소리를 쫓는(딤후 4:3,4)것을 기꺼이 여기고, 그 이상에는 눈을 감고 더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진리 -그것도 “모 교회”에서 가지고 온 과오-를 에워싸고서 진리에 대한 그들의 진보를 제한했다. 대다수의 교인들은 이처럼 여러 해 전에 형성된 신조들에 대해 미신적 숭배를 갖고 있으며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에 겨우 납득하였든 하나님의 계획밖에는 오늘날 더 이해할 수 없다고 상상한다.

똑같은 원인이 참된 진보를 다시 훼방

이 과오는 타격이 큰 과오였다. 왜냐하면 오직 극히 소수의 진리의 원칙들만이 종교개혁 당시에 과오에서 되찾은 사실 외에, 항상 밝혀질 예정 시기가 되고 있는 진리의 특수한 단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기독교인들은 신조의 장벽 때문에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례로, 노아 홍수가 올 것이다라는 예고는 노아 시대의 하나의 진리였고, 그 당시에 빛 가운데 걷고 있는 모든 사람의 믿음을 요구했던 진리였다. 그런데 아담과 다른 사람들은 홍수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누가 홍수가 오리라고 예언하는 것은 오늘날에 해당하는 진리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항상 밝혀질 예정 시기가 되는 다른 경륜의 진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등불 가운데 걷고 있다면 각 시기에 맞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백 년 전에 알맞았던 빛을 전부 다 가졌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우리는 뚜렷이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믿음의 길에 나선 갈망하는 순례자들에게는 굉장한 영의 양식의 공간이다. 갓난아기들을 위한 젖이 있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에 속한 것이다.(벧전 2:2, 히 5:14).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시기와 필요조건에 순응하는 양식을 포함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충실한 종은 믿음으로 식구가 된 사람들을 위하여 **적절한 때의** 양식을 -“새것과 옛것”을- 공간에서 꺼내 와야 한다고 하셨다.(눅 12:42, 마 13:52) 이러한 양식들을 종파적인 신조나 그들의 공간에서 꺼내 오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다. 우리가 “옛것”과 이로운 것들을 얼마큼은 종파적인 신조와 그들의 공간에서 내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새것”은 전혀 없을 것이다.

여러 종교 교파들의 여러 교리들에 내포된 진리는 과오로 덮이고 섞여져서 고유의 미와 진가의 유용성이 식별되지 않는다. 여러 교리들은 항상 모순되고 불일치하다. 그리고 제각기 성경기준이라고 주장하는 까닭에, 사고의 혼동과 뚜렷한 불일치는 하나님 말씀의 증거로 돌린다. 이것이 일반의 속담을 낳게 했다. “성경은 어느 곡조로도 연주할 수 있는 넓은 바이올린이다.”

이 속담은 우리시대의 불신앙을 얼마나 완벽히 표현하고 있는가! 그것은 사람의 관습에 하나님 말씀과 성품의 그릇된 설명과 아울러 다시는 같은 인간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미신적 숭배를 하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요구할 발달하는 지성에서 시작되었다.

충실한 성경학도는 항상 자기 속에 있는 희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항상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만이 “지혜롭게 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사물을 바르게 잡고 의로 징계하는데 유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유능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완전히 갖추게 해 줍니다.**”(벧전 3:15, 딤후 3:15-17) 오직 이 공간만이 믿음으로 식구가 된 사람들을 위하여 적절한 때에 맞는 양식인 새것과 옛것의 공급을 무진장으로 담고 있다.(마 13:52, 24:45) 틀림없이 누구나 “의로운 자들의 길은 밝은 빛과 같으니, 완성된 날까지 점점 빛날 것이다.”(잠 4:18)라는 성서의 구절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 원만한 날이 루터(Luther)때 왔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날이 새고 새벽이 떠오르기까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으로서 우리의 등불에 유의하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벧후 1:19)

우리가 지금 빛의 길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 자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빛 가운데서 걸어**” 계속 진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멈추지 않는 빛이 지나가서 우리를 어둠가운데 남겨둘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서 곤란은 그들이 앉아 있지만 하고 빛의 길을 계속 쫓아가지 않는다. 용어 색인에서 **앉다**와 **서다**라는 용어들 밑에 있는 본문들을 검토하고, 다음에는 그 본문들과 **걷다**와 **뛰다**라는 용어들 밑에 있는 본문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큰 대조를 발견할 것이다. (인간이) “어둠 속에 **앉다**”는 “오만 한 자”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다**”와 결부 되어있는 것을 발견 할 것이고, “빛 가운데 **걷다**”는 “상을 위하여 **뛰다**”와 결부 되어있는 것을 발견 할 것이다.(사 42:7, 시 1:1, 히 12:1, 빌 3:14)

지식의 완전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미래의 일

지식의 완벽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매우 가까운 미래의 일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하기 전에는 새로 전개하는 아버지의 계획을 이해하고 기대 하도록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사실 우리는 아직 현재와 미래의 모든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씀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들이 언제나 우리들 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더 잘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계획에 관계있는 진리를 지정된 때의 기한이 차는 대로 빨리 기독교 시대를 통하여 모든 교회와 **우리에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변자들로써 사용하셨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사도들이 적지 않게 증명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신성한 비밀이 지정된 때의 기한이 차기까지 깨달을 수 없는 비유로 기록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오직 기독교 시대의 믿는 자들만을 위해서 계획된 **“위로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의 마음속에 예정하시고, 전에는 알게 해 본적이 없던 그의 뜻의 신비를 기독교 교회에게 알리셨다.(엡 1:9,10,17,18, 3:4-6, 빌 3:14)

이 사실은 분명히 선지자들이나 천사들이 전달한 예언들의 뜻을 그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들이 예언의 뜻을 천사들도 갈망하여 살펴보기를 원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밝히어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예언들 속에 감추어진 진리들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기독교 시대의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 그리고 베드로는 교회에게 아직 더 이상의 은총(은혜, 복)과 하나님의 계획의 더욱 많은 지식을 원하라고 권하였다.(벧전 1:10-13)

예수께서 교회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 하셨지만, 점진적으로 진전되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사도들의 생애에 교회에는 교황제도 밑에서 그리고 그 속에서 발생된 많은 과오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초기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날 이해할 수 있는 만큼 깊이 그리고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으리라고 상상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도들의 글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감동으로 된 것이고 선지자들의 예언만큼 참되지만, 사도들 각기 하나님의 계획을 통찰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도 분명하다. 지식의 차이를 실례로 들기 위해서는 처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하였을 때 바울을 제외하고는,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이 한 때 주저하는 과정만을 우리가 기억하면 된다.(행 10:28, 11:1-3, 갈 2:11-14) 베드로의 불확실은 바울이 선지자들의 말과 하나님의 과거의 처사들과 직접 자신에게 보여주신 계시들로 영감을 받은 그의 확신과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다.

바울은 분명히 어느 제자보다 더 많은 계시들을 받았다. 이 받은 계시들을 그는 교회에 알리거나, 다른 제자들에게까지도 완전하게 그리고 명백하게 알리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고후 12:4, 갈 2:2). 그러나 우리는 온 교회에게 주는 취지를 바울에게 준 환상들과 계시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바울이 자기가 본 것을 입 밖에 내거나, 또 “이제 올 시대”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비밀들을 그가 아는 것을 모두 상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가 본 것들이 의미의 충격, 미세한 구별 짓기, 깊이를 그의 말에 가했기 때문에 그 후에 일어난 사실들과 성취된 예언들과 성령의 인도로 미루어 우리는 초기 교회들이 이해할 수 있던 것 보다 더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전술의 확인으로 서력 96년에 기록된 성경의 맨 마지막 책(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상기한다. 그 머리말에, 이 계시록이 전에 이해되지 못했던 사정의 특별계시라고 알

렸다. 이 말은 적어도 그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한다.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이 책의 이름(전개, 계시)이 의미하는 만큼 전부가 밝혀져 본 적이 없다. 초기교회에 관해서는 계시록의 어느 부분이든지 아마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묵시를 본 요한조차도 아마 그가 본 것들의 의미를 몰랐을 것이다. 그는 예언자인 동시에 사도였다. 사도로서는 그는 그 당시에 “적절한 때의 양식”을 이해하고 가르쳤지만, 선지자로서 그는 믿음으로 식구가 된 사람들을 위하여 미래에 맞는 “양식”이 될 사정을 말하였다.

기독교 시대 간에 어떤 성도들은 이 상징적인 책을 신중히 고려함으로서 교회의 미래를 이해하려고 하였다. 다만 부분이라도 읽고 이해한 사람은 의심 없이 누구나 약속된 대로 복이 되었다.(계 1:3)

그 계시록은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퍼졌고, 종교개혁 때에는 교황제도가 사도 바울이 언급한 대로 참으로 “적그리스도”라고 판정함에 있어서 교황제도의 성실한 성직자였던 루터(Luther)에게 중요한 도움이 되었다. 그 계시록의 매우 큰 부분이 거짓 그리스도의 역사로 채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서서히 그의 진리를 밝히시고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신다.(엡 2:7) 따라서 이전의 교회역사의 어느 시대 보다 훨씬 더 밝은 빛(진리)을 밝힐 때가 지금이다.

“그래서 여전히 새로운 미를 우리는 볼 것이다.
여전히 밝아지는 빛을”

연구 2

지상으로 지적인 창조자의 존재의 확립

- 성서를 떠나서 본 증거를 이성으로 검토
- 지지할 수 없는 이론
- 이치에 맞는 이론
-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냄
- 이치에 맞는 추론

성서를 떠나서 본 증거를 이성으로 검토

다만 회의론자들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치에 맞고 공평한 조사를 하면 편견 없고 지능 있는 사람을 진리의 길로 인도한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의 직접게시가 없이는 인간은 진리를 오직 추정하고, 불명료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선 성경을 떠나서 이성만의 관점에서 사항들을 살펴보자.

망원경이나 육안으로 하늘을 주시하고 창조의 광대함, 그것의 균형, 아름다움, 질서, 조화와 다양성이 있음을 깨달은 사람이 아직도 이들의 창조자가 지혜와 권능에 있어서 그의 광대하게 우월하신 존재임을 의심하거나, 그러한 질서가 창조자 없이 우연히 생겼을 것으로 잠시나마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이 그런 자를 일컬어 이성을 무시하거나 이성이 결핍된 어리석은 자로 당연하게 간주하듯이, 그는 지금까지 판단력을 잃거나 무시해 왔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없다’고 말한다.”(시 14:1, 53:1) 이런 질서들은 유능한 원인들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스스로 명백한 진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질서가 일어났든, 모든 이성적인 생각이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함과 같이, 적어도 그만큼 성경은 진실하다. 한 그루의 나무와 한 송이의 꽃까지도 이 제목에 대해 충분히 증언을 표출한다. 복잡한 구조, 절묘하게 아름다운 모양과 짜임새하며 각기 인간보다 높은 지혜와 솜씨를 표현한다.

인간의 기술과 재간을 자랑하고 자연의 질서, 획일, 조화를 단순히 우연으로 돌리는 것과 한편으로는 지적인 입법자가 자연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면서 자연 법칙은 인정하는 것은 얼마나 선견지명이 없는 불합리함인지 모른다.

지적인 창조자를 부정하는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자연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며, 자연에서 모든 형태의 동물들과 식물들의 진화가 지적 존재의 지휘 없이 진화과정 중에 “적자생존”으로 지배되어 진행된다고 한다.

이 이론은 증거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주위에 여러 가지의 피조물들은 고정된 본질의 것들이고, 더 높은 본질들로 진화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이고, 이 이론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풀이하여 실험을 해 왔지만 그들은 한 번도 성공적으로 다른 종들을 혼합하거나 새로 고정된 다양한 품종을 만들어

내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한 종류의 피조물이 딴 종류로 변형한 실례가 없다.■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들이 지느러미를 잠깐 날개와 같이 사용하여 물 안에서 밖으로 날을 수 있고, 개구리들이 개굴개굴 울 수는 있으나, 그들이 새들로 변형되었다는 것은 결단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리고 짐승들 중에 원숭이들은 사람과 약간 비슷한 면도가 있지만 사람이 이런 동물에서 진화되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이에 반하여 같은 종에 속하는 다른 품종들은 만들어질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양한 종들을 혼합시키거나, 한 종류가 다른 종에서 진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연구들은 증명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당나귀와 말이 서로 닮았더라도 관계가 있다고는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말과 당나귀에서 태어난 잡종은 불완전하고 그 어느 쪽으로든 번식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지할 수 없는 이론

지성이 없이는 아무것도 고정된 상태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므로, 물론 만일 지성이 없는 자연이 창조자이거나 진화시키는 자라면 자연이 진화과정을 계속 할 것이고, 고정된 종(species)들 같은 그런 것 따위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진화가 현재 실제로 나타날 것이고 주위에서 물고기가 새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것이다. 지성이 없는 권능이 지성을 갖춘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는 이론은 성경에는 물론, 인간 이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결론을 짓는다.

인간 창조를 제외한 진화과정에서 이루어진 창조에 관한 한 가지 이론에 우리는 심각한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간략히 진술 한다: 이 이론은 본질과 종(species)에 관한 한 현재의 가지각색의 종들이 고정 되어있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과 현재의 본질들의 표준이 훨씬 높고, 완전해 이르기까지 발달할 수는 있지만 이 종들이나 본질들은 언제까지나 같을 것임을 가정한다.

이 이론은 더 나아가서 이 고정된 종들은 어떤 것이나 최초부터 그렇게 창조된 것이 아니고 까마득한 옛날에 흙에서 진화되었고, 한 가지 형태에서 또 다른 형태로 점진적인 과정을 밟아서 진화되었다는 것을 가정한다. 음식의 변화나 기후의 변화들이 진화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이 진화들은 신께서 제정하신 법 아래에서, 현재 우리가 보는 고정된 종들이 확립될 때까지 계속 해왔을 것이다. 이 점에서 어느 모로 보나 창조자의 궁극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동식물들의 여러 가지 과가 각각 진보한다거나 퇴화할 수는 있지만, 어떤 동식물들이든지 다른 과(families)나 다른 종(kinds)으로 변화된다거나 그와 반대로 다른 과나 다른 종에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떤 과든 그 고정된 본질자체의 완전해 달할 수는 있어도 본질에 관해서 창조자의 의도가 달성되고 나서는 다시는 이런 점에서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이치에 맞는 이론

현재의 고정된 품종(varieties)들의 유래인 최초의 동식물들이 인간 창조 이전에

■ 독자들을 위하여 말하는 것은 변형들, 이를테면 풀썩이가 나비로 변형하는 것은 본질의 변형이 되는 것이 아니다. 풀썩이는 단지 애벌레가 나비의 알에서까진 것이다.

사멸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땅속의 깊은데서 발견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동식물들의 해골들과 화석들은 이 이론을 뒷받침한다. 이 견해는 창조주께서 인간을 그의 지적, 도덕적 형상으로 직접, 완전하게 만드신 것이며 나머지(사람 이외)의 창조 과정에서 필시 일반적인 진화과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거나 배척하지 않는다. 이 견해는 지적인 존재이신, 신이 자연을 정리하시고, 그 신이 자연의 첫 번째 원인이었다는 것을 현재의 상태의 자연이 가르친다는 성경의 주장을 결코 무효화하지 않고 도리어 지지 할 것이다. 그런즉, 인간 이성으로 하여금 최선을 다 하여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연 법칙을 정당히 믿으면서, 알려진 사실을 이치에 맞고 정당한 원인들로 추적토록 하자. 그러나 자연의 모든 복잡한 자연 법칙 뒤에는 위대하신 창조자이시며 지성적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성적인 창조자의 존재는 명백히 확증된 진리라는 것을 주장한다. 그 증거는 우리 주위에 흩어져 있다. 실로 우리 속에도 있다. 우리는 신의 제작품이고, 우리의 마음과 몸의 모든 능력은 이루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신의 솜씨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엡 2:10) 하나님께서는 역시 자연의 설계자이시고 창조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자연법칙과 우리가 보고 감탄하는 그의 운영의 미와 조화를 명하셨고 확립 하셨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그의 지혜가 계획하셨고, 그의 권능이 우주를 떠받치고 통치하시며 그의 지혜와 권능을 우리의 것과 견주어 볼 때,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능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예배드리고 경모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에 상응하는 자비심과 선량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실감하는 것은 다만 그의 전능하신 권능을 두려워 할 뿐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 권능, 지혜를 증명하는 똑같은 증거로 우리는 역시 충분히 확신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의 권능과 지혜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시다는 결론을 짓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뿐이 아니라, 이성으로 제일 웅대한 피조물이 창조자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결론을 짓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열등하듯이, 인간들 중에서 최대로 표현되는 자비심과 공정은 창조자의 것에 비교하여 그 범위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이 열등하다는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위대하신 창조자의 성품과 속성들을 지적인 시각으로 생생하게 그린다. 그는 지혜로우시고 공정하시며 사랑이 충만하시고 강력하시다. 그리고 그의 속성들의 범위는 당연히 그의 제일 웅대한 피조물의 범위 보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넓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 창조자의 존재와 성품에 관하여 이 이치에 맞는 결론에 달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문의해 보자: 이러한 존재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여야 할까? 이러한 속성들의 소유는 합리적으로 그 속성들이 행사되고 사용되는 것을 입증한다고 응답한다. 하나님의 권능은 그의 본성과 조화되어 지혜롭게, 공정하게, 자비롭게 사용됨에 틀림없다.

그것 때문에 수단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권능의 작용이 무엇이든 간에, 최후의 결과는 그의 본성, 성품과 틀림없이 일치하고 각 단계는 그의 무한하신 지혜로 승인됨이 틀림없다.

우주의 창조와 지구의 놀라울 만큼 다양한 품종들의 창조 가운데 명백히 표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권능의 행사보다 더 이상적인 것이 있을 수 없다. 이성과 판단력을 부여받았고, 인간의 창조자의 일을 감사할 수 있으며, 창조자의 숨씨, 즉 창조자의 지혜, 공정, 권능과 사랑의 숨씨를 감정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이러한 인간의 창조보다 더 이상적인 것이 있을 수 없다. 이 모두가 이성적이고, 모두 우리에게 알려진 사실들과 완전한 일치를 이룬다.

이치에 맞는 추론

이제 마지막 명제를 다루게 된다. 이렇게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존재인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계획을 감사할 수 있는 인간 피조물을 창조하셨으므로, 그 인간 피조물의 욕구를 충족케 하시기 위하여 그의 사랑과 공정으로 감동되셔서 **어느 정도의** 계시를 주시리라고 상상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의 목적과 그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지식을 인간에게 주실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을까? 이에 반한 질문은, 그러한 창조주가 인간 피조물을 만드시고, 미래를 향해 추구하려는 이성의 힘을 주셨으나, 그러한 갈망을 충족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의 계획을 아직 나타내어 주시지 않는다고 상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런 방침은 이치에 맞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모순되고, 공정과 사랑으로 지배되는 지당한 방침과도 모순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만일 신의 지혜가 인간에게 그의 미래 운명의 지식과 창조자의 계획에 그의 참가를 부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결정하였더라면, 신의 사랑은 물론 신의 공정은 인간이 의심과 공포와 무지로 항상 고통과 당혹에 시달림을 받지 않을 정도로, 인간의 능력을 아주 제한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결과로, 신의 권능이 그러한 제한된 조건 하에서 사용되었을 것이다.

인간이 그의 창조자의 시인된 성품과 관련하여 얻은 신의 계획의 계시를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가 승인하는 대로 그러한 때 그러한 방식으로 그러한 계시를 주시리라는 것을 기대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렇다면, 이런 고려들로 미루어 비록 우리가 성경을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계시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계시를 어느 정도 기대하고 주시하도록 이성이 우리를 이끌 것이다. 더 나아가서 광대한 행렬에서 천체와 체계가 시간과 공간을 지키는 것처럼 일반 창조의 질서와 조화를 주의하면, 지진, 큰 회오리바람, 등과 같은 보다 작은 불규칙한 변화들은 단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하는 작용이 현재에 완전치 않다는 표시에 지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결론을 지을 수 밖에 없다. 왜 지금은 그렇지 않은가를 어느 정도의 설명과 더불어, 모두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상에서 마침내 완전하고 조화될 것이라는 확신은 이성을 소유한 사람들로 하여금 요구하기에 당연하고, 지혜와 권능과 자비를 나타내신 창조자로서

응하심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계시가 그러한 확신과 설명을 포함할 것을 기대하여야 할 것이다.

인류에 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계시를 기대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는 것을 확립하였으므로, 바로 그러한 계시라고 주장하는 성경의 보편적 특성을 다음 장에서 우리는 검토하려고 한다. 그리고 만일 성경이 위에서 먼저 고려된바와 같이 이성이지시하는 것과 완전한 일치로 이루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이면, 성경이 필요하고 당연히 기대되는 하나님에게서 온 계시라는 것을 성경이 자체증명 한다고 우리는 결론을 지어야 할 것이고, 다음엔 성경의 증언이 하나님에게서 온 계시라고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만일 성경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완전히 그 진가가 인정될 때 성경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성품— 이성이 우리에게 확신하기를 지혜, 공의, 사랑, 권능에 있어서 완전하심— 과 조화 할 것이다.

너희 호기심들, 널리 배회하며,
피조물의 경탄을 뒤따르는,
너희 하나님의 발자취를 고백하고,
그에 앞에서 그를 경배하고 찬미하라.

“주님, 하늘이 당신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모든 별 가운데 당신의 지혜가 빛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당신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더 공정한 말씀에서 당신의 이름을 읽나이다.

모든 사람 위에 햇빛

“게다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라고 믿음 없는 비평가는 외친다,
 비웃는 입술과 지혜롭고 처세술에 숙련된 눈으로,
 “요새에서 요새로 주둔지에서 주둔지로 반복하며
 전쟁 북 소리로 끊임없는 도전을,
 그리고 초록 땅 사방에 교회 종소리에 맞추어,
 야영지의 아침 기상나팔이 시간을 지키는 동안에,
 무장하고 있는 세상 한 가운데에 평화를 꿈꾸는 것이.
 성서의 권리로 칼이 보습으로 변경되는 것을 꿈꾸는 것이.
 피의 포도주로 취한 국가들은
 형제의 관계를 맹세하기 위하여 비틀거리며 나아간다,
 아버지 마태의 부름을 응답하는 술고래 같이.

* * * *

“군사령관을 바리케이드로 제지하라
 “올리브 잎”과 결심으로 만든 바리케이드로.
 예리한 성서 본문으로 총구를 막고, 희망을 가지라
 공허한 노래로 함선이 뒤집어 지기를.
 여전히 전쟁의 영광과 화려한 행렬은
 그들의 수행원을 데리고 외치는 수백만을 끌어드릴 것이다.
 여전히 우울한 노동자는 헤어지는 용감한 군인에게
 그의 모자를 벗고 여자의 손수건을 나부낄 것이다.
 여전히 시인은 용기를 돋우기 위해 그의 시에 곡조를 부칠 것이다.
 여전히 영웅 숭배는 강자 앞에 무릎을 꿇는다.
 장밋빛의 단정한 검은담비 가운을 입은 성직자는
 유발케 하는 포도주를 세 번째 병을 마시면서,
 깃 달고 칼 찬 청중들에게 증명할 것이다
 사랑의 법칙에 일치하는 그들의 직업을.
 그리고 교회는 나라를 위하고, 나라는 교회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그리고 둘 다 힘만이 정의라고 동의한다.

이와 같은 경멸에도 불구하고, 오, 충실한 몇몇은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이 참됨을 대담하게 신봉하고,
 그들의 맑은 눈 같은 믿음은 우리의 사악한 시대를 초월하고,
 현재의 범죄의 황야를 지나
 초록 옷으로 단장된 고요한 미래를 보며,
 양털 얼룩진 산과 그 사이 맑은 시내는
 의무가 밟으라고 명한 진로를 여전히 계속 걷는다.
 비록 세속의 지혜가 신중한 머리를 흔들지라도
 회의론자의 경멸의 맞이함 없이는,
 어느 진리도 하늘에서 우리 땅위에 내리지 않는다
 공통으로 만물 위에 이슬과 햇빛이 내리고 비치는 것처럼
 하늘의 축복이 내릴 때 까지 부인당하고 조롱당한다.

휘 티 어(Whittier)

연구 3

성경은 신의 계시임이 이성으로 보임

- 성경의 주장과 신뢰성의 그 표면상 증거
- 성경의 오래됨과 그 보존
- 성경의 도덕의 영향
- 저자들의 동기
- 저술의 대체적인 성격
- 모세가 쓴 책들
- 모세 율법
- 모세가 세운 정부의 특성
- 모세의 정부는 성직의 제도가 아니었다.
- 시민 통치자들을 위한 교훈
- 율법 앞에 빈부는 평등함
- 사람들 권리에 참견을 대비한 보호
- 성직은 특전을 받는 계급이 아님, 어떻게 유지 되는가?
- 외국인, 과부, 고아와 종들의 압박을 대비한 경계
- 성경의 예언자들
- 율법, 예언자들과 신약 성경 저자들 사이 합일에 어떤 공통적인 유대가 있는가?
- 기적들은 불합리하지 않음
- 이치에 맞는 결론

성경의 주장과 신뢰성의 그 표면상 증거

성경은 문명과 자유의 횃불이다. 비록 위대한 정치가들이 대체로 성경을 지지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심하게 잘못전하는 불일치한 신조들의 각종 색안경을 통해서 성경을 대할지라도, 그들은 성경이 사회에 주는 좋은 영향은 인정했다. 성경애호가들 중, 성경을 위하여 목숨을 내 던질 만한 많은 성경애호가들이 고의는 아니지만, 비참하게도 그 중요한 오래된 책을 잘못전달 했다. 그래서 성경애호가들이지만 그들의 선조의 전통을 통해서 받은 오래 숭배해오든 성경 진리의 그릇된 개념을 성경이 찬성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성경의 적들보다 더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일꺼서 그들의 신조를 재검토하고, 더 분명한 진리의 지식을 갖게 되어, 성경의 적들의 무장을 해체, 즉 성경을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케 함으로서 적들을 혼란에 빠뜨리기를 원한다!

자연의 지식이 자연이 첫 번 계시하는 것 보다 하나님의 최대한의 계시를 기대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므로, 이성적이고 생각하는 마음은 신의 계시라고 의미하는, 그러나 그러한 주장의 진실함의 온당한 피상적 증거를 지닌 어떤 것의 주장을 고찰하도록 준비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온 계시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의 주장들의 개연적인 정확성에 대해서 충분한 표면적 증거와 더불어 우리에게 온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한 연구는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더욱 완전하고 긍정적 증거를 드러낼 것이라는 온당한 희망을 우리에게 준다.

성경의 오래됨과 그 보존

성경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책이다. 이 책은 30 세기동안의 파란과 격동을 무사히 벗어났다. 인간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하여 성경을 지상에서 없애버리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성경을 감추고, 태우고, 그 책을 소유하면 사형처벌을 받을만한 범죄로 취급했고 그 성경 말씀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가장 쓰고 혹독한 박해를 가했다. 그러나 그 책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 오늘날 많은 성경의 적들은 죽음에서 잠자고 있고, 성경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성경이 주는 영향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기록된 수백 권의 책들은 이미 잊혀진지 오래 되었지만, 성경은 지상에 있는 각 나라 모두에 보급되었으며, 지상의 200개 이상의 다른 언어로 번역되었다. 이 책을 없애버리기 위한 그러한 비할 데 없는 노력을 해왔지만 이 책이 살아남아 있다는 사실은 적어도 성경이 주장하듯이 그 책의 저자이신 위대하신 신이 성경의 보존 자 이시었다는 강한 상황 증거가 된다.

성경의 도덕의 영향

마찬가지로 성경의 도덕의 영향은 한결같이 훌륭하다는 것도 진실이다. 성경 내용의 주의 깊은 연구자들은 반드시 더 순결한 삶으로 향상한다. 종교나 과학을 다룬 다른 책들이 인간에게 어느 정도까지는 이익을 주고 고귀하게 만들고 복을 주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책들을 다 합쳐도, 성경이 신음하는 피조물들 곧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학식 있는 자나 학식 없는 자들에게 가져다준 기쁨, 평화, 복을 가져오지 못 했다. 성경은 단지 읽어서만 되는 책이 아니다. 그것은 주의를 기울이고 고려하며 연구해야 하는 책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그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기 때문이다.(사 55:9)

만일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들을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기록된 성경을 이해하는 그 중요한 일에 모든 정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일 값진 진리의 보배는 항상 표면에 나타나 있지 않다.

저자들의 동기

이 책은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주장하는 저명한 위인, 나사렛 예수를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언급한다. 처음에서 끝까지 그의 이름, 직무, 전도 사업이 현저하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살았고, 성경 저자들이 지적한 때에 어느 정도 잘 알려졌다는 것은 세속역사의 사실이고, 그 역사의 사실은 여러 가지로 충분히 확증되고 있다.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그들의 제사장들을 불쾌하게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신약 저자들이 제공한 증거 이외에, 역사로 확립된 추가된 사실이다. 신약성경의 저자들은(바울과 누가를 제외하고) 나사렛 예수를 직접 만난 가까운 사이고 그의 제자들이었으며, 그들의 저술이 예수님의 교리들을 공표 하였다.

어느 책이라도 그 저자는 책을 쓰는 동기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묻는 것은 무슨 동기들이 이 사람의 주의를 신봉하도록 이 제자들을 고취시켰을까? 그가 살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그의 죽음에 동의하고 그의 죽음을 요구한 유대인들 중, 가장 신앙심이 깊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를 중죄인처럼 사형선고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그의 주의를 신봉하고 그의 교리를 선전할 때, 이 사람들은 경멸, 박탈과 모진 박해에도 용감하게 맞서고 목숨 자체도 걸었으며 어떤 경우에는 순교까지 당했다.

그가 살아 계신 동안에 그의 생활과 그의 가르침 모두에 있어서, 예수님이 놀랄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그가 죽은 후에 무슨 동기가 있어서 어느 누가 그의 주의(목적)를 신봉하게 할 수 있었을까? 특히 그의 죽음이 그토록 불명예스러운 경우이었거늘?

그리고 만일 신약성경 저자들이 이야기들을 조작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가상적이거나 이상적인 영웅이었다고 우리가 추측한다면, 그들의 책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초자연적 수단으로 태어나고, 그가 초자연적 능력을 수유하여 나병환자들을 고치고,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들의 귀를 열어 주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기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건전한 사람들인 그 저자들이 그러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모든 동료들, 제자들, 그들 중 저자들까지 견디기 어려운 순간에 버리고 도망간 동안에 그의 적의 사소한 군대가 그를 중죄인으로 사형집행 하였다는 이야기로 끝을 맺을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울까?

세속사가 어떤 점에서 신약성경 저자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들의 기록이 허위라는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은 이 저자들 편에서 어떤 그릇된 진술을 하게 된 동기를 지적하고 증명하여야 한다. 무슨 동기들이 그들의 마음을 이끌었을까? 그릇된 진술을 함으로서 그들이 재산이나, 명예나, 권세나, 세상의 어떤 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지지자들의 가난함과 그들의 영웅자신이 유대의 중요한 종교 인물들 사이에 인기가 없음은 이러한 생각과 모순이 된다. 오히려 그가 범인으로,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으로 낙인되어 죽었고, 좋은 평판을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들은 그의 교리를 부흥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러워하는 명성이나 세상이익에 관한 희망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반하여 만일 그러한 것이 예수를 전도하는 사람들의 목적이었다면, 그 목적이 불명예, 박해, 감금, 매질과 죽음까지 초래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재빠르게 그 목적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이성이 명백히 깨닫게 해 주는 것은 가정, 명성, 명예, 생명을 희생하고, 현재의 만족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의 중요한 목적이 그들과 같은 인간들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가장 높은 모범의 도덕들을 가르친 사람들은 다만 동기를 갖고 있을 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의 동기가 틀림없이 순수하고, 그들의 목적이 당당히 숭고하였을 것이다. 이성이 더욱 단언하는 것은 순수하고 좋은 동기로 자극된 그러한 사람들의 증언은 보통 저자들보다 10 배의 무게와 고려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광신자들도 아니었다. 그들은 건전하고 이성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들의 믿음과 소망의 이유를 각 경우마다 주었다. (벧전 3:15) 그들은 이치에 맞는 신념들에 끈기 있게 충실하였다.

저술의 대체적인 특성

이제까지 주목해온 점들은 여러 구약성경의 저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그들은 대개 그들의 주님께 대한 충성으로 주목할 만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역사는 일어난 대로 편견 없이 기록하고 그들의 선행과 충실을 칭찬하는 만큼, 그들의 약점과 결점들을 꾸짖는다. 이 사실은 성경이 사람들을 위압하여 종교적 체계

에 숭배하려고 도안한 조작된 역사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을 틀림없이 놀라게 할 것이다. 성경이 진리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직선적이다. 악인이 어떤 한 사람을 고귀한 인격으로 묘사하기 바라는 경우, 특히 자기 저작 중 얼마를 하나님에게서 영감을 받은 체 하기 바랄 때, 그는 그 인물을 극도로 순결하며 고귀한 인격으로 묘사 할 것이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방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은 성경은 속이기 위하여 부정하게 계획되지 않았다는 **정당한** 증거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관한 계시를 **기대**할 이유가 있고, 바로 그 계시라고 주장하는 성경을 쓴 동기들이 우리가 보기에 비난 할 근거가 없고, 도리어 찬성할 근거가 있는 사람들이 썼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성경책의 특성을 검토하여, 성경책의 가르침이 우리가 **합리적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성품과 대응하는가 하는 것과 성경책이 진실이라는 내부의 증거가 있는가를 알아봅시다.

신약성경의 처음 다섯 권과 몇몇의 구약성경은 설화들이거나 저자들이 알고 그 저자들이 증언한 사실들의 역사이다. 그들이 상세하게 충분히 잘 알고 있는 내용에 관한 진상을 말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계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 주시기를 원하셨으므로, 지나간 사건들의 역사가 바로 그 계시에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감독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술하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정직한 저자들이 필요한 사실들과 접촉하도록 이끄실 것이라는 추론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일 것이다. 성경의 이 역사적 부분들의 신뢰성은 거의 전부 그 저자들의 성격과 동기들에 의거한다. 선량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단물 샘은 쓴 물을 내지 않을 것이다.(약 3:11) 이 성경의 역사를 모두 합친 증언은 그 저자들이 선한 일이 나타나도록 나쁜 언행을 하리라(롬 3:8b)는 어떠한 의심도 배제한다.

열왕기, 역대, 사사기, 등과 같은 성경의 어떤 책들이 아주 진실하고, 그 당시의 저명한 사건들과 사람들의 역사를 주의 깊게 보존한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이 책들의 정확함은 절대로 무효로 하지 않는다,

헤브라이어의 성서는 율법, 예언, 유대인의 역사, 계보 등뿐이 아니라, 역사를 포함한다는 것과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특별한 가계에서 태어나리라는 기대 때문에 그들의 역사와 계보, 등은 상황을 상술하는데 더 노골적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20세기의 사회에서 야비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실들의 역사가 기록된 이유를 알게 된다. 실례로, 모압족들과 암몬족들의 기원과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친족관계가 있다는 명백한 기록은 역사가들 마음속에는 그들의 출생의 전 역사의 기록이 아마도 필요한 것이었다.(창 19:36-38)

마찬가지로, 유다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유다의 자녀 가운데서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을 통해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가계뿐이 아니라, 예수의 모친, 마리아의 가계가(눅 3:23,31,33,34, 마 1:2-16) 아브라함으로 더듬어 올라간다.

의심할 바 없이 계보를 철저히 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서(창 49:10) 약속된 메시아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올 것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른 실례의 계보 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설명되었다.(창 38)

성경에 다른 역사적 사실들이 기록된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그 기록된 사실들 중 곧 우리가 그 실용을 볼 수 있고, 성경 어디에든지 더하거나 빼는 것을 장려한다고 아무도 합리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만일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이 역사가 아니고, 단순히 도덕에 관한 논문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다른 역사적 사실들은 유해 없이 생략될 수 있을지 모른다. 더구나, 잘 기억해야 할 것은 같은 사실들이 어느 언어에서나 다소 섬세하게 진술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과 성경 번역자들은 너무 양심적이어서 어느 기록 하나라도 생략할 수 없지만, 그들은 현재보다 세련된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덜 각별한 시대에 살았다는 것과 초기 성경시대의 표현의 습관들도 똑같은 것이라는 추측이 되는 것이다. 분명히 이 점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사람들도 신약성경의 어느 표현에 반론을 찾아낼 수 없다.

모세의 책들과 그 안에 공표 된 율법

모세가 쓴 책들

성경의 처음 다섯 권은 저자 이름이 모세라고 아무데서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모세 오경이라고 한다. 모세가 직접 썼거나 모세의 감독 아래 모세 오경을 쓰게 했다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다. 모세의 죽음과 장례에 대한 설명은 그의 서기관이 당연히 덧붙인 것이다. 이 다섯 권의 책들을 모세가 썼다는 긍정적인 말씀이 생략되었다 해서 이 추론이 틀리다고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만일 판 사람이 속이고 협잡을 범하기 위하여 썼다면 그가 속이는 것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모세 오경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와 정치가가 썼다고 반드시 주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신 31:9-27) 한 가지를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모세가 헤브루국민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왔다는 것이다.(출 3:10)

모세가 헤브루국민을 모세 오경에서 말하는 율법 아래 한 국가로 조직했다. 헤브루국민은 공통동의로 3000년 동안 이 책들이 모세가 자기들에게 준 선물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책들을 일 점 일획이라도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신성한 것으로 계속 유지했다. 그래서 본문의 순수성의 확신을 주고 있다.

모세의 이 책들은 신기원을 횡단하는 오직 신용할 수 있는 현존하는 역사를 담고 있다. 중국의 역사는 창조 때에서 시작하는 체 한다. 그 역사의 내용은 어떻게 신이 소형 범선을 타고 물에 나가서 흙 한 덩어리를 그의 손으로 쥐어 물속에 던졌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흙덩어리가 이 세상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이야기 전체가 전혀 이치가 없어, 삼척동자의 지성으로도 그 이야기에 속지 않을 것이다.

그와 달리, 창세기 서술은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가정으로 시작 한다: 창조자이시며 지적 첫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하셨다. 그 서술은 하나님께 시작

이 있다고 다루지 않고, 하나님의 일과 그의 일의 시작과 조직적이고 질서 있는 진행을 다룬다. “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창 1:1) 그 다음에는, 세 부나 설명 없이 지구의 기원을 넘어가서, 6일 (6 신기원들)간에 인간을 위하여 지구를 채비하는 이야기로 진행한다. 그 이야기는 4000년 동안 쌓여온 과학의 빛으로 충분히 확증되어 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저자, 모세가 신의 영감을 받았다는 주장을 받아드리는 것이 모세 한사람의 지성이 그 후 3000년의 나머지 인종을 합친 지성과 현대 도구와 수백만 불로 도움을 받아 이론 연구 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억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다.

모세 율법

다음에 이 책들에서 진술한 율법의 체계를 주시해 봅시다. 이 율법들은 정말 율법 시대나 그 이후,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비길 데 없고, 이 세기 법들은 모세 율법이 진술한 원리에 근거하고 있고, 그 대개는 모세 율법이 신의 기원에서 온 것이라고 인정한 사람들이 구성했다.

모세의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짧은 개요이다. 십계명은 예배 법과 도덕률을 명한다. 십계명이 그 연구자는 누구에게나 기발한 것으로 감동을 주었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만일 십계명이 전에 알려진 적이 없고, 지금 그리스, 로마, 바빌론(Greece, Rome, Babylon- 이 법들이 이스라엘에 오기 훨씬 이래 이 나라들이 일어났다 망한 나라들)의 폐허와 유물에서 발견되었다면, 십계명이 불가사의하지 않으면 훌륭하다고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십계명을 익히 앎과 계명들의 훈령은 무시할 수 없는 무관심을 낳았기 때문에 몇 소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십계명의 진정한 위대함을 주목하지 못했다.

사실, 십계명은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나 십계명은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헤브루국민에게 주었다. 속죄물의 믿음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헤브루국민의 죄 많은 상태와 속죄물의 필요성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하여 주었다. 그 십계명의 요지는 기독교의 저명한 창시자가 웅대하게 몇 마디로 요약했다. “네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러합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막 12:30,31)

모세가 세운 정부의 특성

모세가 세운 정부는 창조자 자신의 정부라고 주장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고대나 근대 모든 다른 나라 정부와 다르다. 하나님께서 나온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법과 제도, 민사와 종교는 우리가 곧 알게 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이성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었다. 진영 중앙에 있는 천막에는 백성들의 왕으로 여호와와 존재를 표시하든 곳인 “지성소”라는 천막 칸이 있고, 이곳에서 초자연적 방법으로 백성들은 나라 업무의 올바른 행정을 위하여 교훈을 받았다. 제사장들의 순서를 세웠다.(대하 24) 제사장들은 천막을 경영하는데 완전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만 여호와께 접근하고 연락하게 허락하셨다.

이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언뜻 생각하기로는 혹시 이러했을 것이다. “아! 저것 봐, 우리는 제사장들의 조직의 목적을 알았다. 제사장들이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백

성들의 고지식함을 이용하고, 자기들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공포를 자극하면서, 백성을 다스렸구나.” 그러나 잠깐만! 너무 조금히 아무 것도 추정하지 맙시다. 이 문제를 사실로서 시험 할 이처럼 좋은 기회가 있을 경우에, 사실들 없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온당치 않을 것이다. 의문의 여지가 없는 증거는 그러한 상상과는 반대이다. 제사장들의 권리와 특권은 한정되었다. 그들에게는 아무 민사의 권한도 부여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리나 양심을 위압하기 위하여 그들의 지위를 이용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 이러한 제도를 제사장계열의 한 인원인 모세가 제정했다.

모세의 정부는 성직의 제도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데리고 나오는데 상황들에 따른 필연성은 정부를 그의 생각대로 중앙집권제로 만들게 하고, 온순한 모세를 권한과 권세가 있는 독재자로 만드셨지만, 너무 온순한 나머지, 사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과로하게 일한 종으로서, 그의 처지로서는 성가신 보살핌들 때문에 그의 활력은 지치도록 소모되었다. 이때에 실질적으로 민주주의적 민정이 설립되었다. 이것을 오해하지 맙시다. 불신자들은 이스라엘 정부를 민주주의였다고 생각할 것이나 이스라엘 자신은 그것이 신권정치, 즉 신의 정부였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아무 수정도 허락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율법 규칙에 더해서도 안 되고 그것에서 빼서도 안 된다고 명하셨다.(신 4:2, 12:32) 이렇게 본바와 같이, 이스라엘 정부는 그 전이나 그 이후로, 어느 다른 나라 민정과 다른 성격의 것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연로자 칠십 명을 곧 내가 백성의 연로자요 그 관원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내게 모아라. 그들을 만남의 천막으로 데리고 와서 너와 함께 거기에 서게 하여라.” “내가 정녕 내려가 거기에서 너와 말할 것이다. 그리고 정녕 네 위에 있는 영 얼마를 가져다가 그들 위에 둘 것이다. 그들이 너를 도와 백성의 짐을 져서, 네가 너 혼자서 그것을 지지 않게 해 줄 것이다.”(민 11:16,17. 진실하고 정직한 정치적 수완과 유효함의 실례를 24절에서 30절까지 보십시오.)

모세는 이 내용을 되풀이 말하면서, “내가 여러분의 지파들의 우두머리들 곧 지혜롭고 경험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러분의 우두머리로, 천 부장과 백부장과 오십 부장과 십 부장과 여러분의 지파들의 관원으로 삼았습니다.” (신 1:15, 출 18:13-26)

이 저명한 입법자는 백성의 선택권과 자유를 속박하기 위하여 그들의 종교적 권세를 이용하려고, 백성의 정부를 자기 친척과 제사장 지파의 지배 아래 앉힘으로서 자기 자신의 권력을 영속하거나 증대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그와 반대로 자유정신을 기르기에 적합한 정부조직을 국민들에게 소개하였다. 다른 나라와 통치자들의 역사상 이에 대등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통치자는 자기 자신의 증대와 더 큰 권력을 추구했다. 그런 사람이 공화국들을 설치하는데 원조한 경우에 있어서까지도, 그 후에 생긴 일들을 보면 그들이 백성의 호의를 얻고 그 자신들의 권력을 영속하기 위하여 정책을 써서 원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만일 정책과 백성에게 협잡을 영속하려는 정책과 시도로 지배된 어떤 야심을 가진 사람이 모세의 자리를 대신 하였다면, 그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의 손에 더 큰 권력의 중앙 집권제를 위해서 집권을 하려고 힘을 다 했을 것이다. 특히 이것은 이미 그 지파에 있는 종교적 권세와 천막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주장을 미루어 보아, 쉬운 일 일 것이기 때문이다. 율법을 구성하고, 그런 국민을 다스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야심을 가진 사람의 진로가 어떤 경향으로 가는지를 관찰하지 못할 정도로 둔하리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백성의 정부는 백성 자신들의 손안에 그렇게 완전히 두었기 때문에 70 연로자 관원들이 판결할 수 없는 쉽지 않은 사건들은 모세에게 보내도록 규정되었어도 어떤 사건들이 모세 앞에 가는가에 대해서는 이 관원 자신들이 판사들이었다. “여러분에게 너무 어려운 문제는 나에게 넘기십시오.”(신 1:17)

따라서 이스라엘은 정부 관리들이 신의 지령 아래서 행하는 공화국이었다. 성경이 “백성의 정부, 백성에 의한 정부”라고 부르는 대신에 백성을 지배하는 설립된 제국을 승인한다고 무식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혼동을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민정의 공화 정제 형태가 400년 이상 계속 되었다.

그 때 연로자들의 요청으로(삼상 8:4), 하나님의 승인 없이 민정의 공화 정체가 왕국의 공화 정체로 바뀌어 졌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일종의 비공식의 대통령이었던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너에게 한 모든 말에 관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주어라. 그들이 너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배척하여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지시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설명해 주기를 어떻게 그들의 선택권과 자유가 무시되며 어떻게 그러한 변화로 종들이 될 것인지를 말했다. 아직껏 백성은 사망으로 둘러싼 여러 다른 나라에서 예증된 민중의 관념에 심취되어 있었다.(삼상 8:6-22) 그들이 왕을 갖고 싶어 하는 욕망의 동기를 생각할 때, 모세가 어려움 없이 자기 자신을 대 제국의 지도자로서 굳건히 확립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감동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시민 통치자들을 위한 교훈

이스라엘이 전체로서 한 나라로 조직되었지만 야곱이 죽은 후에 각 지파간의 분단이 항상 인정되었다. 각 가족이나 각 지파는 일반적인 동의로 그들의 대표자들이나 관원들을 선발했다. 이 관습은 이집트에서 긴 노예상태의 시기에도 지속되었다. 이들을 관원이나 연로자라고 부르고, 이들에게 모세가 명예와 민정권력을 주었다. 이에 반하여, 만일 모세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의 손안에 중앙 집권제를 만들기를 욕망 하였다면, 모세는 이 관원들과 연로자들에게 권력과 책임과 더불어 명예를 주기 싫어했을 것이다.

시민의 통치자 지위에 지명된 사람들에게 준 교훈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교훈같이, 단순함과 순결함의 모범이다. 모세가 이 판사들이 듣는 가운데서 백성들에게 선언하기를, “그 때에 내가 너희 재판관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형제들 사이에 송사를 들을 때, 사람과 그의 형제 또는 외국인 거주자 사이에 의로 재판해야 할 것이며 재판에서 편파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너희는 작은 자이든 큰 자이든 똑같이 들어 주어야 할 것이며 사람 때문에 무서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너무 어려운 문제는 나에게 넘기라. 내가 정녕 듣겠다.”(신 1:16,17) 모세가 죽은 후에는 어려운 문제들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가져왔다. 문제의 해답은 우림과 둠뮴(Urim 과 Thummim)으로 ‘네’ 아니면 ‘아니오’ 이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 할 때, 부정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좌우하는 세력을 그 자신들 손에 넣기 위하여 이 책들을 썼다고 제안하는 논거를 우리는 무엇이라 말할까?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들이 추진하려는 바로 그 목적들을 죽이는 기록들 곧 이스라엘의 큰 우두머리이며, 그 자신들 지파의 한 인원인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에, 시민 권력을 백성들 손안에 두게 함으로서 제사직분을 그 시민 권력에서 절단했다고 결론적으로 증명하는 기록들을 위조할까? 그러한 결론을 어느 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할까?

율법 앞에 빈부는 평등함

그밖에, 20 세기에 가장 진보한 문명사회의 법들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민권 법 앞에 책임에 있어서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유의 할 가치가 있다. 모세 율법에서는 그 차별이 절대 없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몹시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매우 부유하고 유력하게 되기 쉬운 위험에서 백성들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다른 나라들 가운데 이 문제를 아주 주의 깊게 경계하는 국법을 제정한 나라는 없다. 모세 율법에는 매 50년마다 소유지 반환이 마련되었다[희년, 요벨(안식)의 해]. 이 율법은 독재적 재산권의 양도를 방지함으로서 소수인의 축재를 방지했다.(레 25:9, 13-23, 27-30) 실제로, 그들은 그 자신들을 형제로 여기고, 그에 어울리게 행하고, 배상 없이 서로 돕고 서로 고리대금을 받지 말라는 등의 가르침을 받았다.(출 22:25, 레 25:36,37, 민 26:52-56를 보시오)

사람들 권리에 참견을 대비한 보호

모든 율법들은 공표 되었다. 따라서 구상하는 사람들이 백성의 권리를 실제로 참견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그 율법들은 활짝 공개되어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이 율법을 베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율법을 모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제사장들이 7년만의 축제일에 율법을 백성들에게 읽어주는 것을 제사장들의 의무로 만들었다.(신 31:10-13) 이러한 율법과 조정을 백성들의 자유와 행복을 잃게 하려고 궁리하는 나쁜 사람들이 구상했다고 상상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까? 그런 억측은 이치에 맞지 않을 것이다.

외국인들과 원수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율법을 존중함에 있어서, 모세 율법은 32세기를 앞섰다. 정말 오늘날 가장 문명한 사회의 법들이 공평함과 자선에 있어서 모세 율법과 정말 대등한지 어떤지, 성경을 읽어보자, “너에게는 하나의 판결이 적용되어야 한다. 외국인 거주자도 본토인과 마찬가지로 여야 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레 24:22, 출 12:49)

“너희 땅에서 외국인 거주자가 외국인으로 네 곁에 거주할 경우, 너희는 그를 학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 곁에서 외국인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거주자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겨야 한다. 너는 그를 네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외국인 거주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레 19:33,34)

“네 **적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은 것을 보게 되면, 너는 반드시 그것을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너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그 짐에 눌러 엎어져 있는 것을 보거든, 그를 그대로 버려두지 말아야 한다. 그와 함께 반드시 그것을 들어 주어야 한다.”(출 23:4,5)

말을 못하는 짐승들까지도 잊지 않았다. 인간들뿐이 아니라, 짐승들을 학대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었다. “타작 일을 하는 수소에게 부리망을 씌워서 안 된다.” 어느 일꾼이나 자기 양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신 25:4, 마 10:10) 소와 나귀까지도 함께 짝지어 쟁기질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힘과 발걸음이 동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학대가 될 것이다. 짐승들의 휴식도 예비 되었다.(신 22:10, 출 23:12)

성직은 특전을 받는 계급이 아님, 어떻게 유지 되는가?

어떤 사람은 제사장 직분은 이기적인 제도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 형제들 개개의 산물에서 일년마다 바치는 십일조로 부양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실은 회의론자들에게는 너무 혼란 공정치 못한 진술이다. 회의론자들은 그로 말미암아 율법체계의 조직에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는 가장 주목할 만한 증거들 중에 하나를 무식하게 잘못 전하고 있다. 그 율법체계는 이기적이고 흉계 품은 제사장 직분의 일이 아니다. 실로, 현대 교직제도는 십일조가 창시된 사정들의 조건이나 십일조를 바치는 방법은 언급하지 않고, 십일조를 전례로 구실 삼아 비슷한 체제를 지금 강조함으로서 십일조를 드물지 않게 허위 진술하고 있다.

매년마다의 십일조는 가장 엄격한 공평에 기초한다. 이스라엘이 가나안(Canaan) 땅을 소유하였을 때, 레위 지파는 확실히 다른 지파들만큼 땅의 배당 몫에 권리가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으로 레위인들이 종교적 행사들을 섬길 여러 지파들 사이에 흩어져 있는 어떤 거주 도시들이나 마을들을 제외하고는 전혀 땅을 소유로 받지 않았다. 레위인의 땅 상속 금지령이 땅 분배 전에, 아홉 번이나 되풀이되었다. 땅 대신에 레위인을 위해서 어떤 대등한 것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했다. 이 때문에 이 **십일조**는 적합하고 공정한 마련이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본바와 같이 십일조는 공정한 빛이었지만, 세금처럼 강제된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기부로 바치었다. 그리고 그런 기부금들을 지불하게 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얹매는 협박 없이, 모두가 그들의 양심에 달려 있었다. 백성들에게 준 단 하나의 간곡한 권유는 다음과 같다:

“스스로 조심하여 당신이 그 땅에 있는 모든 날 동안 레위 사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신 12:19) “당신의 성무 안에 있는 레위 사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는 당신과 함께 나눌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기 때문입니다.”(신 14:27)

외국인, 과부, 고아와 종들의 압박을 대비한 경계

문겠습니까. 이기적이고 야심 있는 제사장들이 그들 자신의 상속권을 잃게 하고 그들의 부양을 위하여 자기 동포들에게 의존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상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이성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것과 조화되어, 사실은 성직을 영예롭게 하기 위한 특별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저자라고 주장하는 것 이외에 어떤 다른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다.

협잡꾼들은 그들을 위한 경의와 존경을 바치는 것과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엄격한 처벌과 저주를 내리는 데에만 최대한의 주의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종류는 율법에 나타나지 않는다. 아무 특별한 명예나 경의를 주거나, 폭력이나 모욕에서도 피해주지 않는다. 계급사이의 차별을 두지 않고,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사람이 없는 관습법이 백성들의 유일한 보호였다. 이것은 더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종들의 취급과 이방인들과 노인들은 특별한 입법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너는 **외국인 거주자**를 학대하거나 압제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외국인 거주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 내가 정녕 그를 괴롭히면, 그리하여 그가 정녕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참으로 나의 분노가 타올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칼로 죽일 것이니, 정녕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아들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출 22:21-24, 23:9, 레 19:33,34)

“당신의 형제든 당신의 땅과 당신의 성문 안에 있는 외국인 거주자이든, 어렵고 가난한 **품꾼**을 속여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그의 날에 그의 값을 주어야 하니, 그들 위에 해가 지게 해서 안 됩니다. 이는 그가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그의 영혼을 들어 그의 값에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가 당신을 거슬러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을 것이니, 그것은 정녕 당신에게 죄가 될 것입니다.”(신 24:14,15, 레 19:13, 출 21:26,27) “너는 센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면전에 사려 깊음을 나타내야 하며,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레 19:32, 19:14도 보시오.) 이 모든 성경구절에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그들의 십일조를 위한 아무 특별한 취급이 없다.

가난하고 오래 학대를 받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필요한 율법의 공중위생 조정은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들이나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의 제한, 조정과 더불어 놀랄 만하고, 이에 관한 검토는 다른 특징들과 더불어 같은 주제를 최근 의학의 결론 보다 우수하지 않으면, 시세에 뒤지지 않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 지면이 허락한다면 흥미가 있는 것들일 것이다. 모세 율법은 역시 전형적인 특성을 지녔다. 이에 대한 고려는 미래로 남겨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조급한 일견일지라도 나머지 성경이 상술하는 계시된 성서의 전 체계의 뼈대구조를 구성하는 이 율법은 특히 이 법이 기록된 날짜를 참작할 때, 진실로 지혜와 공정의 놀라운 표명이다.

이성으로 미루어 모세 율법은 악하고 계획적인 사람의 소행의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자연이 가리키는 것과 정확하게 부합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율법은 지혜, 공정, 사랑을 증언한다. 더 나아가서, 분명히 경건하고 고결한 율법 자인 모세는 율법들이 그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그것은 하나님께 기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출 24:12, 신 9:9-11, 출 26:30, 레 1:1)

모세의 대체적인 성품과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거짓증거를 하지 말라, 위선과 거짓말하는 것을 회피하라고 한 명령을 고려해 볼 때, 모세 같은 사람이 거짓말을 피하라고 한 그의 명령을 고려해 볼 때, 그와 같은 사람이 거짓증언을 하고 그 자신의 견해와 계율을 하나님의 율법인 것처럼 거짓으로 속이리라고 상상하는 것이 과연 이치에 맞을까? 우리가 성경의 현재 사본을 고찰하고 있으며, 성경을 특징짓는 완전한 보전은 모세의 후계자들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역시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 후계자들 중에는 백성의 이익은 무시하고, 그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순수함을 보전한 신성한 글들을 함부로 고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하다.

성경의 예언자들

성경 예언자들의 성품과 그들의 증언들을 대충 훑어봅시다. 상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예언자들이 지극히 소수를 제외하고는 제사장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 시대에 그들의 예언이 우상 숭배하는 경향이 있는 백성들뿐이 아니라, 타락하고 마지못해 시간을 채우는 무관심한 제사장직분에게 비위에 거슬렸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부담은 대체로 죄에 대한 질책이고, 이와 더불어, 앞으로 다가올 처벌들의 경고에 결부되어 있다. 이것과 섞여서 그들이 죄에서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후, 미래에 올 축복의 약속들이 이따금씩 엮여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한다.

예언자들의 경험은 대개 조금도 부러워 할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대체로 욕설을 받았고, 그 다수가 감금당했고, 잔인한 죽음을 당했다. 열왕기상 18:4,10,17,18, 19:10, 예레미야 38:6, 히브리서 11:32-38,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들이 죽은 지 몇 년 후, 하나님의 예언자들로서 충실한 인격들도 인정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의 말이 여호와와 직접적인 영감이었다고 주장하는 예언의 저자들에게 관하여 이렇게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는데 있어서, 제사장들이 참견하지 않았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셨다.(출 19:17-25 신 5:1-5)

더 나아가서, 율법을 위반하는 것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들을 훈계하는 것을 의무로 만들었다.(레 19:17). 이렇게 모두가 가르치고 훈계하는 권한을 가졌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대부분이 관심사의 보살핌에 열중해 있고, 무관심하고 신앙이 없으므로, 비교적 소수만이 죄를 훈계하고 경건하도록 권고하는 요구를 이행했다. 그리고 이 설교자들을 친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이라고 불렀다. 예언자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된 바와 같이 **공개 해설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우상숭배의 공개 충고자들도 역시, 그렇게 불렸다. 실례를 들어, “바알(Baal)의 공개 해설자,” 등. 고전 14:1-6, 벧후 2:1, 마 7:15, 14:5, 느 6:7, 왕상 18:40, 딤후 1:12, 참조.

평상시의 예언하는 것이 나중에 어떤 계급 사이에 인기가 있었고, 바리새인 상태로 타락되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율법 대신에, 고래의 전통을 가르침으로서 진리를 반대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선생들로 되었다.(마 15:2-9)

예언자라 칭하는 많은 계급에서, 여호와께서 어떤 때는 당시에 바로 가까이 일어날 일들, 다른 때는 미래에 일어날 일의 계시를 전하시기 위하여 특별히 위탁하실 사람들을 이따금 선택하셨다.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받는 대로 말하고 기록한 (벧후 1:21) 이 계급의 기록에 우리가 지금 주의를 환기한다. 그들은 예법에 따라 인명 되었을지도 모른다.

신에게 위탁을 받은 예언자들이나 선견자들

율법, 예언자들과 신약 성경 저자들 사이 합일에 어떤 공통적인 유대가 있는가?

이 예언자들이 주로 제사장 지파에 소유하는 십일조에서 생활비를 받지 않는 평신도들이라는 것과 그들이 때때로 단지 왕들과 재판장들뿐이 아니라, 제사장들까지도 책망하였다는 사실을 이에 더했을 때— 그들은 지위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개인의 죄를 책망한 것이었지만— 우리는 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허위를 날조하기 위하여 제사장들의 어느 연맹이나 다른 연맹의 당사자들이었다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 진다. 사실들로 미루어 이성은 이러한 의심을 부정한다.

그 다음에, 만일 우리가 성경의 여러 저자들의 동기를 비난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대신, 성경 여러 부분들의 정신이 의와 진리라는 것을 발견한다면, 이번에는 나아가서 모세의 기록들, 다른 예언자들의 기록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의 기록들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나 합일의 유대가 있는지를 찾아보기로 합시다. 만일 우리가 1500년 기간에 걸쳐서 기록된 모든 율법, 예언과 신약성서의 기록들이 섞여 짜여있는 사고의 한 공통분야를 발견하게 되면, 이 사실은 저자들의 성품과 관련하여 다를 때 저자들이 신에게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 주장을 인정할 좋은 이유가 될 것이다. 특별히, 만일 모든 기록들의 공통주제가 웅대하고 숭고한 것이고, 신성화된 일반 상식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가르치는 것과 잘 일치하는 것이라면 그러할 것이다.

다음 우리는 이것을 발견 한다: 한 계획, 한 정신, 한 겨냥, 한 목적이 책 전체에 널리 퍼져 있다. 성경의 첫 머리 페이지들은 창조와 인간의 타락을 기록하고, 성경의 종결되는 페이지들은 그 타락에서 인간 회복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사이의 페이지들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연속하는 단계를 보여준다. 성경의 첫 3 장과 끝 3 장이 조화되면서도 대조되는 것이 현저하다. 첫째 것은 첫 창조를 기술하고, 끝의 것은 죄와 죄의 형벌의 저주가 벗겨진 새롭게 된 창조나 회복된 창조를 기술한다. 첫째 것은 사탄과 사악이 세상에 들어와서 속이고 멸망하는 것을 보이고, 끝의 것은 사탄의 행위가 파멸되고, 멸망된 사람들이 회복되고, 사악이 절멸되고, 사탄이 멸망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첫째 것은 아담이 잃은 지배 권력을 보여주고, 끝의 것은 그리스도의 지배 권력이 회복되고 영구히 확립되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질 것을 보여준다. 첫째 것은 죄가 타락, 수치와 죽음을 낳는 원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끝의 것은 정당한 보답은 영광이고, 명예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성경을 많은 저자들이 여러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상황 밑에서 썼지만, 성경은 단지 도덕의 원칙, 슬기로운 금언들, 위로의 말들의 수집이 아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 성경은 세상에 있는 현재 사악의 원인과 그 계획의 시작 전부터 결말을 보신, 신의 지혜로 아신 바대로 그 사악의 유일한 교정대책과 최종 결과들의 합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조화된 진술이다. 이 외에, 성경은 하나님 백성의 길과 적절한 때에 실현될 “귀중하고도 매우 웅대한 약속들”로(벧후 1:4)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어 주시고 강화해 주신다는 데에 주의를 기울이게 해 준다.

창세기의 가르침은, 아담(Adam)이 인류의 한 대표자로서, 본래의 완전상태에서 시험받는다라는 것과 그는 실패한다는 것과 그래서 현재의 불완전, 병, 죽음이 그 결과들이라는 것이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과 마침내 한 여인에게서(창 3:15)난 구속자 한 분을 통하여 인류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이 창세기의 가르침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보존되어 있고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죄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히 10:12) 구속자 한 분의 죽음의 필요성과 우리 죄들의 텅개로 구속자의 의의 필요성이 아담과 이브를 가리어 준 가죽옷에서, 아벨(Abel)의 제물을 기꺼이 받으신 데서, 제단에 바친 이삭(Isaac)에서, 조상들이 하나님께 접근하기 위한 절차로 바쳤든 여러 가지 제사의 제물들을 죽임에서, 율법 아래에서 제정되고, 유대인 시대를 통해서 영속된 여러 가지 제사의 제물들을 죽임에서 지적하고 있다.

예언자들은 그들이 말한 것들 중 일부의 의미를 약간만 이해했다고 생각되지만, (벧전 1:12) 그들은 죄들을 말 못하는 짐승 대신 한 사람에게 지운다는 것을 말하고 예언적인 선견으로 그들은 인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실 그 사람이 “도살당할 양처럼” 끌려가서, “우리의 평화를 위한 징벌이 그에게 미치고”, “그의 채찍자국 때문에 우리에게 병 고침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본다.(사 53:7,5)

예언자들은 그를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거부하였으며, 고통을 겪고 병에 익숙해진 사람”으로 묘사했고(사 53:3)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시켰다”라고 선언했다.(사 53:6) 그들은 구세주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며(미 5:2) 그의 죽음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면서 그가 언제 죽을 것을 말했다.(단 9:26) 그들은 그에 관한 특성들을 언급했다. 그는 “의로울 것이고”, “그의 입에 속임”이 없을 것이고, “격렬”이나 죽음을 당할 아무 정당한 근거가 없을 것이다.(사 53:8,9,11) 그가 “은화 서른 닢으로 배반을 당하실 것이다.”(슥 11:12) 그가 “범법자들 중 하나로 헤아려 질 것이다.”(사 53:12)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시 34:20, 요 19:36) 그가 “스올에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시 16:10, 행 2:31)

신약성경 저자들은 분명하고도 설득력 있게, 그러나 이 모든 예언들이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성취를 단순히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세상 죄들이 지워 없어지기 전에(행 3:19, 사 1:18) 율법과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바대로, 그가 주신 것 같이 **속죄물 대가**가 필요했다는 것을 논리적인 추론으로 보여준다.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전체의 계획을 가장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방식으로 유래를 더듬어 올라가서, 편견이나 증오를 가진 청중에게는 그들 마음에 흥미를 끌게 되지 못하지

만, 밝은 이성을 가진 청중의 마음에는 어디에도 어떤 논제에서도 찾아낼 수 없는 매우 놀랄 만큼 세심하고 설득력 있는 추론을 제공해 준다.(롬 5:17-19부터 12장까지 참고함시다.)

율법에서, 모세는 제사만을 지적하지 않고 위대하신 구세주 밑에서 모든 백성의 죄들을 지워 없애지게 하는 것과 모든 백성에게 올 축복도 지적했다. 모세가 선언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라 했지만(신 18:15,19) 이 구세주의 권능과 권세는 그 자신이 소유한 것 보다 월등히 뛰어나다고 했다. 그 약속된 구세주는 단지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땅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게 되어있다.(창 12:3, 18:18, 22:18, 26:4)

바로 이 모세의 말과는 달리하는 유대백성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면서 같은 주제를 계속 한다: 마찬가지로 메시아는 “이방 사람들에게서 베일을 벗기기 위한 빛이요.”(사 49:6, 눅 2:32) 이방 사람들이 “땅 끝에서” 주께 올 것이다.(렘 16:19) “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될 것이다.”(말 1:11) 그리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사 40:5, 사 42:1-7 도 살펴보시기 바람.)

신약 저자들은 신의 기쁨 부음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희생에 관한 예언들의 성취를 깨닫는 능력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유대인들로서 모든 축복이 그들의 백성에게만 제한한다고 생각하는 편견을 갖고 있지만,(행 11:1-18) 이 저자들은 그의 국민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땅의 모든 가족들도 역시 유대인과 함께, 유대인들을 통하여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능력을 받았다. 신약 저자들은 이스라엘이나 세상에 축복이 있기 전에 시험을 받아 위대하신 구세주의 영광과 영예의 공동 상속자, 그리고 구세주와 더불어 이스라엘과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는 명예를 같이 나눌 자들이 되기에 합당하게 보이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양쪽에서 “적은 무리”의 선택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역시 깨달았다.(롬 8:17)

이 저자들은 이 견해가 율법과 예언에 기록된 내용들과 일치하는 것을 지적하고, 그들이 보내는 계획의 웅대함과 넓이는 가장 고귀한 개념이라고 뜻하는 것이상이 됨을 진술한다.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눅 2:10)

모세의 책들 가운데서 암시된 메시아는 단지 이스라엘의 통치자일 뿐이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사려가 모든 예언자들의 주제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려도 역시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서 최상이었고,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왕국이 오기를”(마 6:10)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고, 진리를 위해서 먼저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스스로 그 자격에 합당함을 증명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참가를 약속해 주셨다.

앞으로 올 영광스러운 하나님 왕국의 소망은 모든 충성된 자들에게 박해를 인내하고 죽기까지 비난, 결핍, 손실을 입을 용기를 주었다. 신약성경을 종결하는 요한 계시록의 웅대한 비유적인 예언에, 합당하신 “살육을 당하신 어린양”(계 5:12)과 예수님께서 그가 다스리실 왕국에서, 왕 겸 제사장들로 만드시기에 합당한 이기는 사람들과 그 전에 이들이 그 왕국 통치에 함께 참여하기에 합당하게 될 이겨내야 하

는 시련과 장애들을 모두 정확히 묘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천년통치 밑에서, 사탄이 결박되고(계 20:2) 아담 안에서의 죽음과 슬픔이 일소되며(계 21:4) 땅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하늘 왕국(새 예루살렘)의 빛 가운데서 행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증대되는 세상의 축복들에 관한 상징적인 표상들이 소개되어 있다.

성경은 처음에서 끝까지 아무 다른데 서도 발견할 수 없고, 모든 이교도 종교의 이론에 반대하는 교리를 제시하고 있다. 즉 죽은 사람들의 미래의 삶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영감을 받은 모든 저자들은 구속자에 신념을 표현했다. 한 분이 선언하기를,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덤에서 부르실 때 그들이 나오고, 사악한 자들이 땅위에서 다시는 통치자 직권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아침이면 올바른 자들이 그들을 복종케 하신다.”(시 49:14) 죽은 사람의 부활을 예언자들이 가르쳤다. 그리고 신약성경 저자들은 미래의 삶과 축복의 모든 그들의 소망을 죽은 사람의 부활에 의거한다. 바울이 그것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만일 참으로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킴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일으킴을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일도 헛되고 너희의 믿음도 헛됩니다.....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잠자든 사람들도 아주 **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아 죽어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고전 15:13-22)

기적들은 불합리하지 않음

시계의 많은 톱니바퀴들이 처음에는 여분으로 보이지만, 가장 느린 톱니바퀴들이 필수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고, 많은 필자들로 준비된 성경도 완전하고 조화된 온전한 일체이다. 단 한 부분도 불필요한 것이 없다. 어떤 부분들은 다른 부분들보다 더 활동적이고 눈에 띄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모두가 유용하고 필요하다.

소위 오늘날의 “진보한 사상가들”과 “대 신학자들” 중에 널리 유행하고 있는 것은 많은 구약성경의 “기적들”을 “허튼 설화”라고 부르며, 그 기적들을 부인하지 않으면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이다. 그 기적들 중에는 요나(Jonah)와 큰 물고기, 노아(Noah)와 방주, 이브(Eve)와 뱀, 여호수아(Joshua)의 명으로 태양의 머물음, 발람(Balaam)의 말하는 당나귀, 등의 이야기들이다.

겉으로 보기에 슬기로운 이 사람들은 다음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성경 여러 부분들이 서로 뒤섞이고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기적들을 성경에서 도려내거나 믿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 전부를 훼손하거나 믿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만일 본래 기적의 이야기들이 거짓이고, 그들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거나 잘 속는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어느 쪽이든, 그들의 증언을 신에게 영감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먼저 언급한 기적들을 제외한다는 것은 주요한 저자들의 증언을 무효로 하고, 그 외에 주 예수님의 증언을 무효로 할 것이다. 타락에 관한 이야기(롬 5:17), 뱀에게서 이브가 당한 속임에 관한 이야기(고후 11:3, 딤편 2:14), 등이 바울의 서한에서 증언되었다. 요한계시록 12:9, 20:2에 있는 우리 주님의 언급을 참조해 보시다.

아모리인들(Amorites)을 전복할 때 주님의 권능의 증거로서, 태양을 머물게 함은 분명히 미래 “주님의 날”에 여호수아가 상징한 주님 손으로 발휘할 권능의 전형이었다. 이것을 3인의 예언자들이 증언하고 있다.(사 28:21, 합 2:1-3, 13, 14, 3:2-11, 스 14:1, 6, 7) 말하는 당나귀 이야기는 유다와 베드로가 확인하고 있다.(유 11절, 뱀후 2:16) 더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은 요나(Jonah)와 큰 물고기, 노아(Noah)와 홍수의 이야기들을 확인하신다.(마 12:40, 24:38, 39, 눅 17:26, 뱀전 3:20도 봅시다.) 실제로 이 기적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행한 기적들 보다 더 대단한 기적들 이를테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 병자들을 고치신 것 보다 더 대단한 기적들이 아니다. 그리고 불가사의한 일로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 것은 모든 기적 중 가장 놀라운 것이다.

우리 경험에 흔히 있지 않는 이러한 기적들에는 그와 대응하는 기적들이 매일 우리들 주위에 있는데, 더 흔해서 눈에 띄지 않고 넘어간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살아 있는 기관들의 생식은 우리 능력이 미치지 않는 일일뿐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기적적이다. 우리는 생명 원리의 발휘는 볼 수 있지만, 그 발휘를 이해할 수도 없고 만들어 낼 수도 없다. 우리는 두 씨앗을 나란히 심는다. 주위 조건들, 공기, 수분, 토양이 서로 같다. 그 씨앗이 **자란다**, 우리는 **어떻게** 자라는지 말할 수도 없으려니와, 가장 현명한 철학자도 이 기적을 설명할 수가 없다. 이 씨들은 정 반대 경향의 생물체를 발육한다. 하나는 뻗어 나가고, 다른 것은 똑바로 선다. 주위 조건들이 같지만, 모양, 꽃, 색소, 등이 어느 것이나 다 다르다. 이러한 기적들이 차차 우리에게는 평범해져서 놀라워하는 유년시절이 지나가면, 우리는 기적들을 기적으로 기억하지 않게 된다.

그럼에도 그 씨앗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또 무한하신 힘과 모든 장애를 극복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죽은 사람들의 부활, 사악의 박멸, 최후의 영원한 의의 통치까지, 그의 모든 뜻을 성취하시는 위대하신 창조자의 능력의 의도된 실례들로, 성경에 기록된 소수의 기적들만큼 우리 힘을 증가하고 우리의 제한된 지성을 초월하는 힘을 발휘한다.

이치에 맞는 결론

여기서 우리는 사실의 결말을 맺는다. 모든 단계를 이성애에 따라서 검사해 보고, 다음 세 가지 점을 발견하였다: (1) 그의 존재 안에는 지혜, 공정, 사랑, 권세가 완전히 조화되어 있는 무상하시고 지적이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2) 그의 계획들을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들에게 주실 그의 계획을 기대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는 것과 (3) 성경이 바로 그 계시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성경은 고려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 저자들과 그들이 가르친 것들로 미루어 무엇이 그들의 목적이었을까를 검토해보았다. 우리는 깜짝 놀랐다. 우리 **이성**은 그와 같이 순수한 동기를 겸한 그런 지혜는 교활한 사람들이 이기적인 결과들을 위하여 만든 교묘한 교안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하고, 그와 같은 의롭고 자비로운 감정들과 율법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것이고, 인간의 것이 아님이 훨씬 더 있음직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율법들이 부정한 제사장들의 일일 수가 없다고 단언한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의 속죄물(희생)과 그 결과로서 앞으로 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왕국에서 부활과 모든 인류의 축복에 관한 증거의 조화를 알았다. 그리고 이성이 우리에게 말해 주기를, 우리가 달리 기대할 이성을 가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웅대하고 포괄적이며, 그럼에도 그렇게 이치에 맞는 추리들 위에 세워진 이 방법은 우리가 찾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임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이 계획이 단지 인간의 고안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계획이 드러나도, 인간이 믿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이다.

콜럼버스(Columbus)가 오리노코 강을(Orinoco)발견했을 때, 어떤 사람이 그가 한 섬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콜럼버스가 대답하기를, “그렇게 흘러나오는 것 같은 강물은 한 섬에서 흘러나올 리가 없다. 그 강력한 빠른 물살은 대륙에서 빠져나오는 것임에 틀림없다.”고 했다. 이와 같이, 성경 증언의 깊이와 권능과 지혜와 그 범위는 인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들과 계시들의 저자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다만 피상적 검토만을 했음에도 우리는 성서의 진술이 신의 기원이 됨을 받아드렸고, 성서의 진술들이 타당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음 연속되는 장들은 하나님의 계획의 여러 부분들을 전개하고, 성경이 신의 영광을 받은 계시라는 것과 그 계획이 전개하는 그것의 길이와 폭과 높이와 깊이, 등은 지금까지는 다만 희미하게 이해되었지만, 천년 날의 여명의 빛 안에서 지금 더 똑똑히 보이는 신의 성품을 영광스럽게 반영한다는 것을 각 공정한 인물들에게 충분한 증거를 줄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진리, 가장 귀중한 것

중요한 진리들은 막대한 희생으로 얻어진다.

보통의 진리는 사람들이 나날이 주고받는 것 같이,
보통의 쉬운 생활 중, 우연히 우리의 길을 가로질러
부르는 바람에 불려온다.

중요한 진리들은 비싼 값으로 얻어진다. 우연히 만나지지도 않으며
여름밤의 꿈에서도 발견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역경의 바람과 조류와의 시련 가운데서,
마음의 격심한 고투 가운데서 움켜진다,

때때로, 투쟁, 소란, 공포와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힘 있게 내미셔,
정제된 마음의 밑 흙을 갈아 일구실 때
묻힌 진리의 씨앗을 드러내신다.

일반 시장에도 없고, 곡식이나 포도주 가운데도 없다.
금이나 보석들의 상품에도 없다.
한밤중의 세상의 환락의 오락실에도 없고.
제왕의 왕관의 뽀짝거림에도 없다.

인간 신조들의 보편적인 충돌 가운데도 없고,
교회와 세상 사이의 거래에도 없다,
진리의 아름다운 보배가 독초와 잡초사이에서 찾아지지 않고,
펼쳐지는 아름다운 깃발 가운데도 없다.

참고 견디는 수고, 소망과 열정에 보답하면서,
진리는 잘 일구어 놓은 밭에서 추수하듯이 솟아난다.
진리를 구하는 자들에게 진리는 그들의 번영을 위해서
진리의 가장 부유한 보배를 언제나 가져다준다.

연구 4

획기적 시대들과 경륜들, 신의 계획의 진전을 표시

- 하나님의 계획은 고정되고 체계적
- 세계 역사의 3 대 획기적 시대들
- 그 대 획기적 시대들의 특이한 면모들
- “땅은 영원히 지속 된다”
- 장차 오는 세상, 새 하늘과 새 땅
- 이 대 획기적 시대들의 분할
- 하나님의 계획의 중요한 면모들이 이렇게 드러남
- 알아낸 순서는 조화를 드러냄
-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

하나님의 계획은 고정되고 체계적

어떤 사람이 한 훌륭한 건축가이며 건축업자인 그의 기술과 지혜를 그의 미완성된 일로 미루어 무식하게 그릇 판단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도 몰라서 하나님의 미완성된 일로 미루어 하나님을 지금 그릇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훈육을 위해서 묵인된, 그리고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마침내 뒤집혀 엎어질 사악의 거친 발판이 얼마 안 있어 제거되고 잠동사니가 일소 될 때 하나님의 **완성된 일**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권능을 널리 선언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영광스러운 성품과 조화되어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께서 명백히 고정된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그의 모든 목적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으므로, 그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뜻이 그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우리가 그 계획이 무엇인가를 부단히 연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목적의 고정됨을 얼마나 단호히 단언하시는지 주의해보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셨다. ‘분명히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되고, 내가 뜻한 바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뜻을 두셨는데, 누가 그것을 꺾을 수 있겠느냐? 그의 손이 뻗쳐졌는데,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겠느냐?” “다른 하나님이 없고 나 같은 이가 없다.” “나의 뜻이 서리니, 나의 기뻐하는 것을 내가 다 이룰 것이다 내가 그것을 구상하였으니, 또한 그것을 행할 것이다.”(사 14:24-27; 46:9-11)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심이 우연하거나 이상한 것같이 보이더라도 그의 말씀의 이 증언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고유하고 불변하는 계획이 체계적으로 완성을 향해서 진전했고 아직도 진전하고 있다는 것을 틀림없이 인정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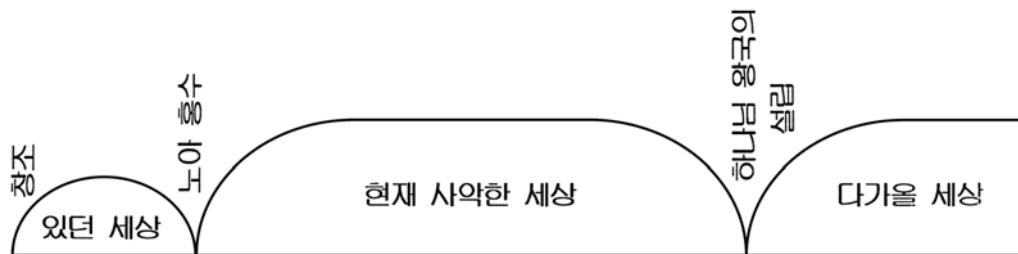
세계 역사의 3 대 획기적 시대들

무지함의 암흑가운데서 더듬어 찾고 있는 대부분의 인류는 그들이 조물주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실감 할 수 있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의 실제 진전을 기다려야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과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예언된 미래의 영광을 깨닫고,

따라서 그렇지 않으면 불가사의한 과거와 현재의 하나님의 관계를 헤아리게 되는 것이 그의 특권이다. 그러므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약속된 상속의 상속자들로서, 우리는 아버지 말씀에 전념하여, 그 안에 기록된 계획과 상술에서 그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말씀에서, 인간에 관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 창조에서 시작하여 끝없는 미래까지 미치는 3 대 기간을 걸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운다. 베드로와 바울은 이 기간을 “3 세상들”이라고 부른다. 그것을 우리는 다음 설명도에서 표시한다.

“세상들”이라고 불리는 대 획기적 시대들

이 3 대 획기적 시대들은 신의 섭리에 관한 3 개의 뚜렷한 증거를 표시한다.



그 대 획기적 시대들의 특이한 면모들

첫째 시대는 창조에서 노아 홍수 때까지이며, 천사들의 경륜 밑에 있었고, 베드로는 “있던 세상”이라고 부른다.(벧후 3:6)

둘째 시대는 노아 홍수 때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이며, “이 세상의 통치자”(요 12:31; 14:30; 16:11)인 사탄의 한정된 지배 아래에 있어, 그 까닭에 “이 현재 사악한 세상”이라고 부른다.(갈 1:4; 벧후 3:7)

셋째 시대는 신의 경륜 아래에 “끝없는 세상”(사 45:17)인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며, “다가올 세상”이라고 부른다. -거기에는 의가 깃들여 있을 것이다.”(히 2:5; 벧후 3:13)

이 3 기간(“세상”)들 중, 첫째 것은 천사들의 경륜 아래에 있었는데 실패하였다. 둘째 것은 찬탈자인 사탄의 통치 밑에서 참으로 “사악한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셋째 것은 온 세계의 천하 만민에게 다가올 의와 축복의 시대가 될 것이다.

마지막 두 세상들이 특별히 기재되어있고, 이 둘에 관한 진술들이 강한 대조를 이룬다. 둘째 시대(현재 시대)는 “현재 사악한 세상”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그 안에 선이 전혀 없어서가 아니고 그 안에 악이 지배하도록 묵인되어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말하였다, ‘지금 우리는 주재님은 사람들을 가리켜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세움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시험한 그들조차도 무사히 지내고 있다.’”(말 3:15) 셋째 세상(획기적 시대)은 “의가 깃들여 있

을 다가올 세상”이라고 기재되어있다. 이것은 그 안에 악이 전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악이 지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죄를 없애는 것은 점진적이어서 첫 천년 전 기간이 걸릴 것이다. 그 때에는 악이 지배하지 않을 것이다. 악이 번성하지 못하고 악인들이 다시는 번영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날에는 의로운 자가 돌아날 것이다.”(시 72:7) “너희가 기꺼이 잘 들으면, 땅의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사 1:19), “행악자들은 끊어질 것이다.”(시 37:9)

이렇게 본 바와 같이, 다음의 경륜은 거의 모든 점에서 현재의 경륜과는 반대가 될 만큼 다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왜 현재와 미래의 경륜들 사이에 차이가 있게 되는 가를 보여주신다. 다가올 세상에서는 주님이 왕(통치자)이 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의와 진리가 번성할 것이고, 현재 이 악한 세상에서는 사탄이 통치자이기 때문에 악이 번창하고 악인들이 번영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세상의 통치자는 “내게 아무런 힘도 없다.” 그 결과로 사탄은 주님의 추종자들을 반대하고, 유혹하고, 괴롭히고, 치는 것 외에는 그들에게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요 14:30, 고후 12:7) 이 현재 악한 세상(획기적 시대)에서는 누구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고, 악인들은 푸른 나무 같이 무성하다.(시 37:35; 딤후 3:12)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왕국은 이 세상이 아니다.” 그리고 그 연대(‘다가올 세상’)가 올 때까지, 그리스도의 왕국은 땅을 지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소망하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다.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십시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사탄이 “이 어두움의 세상의 통치자”이다. 그러므로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덮고 있다” 사탄이 불순종한 아들들의 마음가운데서 지금 지배하고 역사하고 있다.(마 6:10; 엡 6:12; 사 60:2; 엡 2:2)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훌륭한 건축가의 계획의 어떤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직 완전히 진전되어 있지 않았음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으면 새 왕과 새 경륜이 오래 전에 소개됐을 것이다. 왜 그 중요한 부분이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기되었는가 하는 것과 사탄아래 현재 악의 지배에서 그리스도 아래 의의 지배로 바뀌는 방법은 중요한 점들이다. 이 두 점들이 지금부터 충분히 증명 될 것이다. 지금 사탄을 순종하는 세상의 왕국들이 적합한 시기에 우리 주님과 당신의(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이라는 것만을 지금은 말 해두자.(계 11:15) 문맥은 이 전환이 전반에 걸치는 환란 때에 이루어 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 전환에 관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의 가재도구를 강탈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셨다.(막 3:22-27)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와 평화의 통치가 설치되기 전에 사탄이 먼저 결박돼서 감금되고, 폐하여져야 된다고 우리는 배우고 있다. 따라서 이 사탄을 결박하는 것이 새 경륜의 첫 번째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계 20:2)

“땅은 영원히 지속 된다“

이 땅이 이 모든 ‘세상들’과 경륜들의 근거라는 것과 연대들이 지나가고 경륜들이 바뀌어도, 땅은 여전히 존속한다(“땅은 영원히 서 있다.”(전 1:4))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베드로는 똑같은 상징을 계속 써서 각기 3 기간을 따로따로 하늘과 땅이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하늘**이란 말은 더 높은 영적 지배적인 권력을 상징하고, **땅**은 인간 정부와 사회조직을 상징한다. 이렇게 첫 하늘과 땅(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사태의 질서와 조직)은 그들의 용도가 완성됐기 때문에 노아 홍수 때 끝났다. 그러나 실제의 하늘(하늘과 대기)과 실제의 땅은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남았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하늘과 땅)은 큰 소리와 뜨거운 불과 용해 -혼란과 환난과 붕괴로 소멸- 될 것이다. 결박되는 힘센 사람(사탄)이 자기 권세를 유지하려고 투쟁할 것이다. 실제의 하늘과 땅이 아니고 현재의 질서와 정부의 조직과 사회가 사라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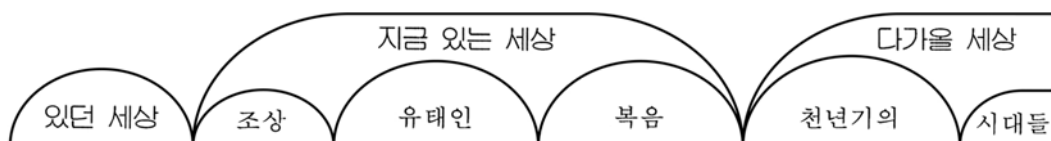
현재의 **하늘**(영적 지배의 권력들)은 “새 하늘”(그리스도의 영적 지배)에 자리를 내 주어야 한다. 현재의 **땅**- 사탄의 지배 밑에 지금 조직되어 있는 인간사회-은 “주의 날” 시초에 “가마처럼 불타”(말 4:1) 용해되고 부서져야 한다. 현재 인간사회는 “새 땅”으로, 즉 땅의 새 왕(그리스도)과 조화되어 조직된 사회로 바뀌질 것이다. 현재 조직이 새롭고 보다 좋은 왕국으로 바뀌질 때, 의로움과 평화와 사랑이 인간들 사이에 널리 행하여질 것이다. 그 새로운 왕국의 기준은 가장 엄격한 공정일 것이다.

장차 오는 세상, 새 하늘과 새 땅

바울은 그 다음의 경륜, 그가 부르는 바, “다가올 세상”을 언뜻 보았다. 바울이 말하기를, 시간이 미래로 흘러가 사태의 새로운 상태인 “새 하늘”, 그러므로 “셋째 하늘”로 그가 “이끌려 갔다.” 육체적이었는지 정신적이었는지, 둘 다였는지 그 자신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본 견해로는 아주 실재였다고 했다. 이렇게 그는 그가 알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적 지배 밑에 있게 될 사태를 보았다.(고후 12:2-4) 틀림없이, 바울이 본 것들은 요한이 그 후에 본 것과 똑같은 것들이었고, 요한은 오직 때가 되어야만 그 의미들을 이해 할 수 있는 **상징들**로 교회에게 표현하도록 허락 받은 것들이었다. 파트모스(Patmos) 섬에서 주님의 계시를 받는 동안에 요한은 환상 속에서 기독교 시대와 기독교 시대의 교회와 국가의 변천하는 광경을 통하여 현재 사악한 세상(시대)의 끝날 까지 미래로 이끌리어, 그 미래의 예언적 환상에서 그는 사탄이 결박되고, 그리스도의 군림과 확립된 새 하늘과 새 땅의 계시를 받았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계 21:1)

시대들과 경륜들

밑의 도표에 예증된 것처럼 대 획기적 시대들이 시대들로 분할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유의한다.



이 대 획기적 시대들의 분할

이 대 획기적 시대들(“세상들”) 중 첫째 것은 분할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하시는 방법은 그 시대 전체(아담이 타락한 때에서 노아 홍수 때까지)를 통하여 변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인간 본성 속에 기록된 그의 율법을 인간에게 주셨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한 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대체로 “사악을 계속적으로” 범하여 타락하는 진로에 내버려두셔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심으로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수 있게 하셨다. 그 첫 경륜은 충실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두를 휩쓸어간 홍수로 끝났다. 그래서 첫 경륜은 죄악의 재난의 결과를 나타낼 뿐이 아니라, 죄악의 경향은 더 큰 타락과 불행으로 빠진다는 것과 만일 인간이 ‘잃은 것’ 곧 첫 지위를 회복하려면 여호와와의 개입이 필요함을 증명한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둘째 대 획기적 시대(“지금 있는 세상”)는 3 시대를 포함한다. 각 단계는 하나님의 계획안 가운데 악을 타도하기 위해서 있다. 매 단계는 먼저 것 보다 더 높고 그 계획을 추진하여 완성에 더욱 가깝게 한다.

셋째 대 획기적 시대(“다가올 세상”)는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미래를 나타내는데, 천년 시대(“만유의 회복의 날”)를 포함한다. 대 획기적 시대 다음에 오는 또 다른 ‘다가올 여러 시대’의 상세한 내용은 계시되어 있지 않다. 현재의 계시들은 죄악에서 인간의 회복을 다루고, 다음에 올 영원한 영광을 다루지 않는다.

“지금 있는 세상”에서 첫째 시대를 조상의 시대(조상의 경륜)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관계와 총애는 소수의 개인들에게만 있고 나머지 인류는 무시되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총애를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인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었다. 이들의 각기는 차례대로 하나님의 총애를 받아온 자인 것 같다. 야곱이 죽었을 때 그 시대나 관계의 체제는 끝이 났다. 야곱이 죽었을 때 그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라고 처음 불리고, 그 전부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인정받았다. 그리고 전형적인 제사들을 통해서 전형적으로 “거룩한 나라”였고, 그들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다른 나라에서 별거되었으며, 따라서 어떤 특유한 총애를 받았다.

야곱의 죽음에서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끝나는 신의 계획의 이 면모를 위해서 할당된 이 시기를 유대인의 시대(율법의 경륜)라고 부른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국민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을 주시고 특별한 계약을 그 국민과 만드셨다. 그 들에게 천막을 주셨으며, 지성소 안에 있는 그의 쉬카이나(shekinah) 빛의 영광은 그들의 지도자와 왕으로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임재를 의미한다. 그 유대 국민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셨으며, 마침내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이적들을 행하시며 그들 가운데서 가르치시고, 다른 국민들에게는 가시려 하시지 않으시며 제자들까지도 주위의 나라들에 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다. “이방사람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의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라. 그 대신에,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은 양들에게로 가라.”(마 10:5,6) 라고 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다. 다시 또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은 양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마 15:24) 이 국민 특유의 총애는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함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끝났다는 것이 “당신

들의 집이 당신들에게로 버린바 될 것이오.”라고 못 박히시기 닷 세 전에 하신 예수님 말씀에 나타나 있다.(마 23:38)

하나님의 계획의 중요한 면모가 이렇게 드러남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 기독교의 시대/복음의 경륜. 그 기간에 ‘의롭다고 인정되는’ 좋은 소식을 유대 국민에게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에게도 포고 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을 맛보셨기 때문이다.(히 2:9) 이 복음시대에도 역시 특별한 호의를 위해 부름을 받은 한 계급이 있으며, 그 계급에게 특별한 약속들이 마련되어 있다. 이 계급은 곧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나 주님으로 받아드리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그들을 말한다. 복음(좋은 소식)의 포고가 여기저기에 1 천 9백년 간 온 땅에 두루 퍼졌기 때문에 복음이 대체로 **각 나라마다** 전도되었다고 지금 말할 수가 있다. 이 복음의 포고는 많은 국가의 국민들을 개종하지는 못하였다. 이 시대에 개종하는 것은 계획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복음의 포고는 여기저기에서 몇 소수씩, 모두해서 “적은 무리”라고 일컫는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했다. 예수님께서서 예언하신 대로(눅 12:32) 다음 시대에 이들에게 왕국을 주시는 것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

알아낸 순서는 조화를 드러냄

이 시대로 “현재 사악한 세상”은 끝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겉으로는 그의 대의를 손상하는 듯 하는 사악의 우세와 지배를 묵인해 오셨지만, 하나님의 깊은 계획은 고정되고 뚜렷한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시기에 정확한 순서를 따라 꾸준히 진전했다. 이 시대의 끝에, 그에 잇따른 천년시대의 초기에 사탄이 결박되고 그의 권력이 타도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설립과 “의가 깃들여 있을 다가올 세상”(벧후 3:13)의 시작을 위한 준비이다.

일천년을 의미하는 천년 기는 이미 요한계시록 20:4에 언급한 기간 - “다가올 세상” 안에서 첫 시대인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담의 타락 때문에 잃은 모든 만물이 천년시대에 회복될 것이며(행 3:19-21) 천년시대가 끝나기 전에 모든 눈물이 닦여질 것이다. 천년시대의 끝을 지나서 다음에 오는 행복의 시대에서는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슬픔과 부르짖음도 없으며 더 이상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것이다.(계시 21:4). 하나님의 계시는 그 이상 열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멈춘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

우리는 여기에서 다만 그 시대의 이러한 계획을 개관했다. 더 연구하면 할수록 그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조화, 미, 질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각 시대는 하나님의 계획의 전체로서 완전한 발전에 필요로 하는 각 시대가 성취할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 계획은 점진적인 것이고, “모든 것을 당신의 뜻이 의도하는 대로 움직이시는”(엡 1:11) 건축가 신의 본래의 계획의 웅대한 완성을 향해 위로 앞으로, 시대에서 시대로 점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 큰 기간의 어느 하나도 그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너무 길거나 너무 짧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수단이 무한하시지만 시간과 방법의 지혜로우신 경제가이시다. 그리고 권력이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의 목적들을 잠깐이라도 지체하거나 좌절케 할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의 감독과 지배

아래, 선한 것뿐이 아니라, 악한 것, 그 모든 것이 함께 그의 뜻의 성취를 이룬다.

복잡한 기계의 전부나 한 부분이라도 한 어린아이에게는 혼동으로 보이는 것 같이, 하나님의 계획의 복잡한 기계의 구조를 단지 조금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하고 훈련이 안된 사람에게는 그것이 무질서, 혼동, 실패로 보인다. 미숙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의 복잡한 기계의 구조를 이해 할 수 없으며, 그 기계의 바퀴들과 피대들이 반대방향으로 움직임은 단지 혼동일 뿐이다. 그러나 성숙한 마음과 연구는 겉보기에 혼동과 같은 것이 훌륭한 결과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아름다운 조화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그러나 기계는 그 어린아이가 기계의 운영을 이해하기 전이나 이해한 후에도 마찬가지로 진실로 성공이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 시대에 걸쳐서 성공적인 운영을 했고, 운영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 계획의 복잡한 일들을 인간으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함뿐이 아니라, 행복 된 결과들을 경험도 할 수 있도록 인간이 필요한 훈련을 받아오고 있다.

우리가 신의 계획에 관한 연구를 추구하는데, 이 시대들과 각각의 특수성들과 목적들을 기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마침 고리 하나는 연쇄가 아니고, 여러 고리들이 결합되어 연쇄를 형성하는 것과 같이, 여러 시대 가운데 계획은 **아무 한 시대 안에서** 보이지 않고 **모든 시대 안에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각 부분의 독특한 특징을 유의함으로서 전체 계획의 정확한 관념을 얻는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딤후 2:15)

한 획기적 시대나 경륜에 속하는 말씀의 성명은 다른 획기적 시대나 경륜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한 시대의 진술된 일들은 다른 시대의 진술된 일들에 언제나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례로, 현재에 관해서 말하기를, 땅이 여호와와 지식으로 가득 찼다거나 각각 자기 친구와 형제를 가르쳐 너희는 여호와를 알아라! 고 말하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사 11:9; 렘 31:34)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일 것이다. 이것은 이 시대에 있어서 사실이 아니고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 주님이 그의 왕국을 설치하실 때까지 사실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통해서 많은 미혹하는 속임이 있었으며, 이 시대의 바로 종말에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마지막 날에 ...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그릇 인도하기도 하고, 그릇 인도되기도 할 것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이다.(딤후 3:1,13)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땅이 틀림없이 여호와와 지식과 의로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은 천년시대에 메시아의 통치의 결과로 이루어질 것이다.(사 11:9; 함 2:14)

이 비슷한 오류이며 매우 일반적인 오류는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설립되고 있고, 지금 땅을 다스리고 있다고 추측하며, 하나님의 뜻이 전 세계 국민들 중에 지금 이루어진다고 추측하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진리와는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이 세상 왕국들은 사람들의 증가하는 지성이 허락하는 만큼 대부분은 압제와 부정과 속임을 통해서 지탱되고 있고, 부유하게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세상의 통치자”(요 12:31,14:30,16:11)인 사탄이 제거되어야 하며, 그리스도가 친히 큰 권세를 잡으시고 왕으로서 통치하실 때, 지금 사탄의 지배 밑에 있는 이 세상 나라들이 우리의 주와 당신(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야 한다.

지금 믿음으로 식구가 된 사람들에게 밝힐 때가된 빛으로, 우리는 과거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중하게 진전하심을 표하는 그 특별한 제도와 질서를 식별한다. 그리고 쿠퍼(William Cowper)가 전능하신 여호와와 뜻의 자취를 찾아낼 수 없을 때에 신뢰하는 산 믿음으로 감명을 받은 아름다운 단시가 강렬히 생각에 떠오른다.

그가 그것을 알기 쉽게 하리라

“하나님은 신비롭게 움직이신다,
그의 불가사의한 일을 실행하시기 위해,
그는 그의 발자국들을 바다에 내시며
폭풍을 타고 달리신다.

“측량할 수 없는 깊은 광산에서
실패 없는 숨씨로,
그는 그의 빛나는 계획을 마음에 새기신다,
그리고는 그의 주권의 뜻을 성취하신다.

“두려워하는 성도들이여, 새로운 용기를 갖기를,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구름들은
큰 자비를 지니고 있고,
갑자기, 너희 머리 위에 축복을 퍼부을 것이다.

“미약한 직감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나 그의 은총을 얻기 위해 신뢰하라.
험한 섭리 뒤에
미소하시는 얼굴을 그는 숨기신다.

“그의 목적들은 빨리 익을 것이다,
시시각각 나타내시면서,
봉오리가 쓴맛이 있을지 모르나,
그와 달리, 꽃은 달 것이다.

눈 먼 불신은 반드시 그릇되고,
그의 일을 헛되이 대충 훑어본다,
하나님은 자신의 해석 자 이시고,
그리고 그가 그것을 알기 쉽게 하실 것이다.

“내 앞일을 모르노라,
기쁨이나 슬픔이 있을지,
어떤 구름이 앞날을 위협할지,
어떤 꽃이 길가에 피게 될 런지,
그러나 내 옆에서 동행하시는 한 분이 계시니,
화복 어느 경우에도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로 내가 위로와 위안을 삼느니,
‘그는 내가 가는 길을 아노라.’”

연구 5

“만세와 만대에서 숨겨진 신성한 비밀이 지금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 골로새서 1:26

- 첫 약속의 가물거리는 빛
-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 희망이 미루어짐
- 신성한 비밀이 오순절에 드러나기 시작
- 신성한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 왜 신성한 비밀이 그렇게 오래 간수 되었나?
-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비밀
- 적절한 때가 이를 때 모두에게 명백하게 됨
- 언제 신성한 비밀이 완성될 것인지

첫 약속의 가물거리는 빛

인류가 사악의 고난을 겪고 있고, 그 고난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없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오실 구원자를 통하여 인류를 회복하시고 축복하시려는 그의 목적을 되풀이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나 누가 그 구원자일 것이라는 것은 4 천년동안 하나의 비밀이었다가 기독교 시대(복음시대) 초기에,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비로소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우리의 첫 양친(아담과 이브)이 생명과 에덴동산의 행복을 잃은 때를 뒤돌아볼 때, 죄의 정당한 형벌을 받아 슬픔에 가득 차있고,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창 3:15)는 모호한 진술에서 추론된 희망 이외에는 한 가닥의 희망도 없이 있는 그들을 우리는 본다. 차후의 진전들에 비추어 볼 때, 그 모호한 진술이 우리에게 중요성으로 가득 한 것이지만, 첫 양친에게는 다만 희미하고 가물거리는 빛에 지나지 않았다. 아무 완성의 증거 없이 거의 2 천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약 2 천년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그의 씨가 땅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창 22:18, 26:4; 행 3:25; 갈 3:8)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으로 표현하신 목적을 여전히 유지하시고 이제 막 성취하시려는 것처럼 보였다. 세월이 신속히 지나갔다. 약속하신 가나안(Canaan)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지 않았다. 아직 자손도 없었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어가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도와야 한다고 추론했다. 그래서 이스마엘(Ishmael)이 태어났다. 그러나 그의 도움이 필요 없었다. 이것은 적절한 때에 희망과 약속의 아들 이삭(Isaac)이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 때에 약속된 모든 나라의 통치자이며 축복자가 온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아니었다. 여러 해가 흘러지나갔으며, 이삭이 죽고 그의 상속인 야곱도 죽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였다. 그러나 소수의 믿음은 여전히 그 약속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지탱해 주셨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을 하나님의 “맹세로 이삭에게 보증하셨고, 야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한정 없이 지

속되는 계약으로 확증하셨기” 때문이다.(대상 16:16,17)

희망이 미루어짐

야곱이 죽을 때 그의 자손들을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십이 지파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민족”(창 49:28; 신 26:5)으로 인정하실 때, 이 민족 전체가 아브라함의 약속된 씨로서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세상을 지배하며 축복하리라는 예상이 실현에 임박한 것으로 보였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혜택을 받아 이미 그들이 강한 민족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집트 국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고,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을 노예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의 희망은 거의 꺾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거의 잊혀졌다.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들은 미궁에 빠지고,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알아낼 수 없을 것같이 보였다. 그러나 적절한 때가 되자, 위대한 구원자인 모세가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위대한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모세의 손으로 그들을 노예속박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위대한 구원자는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모세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실 것이다.”라고 선언했다.(신 18:15; 행 3:22)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에 그 이상의 통찰력을 주어, 다음 사실을 나타내 주었다: 그들의 국민이 전체로서, 어떻게든 지배하고 축복하는 미래의 일에 제후할 뿐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 선택 될 한사람이 승리와 그 약속의 실현으로 이끌 것이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구출자, 구원자라는 의미)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그의 지도 아래 큰 승리들을 얻어, 계약 가운데 약속된 땅에 실제로 들어갔다. 확실히 그 때에 참된 지도자가 온 것 같았으며 약속이 막 완료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그들에게 다윗, 그 다음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그들은 한 국민으로서 진보하지 못했다. 솔로몬 때 그들의 번영이 아주 절정에 이르렀다. 그러나 약속이 곧 성취됨을 경험하는 대신, 그들은 권세를 박탈당하고 다른 국민들에게 종속되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간직하고,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이 최상의 전형인 위대한 구원자를 여전히 기대하였다.

신성한 비밀이 오순절에 드러나기 시작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의 오실 왕이시며,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의 왕이 되실 메시아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눅 3:15) 그러나 오시는 왕의 영광과 명예에 관한 이스라엘의 희망이 왕의 위대함과 권능에 관한 전형과 예언들로 고무되어, 축복이 올 수 있기 전에, 죄인들을 위하여 속죄물로서 필연적인 고통과 죽음의 일을 지적한 다른 한 쌍의 전형과 예언들을 그들로 하여금 간과하게 했다.

이 고통과 죽음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인도되어 나오기 전에 유월절에서, 율법계약을 줄 때 동물들을 잡는 데서,(히 9:11-20; 10:8-18) 그리고 제사장들이 해마다 계속 이행하는 속죄하는 제물들 가운데 예시되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통과 그에 뒤따르는 영광을 미리 증언한”(벧전 1:11) 예언자들의 성명도 간과하였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산 제물로서 오셨을 때, 그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이 검사 받는 때를 분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눅 19:44) 그의 바로 가까운 추종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심하게 당혹되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출하게 되어 있는 분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눅 24:21)라고 그들은 애처롭게 말했다. 명백히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신뢰를 잘못 두었다. 그의 추종자들은 그들의 지도자의 죽음이 새 계약(렘 31:31) 밑에서 축복이 오게 되어있는 그 새 계약을 위한 보증이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계약의 부분적인 성취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시들어진 소망이 다시 소생하기 시작하였다.(벧전 1:3)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 시려고 할 때 그들은 그들의 오래 소중히 여기고 자주 지연된 소망에 관하여 물었다. “주여, 당신은 이때에 이스라엘에 왕국을 회복시킬 것입니까?” 그들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그 때는 알 수 없겠지만, 그들의 소망은 주로 옳았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대답에서 분명해졌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관할에 두셨으니, 그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은 여러분에게 속한 일이 아닙니다.”(행 1:6,7)

지금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의 제자들의 질문이었음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대개 비유와 수수께끼로 되었다는 것(시 49:4)을 우리는 상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말할 것이 아직도 많으나 지금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가 도래하면 여러분을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돕는 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줄 것입니다.”(요 16:12,13; 14:26) 그래서 오순절의 축복이 오기 전에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신성한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그때조차도 제자들은 수행되고 있는 일(고통과 죽음)과 최초의 계약과의 관계를 명백하고 충분한 이해를 얻기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걸렸다.(행 11:9; 갈 2:2,12,14) 그러나 그들이 충분히 명백하게 이해하기 전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대변자들로 쓰였고, 그들의 영감을 받은 말들은 그 자신들이 충분히 이해한 것 보다 필시 더 명백하고 더 깊은 진리의 표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례를 들어, 야곱의 설교를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음으로 이방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이름을 위한 백성(신부)을 취하시려고 그들에게 주의를 돌리셨는지 시메온이 자세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말과도 일치합니다. 이렇게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이 일 후에 -이 백성이 이방사람들 가운데서 취해진 후-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제건 할 것이며 그 폐허를 재건하여 다시 세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행 15:14-16)

복음을 베드로를 통해서 첫 이방인 개종자에게, 바울을 통해서 대체로 이방인들에게 보낸 점에서, 야곱은 이 시대에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똑같이 은총을 받게 되어있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야곱은 예언들을 조사하여 이 복음시대의 일이 완성된 후, 육적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들이 성취될 것임을 발견했다. 그렇게 오래 숨겨진 큰 신성한 비밀이 차차 소수인 성도들, 특별

한 하나님의 “친구들”은 이해하기 시작했다.

바울이 선언하기를(골 1:27) 만대에서 숨겨진 신성한 비밀이 지금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것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희망입니다.”

이 구절은 과거 모든 시대에서 숨겨지고, 특수한 계급 -성도들, 즉 정결함을 받아 하나님께 바친 신자들- 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나 아직도 숨긴 하나님의 큰 비밀이다. 그러나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셨다는 것을 배웠다.(행 10:38) 따라서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정결함을 받아 하나님께 바친 신자들) 받은 **기름부음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고 있다.(요일 2:27) 이렇게 이 복음시대의 성도들은 기름부음을 받은 일단이다. -하나님께 왕 겸 제사장들로 삼도록 기름부음을 받은 일단이다.(고후 1:21; 벰전 2:9)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들은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그리스도)를 구성한다.

우리도 역시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이 요한의 가르침과 조화되어,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 사실을 확신해준다: 과거 시대에 숨겨있었지만, 지금 성도들에게 알려진 이 비밀이란, 마치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기름부음을 받은 자)는 “구성원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몸의 지체들이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기름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도 그렇다는 것이다.(고전 12:12-28) 예수님은 그의 몸인 교회(엡 5:25-30에 다른 비유로 표현한 대로, 그의 신부)의 머리가 주님이 되게 기름부음을 받으시고, 그의 몸과 결합되어 그들은 **약속된 “씨”**(그 위대한 구원자)를 구성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면, 너희는 참으로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대로 **상속자들**입니다.”(갈 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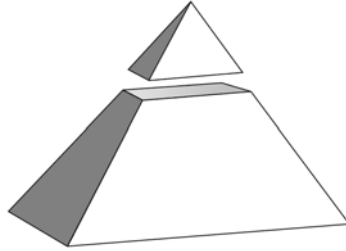
사도 바울은 어느 담대한 주장에 대비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신중히 경계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의 발아래 복종시켰으며, 그를 모든 것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모든 것 가운데 **으뜸가는 분**이 되시기 위함입니다.”(엡 1:22; 골 1:18) 더욱, 바울은 인간 몸의 그림으로, 우리와 머리의 절친한 관계를 아름답게, 그리고 강력히 보여준다. 이와 똑같은 일체를 예수님도 역시 가르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입니다.”(요 15:5)

기름부음 받은 일단인 그리스도의 구성원들로서 주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 일체는 피라미드(Pyramid) 형태로 잘 예증되어 있다.

머릿돌(벰전 2:6; 엡 2:20; 사 28:16)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피라미드이다. 다른 돌들은 그 밑에 쌓아 올리게 될 수 있고, 만일 머릿돌의 모든 특징의 선들과 조화되면, 전체덩어리가 하나의 완전한 피라미드가 될 것이다. 이것이 “그 씨”(그리스도)의 구성원들로서 우리의 위치를 얼마나 아름답게 예증하는지 모른다. 우리 머리에 접합되고, 우리 머리와 완전히 조화된 우리는 산 돌들로서(벰전 2:5) 완전하며

머리에서 분리되면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다.

완전한 분이신 예수님은 지극히 높여 지셨다.(빌 2:9) 그리고 지금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그에게 드린다. 그래서 그의 모본에 따라 형성되고, 형체를



이를 수 있어서, 하나님의 건물로 세울 수 있기 위해서이다. 보통 건물에는 **우두머리** 모퉁이 돌(엡 2:20)이 없다. 그러나 “보라! 내가 시온에 하나의 돌을 두리니, 택함 받은 귀중한 기초 모퉁이돌이다.”라고 기록된 대로, 우리 집에는 한 우두머리 모퉁이 돌인 “머릿돌”이 있다.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함 받은 귀중한 산 돌이신 그 분에게 나아와서”, “여러분 자신도 산 돌로서 거룩한 제사직을 위해 영적인 집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아드리실 만한 영적인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려는 것입니다.”(벧전 2:6,4,5). 그리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그의 몸인 교회 사이에 합일이 곧 완성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재난과 많은 수양을 견디어야 한다. 많은 변화를 입게 되어야 하며, 위대하신 건설가의 지도아래 그의 모본을 따라 많이 본받아야 한다. 그리고 건설가의 능력과 이상적인 것을 우리 안에 발휘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대항하거나 좌절하는 우리자신의 외고집의 의도가 없다는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아주 어린애 같고 겸손해야 한다. “자기를 낮춘 정신으로 허리를 졸라 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력하신 손아래 자기를 낮추십시오. 그 특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와 선구자 되시는 예수님을 탁월한 위치로 높이신 것 같이,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벧전 5:5,6; 빌 2:8,9)

왜 신성한 비밀이 그렇게 오래 간수 되었나?

이것은 참으로 놀랄만한 전갈이다. 그래서 우리의 위로 부르심(빌 3:14)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 할 때,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온 은혜(자비, 축복)를 모두 웅변적으로 공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벧전 1:10) 그 위에 전형들, 비유들, 그리고 지금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지금 그들의 빛을 “좁은 길”(마 7:14)위에 발산하면서 빛을 발하는 동안 그 “좁은 길”에서 기름부음을 받은 그

■ 시나이의 MS 판은 제물 앞의 영적인 이라는 말을 생략하고 있다.

리스도 구성원들이 지금 공공연히 드러난 상을 얻기 위하여 경주(고전 9:24)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오직 한 분뿐이 아니라, 많은 구성원으로 구성된 구원자를 세우시려고 하신다. 이것이 진실로 일찍이 상상 한 적이 없던 비밀이었다. 이것이 “위로 부르심”이며 이것이 복음시대의 정결함을 받아 하나님께 바친 신자들이 달성할 수 있는 특권이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육체에 속하여 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밝히시지 않으시고, 그들이 오순절 때 기름부음을 받을 때까지 -새로운 본성으로 탄생되는 것- 기다리셨다. 바울의 설명에서, “새로운 피조물”(고후 5:17)외에는 아무도 이 위로 부르심을 존중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말하는 것은 **신성한 비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계획), 바로 그 숨긴 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들 중 어느 한사람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았다’라고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성령을 통하여 바로 우리에게 계시 하셨습니다”(고전 2:6-14)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서한에서 바울은 신성한 비밀 전체를 밝히고 있으며, 어떻게 아브라함의 계약이 성취되리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은 맨 처음의 계약과 상관하지 않았다는 것과(갈 3:15-18) 모든 민족을 축복할 아브라함의 씨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갈 3:16)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모든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자들을 포함한다는 이미 언급된 관념을 전달하면서, 그가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참으로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에 대한 상속자들입니다.”(갈 3:27,29) 이와 똑같은 내용의 추리를 철저히 좇아,(갈 4장) 아브라함은 여호와와 전형, 사라(Sarah)는 계약의 전형이나 약속의 전형, 이삭은 그리스도(머리와 몸)의 전형이라는 것을 그는 밝혔고, 그 다음에 부언하기를,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삭처럼 약속에 속한 자녀입니다.”(갈 4장 28절)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시대에 그리스도의 발달(성장)이 시작될 때까지 전형 속에 숨겨 있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비밀

이 신성한 비밀을 숨겨진 채로 보전할 필요가 있었다. 그 이유가 없었다면 비밀로 숨겨두지를 않았을 것이다. 그것이 필연적이었다. 왜냐하면, 그 계획을 인류에게 자세히 드러낸다는 것은 그 계획을 좌절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만일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이나 그의 몸인 교회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고전 2:8) 만일 계획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비밀로 간직되지 않았더라면, 인간을 구속하는 대가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방해되었을 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통을 함께 당하는 자들로서, 교회의 믿음을 시험받는 일도(롬 8:17; 벰전 1:7) 역시 방해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그의 공동 상속자로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똑같은 이유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요일 3:1)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의 바로 진수인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큰 비밀일 뿐이 아니라, 적은 무리가 견도록 부르심을 받은 특유한 행로는 그리스도의 구성원들을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벰전 2:9)이라고 특색을 이룬다는 것도 세상 사람들

에게 큰 비밀이었다. 나사렛의 예수같이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 만일 그의 주의를 정치, 법률, 상품이나, 유행의 종교로 돌렸더라면, 그는 위대해지고 존경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에서 보면, 그의 시간과 재능을 그가 행 하셨듯이 소비하였다는 것이 세상에겐 비밀이었다. 인간의 의견으로는, 그는 어리석게 그의 생애를 낭비하였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가 악귀가 들려 미쳤소”라고 말하였다.(요 10:20) 그의 생애와 가르침들이 그들에게는 불가사의한 것들이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다.

사도들과 그들의 동료들은 세상에서 마찬가지로 불가사의한 존재들이었다. 왜냐하면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을 것을 전도하기 위하여 그들이 전망이 있는 직업을 떠났다는 것 때문이었다. 바울은 높은 위치와 사회적 영향력을 내 버리고 그의 손으로 노동하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행하는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면류관을 전도하였다. 이것이 그렇게 불가사의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바울, 당신은 미쳤소!. 많은 학식이 당신을 미치게 하였소..”라고 했다.(행 26:24) 그리고 바울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그렇게 추종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한 자로 보인다.

적절한 때가 이를 때 모두에게 명백하게 됨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비밀 속에 숨겨 있지 않을 것이다. 천년기의 날 새벽에 더 충만한 하나님의 빛을 인간에게 오게 하여, “온 땅이 여호와에 관한 지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사 11:9; 합 2:14)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무지의 암흑을 일소하는 그 의로운 해는 천 년간 영광중에 있는 그리스도(그 머리뿐이 아니라, 그의 몸의 구성원들)이다. 이것은 기록된 바대로 이다.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그 때에 여러분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때에 의로운 사람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와 같이** 밝게 빛날 것입니다.”(말 4:2; 롬 8:17; 딤후 2:11,12; 골 3:4; 마 13:43)

현재,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음으로서, 새로운 마음으로 태어난 사람들 이외의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가 믿고 있는 약속들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소망들이 환상적이고 너무나 사실 같지 않아서 받아지거나 좇아 행동할 수가 없다. 장차 다가올 시대에 하나님께서 현재 시대에 그의 영으로 그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시는 것 같이, “그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실 때”, 그 때에 참으로 “적은 무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약속들을 모두 이해하고 존중할 것이다.(행 2:17,18; 욥 2:29,28) 그리고 그들은 순종하며, 교회를 찬양하는 가운데 기뻐할 것이며, “함께 기뻐하고 기쁨에 넘쳐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어린양의 결혼 날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준비를 마쳤기 때문이다.”(계 19:7)라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영광 받은 교회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며, 그 때에는 그 영광 받은 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그들에게 충만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기름부음을 받은 자들(머리와 몸)이 상속받은 “매우 위대하고 귀중한 약속들”(벧후 1:4)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한편, 교회 가운데 예증된 교훈으로 그들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때에 그들에게 약속 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경주하는 동안 교회의 전례는 그들에게 유익을 줄 것이며, 그들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가 “매우 위대하고 귀중한 약속들”을 받았다는 지식은 탐욕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질서아래 완벽한 인간의 성품에 이르게 하는 그들의 부르심으로 그들은 충분히 만족할 것이며, 그들의 부름이 그들에게는 본성의 변화(인간본성에서 신의 본성으로)보다 더 바람직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때에는 “그 신성한 비밀”이 끝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증거 되셨다’라고 하는 점을 그들이 그 당시까지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은 우리가 미치거나 미련했던 것이 아니라(행 26:24) 우리가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들 곧 부와 존귀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갈 때 우리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는 것을(눅 10:42) 그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언제 신성한 비밀이 완성될 것인지

하나님의 신성한 비밀은 일곱째 상징적 나팔을 부는 기간, 어떤 시점에 끝나게 될 것이다.(계 10:7) 이것은 다음 두 가지로 사용된 비밀의 뜻 양쪽에 적용 한다: (1) 신성한 비밀(하나님의 계획의 비밀의 면모들)이 그 때에는 알려지고 분명히 보일 것이다. 그리고 (2) “하나님의 신성한 비밀”, 그 계획의 진수인 교회도 알려지고 분명히 보일 것이다. 그 때에는 그 둘 다가 끝나게 될 것이다. 그 비밀(숨긴 계획)이 그리스도의 몸의 찬 숫자, 완전한 숫자의 구성원들을 찾아낼 것이다. 그러므로 신성한 비밀인 그리스도의 몸이 끝나게 될 것이다. 그 계획은 더 이상 비밀로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계획의 비밀을 더 이상 영속시킬 목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오래 비밀로 간직되고 약속들, 전형들, 상징들 속에 숨긴 신성한 비밀의 위대함과 이 신성한 비밀에 참여(엡 3:9)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부여한 놀라운 은혜는 6천 년 동안이나 여호와께서 인류를 계속 기대와 희망 가운데 내버려두신 신성한 비밀이 완료된 다음에 오는 일이 그러한 중대한 준비들의 가치가 있는 막대한 일, 웅대한 일임에 틀림없다고 우리에게 암시 해준다.

신비의 장막이 걷히고, 축복의 소나기가 쏟아져 내려올 때 세상에 내릴 축복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해서 되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 신성한 비밀의 완성을 기다리면서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계속 함께 신음하며, 함께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그들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하나님의 아들들인 약속된 “씨”가 나타남을 위해서이다.(롬 8:19,21,22)

주의 날의 제물

“당신께 드립니다,
 모든 가슴의 고통, 당신의 것입니다,
 모든 나의 인간의 유대,
 모든 기쁨, 모든 고통,
 모든 마음이나, 머리의 행동—
 내가 송축하는 하나님!

모든 희망, 모든 두려움,
 모든 웃음, 모든 눈물,
 모든 노래와 찬미,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 합니다
 ('Laudamus Te.').

“이 모두를 가져가십시오, 나의 송축하는 하나님,
 그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어,
 당신을 내 안에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숭배 받으실 분!
 당신의 말씀으로 그들을 번성케 하소서,
 내 주님, 완전하신 사랑을!
 강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증대하게 주소서,
 당신은 처음과 나중이요!”

연구 6

우리 주님의 재림 - 그것의 목적
만유의 회복

- 우리 주님의 재림, 천년 왕국 이전에 개인으로
- 재림의 첫 강림과의 관계
- 교회의 선택과 세상의 전향
- 택하심과 값없이 주시는 은혜
- 소망을 품은 갇힌 자들(눅 9:12)
- 만유의 회복에 관한 예언자의 증언
- 우리 주님의 재림은 명백히 교회와 세상의 희망

우리 주님의 재림, 천년 왕국 이전에 개인으로

“그는 여러분을 위하여 임명된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은 참으로 그를 그 안에 모셔야 합니다.”(행 3:20,21)

우리 주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느 방법으로 언젠가 그가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그의 제자들이 이해할 것을 의도하신 것은,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성서에 익숙한 사람은 누구나 인정하고 믿고 있다. 실로 예수께서 “보십시오! 나는 사물의 제도의 종결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습니다.”(마 28:20)라고 말씀하시고, 그는 그의 영광과 그의 말씀으로 그의 성도들을 안내하시고, 지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떠받치시며 그들의 모든 고통가운데서 그들을 격려하시면서 계속해서 교회와 같이 계시었다. 그러나 교회가 모든 교회의 경로를 예수께서 알고 계시고, 그가 항구적으로 권고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행히 의식을 하였지만, 아직도 교회는 그가 약속하신 개인의 재림을 열망한다. “내가 가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요 14:3)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확실히 **개인의 재림**을 언급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언급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파괴 등을 언급하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오순절이 지난 지 한 60년 후, 예루살렘이 파괴 된지 26년 후에 기록된 성경 맨 마지막 책에, 죽었다가 살아나신(계 1:18) 그가 아직 미래 사건에 대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 한테로 갚아 주리라.”고 언급하신 사실을 이들이 유의하지 못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이에, 영감을 받은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십시오”(계 22:12,20)라고 답변한다.

꽤 많은 수가 생각하기를,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전향할 때 그것이 예수의 재림의 한 부분을 형성한다고 하며, 그래서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로 전향할 때까지 그는 계속 오실 것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완전히 오시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이들은 분명히 그들의 기대에 반대를 선언하는 주제에 관한 성서의 다음 증언들을 잊고 있다: (1)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전혀 하나님께로 전향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2) “마지막 날에 대처하기 어려운 위험한 때가 올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사랑”한다는 것.(딤후 3:1-4) (3)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그릇 인도하기도 하고 그릇 인도되기도 할 것”이라는 것.(13절) 그들은 적은 무리에게 주신 주님의 특별한 경고를 잊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과식, 과음과 생활의 염려로 짓눌려, 갑자기 그 날이 덮과 같이 순식간에 **여러분에게** 닥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은 온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입니다.”(눅 21:34,35) 그밖에, 그들이 그가 재림하시는 것을 볼 때, “땅의 모든 부족이 그 때문에 비탄에 잠겨 가슴을 칠 것입니다.”(계 1:7)라고 하신 말씀에, 죄인들이 전향되는 것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전향되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애곡하는가? 이에 반하여 거의 모두가 인정하듯이, 만일 위의 구절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언급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도리어 다음 사실을 가르친다. 만일 모든 사람이 전향되었다면, 그들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출현을 반길 것이지만, 지상의 모든 사람이 그의 출현을 반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

어떤 사람은 주님의 육체적 재림과 임재를 예기하나, 현재의 상태(육신상태)에 있는 교회의 노력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께로 전향되어야 하고, 이렇게 천년시대가 소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림 **시일을 멀리 정한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세상이 하나님께로 전향되고, 사탄이 결박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며, 나라들이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을 그 때 현재의 상태(육신상태)에 있는 교회의 일이 끝날 것이며, 교회가 이 중대하고 어려운 임무를 성취할 때, 주님이 지상의 용건들의 결말을 짓고 신자들을 보답하시고, 죄인들을 정죄 하시기 위하여 오실 것이라고 한다.

어떤 성경 구절들은 제각기 따로 취하면 이 견해를 지지하는 듯하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계획을 전체로서 고찰할 때, 이 모두가 정반대의 견해를 지지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즉 그리스도는 세상이 하나님께로 전향되기 전에 오시며, 그 전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통치하신다는 것과 교회는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것과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상은 영광을 받은 후, 그 통치에 주님과 함께 참여한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 통치는 세상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게 하는 하나님의 지정된 수단이다. 주님의 특별한 약속은 이와 같다. “이기는 사람은 나와 함께 내 왕좌에 앉게 하겠다.”(계 3:21)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동안 왕으로 통치하였다.”(계 20:4)

주께서 천년시대 후까지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신뢰하는 두 본문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그 두 가지 본문에 주의를 환기하려고 한다. 첫째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도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이다.(마 24:14) 그들은 이것을 복음시대의 종말 전에 세상이 하나님께 전향함에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상에다 **증언하는 것은 세**

상의 전향함을 함축하지 않는다. 이 본문은 세상이 이 증언을 어떻게 받아드리는가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다. 이 증언은 이미 나갔다. 1861년에 성서협회의 보고서들은 보여주기를, 지상 수백만의 모두가 복음을 받아드리지 않았지만 그것이 지상 모든 언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니다. 이제까지 현존하는 16억 인구 중 그 절반도 예수의 이름을 들어 본적이 없다. 그러나 본문의 조항은 성취되었다. 곧 복음(좋은 소식)이 **증언**으로서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전도되었다.

사도 야고보(행 15:14)는 현재시대에 복음의 **주요목적**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에게 결합되고, 그의 이름을 받게 될 이겨내는 교회 곧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시대에 세상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은 둘째의 목적이다.

둘째 본문은 “내가 네 적들을 네 발판으로 놓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이라”(시 110:1) 이 본문에 관하여, 모호하고 불명확한 관념은 그리스도가 하늘 어디에 물질적 보좌에 앉아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그에게 순종케 하는 일이 성취될 때까지 계시다가, 그 다음에 그가 통치하려고 오시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그릇된 생각이다. 참조된 하나님의 보좌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그의 최고의 권세와 통치자의 위치를 지시한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는 그 통치자의 지위를 공유하도록 높이 지셨다. 바울이 선언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분(예수)을 탁월한 위치로 높이시어, 친절하시 게도 그에게 다른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빌 2:9) 하나님은 그에게 아버지를 제외하고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를 주셨다. 만일 그리스도가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등상 만들 때(모두 순종케 할 때)까지 물질적인 보좌에 앉아 계시면, 당연히 만물이 정복 될 때까지 그가 오실 수 없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오른 손”은 고정된 위치와 벤치가 아니라, 우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권능, 권세, 통치자의 위치를 지시한다. 그 말은 검토 중에 있는 본문이 그리스도에게 부여된 권능의 힘으로 “모든 것을 그 자신에게 복종시키기”(빌 3:21)위하여 그가 오신다고 가르치는 다른 구절과 결코 불일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이 된다. 예를 들면, 윌리엄(William)황제가 독일 왕좌에 앉아 있다고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왕의 벤치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그는 좀처럼 벤치를 차지하지 않는다. 그가 왕좌에 있다고 하는 말은 그가 독일을 통치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편은 최고의 위치, 최고의 통치자 다음, 탁월하거나 호의적인 위치를 의미한다.

이렇게 독일황제가 왕자 비스마르크(Bismark)를 높였다. 곧 권세의 우편에 앉혔다. 그리고 이집트 왕국에서, 요셉(Joseph)을 파라오(Pharaoh)의 우편에 앉혔다. 글자 그대로가 아니고 재래의 비유적 표현이다. 예수님께서 가야바(Caiaphas)에게 하신 말씀은 이 사고와 일치한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마 26:64) 오실 때 그는 우편에 계실 것이며, 천년시대와 그 후 영원히 계속 우편에 남아계실 것이다.

재림의 첫 강림과의 관계

하나님의 나타난 계획들의 더 깊은 연구는 첫 강림과 재림의 목적의 더 넓은 견해를 줄 것이다. 그리고 두 사건은 한 계획의 부분으로서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첫 강림 때의 특수한 일은 인간을 **구속**하는 것이고, 재림 때의 특

수한 일은 만유를 **회복**하고 구속된 자들을 축복하고 해방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속죄물로 주셨으므로(딤후 2:6) 우리 구세주는 그 제물을 아버지께 바치시기 위하여 승천하셨다. 이렇게 인간의 죄를 위해 화해시킨다. 현재 사악한 세상(갈 1:4)의 영향을 극복해야 하며, 그러한 명예를 얻기에 **합당**하다고 간주되는 “신부, 어린양의 아내”(계 21:9)의 선택 이후까지, 그는 이 세상의 통치자”(요 12:31)가 사악한 통치를 계속하는 것을 묵인하시며 기다리신다. 그 때에는 그의 희생으로 그들에게 보장된 큰 축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일을 시작하기로 되어있으며, 그는 땅의 모든 가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실로, 구속자가 속죄물 값을 치르셨을 때, 만유를 회복하고, 축복하는 일을 즉시 시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메시아의 임하심은 한 가지 사건(첫 강림)뿐이고, 최초에 그의 사도들이 기대하였듯이(행 1:6) 통치와 축복의 일을 즉시 시작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그리스도 교회)를 위하여 더 나은 것을” 예비하셨다.(히 11:40)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통치는 19세기동안 그 머리의 고난에서 분리되었다.

온 인류를 위하여 속죄물로 주심과 온 인류에게 주실 축복 사이인 첫 강림과 재림사이의 기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시험하고 선택하기 위한 기간이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의 재림은 없고 첫 강림만 있었을 것이며, 천년시대에 두 번째 임재기간에 성취할 일이 예수님 부활에 잇따라 일어났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재림 때의 일이 첫 강림 때의 일을 즉시 잇따라 일어났을 것이라라고 말하는 대신, 그보다는 이렇게 말하자— 만일 여호와께서 “적은 무리”(“그리스도의 몸”)를 선택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었다면 첫 강림은 과거에 일어나지 않고 재림 때 일어났을 것이며, 강림이 오직 하나만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곱 세 천년동안에 만유를 정결케 함과 회복하게 함이 성취될 것뿐이 아니라, 6천년동안 사악의 **묵인**을 분명히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죄인들을 위한 희생과 속죄물로서 예수님께서 오심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 자”(롬 8:17)인 “적은 무리”의 선택을 고려하여, 축복과 만유를 회복하는 시기보다 충분히 오래 앞당겨 일어난 것을 깨닫게 됐다. 이것이 속죄물 속에 약속되고 준비된 축복을 베푸시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에 명백한 지연의 이유를 밝혀줄 것이다.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하여 그 대가가 인간이 기대했을 것 보다 훨씬 이전에 미리 준비되었지만 축복은 최초에 계획된 대로 때를 맞추어 올 것이다.

교회의 선택과 세상의 전향

예수님의 승천에서 시작하여 만유를 회복하는 시기의 초인 천년시대 초까지, 그 사이에 긴 전 기간 동안, 예수님은 지상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신다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만유가 회복될 **때까지**, 하늘은 그를 그 안에 모셔야 합니다.”(행 3:21) 성경말씀이 우리 주님의 재림의 목적은 만유의 회복이라는 것과 그가 나타날 때, 이방인들은 격분하고(계 11:18) 대항상태에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로 전혀 전향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므로, 다음 둘 중에 하나를 인정해야 한다: (1) 교회가 교회 사명을 성취하는데 실패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까지는 좌절될 것이라거나, (2)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장하고 제시한 것같이, 현재 시대에 세상을 하나님께로 전향하게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으나 교회 사명은 좋은 소식(복음)

을 온 세상에 **증거 하기 위하여** 전파하고(마 24:14) 교회의 위대한 미래의 사명을 위해서 신의 지도 아래 교인 자신들을 준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전향하게 하시는 그의 권능을 아직 결코 고갈하시지 않으셨다. 아니, 그보다 더하시다. 그는 세상의 전향을 아직 **시도조차도** 하시지 않으셨다.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상한 진술 같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만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시도 하셨다면, 그는 현저히 실패하셨다는 것을 반영하기 바란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아온 바와 같이, 지상 수역의 사람들 중에 소수만이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이 하늘 아래 없는 **유일한 이름**(행 4:12) 지적으로 들어 본적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지 몇 개의 지도적인 종파들인 침례교, 장로교, 등의 견해와 가르침을 강력히 진술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적은 무리” 곧 교회를 선택하시고 계시다는 것. 그들은 하나님께서 단지 교회만을 선택하실 뿐이라고 믿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신의 계획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간 단계인 교회 선택이 끝나고 영광을 받을 때, 택함 받은 교회를 통해서 성취 될 세상을 위한 만유의 회복을 가르치는 성서를 발견한다. 이 복음시대의 “적은 무리”인 이긴 자들은 그들 안에서나 그들 때문에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얻게 되는 “그 씨”의 단지 몸이다(머리는 제외됨).

여호와께서 6천년동안 세상을 하나님께로 전향하려고 노력하셨는데 항상 실패하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견해를 성경의 보증 곧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성취되며, 그의 말씀은 헛되지 아니하고 **그가 하라고 보낸 일**에서 성공할 것임(사 55:11)과 일치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함에 틀림없다. 세상이 아직 하나님께로 전향하지 않았다는 것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지 않다는 사실은 이 말씀이 그 사명을 띠고 **보내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택하심과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럼 우리는 수세기 동안 기독교인들을 분할한 두 가지 방향의 사고, 즉 택하심과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한다. 이 두 교리는 명백한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지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어느 성경 연구자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든 두 가지가 다 진실임에 틀림없으나, 하늘의 율법과 **질서**를 관찰하고, 이 제목에 대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않고는(딤후 2:15) 이 둘이 결코 일치할 수 없다는 것을 추측하도록 이 사실은 우리를 즉시 인도해야 할 것이다.

이 질서는 주시해본다면, 시대에 관한 계획 가운데 묘사된 대로, 택하심은 현재와 과거를 통하여 계속하고 있지만, 구별 방법으로 명시된 값없이 주시는 은혜는 천년시대를 통하여 대체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예비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줄 것이다. 만일 바로 이전 장에서 개관한 시대들과 경륜들의 독특한 특징이 마음속에 새겨 있고, 택하심과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관계되는 모든 성경구절들을 찾아내고 검토한다면, 택하심을 다루는 모든 성경구절들은 현재와 과거시대에 응용되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다루는 성경구절들은 완전히 다음 시대에 적용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바와 같이, 택하심은 임의의 강제나 보통 운명론의 옹호자들이 신봉하고 가르치는 운명론이 아니고, 그 선택 목적을 위하여 지정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유의하시고 계신 목표에 적합함과 적응에 의거한 선택이다.

아르미니아 인들(Arminians)이 옹호하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교리는 이 교리의 가장 진지한 옹호자들이 이제까지 가르쳤던 것 보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훨씬 장려한 전시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나 특별한 사랑은 공로 없이 얻어진다는 뜻에서 언제나 값이 없다. 그러나 인간이 죄로 타락한 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는 특수한 개인, 민족, 계급에게 제한되었다. 그런데 다음 시대에는 천하 만민이 그 당시에 모두에게 알려지는 조건들에서, 그 때에 부여되는 은혜를 같이 받도록 초청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거저 마시게 될 것이다.(계 22:17)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대강 훑어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는 자 곧 그 약속된 씨가 오는(갈 3:29) 가계를 통하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의 어떤 정해진 자손을 선택하시는 것을 우리는 유의한다. 전형적으로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위한 위대한 일을 완수하시리라는 것을 예증하신 나라로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을 우리는 역시 유의한다. 이집트에서 그들의 구출, 그들의 가나안 땅(Cannan), 그들의 계약, 그들의 율법, 죄를 위한 제사, 범죄의 소멸과 백성들에게 뿌리기 위한 그들의 동물 제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완수하기 위한 그들의 제사장은 세상 모든 인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참 제사장과 참 제물의 모형이며 전형적 표상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땅의 모든 가족 중에서 오직 너희만을 알았다.”하셨다.(암 3:2)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 백성만을 알아보셨다. 그렇다. 그리고 그 후에도 그랬다. 그리스도의 직무는 그들에게 제한되었으며, 그가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방 사람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의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그의 제자들이 다른 민족에게 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그의 제자들이 묻기를, “주여 어째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냐하면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은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마 10:5,6, 15:24)고 하셨다. 그의 모든 시간을 죽으실 때까지 그들에게 바치시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값없고 풍부한 은혜를 첫 번으로 나타내셨다. “적절한 때에” 같은 은혜가 세상 모든 인류에게 진실로 축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가장 숭고한 선물인 이것은 민족이나 계급에게 제한되지 않았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 보셨기 때문이다.(히 2:9)

그리고 지금도 역시 복음시대에 어떤 종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얻는다. 세상의 어떤 지역은 다른 지역들 보다 (값없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오는) 복음으로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

세계지도를 한번 보자. 얼마나 작은 부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뚜렷한 정도로 교화되고 축복이 되었는지 보자. 특권과 지식을 가진 당신 자신과 오늘날 부르심을 들어 본 적이 없고, 따라서 부르심을 받지 못한 이교의 암흑에 있는 수백만 수의 사람들과 대조해 보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들이 되기 위하여 부르심 받고 그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이룩한 일단의 수가 찰 때, 그 다음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시작일 것이다.

그 일단이 선택되고, 성숙해지고, 권세의 자리로 높여지기까지는 **그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그 분이 **얼마 안 있어** 사탄을 여러분의 발아래 부서뜨리실 것입니다.”(롬 16:20, 창 3:15) 복음시대는 신랑이 오시는 것을 위해서 정결한 처녀, 충실한 교회를 예비케 한다. 그리고 이 시대 끝에, 교회가 **“준비”** 될 때(계 19:7) 신랑이 오시고, 예비한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마 25:10) 둘 째 아담과 둘째 이브는 한 몸이 되며, 그 다음에 만유의 회복의 영광스러운 일을 시작하게 된다. 이다음 경륜,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교회는 더 이상 정혼한 처녀가 아니고 신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과 신부가 오시오! 하고 계속 말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듣는 사람은 오시오! 하고 말하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거저 마십시오.”(계 22:17)

복음시대는 교회의 사명을 종결하기는커녕 웅대한 미래의 일을 위한 오직 필요한 준비에 지나지 않는다. 이 약속되고 앞으로 올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모든 피조물이 지금 까지 계속 함께 신음하며 함께 고통당하고 있다.(롬 8:19,22) 그리고 단지 살고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을 위한 한량없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는 앞으로 오는 시대의 축복 된 기회로서, 우리 아버지의 계획가운데 준비되어있다는 것은 축복된 사실이다.

소망을 품은 갇힌 자들 (스 9:12)

어떤 사람은 재림 때 예정된 축복을 얼마간 알아볼 수 있고, 주님이 그의 죽음으로 사신 광대한 축복을 부여하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제안을 깨닫지 못한다. 즉 부패에 감금(사망) 가운데 있는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재림 때 비교적 덜 완전하게 죽은 사람들(사라 남아있을 사람들. 마 8:22, 눅 9:60 참고.) 못지않게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통치에 관심을 갖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과 마찬가지로 확실히,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귀중한 피로 사신 축복과 기회를 가져야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년시대에 무덤 속에 있지 않는 사람들뿐 아니라, 무덤 속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의 축복을 기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이 제목에 대한 주님의 증언을 더욱 연구하면 충분한 증명을 발견할 것이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을 **“소망을 품은 갇힌 자들”**(스 9:12)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의 해방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다.

아담이 창조된 이후 6천년 동안 지구상에 살아온 인간의 수는 1천 4백 30억 가량이라고 견적되고 있다. 이들 중, 하나님의 성도의 수는 이성으로 계산할 수 있는 매우 광범위한 견적으로 10억보다 적을 것이다. 이 대강의 견적은 “사람들 가운데 주신 이름들 중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이 하늘 아래 없는” **유일한 이름**(행 4:12)에 믿음과 소망이 없이 죽음으로 떨어진 사람들의 수, 1천 4백 20억 (142,000,000,000)의 막대한 총계를 남길 것이다. 참으로, 이들 중의 막대한 대다수가 예수님을 전혀 알거나 들어 본적이 없었으며, 그들이 들어 본적이 없는 그를 믿을 수 없었다.

우리 물어봅시다. 숫자가 전혀 부적당한 관념을 주는 이 방대한 무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의 사정이 어떠며 어떻게 될 것일까? 그들의 사정과 상황들을 미리 아셨음에 틀림이 없으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아무런 예비도 하지 않으셨을까?

아니 그의 자녀들이 주장하듯이, 많은 희망 없는 영원한 고통을 주기 위하여 그가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비참하고 무자비한 예비도 하셨는가? 아니 그가 그들을 위해서 아직 그의 계획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 가운데 그 **유일한 이름**을 모두가 알게 되고, 조건들에게 순종하게 되어 영생을 즐기는 기회를 준비하고 계신가?

각 사려있는 교인들마다 그 자신에게 질문하며, 진실하고 여호와와 성품과 조화를 이루는 답변을 알려고 갈망하는 이런 질문들의 여러 가지 응답들이 있다.

무신론자(Atheism)의 응답— 그들은 영원히 죽어있다. 금후란 말이 없다. 그들은 결코 다시 살지 않을 것이다.

칼빈(Calvinism)주의자의 응답— 그들은 구원을 받도록 택하심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잃어버리도록(지옥에 가도록) 운명을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소망이 없이, 언제나 머무름 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그들이 지금 거기에 있다.

아르미니안(Arminianism)주의의 응답— 하나님께서 무지함을 참작하여 그들의 많은 수를 용서하신다고 우리는 믿는다. 그들이 아는 한 최선을 다 한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 본 적이 없을지라도 확실히 “처음 난자들의 교회”(히 12:23)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 마지막 견해에, 모든 기독교의 교파들의 대부분이 (어떤 교리들은 그와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동의하고 있다. 그 동기는 어떤 다른 견해는 하나님 편의 공정과 화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느낌에서이다. 그러나 성서에서 이 마지막 견해를 지지하고 있는가? 무지함이 구원의 근거라고 성서에서 가르치는가? 아니다. 성서에서 언급한 구원의 오직 근거는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참으로, 이 은혜로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엡 2:8)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이 전 기독교 제도의 근원적인 원칙이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사도들이 응답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했다.(행 16:30,31) “사람들 가운데 주신 이름들 중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이 하늘 아래 없다**.”(행 4:12)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롬 10:13)

그러나 바울은 사람이 믿을 수 있기 전에 복음(좋은 소식)을 들어야 한다고 추론한다. 말하기를, “하지만, 믿음을 둔 일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또한 들어 본 일이 없는 분에게 어떻게 마음을 두겠습니까?”(롬 10:14)

어떤 사람은 주장하기를, 바울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롬 2:14)라고 말할 때, **무지함**이 사람을 구원할 것이라고 가르친다고 한다. 이에서 그들은 그들의 양심이 공급하는 율법이 그들이 의롭다고 인정하는데 충분하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바울의 논지는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유죄하며,(롬 3:19) 기록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정죄** 되었다고 한다 양심의 빛으로 의롭다고 인정되지 않았다. 그 양심의 빛이 그들을 용서했거나 비난했거나 이 사실은 마치 기록된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이 그 율법으로 **정죄** 되었든 바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온전함에 못 미쳤으며, 삶을 얻기에 부족하였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롬 3:20)는 이유 때문이다.

유대인들에게 준 율법은 그들의 약함을 드러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자신들이 의롭다고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유대인에게 보여줄 목적이었다.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그(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롬 3:20) 기록된 율법은 **유대인들을 정죄**하였으며 이방인들은 **그들을 정죄**하기에 충분한 양심의 빛을 가졌다. 이렇게 생존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모든 입을 막았고, 온 세상은 하나님 앞에 유죄하다.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 점에서 잘못 내디디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 모두를 위반한 사람이 되고, 율법계약으로 약속된 어느 축복이든 주장할 수 없다는 야고보서(2:10)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롬 3:10)란 말씀을 깨닫게 된다. 단 한 분을 제외하고는, 정죄된 사람은 공적 있는 일로서는 어느 하나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과 무지함을 구원의 기초라고 내세우는 것은 동등하게 무익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성서는 사람을 구원할 각 소망의 문들을 다 닫는다. 무지함이 어느 한사람도 믿음과 순종의 **보답**에 자격을 줄 수 없다.

만유의 회복에 관한 예언자의 증언

많은 기독교인들은 수백만의 무지한 유아들과 미개인들이 영원히 구원을 잃게 될 것(영원히 희망 없는 고통 받는 곳으로 보내진다고 그들이 배웠음)이라는 것을 믿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이 성경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지한 사람들을 정죄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그들의 관대한 마음과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량하심을 감지하는 것에 감탄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너무 성급하게 성경의 선언을 버리거나 무시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함을 통해서 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축복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나 이 행위들이 그들이 말한 신념과 일치하는가? 아니다. 그들은 무지한 사람들이 그들의 무지함 때문에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공언하지만, 그들은 계속 수천의 귀중한 인명과 수백만 불의 돈을 희생할 정도로 미개인에게 전도사들을 보낸다. 만일 그 모두가 그 절반만이라도 무지함으로 구원 될 것이라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전도사들을 보내는 것은 그들에게 명확한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도사들이 그들에게 갈 때 천 명 중에 오직 약 한 명만이 믿기 때문이다. 만일 이 관념이 옳은 것이라면, 그들을 무지함에 남아있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비율이 구원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방면의 논거를 계속하면,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무지함 가운데

남겨 두셨다면, **모두가** 구원 될 것이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강림과 죽음이 헛되고, 사도들과 성도들의 전도하는 것과 고 통당하는 것이 헛되었으며, 소위 복음이라고 불리는 것이 좋은 소식이 되는 대신, 매우 나쁜 소식이다. 각 개인의 영원한 운명이 그가 존재도 하기 전에, 불변하게 고정되어 있다고 하는 칼빈주의(Calvinistic)나 운명론의 견해 같은 택하심을 신봉하는 그들을 전도사로 보내는 것은 더욱 더 부조리하고 비합리적이다.

그러나 전도사 정신으로 가득한 성경은 여러 가지 구원의 길이 있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한 길은 믿음으로, 또 하나는 행위로, 또 다른 하나는 무지함으로 구원.

성경은 하나님께 불명예를 초래하는 운명론도 가르치고 있지 않다. 성경은 인류에게 온갖 다른 구원희망의 문이 닫힌 것을 보여주는가 하면, 성경은 하나의 문, 유일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으며, 누구라도 원하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된 특권의 진가를 지금 깨닫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 적절한 때에 완전한 지식과 이해를 갖도록 교육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 누구도 정죄된 인류가 모두 하나님께 올 수 있는 **유일의 길**은 공적 있는 일이나 무지함이 아니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그리스도의 귀중한 피의 공로 안에 믿음으로서만 이다.(벧전 1:19, 요 1:29) 이것이 복음,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이다.(눅 2:10)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들을 검토해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의 해명은 하나님 당신께 남기자. 일천 4백 20억의 인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자.

그들이 어떻게 되었든지, 그들이 지금 고통의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때에 그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실대로 갚아주시기 전에는(마 16:27) 충분하고 완전한 유업의 상을 교회에게 주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뿐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들도 그 때에 역시 그들의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는 것을 성서는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현재의 상태가 무엇이든 그것이 그들의 완전한 보답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한 사람들은 심판 날에 끊어버리기 위하여 보전해 두실 줄 아십시오”(벧후 2:9) 그리고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우리 동료 피조물들이 어느 때건 구원에 필요한 지식이 결핍하기 때문에 구원을 놓쳐버려야 한다는 생각은 한 불꽃같은 사랑이나 동정을 가진 모두에게는 참으로 슬픈 것이다. 그밖에 이 모든 것과 조화하기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는 수많은 성서들도 역시 있다.

우리 살펴봅시다. 앞으로 오는 시대에 회복을 통한 모든 희망을 버리고 과거와 현재만이 유일의 기회라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일 4:8, 요 3:16) 만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많이 사랑하셨다면 그는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게 하실 뿐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믿게끔 듣도록 예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을까?

또 우리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이 있었다.”(요 1:9)함을 읽을 때, 우리의 관찰은 그와 다르다. 모든 인간이 교화되지 않았다. 우리 주님이 지상의 수십억 중 소수 이상을 계몽 하셨다고 볼 수 없다. 이 비교적 계몽된 시대에도 수백만의 미개인은 이런 교화의 흔적을 나타내지 않는다. 과거 시대에 소돔 족들(Sodomites)이나 다른 많은 무리들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히 2:9) 그러나 만일 그가 일천 4백 30억 명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는데, 어떠한 근거로 그의 희생이 10억 명에게만 효험이 되었다면, 구속이 비교적으로 실패였지 않은가? 그러면 그 경우에 사도의 말씀이 너무 광범한 것이 아닌가? 또 우리는 “보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선포 합니다”(눅 2:10)라고 읽는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적은 무리”에게만 좋은 소식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천사들이 그들의 예언의 친절과 범위를 과장한 것이 아닌가? 마찬가지로 그들이 공표한 메시아가 성취할 일의 중요성을 과대평가 한 것이 아닌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다른 말씀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주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죄물로 주셨으니.”(딤후 2:5,6)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물이라고요?

그러면 왜 포함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얼마간의 혜택을 입어서는 안 되는가? 왜 모두가 믿게 그 진리를 알게 해서 안 되는가?

해결의 열쇠 없이는 이 말씀이 얼마나 불명료하고, 얼마나 불일치하게 보이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여는 열쇠를 발견하면, 이 본문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선언한다. 이 열쇠는 마지막으로 인용된 성서 구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발견된다.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속죄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 할 것이라.”(딤후 2:6)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적절한 때를 정해놓고 계신다. 그가 그것을 이들에게 그들의 과거 생애에 증언하실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증거 하시지 않으셨으므로 그것은 미래가 그들의 적절한 때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참 교회에 속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그리고 하나님 왕국의 영예를 같이 나누게 될 그들에게는 현재가 듣는 “적절한 때”이다. 그래서 지금 귀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듣고 유의하게 하라. 그러면 그는 적절히 축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물을 갚으셨지만, 그 후 여러 해 동안은 그것(증언)을 듣는 우리의 “적절한 때”가 아니었고, 오직 그 때 올바를 이해만이 책임을 초래했으며, 이 책임은 오직 우리 능력과 이해 정도 만 큼이다. 같은 원리가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것(딤후 2:6)이 하나님의 특정한 때에 모든 사람에게 증언 될 것이며, 그것으로 모든 사람이 그 때 믿고 축복을 받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일반적인 견해는 죽음이 모든 보호관찰을 끝낸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게 가르치는 성서는 하나도 없다. 그리고 만일 죽음이 세상의 무지한 일반대중을 위한 모든 소망을 끝낸다면, 위의 모든 성서들과 더 많은 성서들이 무의미하거나 보다 더 나쁠 것이다. 일반적으로 받아드린 이 견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인용한 성서 하나는 “나무는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대로 있게 한다.”(전 11:3)이다. 만일 이 구절이 인간의 미래에 어떠한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그가 무덤에 들어갈 때 그의 상태가 어떤 것이든 그가 무덤에서 깨어날 때까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 구절이 다음 장들에서 보여주게 될 바와 같이, 그 제목에 관계되는 모든 성서들의 균일한 가르침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무지함 때문에 인간을 구하실 것을 제안하시지 않고, “그의 뜻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고”,(딤후 2:4) 태반의 인류가 무지함 가운데 죽으며, “네가 들어갈 곳인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전 9:10)라고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지식, 믿음,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죽은 사람들을 깨우시는 것을 예비 하셨다. 그러므로 그의 계획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순위대로 될 것입니다.”— 첫 열매는 복음 교회, 신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후 천년시대에 그가 임재 하시는(오심은 오역) 그 천년 동안에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사람들 모두이다.(고전 15:22,23) 이때가 작은 자에서 큰 자까지 그를 알게 되는 모두(히 8:11)를 위한 주님의 특정한 때이다.

죽음이 첫 사람 아담을 통하여 있게 되었으므로, 죽은 사람이 살게 되는 것도 그리스도, 둘 째 아담을 통하여 있게 되었다.(고전 15:21). 첫 사람 아담 안에 속해 있음을 통하여 인류가 잃은 모든 것이 둘 째 아담을 깊이 믿는 사람들에게 회복하게 되어있다. 아담에게 모자랐던, 악을 경험한 유리한 점을 가지고 죽은 사람이 깨어날 때, 하나님의 선물로 구속을 감사히 받아드리는 사람들은 최초의 순종조건에서 영구히 계속 살 수 있다. 평화의 왕의 의로우신 통치 밑에 완전한 순종이 요구될 것이며 완전한 순종을 할 능력을 줄 것이다. 이것이 세상에 제공한 구원이다.

우리 주님의 재림은 명백히 교회와 세상의 희망

유니버설리스트(Universalists‘ 보편 구제설을 신봉하는 사람들)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무시된 또 하나의 다른 본문을 이제 고려하자. 우리는 유니버설리스트가 아니라도 하나님 말씀의 모든 증언을 이용하고, 믿고 기뻐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세주이신 살아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둔다.”(딤후 4:10)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각별히(“절대적으로”) 구원하시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의 본의에 상반하여 그들의 의지나 선택의 자유와 갈등할 그러한 구원이 아니다. “내가 오늘날 생명과 죽음을 당신 앞에 두었으니, 당신이 계속 살려면, 생명을 택하라.”(신 30:19)

시메온(Simeon)은 이 두 가지의 구원을 이와 같이 말하면서 대조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서 베일을 벗기기 위한 빛이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참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광입니다.”(눅 2:30,32) 중보자가 되

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해서 그 자신을 속죄물로 주신 사실은 기약이 이르면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게** 되어있다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한 말씀과 일치한다. 이것은 그들 편이 신임이나 의지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미칠 사실이다. 구주의 이 **좋은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것이나(눅 2:10,11) 죄와 죽음에서 특별한 구원은 **그의** 백성인 그를 깊이 믿는 사람들에게만 올 것이다.(마 1:21)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요 3:36)

그러면 우리는 구원에 다음 두 가지 단계를 깨닫는다:

(1) 일반적 구원- 각 개인에게 마다 올 일반적 구원은 참 빛에서 비취는 빛과 생명을 선택하는 기회를 필요로 한다. 인류중 대다수가 무덤 속에 있기 때문에 구주의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증언해 주기 위하여 그들을 무덤에서 깨내어 나오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특별한 구원- 신자들이 희망 중에 현재 누리고 있는 특별한 구원(롬 8:24)과 천년시대에 “그 날에 믿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실현될 실재는 죄의 중에서 그리고 죽음의 부패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가지는 **완전한** 해방이다.(롬 8:21)

그러나 이 모든 축복의 경지에 이름은 그리스도 왕국의 율법을 마음에서 일어나는 순종함에 달려 있을 것이다. 신속하고 완전한 경지에 이름은 왕과 그의 사랑의 율법에 대한 사랑의 정도를 지적한다. 만일 진리로 교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인간 완벽(실제로나 간주된)으로 회복된 어느 누구라도 “겉쟁이들”이 되고, “뒤로 물러나는”(히 10:38,39)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계 21:8)과 함께 백성들 사이에서 멸망 받을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행 3:23)

이렇게 지금까지의 이 모든 어려운 본문들이 “기약이 이르면 증언하게 되어있다”는 말씀으로 설명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참 빛이 **기약이 이르면**(딤후 2:6) 세상에 태어난 각 모든 사람에게 비칠 것이다.(요 1:9) **기약이 이르면**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일 것이다. 이 성서들은 비틀지 않고는 이밖에는 다른 용도가 없다. 바울은 로마서 5:18,19에서 이와 같은 논지를 강조하여 반복한다. 그는 논하기를, (1)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죽음의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과 죽기까지의 순종은 의롭다고 인정되는 기초가 되었다. (2) 첫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생명을 잃은 것 같이, 둘 째 아담을 받아드림으로, 개인의 결함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가 생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 만유의 회복을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한다.(행 3:19-21) 그들은 모두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 에스겔(Ezekiel)은 마른 뼈들이 가득 찬 골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이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이제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의 토지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너희는 반드시 내가 여호와인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넣어 주리니, 너희가 반드시 살아날 것이며 또 내가 너희를 너희 토지에 정착시키겠다. 그리하여 너희는 나 여호와가 말하고 그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겔 37:11-14)

바울의 말도 이것과 동의한다.(롬 11:25,26) “이 비밀은 이방 사람들의 온전한 수(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일단, 그리스도의 신부)가 들어오기까지, 감각이 둔해지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부분적으로 있게 된다는 것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 즉 그들의 버림받은 상태에서 돌이키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정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2절)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선택되는 동안 그 은총에서 버림받았으나 그 일이 이루어지는 때 다시 복권될 것이다.(28-33절)

예언자들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그 땅에 다시 심어주시고, 다시는 뽑혀지지 않게 하실 뜻으로 가득 차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내 눈을 그들 위에 좋게 두어, 틀림없이 그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세우겠고, 허물어뜨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심겠고, 뽑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곧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렘 24:5-7, 31:28, 32:40-42, 33:6-16) 이러한 사실들은 단지 전의 바빌론, 시리아(Babylon, Syria), 등에서 사로잡힘에서 회복만을 언급할 수 없다. 그 이래 그들이 뿌리째 뽑힌 적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날에 그들이 다시는 아버지가 익지 않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않을 것이다. 도리어 각자(죽는 자)는 자기의 잘못 때문에 죽을 것이다.”(렘 31:29,30) 이것은 지금의 경우가 아니다. 각자는 지금 자기 죄 때문에 죽지 않고, 아담의 죄 때문에 죽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전 15:22) 아담이 죄의 익지 않은 포도를 먹었고 우리 조상들이 그것들을 계속 먹어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병과 불행을 더욱 일으켰으며 이렇게 처벌, 죽음을 촉진시켰다. “각자(죽는 자) 자기의 죄악으로 죽게 되는” 날은 단지 천년시대(만유의 회복시대)이다.

미래 축복의 예언이나 약속들 중 다수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이 전형적인 백성이며, 그 때문에 약속을 그들에게 주고, 어떤 때는 그 자신들에게 특별한 적용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국민이 상징하는 모든 세상 인류에게도 역시 더 넓은 적용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여야 한다.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서 모든 세상의 전형이었던 동안은, 이스라엘의 제사직은 택함 받은 “적은 무리” 곧 그리스도의 머리와 몸인 “왕 겸 제사장”의 전형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한 제사들과 정결케 하는 일들과 속죄들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한”(요일 2:2) “더 나은 제물”과 정식으로 정결케 하는 일들과 참된 속죄를 상징했다.

또 그럴 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들 이름을 언급하시며 그들의 회복을 약속하신다. 강력한 실례로서 우리는 소돔 사람들(Sodomites)을 언급한다. 만일 우리가 소돔 사람들의 회복을 명백히 가르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인류를 위한 만유 회복의 이 훌륭한 가르침의 진리를 우리가 확신한다고 느낄 수 있다.

왜 소돔 사람들이라 해서 이스라엘이나, 우리 중 누구나 마찬가지로 완전과 영생에 이르는 기회를 갖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실로 그들은 의롭지 않았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지금 이 복음(좋은 소식)을 듣는 우리도 의롭지 않았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귀여워 된 의를 제외하고는 “의로운 사람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롬 3:10)라고 하셨다. 우리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의 사악함 때문에 모두를 멸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많이 가진 유대인들보다 더 큰 죄인들이 아니었다고 하셨다.(창 19:24, 눅 17:29) 가버나움(Capernaum)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그가 말씀하시기를, “네 가운데 행한 강력한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바로 이 날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마 11:23)고 하셨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소돔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마 11:24)라는 말씀을 부언하셨을 때 그는 그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보장하신다는 것도 가르치신다. 심판 날의 성격과 그 날 일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하겠다. 여기서 우리가 단지 주의를 환기하려고 하는 것은 가버나움이 심판 날에 견디기 쉬울 것이며, 소돔 땅은 아직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쪽도 아직 충분한 지식이나, 그 “씨”를 통해서 야기 되도록 계획된 모든 축복도 갖지 못했지만, 가버나움은 아직 더 많은 빛(진실)을 적대하여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만일 가버나움과 모든 이스라엘이 예수님 피로 인을 찍은 “새 계약”밑에 있지 않고 축복을 받게 되어 있으면 왜 소돔 사람들도 “땅의 모든 가족” 중에 하나로 역시 축복을 받아서는 안 될까? 그들은 확실히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의 회복을 말씀하신 예수님 때 보다 여러 세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향과 불을 비처럼 내리셔서 그들을 모두 멸하셨음”으로, 그것은 그들이 죽어 잠든 데서 깨어 일어나고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제 에스겔 16:48-63의 예언을 고찰해 보기로 합시다. 면밀히 읽어보시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관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이웃 사마리아와 비교하신다. 소돔 사람들과도 역시 비교하시면서 소돔을 “내가 합당하다고 본 대로” 그들을 제거해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소돔을 멸망케 하시고, 소돔보다도 더 죄를 범한 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은 채 내버려두게 묵인하시는 점에서, 예수님이나 예언자나 하나님의 관계의 외관상 불공평함에 아무런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 모든 것은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훌륭한 계획이 명시될 때 분명해질 것이다.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신” 것을 단지 진술하고, 예수님께서 소돔 사람들은 더 많은 범죄를 범한 다른 사람들 보다 심판 날에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부언하신다.

그러나 죽음이 모든 보호관찰을 끝내고, 그 후에는 진리를 배워서, 그것에 순종하는 기회를 아무도 갖지 못할 것이라고 추측하시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문의하는 것이 당연하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을 얹으로 구원을 받는 기회를 주시지 않고, 이 사람들을 죽게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셨을까? 응답은 그들의 **적절한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이다. 특정한 때에 그들을 무덤에서 깨어나게 하고, 진리를 배우게 하고, 따라서 약속하신 “씨”를 통해서 땅의 모든 가족과 더불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때에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한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고려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가거라. 나는 아말렉을 치고 그가 가진 모든 것과 함께 그를 멸망시켜야 한다. 너는 그에게 동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너는 그들을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 할 것 없이 모조리 죽여야 한다.”(삼상 15:3)라고 말씀하시며, 아말렉 사람(Amalekites)이나 다른 백성들을 죽이라고 허락하실 뿐이 아니라, 명하신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외관상의 무모한 생명의 과멸은 하나님의 계획의 체계적인 순서와 하나님의 계획의 모든 면모를 성취하기 위한 “적절한 때”와 인류 각 인원이 그 계획안에 위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보게 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의 성품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이제 아말렉, 소돔 사람들과 다른 족속들은 하나님의 정당한 의분의 실례와 악인들을 마침내 완전히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결정의 실례로 공포 되었던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실례들은 그들의 심판이나 시험의 날이 올 때, 다른 사람들에게 뿐이 아니라, 그 자신들에게도 역시 유익이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병이나 재앙으로 죽는 것은 그런 방법으로 죽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들은 다만 악을 아는 것을 익히고 있었기 때문에, 때가 차서 시험을 치를 적절한 때가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의를 배울 수 있게 되고, 선을 판별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별 관계가 없다.

그러나 에스겔의 예언을 더 고찰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을 소돔과 사마리아와 비교하고, 이스라엘이 가장 비탄을 받을만하다고(겔 16:48-52) 선언하신 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포로로 된 자들, 소돔과 그 딸린 성읍들의 포로로 된 자들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 딸린 성읍들의 포로가 된 자들을 모으겠다. 내가 또한 너의 포로로 된 자들을 그들 가운데 모으겠다.”(겔 16:53) 포로로 됨이란 말은 다름이 아니고 바로 그들이 죽음가운데 포로로 됨을 지시한다. 여기서 언급된 그들은 그 당시에 죽었기 때문이다. 죽음가운데서 모두가 포로로 되어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무덤의 문을 여시고,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다.(사 61:1, 눅 9:11) 55절에서 이것을 “너희 자매들이 이전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부른다. 곧 만유의 회복을 말한다.

어떤 사람은 더 밝은 빛과 삶에서, 그 자신들의 범죄와 나약함을 용서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기꺼이 받아드리고 있으며, 같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고 하는(히 2:9) 사도 바울의 말을 시인하긴 하지만, 같은 은혜가 새 계약 밑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생각할 줄을 모른다. 이들 중 어떤 사람은 이 예언에서(겔 16:53) 소돔 사람들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기꺼이 다시 데려오시려고 한다지만, 아무 쪽이든 회복하실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암시한다면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풍자적

으로 유대인에게 말씀하시고 있다고 암시한다.

그러나 다음절들이 어떻게 이 관념과 일치 하는가 봅시다. “그러나 **내가**, 바로 내가 너의 어린 시절에 너와 맺은 내 계약을 기억하고(**미래**), 너를 위하여 영구히 지속되는 계약을 굳게 세우겠다(**미래**). 너는 너의 자매들 곧 너의 언니들과 아우들을 마지 할 때에 네 길을 **기억하고(미래)**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다 **내가**, 바로 내가 너와 내 계약을 굳게 세우리니(**미래**)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행한 모든 일의 속죄를 베풀 때, 내가 기억하고 참으로 부끄러워하며 네 부끄러움 때문에 다시는 네 입을 열 수 없게 하려는 것이다. 나 주 여호와와의 말이다.”(겔 16:60, 61a ,62, 63)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약속을 이렇게 서명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에 그들의 인장을 찍은 모든 사람은 자신을 갖고 확실성이 있다는 데 기뻐할 수 있다. 특히 하나님께서 그의 귀중한 피로 계약에 인장을 찍게 되어있는 새 계약의 축복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러할 것이다.

이것에 바울은 그의 증언을 추가한다. 이르기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산 자나 죽은 자나) 구원을 얻으리라(무지함에서 회복)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된바와 같이, ‘구세주가 시온에서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행위를 제거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내가 그들과 맺는 계약이다,’ 그들은 조상들 때문에 사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은 그가 후회하실 일들이 아닙니다.”라고 하셨기 때문이다.(롬 11:26-29)

유대인, 소돔 사람, 사마리아 사람,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서 그의 “적절한 때”에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실 때, 부끄러워하고 당황하게 될 것에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다. 그렇다. 지금 하나님 자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과 그의 사려와 계획들이 그들의 것 보다 얼마나 더 우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 당황하고 깜짝 놀랄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은 단지 선택된 교회만을 위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믿고 있으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 보다 더 넓다는 것과 그가 교회에게 “귀중하고도 매우 웅대한 약속들”을 주셨지만, 그는 그가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속하신 세상을 위하여도 풍부한 예비를 마련해 오셨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깨닫기 시작한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유대인에게만 준 것이고, 그들만을 위한 것으로 상상하는 점에서 매우 비슷한 오해를 하였다. 그러나 “적절한 때”가 와서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더 넓은 증거를 보고 기뻐할 만큼 충분히 마음이 넓은 이스라엘의 택함 받은 자들은 증가된 은혜를 함께 받았지만, 그 밖의 사람들은 편견과 인간 전통으로 판단력을 잃게 되었다. 온 세상을 위한 그 빛의 은혜로운 이점을 가지고 있는 천년시대의 여명의 빛을 지금 보는 교인들은 그들이 진전하는 그 빛의 반대편에 들어서, 잠시 그 빛의 영광과 축복을 깨닫지 못하게 되지 않도록 유의합시다. 장래에 많은 수의 축복을 위하여 지금 소수의 선택을 위한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계획은 칼빈주의와 알메니안주의(Calvinism and Arminianism)의 두 대립하는 견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진리의 왜곡과

얼마나 다른가. 칼빈주의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성경교리를 부정하고, 택하심이라는 영광스러운 교리를 서투르게 곡해한다. 알메니안주의는 택하심의 교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충만한 축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칼빈주의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전지 하시다. 그는 종말을 처음부터 아셨다. 모든 그의 목적이 성취될 때 그가 극소수, 즉 교회이외에는 결코 아무도 구하려고 하지 않으셨다. 이 극소수들을 영원히 구원하도록 그가 택하시고 미리 정하셨다. 모든 다른 사람들은 영원한 고통으로 가도록 그가 또 택하고 미리 정하셨다. “예로부터 모든 일이 하나님께 알려진 일”(행 15:18)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견해는 좋은 면모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를 인정한다. 위대함의 두 가지 본질, 즉 사랑과 공정이 결핍하다는 것을 제외하고, 이 견해는 **위대하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이상일 것이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한 고통의 운명에 처한 천 4백 20억의 피조물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 점에서, 사랑이나 공정 아무 하나도 예증 되어있지 않으며, 그래서 그의 사랑이란 단언이 조롱된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며 공정이 그의 왕좌의 기초이므로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될 수 없다.

알메니안 주의는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다. 인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 점에서, 그는 그들에게 해가 되지 않고 오직 선만을 뜻하셨다. 그러나 사탄이 첫 부부를 유혹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왔다.(롬 5:12) 그리고 그 후 내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의 적에서 구해내시려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오시고, 그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셨다. 지금 6 천년 후에, 복음이 인류의 오직 매우 적은 비율에게만 전파되었지만, 아직 또 다른 6 천년 안에 교회의 활동과 관대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사탄이 끌어들이는 악을 제거하게 될 것이므로, 그 때에 살고 있는 모두가 그의 사랑을 적어도 알고, 믿고, 구원받을 기회를 갖게 될 수 있다고 우리는 희망을 갖고 신뢰한다.

이 견해는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의 사랑과 자비로우신 계획으로 충만하신 존재로 나타내지만, 그의 자비로우신 계획을 성취하시기에 충분한 능력과 선견이 결핍함을 함축한다. 이것은 그가 지혜와 권능이 부족하다는 말이다. 이 견해로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조정하고 고안하는 데에 종사하신 동안에 사탄이 슬며시 들어와 일격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전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권능을 고갈 하셔도, 아직 살고 있는 나머지 인류가 악을 쉽게 선택한 만큼 선을 택할 기회를 가질 정도까지 만이라도 정의를 복귀하시기 위하여 1만 2천년을 소비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견해로는 사탄이 하나님의 계획을 꾀망하였기 때문에 과거 6천년의 1천 4백 20억 인류와 그 다음 6천년의 그 수만큼 더 많은 인류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도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를 영광으로 구하시는 것에 비해, 사탄은 수천의 인류를 영원한 고통가운데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사탄의 지략과 권세로 된 인간의 관념을 높이고, 하나님께 속한 이 속성에 대한 그들의 판단을 낮추는 것임에 틀림없다.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 반

대로 선언했다. “그가 말씀하시자 그렇게 되고, 그가 명하시자 그것이 것처럼 서 있게 되었다.”(시 33:9)

그러나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악마에 놀라지도 않으시고, 뒤떨어지지도 않으셨다. 사탄은 그의 계획들을 조금이라도 좌절케 하지도 않았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환경의 완전한 주인이시고, 항상 주인으로 군림하셨으며, 종말에는 모든 일이 그의 목적들을 성취하시는데 함께 협력 해온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칼빈 주의와 알메니안 주의가 가르친 바와 같은 택하심과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된 교리들은 이성으로나 성경으로 결코 서로 조화될 수 없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훌륭한 성경교리들은 그 여러 시대에 관한 계획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조화되고 아름답다.

그러면, 죄와 죽음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그렇게 많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면모들이 미래에 놓여 있다는 것과 우리 주 예수의 재림이 오래 약속되고 오래 기대된 일들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계획하신 첫 단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알림을 덜 받은 유대인이 그의 첫 강림을 기다리고 열망한 것 보다 그의 재림 때를 우리가 한 층 더 진심으로 열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악, 부정, 죽음의 세월이 그가 당시에 발휘하실 권능의 주권으로 종말이 맺게 되고 정의, 진리, 평화가 보편적이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누가 그의 날을 보기를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함께 영광스럽게 되기 위하여 고난도 당해야 될 것입니다”(롬 8:17)라는 귀중한 약속으로 격려를 받고, 지금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우리의 구원과 영광을 받는 날이 가까워짐을 알면서, 누가 주님이 접근하시는 어떠한 증거에도 머리를 들고 기뻐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의 축복하시는 사명과 그의 사랑의 정신에 동조하는 모두는 그의 재림의 온갖 증거를 “모든 사람에게 올 큰 기쁨”(눅 2:10)이 다가오는 것처럼 환호할 것이다.

연구 7

사악의 묵인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의 관계

- 왜 사악이 묵인되었나?
- 원칙의 옳고 그름
- 도덕적 감각
- 하나님은 사악을 묵인하셨으며, 선을 이루도록 그것을 지배
- 아담의 시험은 어리석은 희극이 아님
- 아담의 유혹은 심한 것이다
- 아담은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다
- 하나님은 사악의 창시자가 아니시다
- 죄의 처벌은 불의하지 않으며, 너무 엄하지도 않음
-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을 정죄 하시는데 전시된 지혜, 사랑, 공정
- 하나님의 일반 율법

왜 사악이 묵인되었나?

사악은 직접적으로나 관계가 적게나 어떤 종류이든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무엇이든, 그리고 불행을 야기하는 근본 요소이다. -웹스터(Webster) 그러므로 이 주제는 인간의 병, 슬픔, 아픔, 약점과 죽음에 관하여 질문할 뿐이 아니라, 이 모두를 더 깊이 검토하여, 이것들의 첫째 원인인 죄와 죄의 치유도 숙고하려고 한다. 죄가 사악의 원인이므로 죄의 치유가 사악을 영구히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다.

탐구적인 마음에 다음 질문들보다 더 종종 떠오르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아마 없을 것이다`:

- (1) 왜 하나님께서 사악이 현재 지배하도록 묵인 하셨나?
- (2) 왜 하나님께서 우리 첫 양친을 완벽하고 고결하게 창조하신 후, 사탄이 그들을 시험하도록 묵인하셨나?
- (3) 왜 하나님께서 금단의 나무를 허락된 좋은 나무들 사이에 심어두시었나?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다음 질문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 (4) 하나님께서 인간 타락의 모든 가능성을 방지하실 수 없었을까?

그 어려움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실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방지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죄의 현재 묵인이 궁극적으로 보다 더 큰 이로움이 되기 위하여 계획 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충분히 증명될 것이다.

전체로서 본 하나님의 계획은 밝은 방침의 지혜를 증명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묻는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사탄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 못하게 알맞은

때에 간섭하실 수 없었을까? 의심할 여지없이 그리하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러한 간섭은 하나님 자신의 목적들을 성취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그의 목적은 그의 율법이 완전함과 권세와 의로운 권력이 있음을 나타내려 하시고, 율법 위반에서 유래된 사악한 결말을 인간과 천사들에게 증명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밖에 바로 그들의 본성 안에는 성서가 진술하듯이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한 무엇이 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히 6:18)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딤후 2:13) 그는 틀린 행위를 하실 수 없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의 근시적인 개념이 일시동안 무한하신 숨긴 지혜 샘들을 식별하지 못할지라도, 그의 피조물들을 영생으로 안내하시기 위하여 그는 가장 지혜롭고 최상의 계획밖에 택하시지 않을 수 없었다.

성서가 선언하기를, 만물이 주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계 4:11) 여기서 주의 기쁨은 의심할 여지없이 그의 축복을 베푸시고 그의 영광스러운 신의 속성을 행사하시는 기쁨일 것이다. 자비하신 계획을 이루시는데 있어서 그가 사악과 악인들이 일시동안 활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묵인하시긴 하지만, 그것은 사악을 위해서나 그가 죄와 연합하시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왜냐하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시 5:4)라고 그가 선언하시기 때문이다. 모든 의미에서 사악을 적대하시지만, 그의 지혜가 그의 피조물들에게 영구하고 귀중한 교훈이 될 수 있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시동안 사악을 **묵인하신다**. 즉 **훼방하시지 않으신다**.

원칙의 옳고 그름

모든 옳은 원칙에는 대응하는 그른 원칙이 있다는 것은 자명한 진리다. 예를 들면, 참과 거짓, 사랑과 증오, 공정과 부정 같은 것이다. 우리는 이 반대되는 원칙들이 작용될 때 그것들의 결과에 따라서 **옳고 그름**으로 분별한다. 작용 중, 결과가 유익 되고 궁극의 질서, 조화, 행복을 낳는 원칙을 우리는 **옳은** 원칙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불화, 불행, 파괴를 낳는 그 반대는 **그른** 원칙이라고 부른다. 작용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원칙의 결과를 **선과 악**이라고 부른다. 옳고 그른 원칙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자발적으로 옳거나 그름으로 좌우된 지적인 존재는 옳거나 그른 것으로 지배되는 경우에 따라 덕행이 있다거나 죄 있다고 부른다.

도덕적 감각

옳고 그른 원칙을 식별하는 이 기능은 **도덕적 감각**이나 **양심**이라고 부른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도덕적 감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고 그가 선하심을 인식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와 공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언제나 이 도덕적 감각에게 호소하신다. 그리고 아담(Adam)은 죄의 결과를 알기 전에도 같은 도덕적 감각으로 죄나 불의가 **악**이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피조물의 하류 계급은 이 도덕적 감각을 타고나지 않았다. 개는 약간의 지성을 가졌으나, 어떤 행동이 자기 주인에게서 칭찬과 상을 받게 되고, 어떤 행동이 꾸지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도덕적 감각의 정도는 아니다. 개가 흠치거나 죽여도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개가 재산이나 생명을 보호해도 덕행이 있다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개는 그의 행동의 도덕적 자질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옳고 그름을 식별하는 능력이 전혀 없거나, 오직 옳음만을 식별하고 행할 수 있게 만드실 수 있었다. 그러나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은

오직 생명 있는 기계를 만드신 것이고, 그의 창조자의 정신적 형상을 만드신 것이 확실히 아닐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가 만드셨듯이 인간을 완벽하고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시고, 그가 사탄의 유혹에서 인간을 보호하실 수 있었다. 그 경우에 인간의 경험은 선으로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악의 제안이나 내부에서 일어나는 야망을 계속적으로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것은 영구한 미래를 미정으로 만들었을 것이며, 불순종과 무질서의 돌발이 언제나 가능성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밖에, 악과의 대조가 아니고는 선을 전혀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피조물을 에덴(Eden)에서 선으로 둘러싸서, 맨 먼저 선과 익숙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후에 불순종에 대한 처벌로서 악에 대한 엄중한 지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에덴에서 추방하시고, 그와의 친교를 빼앗으시고, 그들이 악, 어리석음과 죄의 매우 죄스러움을 영원히 알게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병, 고통과 죽음을 경험케 하셨다.

선과 악의 결과들을 비교함으로써, 아담과 이브는 선과 악의 올바른 이해와 적당한 판결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라, 사람이 선악을 아는데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창 3:22) 선악을 아는데 있어서 그들의 자손들도 같다. 오직 다른 점은 아담과 이브와 달리 그들의 자손들은 악에 대한 지식을 먼저 얻게 되고, 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천년시대에 그들의 심판관이시며 왕이 되실 주님이 그들을 구속한 결과로 선을 경험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실감할 수 없다.

도덕적 감각이나 옳고 그름의 판단, 그리고 아담이 소유했던 그것을 사용하는 자유는 하나님과 유사한 중요한 특징들이었다. 옳고 그른 율법은 아담의 천부의 성질에 쓰여 있다. 그것이 꼭 신의 본성의 한 부분인 것처럼 아담의 본성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창 1:26)이나 하나님을 닮음 곧 이 원래 율법이 새긴 사람의 본성이 지워지고, 죄로 타락하는 영향을 통해서 원래 사람 본성의 분명한 윤곽을 잃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다. 그러므로 첫 사람 속에 있던 그것이 지금 사람 속에 있지 않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미워할 수 있는 능력을 함축한다. 그러므로 창조자께서 사랑하고 옳음을 행할 능력을 지닌 그 자신과 유사한 사람을 만드시는데 있어서, 미워하고 그름을 행할 대응하는 능력 없이 만드실 수 없다고 우리는 추론한다. 자유로운 도덕적 도구나 자유로운 의지라고 불리는 이 선택의 자유는 사람 본래의 재질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 선택의 자유는 그의 모든 정신적 도덕적 능력과 더불어 그를 창조자의 형상으로 만들어 내었다. 6 천 년간의 타락 후, 오늘날 죄가 최초의 유사함을 지워버렸으므로 죄와 수반된 결과들로 보다 크거나 보다 작은 정도로 우리가 얽매어 있어 자유롭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죄가 지금 더 쉽고, 그러므로 의로움 보다 죄가 타락된 인류에게 더 마음에 들게 되어있다.

하나님은 사악을 묵인하셨으며, 선을 이루도록 그것을 지배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단념할 정도로 많은 죄의 사악한 결과들의 생생한 인상을 그에게 주실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새삼 물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실제로 악을 경험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원히 도움이 되는 가장 틀림없고 제일 영속하는 교훈이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예견하셨다고 우리는 믿는다. 그래서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악을 선택하여 악의 결과를 느끼는 것을 방지하시지 않고 묵인 하셨

다. 죄를 범하는 기회를 전혀 허락하지 않았다면, 사람이 악에 저항할 수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그가 옳은 행위를 한 점에 있어서 미덕이나 공로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를 숭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요 4:23,24) 하나님께서는 무식한 기계적인 봉사보다 지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뜻을 성취하는 무생물인 기계적인 매개들이 활동 중에 있는 것이 있으나, 그의 계획은 더 고귀한 것 곧 그 자신의 모양을 따른 지적인 피조물인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이해에 의거한 충성과 정성을 가진 지구의 주인을 만드시려는 것이다.

원칙들로서 옳고 그른 원칙들은 언제나 존재했으며 언제나 존재함에 틀림없다. 그리고 옳은 원칙만이 영구히 계속 작용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모양을 따른 모든 완벽하고 지적인 피조물들은 그 둘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데 자유로워야 한다. 성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그른 원칙 작용을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만큼 충분히 오래 묵인하신 뒤에, 그른 원칙이 작용함은 곧 영원히 끝날 것이며, 그른 원칙의 지배력을 계속 따르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죽을 것이라고 한다.(고전 15:25,26, 히 2:14) 옳은 행위와 옳은 행위자들만이 영원히 계속 살 것이다.

그러나 질문이 다른 형태로 되풀이된다. 경험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악과 익숙해지게 사람을 만들 수 없었을까? 사정을 알도록 이끄는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즉 직관으로, 관찰로, 경험으로 확실히 진실하다고 인정된 근원을 통해서 받은 지식으로이다. 직관적 지식은 추론 과정이나 증명이 필요 없는 직접의 이해일 것이다. 이러한 지식은 필연적으로 당연히 모든 그의 피조물들 보다 우월하시며 모든 지혜와 진리의 영구한 기초이신 신성하신 여호와께만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사람의 지식은 직관적일 수가 없다. 사람의 지식은 관찰을 통해서 올 수 있으나 그 경우에는 사람이 관찰하도록 악과 악의 결과들의 어떤 전시가 절대 필요했다. 이것은 어디에 어떤 존재 사이에 사악의 묵인을 함축한다. 그러면 다른 곳에 다른 것들 가운데서와 같이, 왜 지구상에 인간 가운데서도 악이 묵인 될 수 없겠는가?

왜 사람이 실례가 되어서 실지의 경험으로 그의 지식을 얻어서는 안 되나? 그렇다. 사람은 실지의 경험을 얻고 있으며, “천사에게 전시”가 됨으로(고전 4:9) 다른 사람에게도 실례를 주고 있다.

아담의 시험은 어리석은 희극이 아님

아담은 예고로 악에 대한 지식을 이미 가졌으나 그것은 그가 시험하려는 시도를 제지하기에 부족하였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며, 그러므로 그가 그들을 지배하고 감독할 권리를 가진 분이라고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금지된 나무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하셨다.(창 2:17) 그러므로 그들이 악의 영향들을 일찍이 관찰하거나 경험해 본적은 없었지만, 악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의 창조자의 사랑이 깃 들인 권세와 그의 유익한 율법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그 유익한 율법으로 그들을 위험에서 보호하시려고 계획하신 그 위험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묵인하신 유혹에 굴복했다. 이 묵인은 그의 지혜가 추적한 궁극의 방편이다.

아담의 유혹은 심한 것이다

소수 밖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첫 양친을 타락하게 한 유혹의 심한 정도를 이해하지 못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소하게 보이는 범죄에 그렇게 엄한 처벌을 내리신 점에서 하나님의 공정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조금 반영하면 모든 것이 명백해 질 것이다. 성서는 여자, 연약한 한쪽이 어떻게 꼬임에 넘어가 범죄자가 되었나 하는 간단한 이야기를 말 한다. 그녀의 하나님과의 경험과 하나님을 익히 알고 있음은 아담이 경험하고 안 것들 보다 더욱 제한되었다. 왜냐하면 그가 먼저 창조되고 여자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죄의 처벌에 대한 지식을 그에게 직접 전달하셨는데, 이브는 이 전달을 아담에게서 필시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가 실과를 따먹었을 때, 사탄의 거짓 허위진술을 신뢰한 그녀는 필시 불신과 모든 것이 사리에 맞지 않음을 약간 우려하긴 했지만, 범죄의 정도를 분명히 인식하지 못했다. 속았을 지라도 그녀는 범죄자라고 바울은 말했다. 더 밝은 빛에 대해서 범죄한 것처럼 그렇게 비난할만하지는 않지만.

아담은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다

이브와 달리 아담은 속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말한다.(딤후 2:14) 그러므로 그는 죄에 대한 더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그가 틀림없이 죽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서 처벌을 받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범죄하였음에 틀림없다. 그가 선고된 처벌을 초래하도록 이 정도까지 분별없이 그를 강요한 유혹이 무엇이었던가를 우리는 쉽사리 알 수 있다. 그들은 그들의 창조자의 정신적 도덕적 유사를 지닌 완벽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완벽한 남자에게서 하나님 같은 사랑의 요소가 그의 사랑하는 동료인 완벽한 여자에 대하여 현저히 탁월하게 진시되었다. 죄를 인식하고, 이브의 죽음과 따라서 그의 손실을 (회복의 희망을 주시기 전이었으므로, 그러한 희망 없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담은 절망하여 그녀 없이 살지 않겠다고 분별없이 결론을 내렸다. 그녀의 교우 관계없이 그는 그 자신의 생존은 불행하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여, 그녀에게 판결이 내려 있다고 그가 아마 상상한 사형선고를 같이 나누기 위하여 그는 고의적으로 그녀가 저지른 불순종의 행위를 함께 하였다.

사도 바울이 제시하듯이 둘이 다 “죄에 빠진 것이다”(롬 5:14, 딤후 2:14)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 한 몸이지 “둘”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브는 자기의 행위가 아담에게 선고받게 촉진한 그 선고를 같이 나누었다.(롬 5:12, 17-19)

하나님은 사악의 창시자가 아니시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죄와 그것의 결과에 대한 충분한 이해의 결핍으로, 죄를 받아드릴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셨을 뿐이 아니라, 죄에 익숙해져서 그 익히 앎이 그의 도덕적 본질을 해쳐서, 점차 악이 선보다 더 그에게 마음에 들게 되고 더 바람직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는 아직 죄를 선택할 것이라는 것도 역시 아셨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악을 묵인**하시기로 의도 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의 결과에서 인간의 해방을 위해서 구제책을 준비하셨으므로, 경험을 통해서 결과가 “죄의 매우 죄스러움”과 그것에 대조하여 비길 데 없는 미덕의 광휘를 완전히 이해하도록 그를 인도 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아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선량의 근원이신 그의 창조자를 더 사랑하고 공경하게 하는 것과 그렇게 많은 비애와 불행을 가져온 근원을 영원히 피하게 하는 것을 그에게 가르치신다. 그래서 최종의 결과는 하나님께 대한 더 깊은 사랑이고, 그의 뜻을 반대하는 모

든 것에 대한 더 큰 증오이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죄의 묵인과 상호관계가 있는 악들을 통해서 지금 가르치시고 있는 교훈들로 이익을 얻을 사람들 모두의 영구한 정의 가운데 견고한 확립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묵인하셨다는 논의의 여지가 없는 사실과 하나님을 죄의 창작자이며 선동자라고 비난하는 어떤 사람의 심각한 과오 사이에 광범한 구별이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나중의 견해는 모독이며 성서에 진술된 사실과 모순된다. 이 과오에 빠지는 사람들은 우리의 속죄물의 대가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계획보다 또 다른 구원의 계획을 찾으려는 시도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사악과 범죄의 책임이 있다는 것[■]과, 인간이 그의 손안에 순결한 도구로서 억지로 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그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확신시키는데 성공하였다면, 그들은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이나 어떠한 형태로든 자비도 필요 없고 다만 단순히 공정만이 필요했다는 이론을 위한 길을 개척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사악과 범죄 전부를 범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모든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역시 구원하게 하실 것임을 주장하면서, 그들의 거짓 이론, 즉 보편 구제설의 다른 하나의 부분을 위한 기초도 놓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원하시고, 죄를 범하게 하시고, 아무도 그를 저항할 수 없었다고 그들은 추론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원하실 때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로 그를 저항하기에 무력할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모든 이와 같은 추론에는 인간의 가장 고귀한 자질이며, 그의 창조자에 유사의 가장 현저한 특징인 의지나 **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무시한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인간은 다만 당하는 대로 행하는 단순한

■ 성서의 두 본문이(사 45:7, 암 3:6) 이 이론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두 본문에서 사악이란 단어의 오해 때문이다. 죄는 언제나 사악이지만, 사악은 언제나 죄가 아니다. 지진, 대 화재, 홍수, 유행병은 재난, **사악**일 것이나, 이들 어떤 하나도 죄가 아닐 것이다. 본문에서 인용된 단어 **사악**은 **재난**을 의미한다. 같은 헤브라이 단어가 시 34:19, 107:39, 렘 48:16, 스 1:15에 **고통**으로 번역되어 있다. 그것이 시 27:5, 41:1, 88:3, 107:26, 렘 51:2, 애 1:21에 **고생**으로 번역되어 있다. 그것이 삼상 10:19, 시 10:6, 94:13, 141:5, 전 7:14, 느 2:17에 **재난**, **역경**, **심통**으로 번역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단어가 매우 많은 곳에서 **해**, **해악**, **헌데**, **상처**, **불행**, **비탄**, **슬픔**으로 표현되어 있다.

사 45:7과 암 3:6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한 국가로서 그들과 만드신 그의 계약을 상기시키려 하셨다. 만일 그들이 그의 율법을 순종하면, 그가 그들을 축복하시고 대체로 세상에서 흔히 있는 재난에서 보호하시겠으나, 만일 그들이 그를 버리면, 그가 그들에게 징계로서 재난(사악)을 생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었다.(신 28:1-4, 15-32, 레 26:14-16, 수 23:6-11, 12-16을 보시다.)

그러나 재난이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은 재난들을 징계로서가 아니고 사고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계약을 상기시키고 그들의 재난들은 그에게서, 그들의 교정을 위해서 그의 뜻으로 온 것이라고 그들에게 이야기 해주고 있다. 이 본문들을 하나님께서 죄의 창조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부조리하다. 왜냐하면 그 단어들이 결코 죄를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계로 격하시킨다.

만일 이것이 그 경우라면 인간은 땅의 지배자인 대신에 곤충보다도 열등할 것이다. 왜냐하면 곤충들이 의심할 바 없이 선택의 의지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작은 개미조차도 인간이 보다 큰 능력으로 대항하고 꺾으려 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파괴할 수 없는 의지의 힘을 받았다.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억지로 죄를 짓게 하시거나 억지로 정의를 지키게 하시는 힘을 가지고 계시나, 그는 그러한 의향이 없음을 그의 말씀은 선언하고 있다. “그는 그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딤후 2:13)라는 말씀과 같은 이유로 그는 시종 일관하게 인간을 억지로 죄를 범하게 하실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방식은 그의 의로운 성품과 상반될 것이며, 그러므로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만의 예배와 사랑을 찾으신다.(요 4:23,24) 이것 때문에 그는 인간에게 그 자신의 것과 같은 **의지**의 자유를 부여하셨으며, 인간이 정의를 **선택**하기를 원하신다. 인간에게 스스로 선택하게 **묵인하신 것**이 신과의 사귄다. 사랑과 축복에서 죽음에까지 타락하게 이끌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와 죄의 결과를 경험하지 않고 인간을 이론적으로 훈육하시려고 시도하신 것을 인간은 죄와 죽음에 경험으로 실제로 배운다.

인간이 어떻게 할가에 대한 하나님의 예지는 인간을 불과 기계적 존재로 격하시키기 위한 구실로서,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고 도리어 인간에게 유리하게 작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만일 스스로 선택하도록 속박 없이 남겨두면 인간이 취할 진로를 예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와 죄의 쓴 결과를 실험적으로 맛보는 것을 못하게 막지 않고 그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모두를 최대한 구하실 수 있는 훌륭한 구세주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인간의 첫 범죄에서 구원의 방법을 제공하실 것을 즉시 시작하셨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유로운 **의지**를 가져도 그것을 오용(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그의 최초의 실패를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죄물** 뿐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자신과의 화해를 제공하신 기회의 지식이 기약이 이르면 모든 사람에게 증거 될 것이라(딤후 2:3-6)는 것을 제공하셨다.

죄의 처벌은 불의하지 않으며, 너무 엄하지도 않음

처벌의 호됨은 하나님 편에서 증오와 악의의 표시가 아니라, 필요하고 면할 수 없는 최종의 사악의 결과였다. 하나님께서 최종의 사악의 결과를 인간이 이렇게 보고 느끼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실제 사악의 파괴적인 힘에 대항해서라도 그가 적당하다고 보시는 한에서 생존을 유지시키실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존을 영구히 유지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불가능할 것이다. 즉 그것은 **도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한 생존은 오직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 더 불행한 근원만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무 선하셔서, 그렇게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없고 유해한 존재의 생존을 유지하게 하실 수 없으시다. 그래서 그가 그런 생존을 유지하시는 권세를 회수 하셨기 때문에 사악의 당연한 결과인 멸망이 잇따라 일어날 것이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인 호의이며, 그것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영구히 계속될 것이다.

각 개인의 시험을 아담의 자손들에게 주시지 않은데 대해서 그들에게 부정이 행하여지지 않았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낳게 하실 의무가 결코 없다. 그리고 우리를 낳게 하셨다고 해서, 우리 존재를 영구히 영속시키거나 순종하면 영생을 준다는 약속 밑에서 우리에게 시험을 부여까지 하게 하는 공평이나 공정의 율법이 여호와를 묶고 있지 않다.

이 점을 잘 주목하십시오. 요람에서 무덤에까지 오직 죽어 가는 과정에 불과한 현재의 생은 모든 생의 사악과 실망들에도 불구하고 축복이며 은고이다. -내세가 없어도, 대다수가 그렇게 간주하고 있다. 예외는(자살자) 비교적으로 극히 소수이며, 자살자를 우리의 법정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거듭 판결했다. 정신적 불안정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현재의 축복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이렇게 끊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밖에 완벽한 인간인 아담의 행위는 그의 자손들의 행위가 비슷한 상황 아래 어떠했을까를 우리에게 나타내 준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생명이나, 아니면 **영원한 고통**이냐에 대한 시험 위에 두셨다는 틀린 관념을 받아드렸다. 이에 반하여 처벌에는 영원한 고통이란 일이 결코 암시조차도 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의 은고나 축복은 생명이다. 즉 고통, 병, 다른 모든 부패하는 요소와 죽음이 없는 연속적인 생명이다. 아담은 이 축복을 최대한으로 받았다. 그렇지만 만일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선물”을 빼앗길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즉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창 2:17) 그는 죄의 처벌로서 고통 속에 있는 **생애**는 전혀 몰랐다. 영생은 순종하는 사람들 이외에는 아무에게나 아무데도 약속되어 있지 않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생명의 반대인 죽음은 그가 규정하신 처벌이다.

영원한 고통은 구약성경에 아무데에도 암시되어 있지 않으며, 신약 성경에 오직 소수의 진술이 그것을 가르치는 것 같이 보일 정도로 오해될 수 있다. 이것들은 요한계시록의 상징용어들 중에나, 우리 주님의 말씀의 비유들과 수수께끼들 중에서 발견된다. 이것들은 사람이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눅 8:10) 현재에도 오직 조금 더 낮게 깨닫고 있다고 생각된다. “죄가 지불하는 값은 죽음이다.”(롬 6:23) “죄를 짓는 영혼-그것이 죽을 것이다..”(겔 18:4)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맛보던 비슷한 영생을 얻기 위한 시험과 기회를 각자에게 부여하시는 대신, 그의 자손이 아담의 정죄를 같이 나누도록 허락하신다는 점에서 불공정하다고 상상했다. 그러나 만일 생명을 얻기 위한 세상 사람들이 가질 기회와 시험은 아담이 가졌던 것 보다 훨씬 더 호의적일 것이라는 것과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아담의 자손이 그의 처벌을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는 계획을 채택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 그러한 사람들은 무엇이냐고 말할까? 우리는 사실 그렇다고 믿으며, 그것을 명백하게 하려고 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을 정죄 하시는데 전시된 지혜, 사랑, 공정

하나님께서서는 정죄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 것같이,(롬 5:18) 그는 인류를 위해서 새 머리, 아버지, 생명을 주는 자를 정하셨으며, 그(주) 안에서 믿을

과 순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롬 5:19)는 것과 아담 안에서 죽음의 저주를 같이 나눈 것같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의 회복의 축복을 같이 나눌 것을 보증하셨다. 교회는 예외임.(롬 5:12,18,19) 따라서 더럽히지 않고 죄가 없는 자(히 7:26)이신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께 관하여 아담의 죄의 완전한 청산 해결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하므로 말미암아 그(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의 저주, 그의 처벌을 같이 나눈 것 같이,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의 처벌을 갚으셨으므로 아담뿐이 아니라, 유전으로 그의 약점, 죄, 처벌 곧 죽음을 같이 나눈 그의 모든 후대(모든 인류)를 사셨다. 그 자신 흠이 없고, 하나님에게서 승인되고, 예수님 안에 마찬가지로 죄로 때가 묻지 않은 후대의 완전한 씨(인류)와 더불어, 우리 주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딤후 2:5)는 아담과 그가 형을 받았을 때, 그(아담)안에 있는 씨(인류)를 위해서 완전한 **속죄물 대가**로서 그(예수)의 인간 생명과 직위 **전부**를 주셨다.

아담과 그의 자손의 생명들을 완전히 사신 후, 그리스도는 그의 새 계약의 조건을 받아드리고 따라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식구가 되고 영생을 받을 아담의 자손 전부를 그의 씨(자식들)로 양자를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구속자가 “**자기 자손**(자기 조건에 의거하여 **양자** 될 것을 받아드리는 수만큼 아담의 자손)을 볼 것이고 자기 날을 길어지게 할 것이다.(순종한 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인간 단계보다 더 높은 단계로 부활).”(사 53:10) 그리고 모두가 있음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곧 예수님의 생명과 그의 후대를 희생함으로 된다. 따라서 기록되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또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교정된 번역**, (고전 15:22)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상처(우리는 불공정을 당하지 않았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호의로 충분히 상쇄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조만간(하나님의 “적절한 때”)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 맞보던 같은 위치로 회복되는 충분한 기회를 가질 것이다. 현재에 충분한 지식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즐거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아이들과 미개인들을 포함하여 그러한 사람이 대다수) 다음 시대- “앞으로 다가올 세상”, 현재시대 뒤를 따르는 경륜/시대에 확실히 이 특권을 가질 것이다. 이것 때문에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을 것이다.”(요 5:28, 11:43) 이 시대나 다음 시대에 각자가 우리 주님 예수께서 주신 속죄물 대가와 그(각자)의 잇따르는 특권을 충분히 깨닫게 될 때, 각자는 아담의 경우처럼 시험을 치르는 중에 있는 것으로 고려된다. 복종은 영속하는 생명을 초래하고, 불복종은 영속하는 죽음(“둘째 사망”)을 초래한다.

그러나 완전한 복종은 복종을 행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이 없이 아무에게서나 요구되지 않는다. 은혜의 계약 밑에서 복음시대에 교회 구성원들은 육신의 약점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결핍을 별충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그들에게 귀여워 된 그리스도의 의를 품고 있다. 신의 은혜는 천년시대에 세상의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들”에게 역시 작용할 것이다. 실제의 완벽에 이르게 될 때까지 (천년시대 종결 전에 모든 사람의 **특권일**) 절대적 완벽은 기대되지 않을 것이다. 새 계약 밑에서는 각 사람의 행위가 그 자신의 장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속죄물과 새 계약의

결과인 그 새 시험은 에덴에서 있던 시험과 다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류의 어떤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기 위한 **두 번째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응답은 조상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그 자신과 아직 “그의 허리 속에 있는” 모든 그의 자손은 영생을 얻을 **첫 번째의** 기회를 잃었다. 그 본래 시험 밑에서 “정죄가 모든 사람에게 넘겨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희생을 통하여 아담과 그의 실패로 생명을 잃은 **모두가** 죄의 매우 죄스러움을 맛보고 죄의 처벌의 무게를 깨달은 후, 구세주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누가 이것을 “두 번째의 기회”라고 부른다면 그렇게 부르도록 하자. 그것은 확실히 아담의 두 번째의 기회임에 틀림없으며, 적어도 어떤 점에서 그것은 모든 구속 된 인류에게 같다. 그러나 그것은 태어났을 때 이미 죽음의 정죄 밑에 있던 그의 후세 **개개의** 첫 번째 기회일 것이다. 무엇이든 부르건 사실은 마찬가지이다. 즉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모두가 사형 선고를 받았고, 새 계약의 호의적인 조건 밑에서 모두가 영생을 얻을 **충분한 기회**를 천년 시대에서 즐길 것이다.

천사들이 선언했듯이,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언했듯이, 우리 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죄물로**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특정한 때에” 모든 사람에게 틀림없이 “증거” 되어야 한다.(롬 5:17-19, 딤후 2:4-6) 인간이 생명을 얻는 이 기회를 복음시대로 제한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반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복음시대는 단지 왕 겸 제사장인 교회의 선택을 위한 것이고, 다른 모든 사람은 잇따라 오는 시대에 새 계약 밑에서 그 왕 겸 제사장인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정확한 지식을 갖게 되고 영생을 확보하는 충분한 기회가 부여될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그 추구하는 방법에 무슨 이익이 있는가? 아담의 시험과 정죄와 그의 정죄 안에서 그의 후세가 같이 나눔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모든 사람의 구속과 새 계약 조건 위에 모두에게 영생의 새로운 제공의 긴 과정이 없이, 왜 즉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얻을 개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가? 인간이 자주적인 도덕적 행위자이기 때문에 만일 사악이 묵인되어야 한다면 왜 사악의 근절이 그러한 특유하고 우회하는 방법으로 성취되는가? 왜 그렇게 많은 불행으로 얼룩지게 하며, 왜 그렇게 많은 비참함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의 선물을 받을 많은 사람들에게 오게 하는가?

아! 그것이 이 주제의 관심이 중심을 두고 있는 논점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번식을 다르게 명하셔서, 자녀들이 부모의 죄의 결과인 정신적, 도덕적, 육체적 약점들을 함께 나누지 않도록 하고, 만일 모두가 그들의 시험을 위해서 호의적인 에덴동산 같은 조건을 누려 받으며, 범칙자만 정죄되고 “절단” 하게 되도록 창조자가 준비하셨다면, 모든 그런 호의적인 조건들 밑에서 얼마나 많은 수가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고, 얼마나 많은 수가 생명을 얻기에 불합당할 지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까?

만일 확실히 모든 점에서 완벽한 성년 남자의 견본이었던 아담의 경우 하나를 기준으로 취하면, 결점이 없이 순종하고 합당하다고 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이라는 결론을 짓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개인들의 판단이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충분한 확신을 그들 속에 깊게 하는 하나님에 관한 분명한 지식과 그(당신)와의 경험이 아무에게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지식이 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능력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한다.(사 53:11) 그러나 4분의 1 이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아니면 그 이상, 그 절반이 합당하고 나머지 반이 죄의 대가(죽음)를 받을 것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다른 나머지 반인 순종하는 사람들이 죄의 경험도 없고 죄를 목격해 본적이 없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들은 금지된 것들에 대해서 언제나 호기심을 느끼고 다만 하나님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의 봉사는 그들이 마치 선과 악을 알고, 따라서 그의 피조물의 진로뿐이 아니라, 창조자 자신의 진로를 관리하는 율법을 만드시는 점에서 창조자의 자비로우신 계획의 충분한 이해를 가진 것 같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일 수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들의 의지적인 죄의 결과로 죽게 되는 나머지 반도 고찰해 봅시다. 그들은 삶에서 영구히 절단될 것이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의 손의 만듦새인 그의 피조물로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또 다른 시험을 주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하시나? 그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다시 죽음에서 깨어나게 하고 다시 시험을 치르게 하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더 큰 **경험** 때문에, 그 때에는 순종하려고 결정하고 살 수 있으리라는 희망일 것이다.

그러나 비록 그러한 계획이 그 결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채택하신 것만큼 좋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심각한 이의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일반 율법

그의 계획이 수행하듯이 죄를 어떤 한도로 제한하는 것이 얼마나 훨씬 더 하나님의 지혜 같을지. 고의로 저지르는 죄가 지불하는 값(대가)은 생명에서 절단되는 것 곧 죽음(사멸)이라고 선언하는 단 하나의 완전하고 편견 없는 율법을 갖는 것을 우리의 한정된 마음조차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훨씬 더 좋을지.(롬 6:23)

하나님께서서는 이렇게 그가 묵인하시는 사악을 제한하신다. 이것은 천년 그리스도의 통치가 사악과 아울러 고의적인 악의 행위자들을 전부 사멸하고, 완벽한 존재들의 충분한 지식과 자유 의지의 순종에 기반을 둔 영원한 정의를 안내하여 줌으로서 된다.

그러나 각 개인을 개별적으로 먼저 시험하는 것을 제안한 계획에 두 가지의 다른 이의가 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계획에서는 구속자 하나로 사실상 충분했다. 왜냐하면 단 **한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단 **한사람**이 정죄를 받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의** 정죄를 같이 나누었다.(롬 5:12,15) 그러나 만일 첫 시험이 개별적 시험이고 인류의 반이 죄를 범하여 개별적 시험으로 정죄되었다면, 이 정죄 받은 개인마다 구속자의 희생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하나의 상실되지 않은 생명은 하나의 상실된 생명을 구속할 수 있으나 그 이상 구속할 수 없다. 타락된 아담과 그를 통한 우리의 손실을 구속하시는 하나의 완벽한 인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딤후 2:5)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계획의 상황 외에 다른 상황 밑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

여 속죄물(대응하는 대가)”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인간의 총 수가 아담 이래 1천억이라고 가정하고, 이들 중에 오직 반수만이 죄를 범했다면, 500억의 죄인들을 위하여 “속죄물(대응하는 대가)”을 주기 위해서 500억의 순종하는 완벽한 사람들 모두가 죽는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이 계획에 의하면 죽음이 역시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계획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못지않은** 고통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한 계획에 다른 이의는 “적은 무리”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이 머리와 주님이 되는 동료 -를 선택하고 이들을 신의 본성으로 높이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심하게 혼란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500억의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그들의 권리와 특권과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물로 주도록 공정하게 **명령**하실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의 율법 밑에서 그들의 순종함이 영속하는 생명의 권리를 확보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그 완벽한 사람들에게 죄인들의 대속자들이 될 것을 요구하였다면 우리 주 예수님과 같이(히 12:2) 그 사람들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그들의 형제들의 처벌을 인내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 앞에 특별한 보답을 마련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것이다. 그리고 만일 우리 주 예수님께 주신 것과 같은 보답, 즉 신의 본성인 새 본성에 참여케 하고, 천사들과 정부들과 권세들과 여호와의 이름 다음의 모든 이름보다 훨씬 높여지는 보답을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면(엡 1:20,21) 막대한 수가 신의 단계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히 찬성하시지 않으셨다. 더구나, 그러한 상황 밑에 이 500억의 사람들이 모두 **대등한 입장에** 있을 것이며, 그들 가운데 장이나 머리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계획은 신의 본성으로 지극히 높여진 구속자 오직 한 분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구속하시고, 아내가 남편과 같이 나누는 것처럼 그의 이름, 영예, 영광과 그의 본성을 같이 나누기 위하여 고통과 자기부정인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 “적은 무리”를 필요로 하신다.

대표자 **하나** 안에서 모두를 정죄함으로서 구속자 **하나**로 속죄물과 만유의 회복을 위한 길을 여신 하나님의 계획의 이 면모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면모 안에서 많은 당혹한 것들의 해결을 발견할 것이다. 그들은 한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을 정죄함은 불공평의 반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다른 한사람의 희생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의롭다고 인정하심을 제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연관해서 고려하면,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큰 호의였다. 사악을 묵인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속죄물의 은혜가 죄의 처벌과 대등하게 널리 퍼지게 될 때, 사악은 영구히 절멸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의 이 면모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다음 네 가지 점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1) 죄의 매우 죄스러움, (2) 그것의 처벌의 성질(죽음), (3) 우리 주 예수님이 주신 **속죄물**의 중요성과 가치, (4) 각인에게 보답(영생) 아니면, 처벌(영속하는 죽음)의 합당함이 선포되기 전에 개개인이 충분하고 풍부한 시험을 가질 호의적인 조건들로 완전한 복귀.

구속의 위대한 계획과 그 결과로서 그리스도를 통한 “만유의 회복”을 생각하면 사악의 묵인을 통해서 축복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 아마 판 방법

으로는 그렇게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인간은 얻은 경험을 함으로, 천사들은 인간의 경험을 관찰함으로 혜택을 받을 뿐이 아니라, 인간과 천사 모두는 그의 계획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더 충분히 익히 앎으로서 더욱이 이롭게 된다. 그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될 때, 모두가 그의 지혜, 공정, 사랑, 권세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공정은 신의 법령을 위반할 수 없으며, 자발적인 구속자가 그들의 처벌을 완전히 취소하지 않고는, 정죄된 인류를 공정하게 구할 수 없었다는 이해와 사랑이 이 고귀한 희생을 제공하셨다는 것과 사랑이 구속자를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지극히 높이시고, 그에게 권능과 권세를 부여하셔서 그것으로 구속자가 그의 귀중한 피로 사신 사람들을 생명으로 회복하게 하셨다는 이해와 권세와 지혜가 그의 피조물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미래를 완수할 수 있으며, 그의 웅대한 계획의 진보와 종국의 성취를 위해서 본의거나 본의 아닌 대행자들을 만드실 만큼 온갖 대항하는 영향을 지배할 수 있었다는 이해를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일 사악이 묵인되지 않고 신의 섭리로 그렇게 지배되지 않았다면 이 결과들이 어떻게 달성되었을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인간 가운데에 일시적인 사악의 묵인은 수반하는 모든 상황을 납득하고, 구체책을 고안하고 그의 권세와 은혜를 통해서 종국의 결과를 명시한 선견지명이 있는 지혜를 따라서 나타낸다.

복음경륜시대에 죄와 죄를 수반하는 사악은 교회의 훈육과 준비를 위해서 더욱이 사용되었다. 만일 죄가 묵인되지 않았더라면 주 예수와 교회의 희생(신의 본성의 포상을 위한)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본질적으로 지금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같은 하나님의 율법 곧 순종은 생명의 보답이고, 불순종의 응보는 죽음의 처벌이라는 율법이 궁극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지적인 피조물들을 지배하여야 한다는 것이 분명히 보이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정의를 내리셨듯이 율법은 간단히 한마디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보이는 것 같다. “네 미움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눅 10:27)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때 하나님의 성품의 영광이 지적인 모든 피조물들에게 나타날 것이며, 임시 사악의 묵인이 신의 정책에 지혜로운 면모였음을 모든 사람이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세상의 태동 이래로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바 만유의 회복(행 3:21)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앞쪽을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지금 깨달을 수 있다.

그 날이 목전에 닥쳐있다

“가엾고 실신하는 순례자여, 네 길에 그대로 있어라 - 여명이 가깝다!
 참으로 지금 너는 지쳐있다. 그러나 저쪽에 빛나는 광선이 더 밝아지리라.
 조금만 더 버티어내라. 휴식을 기다리라.
 잠들지 말라, 무겁게 덮치는 고생이 있을지라도.

“삶의 밤은 슬픔에 잠겨있다, 그러나 바라보라 - 여명이 가깝다!
 곧 땅의 모든 어두운 광경과 형태가 사라지리라. 두려워 말라!
 산봉우리에 머지않아 도달하리라,
 기쁨과 평화의 밝은 세상이 이르리라.

“너의 표어는 아직 ‘희망으로 기쁨’ 이어야한다 - 여명이 가깝다!
 너에게 펼쳐진 여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고무되어라!
 너의 허리띠를 띠라, 신을 신어라:
 길은 어둡고 길다. 그 끝은 즐겁다.“

연구 8

심판의 날

- 심판 날에 관한 일반적 견해
- 그것이 성서적인가?
- 심판과 날 용어들의 뜻이 밝혀졌다
- 성서에는 여러 가지 심판 날이 언급되었다
- 첫 번의 심판 날과 그것의 결과
- 또 하나 정해졌다
- 판사
- 앞으로 오는 심판의 성질
- 첫 째와 둘째 심판의 유사점과 차이점
- 세상 인류의 현재 책임
- 두 심판 사이에 낀 심판들과 그들의 목적
- 앞으로 오는 심판에 관한 크게 다른 의견
-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그 오는 심판을 어떻게 간주 했는가?

심판 날에 관한 일반적 견해

“하나님께서서는 임명하신 그 사람(“예수 그리스도시요 의로우신 자”)으로 하여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을 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이다”(행 17:31, 요 5:22)

심판 날에 관해서 매우 모호하고 불명확한 관념이 널리 퍼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받아드린 견해는 다음과 같다: (1) 그리스도가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아 지구로 오실 것이다. (2) 그가 재판을 내리기 위하여 자연의 큰 경련- 지진, 무덤이 열림, 부스러지는 바위, 무너지는 산들- 중에 성인과 죄인들을 열과 줄을 지어 그의 앞에 호출할 것이다. (3) 떨고 있는 죄인들은 영구한 비통의 심연에서 데려 나와서, 단지 그들의 죄를 열거하는 것을 들은 다음, 영원하고 무자비한 파멸로 다시 되돌려 보낼 것이다. (4) 성인들은 하늘에서 데려 내려와서, 정죄된 사람들의 비참함과 절망을 목격한 다음, 그 자신들의 사정에 있어서 결정을 다시 듣고 하늘로 되돌려 보낼 것이다.

일반적인 이론으로는 모두가 그들의 선고와 보답을 죽을 때 받는다고 한다. 이것을 첫 번째 심판이라 부르고, 이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부르는 일반적인 심판(부활 후에 있을 심판)은 단지 첫 번째 심판의 반복이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최후 불변의 결정을 죽을 때 받는다고 주장함으로 그것은 상상할 수 있는 목적이 없다.

그것이 성서적인가?

수십억을 심판하는 이 광대한 일에 할당될 것으로 상상하는 전 기간이 하루 24시간이라고 한다. 근래에 한 부루클린(Brooklyn) 모임에서 한 설교는 이 주제에 관해서 일반 견해를 표현했다. 그 설교는 심판 날 일이 문자 그대로 단 하루의 제한 이

내로 완성되는 것으로 진술하는 심판 날의 일의 상세한 전말서를 주는 것 인양 꾸몄다.

이것은 매우 조잡한 개념이며, 영감을 받은 말씀과 완전히 조화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양과 염소의 비유의 지나친 문자그대로의 해석에서 끌어낸 것이다.(마 25:31-46) 그것은 상징적인 언어를 억지로 문자그대로의 해석을 하려는 어리석음을 예증한다. 비유는 결코 정확한 성명이 아니고 단순히 많은 점에 있어서 비유에 맞는 어떤 일의 한 진리의 실례이다. 만일 이 비유가 심판이 집행될 방법의 문자그대로의 성명이라면, 비유는 쓰인 그대로, 문자그대로의 양과 염소에게 응용될 것이며, 결코 인류에게 응용될 것이 아닐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 심판 날의 일과 결과에 대해 더 이치에 맞을 뿐이 아니라, 더 성서적인 견해를 봅시다. 모든 비유와 상징이 이치적이고 성서적인 결론과 일치하여야 하고 일치하게 될 것이다.

심판과 날 용어들의 뜻이 밝혀졌다

심판이란 용어는 단순히 판결을 내리는 것 보다 더 의미가 있다. 그것은 시험에 근거를 둔 결정뿐이 아니라, 시험에 대한 관념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것은 영어 단어의 심판의 뜻뿐만이 아니라, 심판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단어의 뜻 역시 사실이다.

성서와 일반 용법에서 **날**이란 용어는 12시간이나 24시간의 기간을 묘사하기 위해 가장 흔히 사용되었지만 실은 어느 일정한 또는 특별한 시기의 기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노아의 날, 루터의 날, 워싱턴의 날이라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쓴다. 그리고 창조의 전 기간을 날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부른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창 2:4)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경우에 일정한 긴 기간을 말한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은 40년인 것을 우리가 읽는다.(히 3:8,9) “구원의 날”(고후 6:2), “복수의 날”, “진노의 날”, “환난의 날”의 용어들은 유대 시대의 종결 때에 40년 기간과 복음시대 끝에 환난의 같은 기간에 응용된다.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의 날”, “심판 날”, “그의 날”을 우리가 읽는다. 이 용어들은 메시아가 선고를 내릴 뿐이 아니라, 시험을 부여하면서 세상을 의로 지배하고 통치하며 심판할 천년시대에 응용할 수 있는 날들이다. 그 기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기를, “그는 세상을 의로 심판할 것이고, 기약이 이르면 누가 복되시고 홀로 능하신 자이며 왕 중의 왕이시며 주중의 주이신가를 나타낼 것이다.”(행 17:31, 딤후 6:15)라고 했다. 다른 유사한 경우에서 **날**이란 말에 대해서 더 넓은 뜻을 인정하면서, 이 심판 날을 왜 단지 12시간이나 24시간이라고 상상해야 하는가는 그들이 적당한 증거나 연구 없이 전통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추측하는 것 외에는 달리 이해할 수 없다.

심판 날에 관하여 성경 용어의 색인(Concordance)을 주의 깊게 찾으며, 그 기간 이내에 성취될 일의 종류와 양을 주의하는 사람들은 공통견해의 부조리와 용어 **날**에 더 넓은 의미를 주는 필요성을 곧 깨달을 것이다.

성서에는 여러 가지 심판 날이 언급되었다

성서는 아직 미래에 있을 대 심판이나 큰 시험의 날을 말하고, 그 날에 대다수의 인류가 그들의 완전한 시험과 마지막 선고를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성서는 택함을 입은 일정한 **계급**들이 시험을 받고 있는 다른 심판 날이 있다는 것도 또한

가르친다.

첫 번의 심판 날과 그것의 결과

첫 번째 대 심판(시험과 선고)은 최초에 에덴에서 있었다. 그 때에 모든 인류의 머리인 아담 안에 대표로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았다. 그 시험 결과는 유죄, 불순종, 살 가치가 없다는 평결이고, 가한 처벌은 죽음이었다. “죽어 가는 너는 죽으리라.”(창 2:17, 헤브라이어로)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전 15:22) 에덴에서 가진 시험기간은 세상의 첫 번째 심판 날이었으며, 심판관(여호와)의 판결은 그때 이래로 집행되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의를 하늘에서 나타내고 있다.”(롬 1:18) 그것은 어느 장래의 행렬에서나 볼 수 있다. 각 무덤마다 다 하나님의 진노의 증거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겪는 아픔과 고통가운데 느껴진다. 이 모두는 우리가 살 가치가 없으며, 순종하고 하나님 모양으로 있을 때 사람에게 원래 준 축복에 합당치 않다는 하나님의 정당한 선고, 즉 첫 번 시험과 선고의 결과들이다. 그러나 인류는 위대한 구속자가 주는 모든 사람을 위한 한 영원한 제사로 첫 번 시험에 대한 선고에서 회복하게 되어있다. 모든 사람이 무덤과 죽음이라는 선고(멸망)에서 구조 받게 된다. 이 구속 때문에 죽음은 더 이상 영구한 의미에서 완전한 죽음이 아니라, 일시적인 잠이라고 고려된다. 왜냐하면 천년 기 아침에 모두를 구속하신 생명을 주는 자가 모든 사람을 죽음에서 깨워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만이 이 원래의 선고와 처벌에서 이미 어느 의미에서도 해방되거나 “모면 된다”. 그리고 그들의 모면은 아직 **실제**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간주된다. “우리는 **희망으로** 만 구원을 받았습니다.”(롬 8:24) 이 죽음의 처벌 -아담 안에서 초래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됨으로서 모면된 -에서 우리의 실제의 해방은 우리가 깨어나서 구속자의 모습을 보고 만족할(시 17:15) 부활의 아침까지 체험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계획의 지식을 갖게 된 우리가 “세상에 아직 있는 **부패를 피했다**”(벧후 1:4)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미래 모면의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증명하기에는 너무 멀며, 오히려 이것과 정 반대임을 증명한다. 우리가 그의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께 첫째열매이기 때문이다.

아담 안에 있는 죽음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으로 우리가 피하게 됨은 부패(죽음)의 속박 상태에서 생명의 자유로 해방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을 구원을 미리 맞봄에 지나지 않는다. 생명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자녀들로서 인정하실 모든 사람에게 타당한 것이다. 원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께서 존재를 위한 다른 단계들에 있는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마련하신 본성의 구별에 관계없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될 수 있다. 복음시대는 신의 본성을 주실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삶 아니면 죽음을 위한 시험의 날이다.

심판 날 또 하나 정해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이 거주하는 땅을 심판하실 한 날을 작정하셨다.(행 17:31) 어떻게 이것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첫 인간의 시험 때 판결과 대체적인 선고에 관해 그의 판결이 불공정하고 너무 엄하셨다고 결론을 내리시고, 이제 이 세상 사람을 개별적으로 심판하시기로 결론을

내리시는가? 아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과거에서 보다 미래시험 때 공정한 판결을 내리실 것이라고 우리가 더 잘 보증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첫 번 심판 때 그의 판결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셔가 아니라, 그 때(미래)에는 죄와 죄의 결과로 경험을 가진 모든 인류에게 더욱 은혜로운 조건 밑에서 또 하나의 심판(시험)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첫 심판의 처벌에서 **구속**을 마련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있기 전에 구상하신 그의 최초의 목적에서 하나의 티끌만큼도 변경하시지 않았다. 그는 변하시지 않는다는 것과 그는 결코 처벌을 면제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명료하게 가르치신다.(말 3:6, 출 34:7) 그는 공정하게 언명하신 한도껏의 처벌을 강제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한도껏의 처벌을 하나님 자신께서 주신 구속자(대리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히 2:9) 우리 주님이 그 자신의 피로서 아담의 자손을 위해서 속죄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두 생명의 제공을 새로이(다시한번) 공정하게 부여하실 수 있다. 교회에게 부여한 이 제공은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맺은 계약 밑에 있다.(시 50:5, 롬 12:1) 세상에는 이 제공이 새 계약 밑에서 있게 될 것이다.(롬 14:9, 히 10:16, 램 31:31)

판사

우리가 더욱이 알게 된 것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개별적 시험을 주실 때, 그것은 그리스도를 판사로 그 밑에서 있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예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신의 본성에까지 극히 높이셔서 그가 왕과 구주가 되시고(행 5:31) 그 자신의 귀중한 피로서 산 모든 사람을 죽음에서 회복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부여할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요한 5:22, 마 28:18)

앞으로 오는 심판의 성질

그 때에 세상의 속죄물의 대가로 그의 생명을 주실 만큼 이 세상을 매우 사랑하시고, 세상에 약속하신 미래의 시험 중에 세상의 판사가 되게 된 이는 지극히 높여지고 영화로움을 입은 그리스도시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직무에 그를 임명하신 분은 여호와 자신이시다. 그러한 것이 성서에 있는 명백한 선언이므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도리어 모든 사람 편에서 심판 날을 기대하며 기뻐할 큰 동기가 있다. 판사의 성품은 다음 사실을 충분히 보증 한다: 심판은 공정하고 자비로울 것이며, 의도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에덴에서 잃은 최초의 완벽으로 회복 될 때까지 모든 사람의 약점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는 것.

고대의 판사는 공정을 집행하고 압박당하는 자를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범죄한 이유로 그들의 적에게 압박을 당할 때 몇 번이고 되풀이 하여 판사들을 세움으로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축복 되었나 유의해 보시다. 따라서 우리는 읽어서 배운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한 **구세주**를 일으키셨는데, 그는 곧....옷니엘(Othniel)이었다....여호와의 영이 이제 그에게 임하여, 그가 이스라엘의 **판사가 되었다**. 그가 전투에 나가서 싸워 이겨서, 그 땅이 사십 년 동안 태평하였다.”(삿 3:9-11)

그와 같이 세상은 대적, 사탄의 권세와 압박 아래 오래 있었지만, 머지않아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그 자신의 귀중한 피로 갚으신 그가 큰 권능과 통치권을 쥐게 될 것이다. 그가 매우 사랑하셔서 구속하신 자들을 **구원할** 것이고 **심판할** 것이다.

모든 예언적인 선언들은 이 결론과 일치한다. 기록된 바, “저가 의로 세계를 재판하시고 여러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하시리라.”(시 98:9)

첫째와 둘째 심판의 유사점과 차이점

이 다가오는 심판은 첫 번째 것과 꼭 같은 원칙을 따를 것이다. 생명의 같은 보답과 죽음의 같은 처벌과 더불어, 같은 순종의 율법이 제출될 것이다. 그리고 첫 번째 시험에서 시작이 있었고 진척되어 선고로 완결되었던 것 같이, 둘째 번째 시험에서도 같은 것이다. 선고는 의인에게는 생명, 불의한 자에게는 죽음일 것이다. 둘째 심판은 첫 번째 시험의 성과에서 얻은 경험 때문에 첫 번째 것보다 더 호의적일 것이다. 첫 번째 시험과는 달리 두 번째 시험은 남의 탓 때문이 아니라, 각 사람마다 다만 자신 홀로의 잘못의 탓으로 시련을 경험할 것이다. 그 때에는 아무도 아담의 죄나, 유전된 결점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그 날에 그들이 다시는 ‘아버지가 익지 않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고, **익지 않은 포도를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이가 시게 될 것이다.**” “죄를 짓는 영혼이 죽을 것이다.”(렘 31:29,30, 겔 18:4) 한 인간은 그가 가지지 않은 것에 따라서가 아니라, 가진 것에 따라 심판이 이루어진다(고후 8:12)는 원칙이 지금 교회의 사실인 것처럼 두 번째 시험 때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스도의 통치 밑에서, 인류는 점진적으로 완벽에 이르기까지 교육, 훈련, 단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완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과 완전한 화합이 요구될 것이며, 그 다음에 누구든지 완전한 순종에 미달하는 자는 생명에 합당치 않은 것으로 재판되어 멸망을 받을 것이다.(행 3:23) 아담을 통해 인류에게 죽음을 초래한 죄는 단지 불순종의 행위 하나였다. 그러나 그 행위 때문에 그가 완벽에서 떨어졌다.

아담은 완벽한 사람으로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셨다. 그는 인류를 회복하시는 큰 일이 완성될 때, 같은 순종을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실 것이다. 그 때에 완벽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한 사람은 아무에게도 영생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 때에 완벽에 어긋난다는 것은 충분한 빛과 완전한 능력에 반하여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일 것이다.

완전한 빛과 능력에 반하여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은 누구나 둘째 사망으로 멸망할 것이다. 만일 누구나 둘 째 시험하는 시대에 충분한 불길 같이 밝게 빛나는 빛을 받으며 그 시대에 부여한 호의들을 거부하고 백 년 동안 완벽을 위하여 진보하지 않으면 그는 생명을 받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는 백 살 때 비교적 유년기에 속해 있지만 “멸망”할 것이다. 그 날을 기록하기를, “백 살일 지라도 아이로서 죽는 것이 될 것이다. 백 살에 죽는 자는 죄인으로 저주받은 것이다.”(사 65:20- Leeser) 이렇게 모두가 적어도 백년 시험기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만일 진보하기를 거절할 정도로 완강하지 않으면, 그들의 시험은 그리스도의 날 전체를 통해서 계속할 것이다. 단지 그들의 시험은 그 날 종결 때 완료될 것이다.

세상에 다가오는 심판의 평결은 양과 염소의 비유(마 25:31-46)와 요한계시록 20:15, 21:8과 고린도전서 15:25에 나타나 있다. 이 성서들과 다른 성서들은 세상에 다가오는 심판 날 종말에 두 부류들이 완전히 분리 될 것을 보여준다. 즉 순종하는 사람들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부류들, 하나님의 율법의 글자의 뜻과 정신과 조화되어있는 사람들과 조화되어있지 않은 사람들의 부류들. 첫 번 언급된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두 번째 언급된 사람들은 죽음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곧 사멸(“둘째 사망”), 첫 번 심판에서와 같은 선고다. 이 선고에서 그들의 속죄물로 줌(그의 죽음)으로서, 그들을 해방할 권리를 확보한 그리스도가 그들을 해방한 것으로 간주되어 있었다. 이 두 번째의 선고는 그들의 둘째 사망일 것이다. 그들의 죄가 가장 호의적인 개별적 시험을 받는 중에 고의적이고, 충분한 빛과 기회에 반하여 범한 개별적 죄이므로 그들을 위해서 속죄물을 주지 않을 것이며, 그들에게 있어 해방이나 부활이 없을 것이다.

세상 인류의 현재 책임

우리는 세상 인류의 현재 책임을 우리가 무시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각 사람마다 인간은 많은지 적든지, 자연의 빛이든지 계시의 빛이든지 여하간에 맞을 본 빛의 정도에 따라 책임이 있다. “여호와와 의는 어느 곳에나 있어서,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을 늘 살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부류의 일을 숨긴 모든 것과 관련하여 선한지, 악한지 심판하실 것이다.”(잠 15:3, 전 12:14) 현재의 선하고 악한 행위는 현재나 장래에 **공정한** 보응을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공개적으로 나타나서 곧바로 심판에 이르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 나타날 것이다.”(딤후 5:24) 주님의 호의를 받은 “적은 무리” 외에는 아무도 최종의 처벌, 둘째 사망을 초래케 하는 죄를 드러내는 율법의 거울(지식)을 아직 갖고 있지 않다. 여기서 우리는 단지 세상 인류의 현재 책임에 대한 논제를 끄집어내고 상세한 것은 다음 고려에 남긴다.

두 심판 사이에 낀 심판들과 그들의 목적

세상 인류의 첫 번과 두 번째 심판 사이에 6천년의 기간이 끼어있다. 그리고 이 낀 기간에 하나님께서 2개의 특별한 계급을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하시는 것이며, 세상인류의 심판 기간(심판 날)에 그의 명예로운 도구가 되도록 특별히 그들을 시험하고, 단련하고, 훈련하시는 중이다.

바울이(히 3:5,6) 이 두 계급을 자녀의 집과 사환의 집이라고 각기 명칭을 부쳤다. 전자는 그리스도의 경륜시대에 시험을 받고, 충실하다고 발견된 이기는 자들로 구성되고, 후자는 그리스도의 경륜시대를 앞선 충실한 이기는 자들로 구성 되어있다. 이 특별한 선택들은 이 복음 경륜을 따르는 시대에 세상 인류에게 약속한 심판(시험)을 결코 방해하지 않는다. 이 쌍방의 특별한 계급들을 위한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는 그들은 세상 인류와 함께 심판을 받지 않고, 세상 인류의 심판이 시작될 때 그들의 상을 받을 것이다.

상을 받은 계급은 세상 인류를 축복할 때, 세상 인류의 최종의 시험과 심판을 위하여 그들에게 필연적인 교훈과 훈련을 줄 때, 하나님의 대행자들일 것이다.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전 6:2)

이 특별히 선택된 계급들은 나머지 인류와 같이 한 때 아담의 정죄 중에 있었으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특권을 믿음으로 함께 나누는 자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 믿음으로 먼저 의롭다고 인정되고, 그 다음에 그들 각각의 부르심에 대한 차후의 조건들을 완수한 후, 그들은 명예와 권세의 위치로 높임을 받기에 족하다고 간주된다.

이 두 계급들의 시험이나 심판은 세상 인류의 시험이 그 심판 날에 있게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엄하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요 12:31, 14:30, 16:11)을 그의 모든 간계와 유혹과 함께 저항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세상 인류의 심판 날에는 그리스도가 통치 할 것이고, 사탄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결박될 것이다.(계 20:2,3) 이 두 계급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이에 반하여 인류는 의에 대한 보답을 받을 것이며, 다만 불의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들은 그들의 길에 큰 장애물과 올가미가 있다. 세상 인류가 시험을 받게 될 때 큰 장애물과 올가미는 제거될 것이다. 이 두 특별한 동료들의 시험이 세상 인류에게 올 시험보다 훨씬 더 엄하지만 보답은 대응하게 더 크다.

앞으로 오는 심판에 관한 크게 다른 의견

큰 기만 자 사탄의 꾀변 아래, 세상과 이름뿐인 교회는 앞으로 오는 의의 심판 시기의 축복된 보증을 빼앗겼다. 그들은 성경이 앞으로 오는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들은 심판을 오직 두려움과 공포로만 본다. 그리고 이 공포 때문에 그들에게는 주님의 날이 바로 가까이에 와 있다는 것보다 더 반갑지 않은 소식은 없다.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언급하는 것조차 듣기 싫어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의로 재판하시기 위하여 정하신 그의 그 영광스러운 통치 밑에 세상을 위해서 준비된 축복에 대한 관념이 없다. 심판 날에 관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탄이 고안한 가장 큰 눈을 가리는 영향들 중에는 신조와 여러 가지 종파의 찬송가책으로 가만히 들어간 과오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오들을 하나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그 오는 심판을 어떻게 간주 했는가?

예언자와 사도들이 약속된 심판 날을 어떻게 다르게 보았는가? 다윗의 몹시 기뻐하는 예언의 말을 유의해 봅시다.(대상 16:31-34)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 찌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 할 찌로다.
 그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려
 오실 것임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도 바울도 역시 그것은 영광스럽고 바람직한 날일 것이라는 것과 그 날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이 교회를 높이고 영광되게 할 뿐이 아니라, 위대한 판사가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할 것을 기리면서, 지금까지 계속 함께 신음하며 함께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롬 8:21,22)

요한복음 5:28,29에 앞으로 오는 영생을 얻기 위한 심판(시험)에 대한 세상을 위한 귀중한 약속이 오역 때문에 두려운 저주가 되었다. 그리스어(the Greek)에 의하면 신의 찬동을 받지 못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 “채찍”, 훈련으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완벽으로 일으키다). (Revised Version을 보시오.)

내 세

“하나님의 길은 같다. 폭풍이나 평온,
 위험과 안정의 때
 상처를 내는 화살, 치료하는 유향,
 모두 제일 좋은 길대로 할당하신다.
 심판에 있어서 자주 오해되며,
 방법에 있어서 불가사의하고 모호하며,
 그는 악에서 영속하는 선을 나게 하시고,
 종국의 기쁨을 확인하신다.
 공정이 힘을 가지고 그것의 진로를 가는 동안,
 사랑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증대하게 한다.
 드디어 그는 단련된 세상에
 그의 평화의 내세를 주실 것이다.

“강풍의 무서운 힘이
 그의 확고한 목적을 이행하고,
 인간의 숙련이 폭풍의 맹렬함에 거슬러
 소용에 닿을 수 없을 때
 아주 어둡고 우회한 길을 통해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그를 의지하게 하라.
 밤중 내내 기쁜 날 까지 이끄시는,
 그의 축복된 뜻을 누가 꺾을 것인가?
 그의 부드러운 보살핌 아래 가만히 있어라.
 그가 폭풍을 멈추실 것이며,
 여기서 괴로움을 없애고
 그의 평화의 내세를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올려다 보라, 오 땅이여,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도를 지나서 폭풍이 지속할 수 없다.
 그것의 지정된 일이 지나가게 될 때
 기뻐서 그대는 그대의 슬픔을 잃을 것이다.
 슬픔의 보습이 휘몰아친 곳에,
 너의 생명의 가장 예쁜 꽃이 솟아오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새로 생명을 주실 것이며,
 그대의 모든 헛됨이 웃고 노래를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게 희망을 가져라. 그대를 위한 그의 계획은
 승리와 해방으로 끝날 것이다.
 두려워 말라, 그대는 분명히
 그의 평화의 내세를 볼 것이다.”

연구 9

속죄물과 만유의 회복

- 속죄물로 보장된 모든 것의 회복
- 영생이 아니라, 속죄물로 확보된 영생을 얻기 위한 시험
- 시험의 조건과 이점
- 그리스도의 희생은 필연적
- 어떻게 인류가 한 사람의 죽음으로 구속될 수 있으며 구속 되었나?
- 믿음과 일이 여전히 필수적
- 고의적인 죄의 대가는 확실함
- 부활된 수백만을 위해서 지구상에 자리가 있을까?
- 만유의 회복 대 진화론

속죄물로 보장된 모든 것의 회복

여태까지 기술한 것 같이, 하나님의 드러난 계획의 개요에서 보아, 인류를 위한 그의 계획은 에덴에서 잃은 완벽과 영광으로 만유의 회복 또는 복구라는 것이 분명하다. 이 주제에 대한 가장 강하고 결정적인 증거는 속죄물의 범위와 성질이 충분히 이해될 때 가장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예언한 만유의 회복은 공정하고 논리적인 차례로 속죄물의 결과로서 일어남에 틀림없다. 하나님의 조정에 따라 속죄물을 부여하실 때, 모든 인류는 위대한 구세주의 구원하는 권세를 고의적으로 저항하지 않는 한, 최초의 처벌, “부패의 감금”, 죽음에서 구원됨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으면 속죄물이 모두를 위해 소용에 닿지 않는다.

이 주제에 대한 바울의 추리는 가장 명료하고 단호하다. 그는 말하기를(롬 14:9), “이 목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사람과 산 사람 모두의 주(통치자, 지배자)가 되시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목적은 단지 산 사람을 축복하고 통치하고 회복하려고 한 것만이 아니고 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들에게도 그의 속죄물의 혜택을 보증하면서[■], 그들 모두를 지배하는 권력과 완전한 지배력을 그에게 주려고 한 것이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영생을 얻기 위한 개별적인 시험을 모든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속죄물(대응하는 대가)로 주셨습니다.”(딤후 2:6)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죄물”로 주셨는데, 단지 소수의 속죄된 사람만이 그것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조리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속죄물의 대가를 받아드리시고 나서, 그 다음에 불공정하게 구속된 사람을 해방해 주려고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주

■ 사도 바울의 말에는 부가한, 아직 더 넓은 뜻을 당연히 인식할 수 있다. 즉 전 인간 가족은 “죽은 자”라는 표현에 포함되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죽음의 선고를 받은 전 인류는 이미 마치 죽은 것처럼 취급되고 있다.(마 8:22) 그러므로 “산 자”라는 표현은 인간 가족을 초월하여 그들의 생명이 상실되지 않은 천사들에게 적용될 것이다

님이 모두를 구속하신 후, 본래의 자비심 많은 계획을 성취하시기에 무력하거나, 하려고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함축할 것이기 때문이다. 신의 공정과 사랑의 완벽이나 다름없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정 불변성은 그러한 생각을 반발하고 부정하며,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물”이 기초인 본래의 자비심 많은 계획이 하나님의 “기약이 이르면” 완전히 성취될 것이라는 것과 죄와 저주가 있기 전에 즐겼듯이 아담의 정죄에서 해방되는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와 자유로 되돌아갈 기회를 충실한 신자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는 보증을 우리에게 준다.

영생이 아니라, 속죄물로 확보된 영생을 얻기 위한 시험

이제 속죄물의 실제의 혜택과 결과를 분명히 깨닫게 합시다. 그러면 속죄물이 전 인류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에 모든 이의가 틀림없이 없어질 것이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물”은 영생이나 축복을 아무에게 주시거나 보증하시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영생을 얻기 위한 또 하나의 시험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보증하신다. 처음 베푸신 축복의 상실로 끝난 인간에게 주신 첫 시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속죄물** 때문에 충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참으로 축복되는 경험이 되었다.

그러나 인간이 첫 처벌에서 속죄되었다는 사실은 영생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시험을 받을 때, 그들이 반드시 순종할 것을 보증해주지 않는다. 순종을 다하지 않고는 아무도 영구히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인류는 죄와 그것의 쓴 처벌의 현재 경험 때문에 충분히 미리 경고 될 것이다.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줄만큼 사랑하시고,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다 하나님께 돌아서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눈과 지배 밑에서 속죄의 결과로 인간이 또 하나의 개별적인 시험을 받을 때, 오직 고의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만이 두 번째 시험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그 처벌은 둘째 사망일 것이다. 둘째 사망에서 속죄물도 없고 해방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속죄물이나 시험을 또 다시 줄 목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 때는 모든 사람이 선과 악을 충분히 이해하고 맛을 보았겠고,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을 목격하고 경험하였겠고, 가장 호의적인 조건 밑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완전하고 공평한 개별적 시험을 받았겠기 때문에 더 요구 될 것도 없고, 더 주지도 않을 것이다. 그 시험이 1천년 시험 중 누가 의롭고 거룩한가를 영구히 판결할 것이며, 또 누가 그대로 불의하고 거룩하지 않고 불결한가도 결정될 것이다.

시험의 조건과 이점

생명을 얻기 위한 시험을 꼭 같은 주위 사정 밑에서 또 다시 부여하는 것은 무익할 것이다. 그러나 시험을 받은 사람들의 주위 사정이 달라 더 호의적이긴 하겠지만 생명을 얻기 위한 개별적인 시험의 조건은 아담이 가진 시험 때의 것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여전히 같을 것이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율법은 여전히 “범죄 하는 영혼이 죽을 것이다.”라고 말할 것이다.(겔 18:4,20) 그리고 인간의 사정은 주위 환경에 관한 한 에덴에 있던 사정과 주위 환경보다 더 호의적이 아닐 것이나 큰 차이는 증대한 **지식**일 것이다. 악과의 **경험**은 다음 시대에 시험 중에 각 사람에게 쌓일 선과의 경험과 대비되어 이점일 것이다. 그 이점의 이유로 두 번째 시험의 결과는 첫 번째의 결과와 매우 폭넓은 차가 날 것이며, 그 이점 때문에 신의 지혜와 사랑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죄물”을 주셨고,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새 시

협의 축복을 보증 하셨다. 천년 시대를 지나서는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속죄물이나 시험을 다시 주기 위한 이유로서 더 호의적인 시험, 더 호의적인 율법, 더 호의적인 사정이나 주위 상황은 어느 식으로도 생각될 수 없다

받은 속죄물은 어느 누구의 죄도 변명하지 않는다. 그것은 죄인을 성인으로 **간주하거나**, 그들을 영구한 행복으로 안내하는 것을 제안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속죄물을 받아드리는 죄인을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첫 번의 정죄와 그것의 결과에서 해방해 주고 생명을 얻기 위하여 시험을 받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시험 때 그 자신이 의지로 순종하는지, 고의로 순종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그가 영생을 얻을지, 얻지 못할지가 결정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추정하려는 경향이 있듯이 문명 세계에 살고 성경을 알거나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는 따라서 생명을 얻기 위한 완전한 기회를 가지고 있거나 시험을 받고 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 타락은 아담의 자손 모두를 똑같이 상처를 입히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신인 사탄 때문에 쉽게 정신이 눈멀게 되고, 엎매고 에워싸는 죄로 포로가 될 정도로 약하고 타락하게 태어났다. 그리고 모두가 다소 이 영향을 받고 있어서, 그들이 옳은 일을 하기 원할 때, 악한 것이 존재하고 환경 때문에 더 강력하여 그들이 행하기를 원하는 옳은 일은 거의 불가능하나 그들이 행하기 원치 않는 악한 것은 거의 피할 수가 없다.

현재 그리스도의 속죄물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지도를 받기 위하여 그들 스스로 그의 지배 밑에 두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가 자유롭게 하시는 자유를 진실로 실험적으로 배우는 그들의 수는 참으로 적다. 아직까지는 지금 증언하고 있지만, 세상의 시험 시대에 세상을 축복하고 통치하는데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 하는 자가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앞서 부르심을 받고 시험을 받는 단지 이 소수의 교회만이 속죄물의 혜택을 어떤 정도라도 맛을 보거나 생명을 얻기 위한 시험을 **지금** 받고 있다.

이 소수들은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세상이 받게 될 회복하는 모든 축복을 그들에게 준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들은 완벽하지 않으며 실제로 아담의 상태로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 아담과의 차이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다름을 받는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완벽하다고 **간주되어 있고**, 그러므로 마치 이젠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들은 완벽과 신의 총애로 회복된다. 그들의 완벽치 못하고 피할 수 없는 약점은 속죄물로 상쇄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구세주의 완벽으로 덮여 가려진다. 그러므로 교회의 시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간주된 신분 때문에 세상이 시험기간에 갖게 될 시험처럼 공평하다. 세상은 모두가 진리의 완전한 지식을 깨닫게 될 것이며, 각자는 그가 세상의 시험시대의 규정과 조건을 받아드릴 때, 이젠 죄인이 아니라, 한 아들로 다름을 받을 것이다. 그런 아들을 위해서 회복하는 모든 축복이 계획되었다.

세상의 시험 때(다음시대) 세상의 경험과 교회의 시험기간(이 시대)의 교회의 경험사이에 하나의 차이는 세상의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정신적, 육체적 약점을 점차적으로 제거함에 따라 회복되는 축복을 즉시 받기 시작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죽기까지 주님의 봉사에 헌신한 복음교회는 죽게 되고, 첫 부활에서 순간적으로 완

벽하게 된다. 두 시험들 사이에 또 다른 차이는 이 시대에 비해서 다음시대의 환경은 더 호의적인 것에 있다. 그 때에는 사회, 정부, 등은 믿음과 순종을 보답하고 죄를 처벌하면서, 의로움에 호의적일 것이다. 이에 반하여 지금 교회의 시험은 이 세상의 통치자의 지배 밑에서 의로움, 믿음, 등에 호의가 없는 환경 밑에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본 이것은 영생의 선물 위에 또 교회에게 제공된 신의 본성의 영광과 영예를 받는 상으로 보상되게 되어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필연적

아담의 죽음이 9백 30년 만에 왔지만, 그의 죽음은 확실한 것이었다. 그 자신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그의 자손들이 같은 죽어 가는 상태에서, 생존의 권리 없이 태어났다. 그리고 그들의 양친(아담과 이브)과 같이 얼마간 질질 끄는 과정 후 그들은 모두 죽는다. 그러나 상기해야 할 것은 죄의 처벌은 죽어 가는 동안에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 사망(생명의 사멸)이다. 죽어 가는 상태가 죄의 처벌인 사망(롬 6:23)에서 완결된다. 괴로움은 오직 사망에 부수 하여 일어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처벌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이 거의 없이 온다. 더욱이 상기해야 할 것은 아담이 그의 생명을 상실하였을 때, 그는 생명을 영구히 상실한 것이라든가 그와 그의 자손 중 한사람도 그의 죄를 속죄할 수 있거나 잃어버린 상속을 되찾을 수 있어 본적이 없다는 것이다. 모든 인류는 죽었거나 죽고 있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죽기 전에 그들의 죄를 속죄할 수 없다면 그들이 죽어 있을(생존하지 않는)때에 확실히 속죄할 수 없을 것이다. 죄의 처벌은 죽은 후에 재생하는 특권과 권리를 가지고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었다. 선언된 처벌에는 해방의 암시가 없었다.(창 2:17) 그러므로 회복은 하나님 편에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나 특별한 사랑의 한 역할이다. 그리고 처벌이 야기되자마자 처벌을 선언하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암시되었다. 이 사실은 생생하게 깨달으면 그의 사랑을 아주 완전히 선언할 것이다.

만일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창 3:15)는 말씀으로 준 희망의 미광이 아니었다면, 인류는 완전한 절망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을 지적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가족이 그의 씨 안에서 복을 얻으리라고 맹세하셨을 때, 그것은 모든 사람의 부활과 회복을 함축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이래,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지 않고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약속은 아직도 틀림없다. 회복의 시기나 상쾌하게 하는 시기가 올 때, 모두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행 3:19) 그 위에, 축복은 은혜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총애가 죄 때문에 철회되고, 그 대신에 그의 저주가 왔으므로 미래 축복의 이 약속은 저주를 제거하고, 그 결과로서 그의 총애가 복귀됨을 함축한다. 그 위에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누그러지시고, 그의 선고를 바꾸셔서 죄 있는 인류를 면죄하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아담의 처벌을 갚게 함으로서 죄 있는 인류가 구속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그가 가지셨다는 것도 함축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어느 것이 그의 계획이라는 것에 아브라함을 의심하게 남겨두시지 않고, 하나님께 접근하는 사람 모두가 올려야 하는 여러 가지의 전형적인 동물제사로 다음의 세 가지를 보여주셨다: (1) 그가 누그러지실 수 없으며 누그러지지 않으셨다는 것. (2) 죄를 변명하실 수 없다는 것. (3) 죄를 없애고 죄의 처벌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그 처벌에 응하는 충분한 제사로만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매우 중대한 전형에서 보여주었다. 약속하신 축복이 아브라함의 아들 안에 중심이 되어있어서, 그가 축복할 수 있기 전에 먼저 산 제물이 되어야 하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히 11:19) 그 비유에서 이삭은 인간을 구속하고, 그 구속된 사람들이 모두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죽은 참된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범죄 한 사람을 변명하시거나 면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변하기 쉬운 분이라고 느꼈을 것이므로 그가 받은 약속에 완전한 자신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었을 것이다: (1)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한번 변하시면, 그가 왜 그의 마음을 또다시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 (2) 만일 그가 사망의 저주에 관해서 누그러지면, 그가 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에 관해서 또다시 누그러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반신반의에 상태로 두지 않으신다. 그는 그의 공정뿐이 아니라, 일절 불변을 우리에게 충분히 보장해 주신다. 그가 그들을 사랑하므로 비록 “자기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음에 내주셨다” 하더라도(롬 8:32) 그는 처벌을 면제해 주실 수가 없다. (출 34:7)

아담이 정죄되었을 때 전 인류가 그 안에서 정죄되고, 그를 통해서 생명을 잃은 바와 같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죄물로 주셨을” 때에 그의 죽음은 그의 후대 자손의 가망성을 포함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완전한 만족이나 대응하는 대가는 따라서 “기약이 이르면” 적용되기 위하여 공정(신)의 손에 맡겼다. 따라서 **모든 사람을 사신** 그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오는 모두를 회복하는 완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되리라.”(롬 5:18,19) 그 건의는 평이한 것이다. 아담의 죄 때문에 죽음을 함께 나눈 수많은 사람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생명을 전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으며, 지켜지지 않는 율법 앞에 희생적으로 **아담의 대리인**이 되어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죄물로 주신” 때문이다. 그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벧전 3:18) 그러나 우리 인류를 위한 모든 하나님의 예비들은 매우 풍부하게 예비 된 신의 총애를 확보하는데 인간의 의지를 요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바로 인용한 로마서 5:18,19의 본문을 검토할 때 이 면모를 무시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진술은 이렇다. 유죄 판결이 아담의 모든 자손에게 미친 것 같이, 아버지의 계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으로 그 자신을 희생함으로서, 값없이 주시는(용서해 주시는) 선물이 우리 모두에게 미친다. 이 선물을 받아드리면 영생을 위한 근거(의롭다고 인정)를 성립시킬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될 것입니다(**되었다가 아님**).” 만일 우리가 속죄물을 받아드리지 않고도 다만 속죄물만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였다면, 그 본문은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었다고** 기록되었을 것이다.

어떻게 인류가 한 사람의 죽음으로 구속될 수 있으며 구속 되었나?

그러나 구속자가 속죄물 대가를 주셨지만, “그의 피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오직 소수만이 이 복음시대에 의인이 되었다(의롭다고 인정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충족)이므로, 그를 통해서 새 계약 밑에서 모든 사람이 아담이 지은 죄의 처벌에서 면죄나 해방될 수 있다.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으시다.(시 92:15)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면, 저는 충실하고 **의로우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요일 1:9) 화목 제물(충족)로 주시기 전에 선언하신 처벌을 면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가 불공정하셨을 것과 마찬가지로, 그 자신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처벌을 지불하셨으므로, 만일 그가 우리의 회복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불공정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인간에게 한때 죽음의 판결을 내린, 같은 확고한 공정은 지금 그들의 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위하여 응용하는 모든 사람의 해방을 위해서 서약을 고수하고 있다.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정죄할 자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죽으셨던 분, 아니,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아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시는 분입니다.”(롬 8:33,34)

속죄물의 완비는 제안한 조건대로 속죄물을 받아드릴 모든 인류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강한 가능한 논의이다.(계 22:17) 공정과 영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속죄물에 대해 서약을 고수한다. 그가 주신 어느 약속이나 모두 그것을 함축하며 어느 전형적인 제사나 모두 위대하고 충족한 제사를 지적한다. “온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의 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입니다.”(요 1:29, 요일 2:2) 죽음은 처벌이나 죄가 지불하는 값이므로(롬 6:23) 죄가 소멸될 때, 그 값은 기약이 이르면 없어짐에 틀림없다. 어떤 다른 견해는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다. 그가 죽기 전에 4천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속을 계획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증거가 아닌 것 같이, 우리 주님이 죽으신 이래 약 2천년이 경과하였지만 아담의 손실에서 회복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회복에 대비하는 논의가 아닌 것과 같다. 그리스도의 죽음 이전의 4천년과 그 후의 2천년은 모두 “만유의 회복기간들”에 앞서 다른 부분의 일을 위해서 지정된 기간이었다.

믿음과 일이 여전히 필수적

이 견해에 하나님께 향한 믿음과 죄의 회개와 성격의 개심이 구원에 불가결하다고 하는 성서의 가르침과 불일치한 것이 무언가 있다고 아무도 조금도 생각하지 말게 하시오. 이 면모는 이제 후에 더 충분히 다루게 될 것이나, 지금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오직 소수만이 충분한 믿음과 회개와 개심을 낳게 하는 충분한 빛을 가져본 적이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신 때문에 부분적으로 어떤 사람은 완전히 마음의 눈이 멀어졌다.(고후 4:4) 그래서 그들은 죽음뿐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멀어진 데서도 회복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스스로** 순종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에 따라 영생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 때에 생명에 합당치 않음을 입증하는 사람은 다시 죽을 것이다(둘째 사망). 둘째 사망에서는 구속이 없을 것이며, 따라서 부활도 없을 것이다. 아담의 죄 때문에 온 죽음과 죽음에서 깨어날 때 따라오는 모든 결함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

에 있는 구속 때문에 제거될 것이다. 그러나 각 개인의 고의적인 변절의 결과로 오는 죽음은 최종적이다. 이 죄에는 결코 용서가 없으며, 그것의 처벌인 둘째 사망은 **영구할** 것이다. 영구히 죽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부활이 없는 죽음을 의미함.

고의적인 죄의 대가는 확실함

구속에 관한 계획의 철학은 다음에 오는 한 권에서 취급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단지 다음의 사실을 확립 한다: 아담의 죄가 그것의 황폐와 파멸에 있어서 원대하였듯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은 그것의 축복된 결과와 기회에 있어서 그 만큼 원대할 것이다. 즉 한 사람 때문에 정죄되고 고통을 받은 사람 모두가 또 다른 사람 때문에 “기약이 이르면” 모든 사악에서 확실히 해방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죽음(생존의 사멸)은 죄가 지불하는 값이라는 성서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이 성서적 논지를 이해할 수 없다. 죽음을 고통 속에 생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 반대인 **죽음**과 **생**이란 단어들의 뜻을 무시할 뿐이 아니라, 그들은 두 가지의 불합리함에 휩쓸리게 된다. 아담이 범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죄 때문에라도, 아니 특히 금단의 과일을 먹은 비교적 작은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존을 고통 속에서 영구히 영속시킬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밖에, 만일 우리 주 예수님이 인류를 구속하시고,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우리의 속죄물이 되셔서 우리가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죽으셨다면, 불의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가 당하신 죽음은 모든 인류가 죽음의 판결을 받은 그것과 정확히 같은 종류의 죽음이었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그러면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영구히 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가? 만일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확실히 **죽은** 것처럼 우리의 죄의 처벌도 죽음이며, 어떤 의미나 상태에 있어서도 생존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상한 이야기이지만, 영원한 고통의 이론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시키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사 53:6, 고전 15:3)하는 말씀과 상반되는 것을 발견하고, 둘 중에 하나를 일치하지 않다는 것으로 버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어떤 사람은 영구한 고통의 관념에 매우 집착되어있고, 한 감미로운 입처럼 그것을 소중히 여겨서 그들은 성서를 개의치 않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며 이 진리가 성경의 각 페이지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일부러 예수님이 세상의 속죄물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부인한다.

만유의 회복이 실행될 수 있는가?

부활된 수백만을 위해서 지구상에 자리가 있을까?

어떤 사람은 만일 수십억의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다면 지상에는 그들을 위해서 장소가 없을 것이며, 만일 그들을 위해서 장소가 있다 해도 이 지구가 그렇게 큰 인구를 부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어떤 사람은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묘지이어서, 만일 모든 죽은 사람들이 깨어나면 그들이 장소 부족으로 서로 짓밟을 것이라는 주장까지도 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점이다. 성경은 모든 사람의 부활을 선언하고 있는데, 그런데

도 실제의 측량을 보면, 그들이 지상에 발붙일 데 하나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이할 것인가! 이제 봅시다.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 이것이 근거 없는 공포라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전 그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만유의 회복”을 위해서 장소가 풍부히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행 3:21)

인간 창조 이래 6천년이 되고, 14억의 인구가 지금 지상에서 살고 있다고 추정해 봅시다. 우리 인류가 한 부부에서 시작했다. 그러나 매우 자유로이 산정하여, 최소에도 지금과 같은 수의 인구가 있었다. 더욱이 실제로는 홍수가 인구를 8사람으로 줄였지만, 언제든지 그 숫자보다 적은 수의 인구가 있어본 적이 없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또 한편 자유로운 사고를 해봅시다. 창세기 5장에 의하면, 아담에서 노아 홍수 때까지 1656년 기간에, 오직 11세대(각 세대마다 약 150년)로 되었지만, 한 세기에 3세대(33년에 한 세대)가 있었다고 추단해 봅시다. 그럼 살펴봅시다. 6천년은 60세기이다. 각 세기마다 세 세대는 아담 이래로 180세대가 있었다고 계산이 나온다. 그리고 한 세대에 14억은 2,520억(252,000,000,000)이 창조 때부터 현재까지 우리 인류의 총수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 총수는 관대한 추정에 의하면 실제의 숫자보다 아마 2배 이상일 것이라고 본다.

우리가 어디에서 이 거대한 무리를 위해서 장소를 발견할까? 땅 넓이를 측량해 봅시다. 미국 텍사스 주(Texas)의 2백 37만1천 평방 마일을 포함한다. 한 마일(mile)은 2787만8400 평방피트(feet)이다. 그러므로 텍사스 주의 면적을 피트로 화산하면 6조6071억8080만 평방피트이다(6,607,180,800,000) 각 시체마다 차지한 지면이 10평방피트라고 인정하여도 이런 상태로는 묘지로서 텍사스 주는 6607억 1808만 명, 바꿔 말하면 이제까지 지상에 살았던 우리 인류의 수의 과장된 산정의 거의 세배나 많은 숫자의 시체를 수용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서 있는 사람이 약 1 2/3평방피트(feet)의 공간을 차지한다. 그런 상태로는 현재 지구상의 인구는 (14억) 86평방 마일의 지역— 런던이나 필라델피아의 도시보다 훨씬 작은 지역— 에 다 설 수 있다. 그리고 아일랜드 섬 (2/3평방 마일의 지역)은 우리의 과장된 산정에 따라서도 지구상에 이제까지 살아 온 사람들의 두 배 이상의 설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반론을 해결할 때, 큰 어려움이 없다. 땅이 소산물을 내고 사막 평원이 기뻐하며 백합화 같이 피어나며 광야에서 물이 사막 평원에서 급류가 터져 나올 것이다(사 35:1-6)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우리가 상기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음 것을 지적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의 모든 필요한 것을 예견 하셨으며, 보기에 극히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그의 피조물의 필요를 위해서 풍부한 준비를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만유의 회복 대 진화론

어떤 사람은 인간이 이전 상태로 회복하게 되는 것에 관한 성서의 증언이 과학과

철학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말할지 모른다. 이 과학과 철학의 가르침은 **외견만의** 이유로 이 20세기의 우월한 지성을 우리에게 지적한다. 이것이 과학자와 철학자들에 의하면 원시인은 비교적 지성이 매우 결핍함에 틀림없다는 결정적인 증거고, 이 지성의 차이는 인간 진화의 결과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이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의 이전 상태로 회복이 조금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며, 확실히 축복의 반대일 것이다.

첫눈에는 그러한 추론이 타당할 듯 보이며, 많은 사람들이 주의 깊은 검토 없이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들은 유명한 설교자와 함께 말하기를 만일 아담이 타락했으면, 그의 타락은 위쪽(향상의 방향)으로 향했으며, 우리가 아담의 원래의 상태에서 더 빨리 타락할수록(앞으로 진전함) 우리와 아울러 모든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 좋다고 한다.

따라서 사상은 강단에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사도들이 죽음과 모든 고생이 첫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오고, 이것들은 오직 속죄물 만으로 제거되며, 하나님의 총애와 생명으로 회복 될 수 있다고 선언할 때, 이 사상은 할 수만 있으면 사도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납득시킬 것이다.(롬 5:10,12, 17-19, 21, 8:19-22, 행 3:19-21, 계 21:3-5) 그러나 이 사상이 확고부동한 것이라고 조금씩 결론을 내리지 맙시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죄와 죽음의 기원과 최초의 완벽으로 회복함에 관한 사도들의 교훈을 버려야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증언은 영감을 받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특별한 무게와 권세가 없는 것으로 그 증언을 전적으로 정직하게 거부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실들로 미루어, 증대하는 대중적인 견해를 조사하여 그것의 사상이 얼마나 깊은가를 봅시다.

이 논의 옹호자이며 대표자가 말하기를, “인간은 처음에 그의 동물의 본성이 지배하고, 거의 순전히 육체의 본성이 인간을 지배하는 생존 단계에 있었다. 그 다음에 인간이 한 상태에서 또 다른 상태로 지금까지 천천히 변화하여, 보통 사람이 두뇌의 지배 밑에 다가가고 있다고 언급할 수 있는 상태에 달하였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두뇌의 시대라고 고려하고 지정할 수 있다. 두뇌는 오늘의 중요한 사업들을 촉진한다. 두뇌가 정권을 잡으며, 지상의 요소들, 공기, 물의 이용도를 높였다. 인간은 그의 모든 자연의 힘을 지배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알렉산더 셀커크(Alexander Selkirk)가 말한바 ‘나는 내가 관찰하는 모든 것의 군주이다’라고 그가 외칠 수 있는 증거를 줄 정도로 자연의 영역을 지배하는데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달성하고 있다.”

일견으로는 이 이론이 이치에 맞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은 조금씩 그것을 받아드리게 하고, 그것과 조화로 성경을 왜곡하게 우리를 이끌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성경을 천 가지의 방법으로 증명하고, 성경이 그 말씀을 과실 없게 하는 초인적인 지혜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의심 없이 알고 있다. 과학적인 연구를 천거하고, 그것의 제언을 고려하게 되어야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의 결론이 결코 절대 무류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상기해야한다. 순수한 과학자는 단순히 많은 불리한 상황 밑에서, 거의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싸우면서, 위대한 자연의 책에서 인간의 역사와 미래와 그의 본 고장을 배우려고 시도하고 있는 연구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하면, 과학적인 연구가 그것 자체의 이론들이 그릇된 것이라는 것이 수

천 번이나 증명되었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학적 연구를 반대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들에게서 자연의 책의 제언을 듣는데 있어서,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과오가 있다고 그렇게 여러 번 증명한 그들의 추론을 신의 계시의 책과 주의 깊게 비교하고, “율법과 증거의 말씀”으로 과학자들의 가르침들을 찬성하거나 불찬성합시다. “만일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 안에 새벽빛이 없기 때문이다.”(사 8:20) 그 두 책들의 정밀한 지식은 그 책들이 조화된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지식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우선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 기준으로 불완전한 같은 인간의 상상된 발견이 판단될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을 유지하면서, 인간이 원래 매우 낮은 질서의 존재에서 진화하여 지금 우월한 시대나 “두뇌의 시대”에 달했다고 단언하는 진화론 밖에, 증대된 지식, 솜씨, 인간의 힘의 어떤 다른 이치적인 해결이 있는지를 봅시다. 발명, 편리, 일반적 교육, 광범위한 전파, 지식의 증대는 탁월한 두뇌능력에 기인 한 것이 아니고, 두뇌의 사용을 위한 유리한 환경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필시 우리는 결국 발견할 것이다. 오늘날의 두뇌능력이 지나간 시대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는 한편, 유리한 환경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뇌능력의 사용이 오늘날 어떤 전 시대보다 더 일반적이며, 그러므로 훨씬 더 과시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거리낌 없이 받아 드린다. 회화와 조각의 연구에 있어서 이 “두뇌시대”의 연구자들이 과거의 위대한 대가 작품으로 되돌아가지 않는가? 그렇게 함으로서 모방할 가치가 있는 제작품의 솜씨뿐이 아니라, 두뇌 힘과 디자인의 독창성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가? 오늘날 “두뇌시대”는 그 시대의 건축을 위해서, 주로 과거시대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이용하지 않는가? 이 “두뇌시대”의 연설자와 논리학자는 과거의 플라토, 아리스토텔, 데모스테네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방식과 삼단논법을 연구하고 모방하지 않는가? 오늘날의 많은 대중연사들은 데모스테네스(Demosthenes), 아폴로스(Apollos)의 연설과 훨씬 더 명백한 사도 바울의 추리력을 탐내지 않을 수 있을까?

아직 더욱이 회고하는 것은, 몇 예언자의 수사적 힘과 처음에서 끝까지 시편에 산재된 숭고한 시적인 회화를 참고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우리는 이 “두뇌시대”의 철학자들을 옴과 그의 위로자들의 훌륭한 도덕상의 감수성과 같은 지혜와 논리에 유의시킨다. 그리고 “이집트 국민들의 모든 지혜로 교훈 받은”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 할 것인가?(행 7:22) 그를 통해서 준 율법은 모든 문화국가들의 율법의 기초가 되었으며, 아직도 불가사의한 지혜의 구체적 표현으로 인식되고 있다.

고대의 문헌 도시들의 발굴은 소위 이 “두뇌시대”의 몇 철학자를 놀라게 하는 과거시대에 있던 예술과 과학의 지식을 드러낸다. 시체의 방부처리, 구리의 불림, 탄력성 있는 유리wa 다마스커스(Damascus) 강철을 만드는 고대의 방법은 현재시대의 두뇌가 현대의 모든 유리함을 가지고도 이해나 복제를 할 수 없는 먼 과거의 업적 중에 든다.

대략 아브라함의 시대로 4천년을 되돌아가면, 우리는 오늘날 가장 박식한 과학자

들에게 불가사의와 놀라움의 대상인 이집트의 대 피라미드를 발견한다. 그것의 건설은 수학과 천문학에 있어서 이 “두뇌시대”의 가장 진보된 조예와 정밀한 조화를 이룬다. 오늘날 현대기구를 사용해서, 오직 어렵만 할 수 있는 진상을 단호히 가르친다. 그것의 가르침이 인상적이고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세계 인류의 천문학자는 주저하지 않고 대 피라미드를 신의 기원이 된다고 선언했다. 만일 “두뇌시대” 진화론자가 대 피라미드가 신의 설비이며, 그것의 지혜가 초인간적이라는 것을 받아드릴지라도, 그들은 그것이 인간이 건설한 것이라는 것을 아직도 받아드려야 한다. 오늘날 극히 소수의 사람이 모형을 그들의 앞에 놓고 즉시 쓸 수 있는 모든 현대의 과학적 기구들을 가지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먼 시대에 얼마간의 작업 조가 그러한 신의 설비를 만들어 내는 정신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은 우리의 “두뇌시대”는 환경과 사실이 정당화하는 것보다 더 자만을 신장시킨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면 만일 우리가 오늘의 정신적 능력이 과거시대의 정신적 능력보다 더 크지 않고, 필시 더 작다는 것을 증명하였다면, 일반적인 지식의 증대, 현대의 발명, 등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이치에 맞고, 성서와 조화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오늘날 매우 귀중하다고 증명하고 있으며, 이 시대는 “두뇌시대”라는 증명으로 고려되는 발명들과 발견들은 실제로 아주 현대의 일이다. 거의 모두가 지난 세기 안에 이루어 졌으며, 지난 60년간의 발견과 발명품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들 중에 속한다. 전신술, 철도부설, 기선, 여러 가지의 기계공업에 있어서 증기와 전기의 적용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래서 만일 이것들이 증대된 두뇌능력의 증명이라면, “두뇌시대”는 겨우 시작에 지나지 않음에 틀림없으며, 또 다른 한 세기는 온갖 형태의 기적이 대수롭지 않는 일로 목격할 것임이 논리상의 연역이다. 같은 비율로 증대하면, 어디에서 그것이 끝날 것인가?

그러나 다시 봅시다. 모든 인간이 발명가인가? 사람들의 손에 넣었을 때 발명을 고맙게 여기고 사용하는 사람들 수에 비교해서, 참으로 유용하고 실용적인 발명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수인가! 공중의 봉사자들 중, 더 적은 수가 위대한 두뇌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말 할 때, 우리가 그 매우 유용하고 높이 간주되는 계급의 공중 봉사자들을 경시하듯 말하는 것도 아니다. 세상에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들과 이성이 가장 깊은 사람들 중에서 다소는 기계적인 발명가들이 아니다. 어떤 발명가들은 지적으로 느려서, 도대체 어떻게 그들이 만든 것을 우연히 발견을 하였는지를 모두가 이상하게 여긴다. 많은 사람이 여러 해를 거쳐 시험하고, 적용하고, 몇 번이고 개량시키는 그 훌륭한 원리(전기와 증기, 등)는 위대한 두뇌 힘의 발휘 없이 비교적으로 찾지 않고 보통 순전한 우연으로 발견된 것 같다.

한 인간적인 입장에서, 현대의 발명을 이렇게 기술할 수 있다. 서력 1440에 인쇄술의 발명은 시발점이라고 고려할 수 있다. 책을 인쇄함으로서, 사상가와 관찰자의 생각과 발견의 기록이 생겼다. 인쇄술의 발명 없이는 이 기록은 그들의 후계자에게 결코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책이 나옴으로서 더욱 일반 교육과 마침내 만인의 학교가 생겼다. 학교와 대학은 인간의 능력을 증대하지 않으나, 정신적 수련을 더욱 철저하게 하므로, 이미 소유된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돕는다.

지식이 더 보편적이고, 책들이 더 일반적으로 보급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세대들은 이전의 세대들 보다 이전에 사상가 한 명에 비하여, 오늘날에

는 1천명의 사상가들이 있어서 제안들로 서로 날카롭게 하고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뿐이 아니라, 나중 세대의 각 세대는 책을 통해서 각 세대의 고유의 경험 위에 다시 과거의 결합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유리하다. 교육과 그것을 수반하는 칭찬할만한 큰 뜻, 기업심, 탁월함과 자격을 달성하려는 욕망은 일간 신문에 난 발명에 관한 기록과 기술로 도움이 되어, 인간의 통찰력을 자극하고 밝게 하였으며, 가능한 한 사회의 이익과 편리를 위한 어떤 것을 발견이나 발명하도록 각자에게 조언하였다. 그러므로 현대의 발명은 순전히 인간의 입장에서 보아 두뇌능력의 증대가 아니라, 당연한 원인으로 날카로워진 통찰력에서 온 것을 가르친다.

이제 성서로 돌아와서 그 주제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보려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인간 사이에 발명과 지식의 증대는 **당연한** 원인들의 결과라는 것을 믿지만, 이 당연한 원인들은 옛적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두 계획하시고, 조정하신 것이며, 적절한 때에 그의 지배하시는 섭리에 따라, 그것들이 실현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것을 그의 뜻이 의도하는 대로 움직이신다.”(엡 1:11) 그의 말씀 가운데에 계시된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죄와 고통을 묵인 하셔서 6 천 년간 세상을 그릇된 지배와 압박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천년기간에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그리스도가 사악과 그것의 결과를 파괴하므로 사악을 근절 할 것을 목적하셨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미리 임명하셨다.

그러므로 사악 통치의 6천년이 종결에 다가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안내하려고 하는 천년시대에 인류의 축복과 향상에 유익한 기계적이고 화학적인 기구들의 준비에 있어서 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과 하나님의 자연의 책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발견들을 촉진하도록 환경을 허용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 그 예언적 말씀에 분명히 지적되었다.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비밀로 하고 이 책을 봉인하여라. 많은 사람이 두루 다닐 것이며, 참 지식(능력이 아님)이 풍부하게 될 것이다.” “악한 자들은 전혀 하나님의 계획과 길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이래 그 때까지 있었던 적이 없는 고난의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단 12:4,10,1)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완화하시기 위하여 현재 발명과 축복이 인간에게 더 빨리 오도록 조정하시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에게 저주에 관한 완전한 이해를 주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상기해야한다. 이것은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올 때, 그들이 죄의 무익함을 영구히 판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즉 만일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을 마음이 세상의 의로운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여하시면, 최고의 더 큰 사악으로 인도하며, 더 큰 사악을 생기게 할 것임을 예견하시고 예언하셨다. 하나님께서 현재 증대한 축복을 허용하심은 이 주제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이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주제는 회복한 인간뿐이 아니라, 천사들에게도 영구히 이 원칙의 예로 이바지할 수 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를 우리는 다만 제안 한다:

첫째, 이 인류가 엄청난 율법과 엄청난 처벌과 그들을 강제하기에 충분히 강한 정부가 없이 현재 타락한 상태에 있는 한, 이기적인 성벽이 대체로 모두를 지배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고르지 못한 개개의 능력을 고려하면, 노동절약 기계의 발명의 결과는 기계의 제조로 야기된 혼란과 자극 다음에, 부자는 더 부유하게 되고, 가난한 자는 더 빈곤하게 되기 쉽게 한다는 것이 틀림없다. 명백한 경향은 능력과 타고난 이점이 이미 가장 유리한 그들의 손에 이익을 직접 두는 전매와 자기 재산의 강화 쪽을 향한다.

둘째, 아직 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만일 완벽한 인간이나 인간사를 통제하기 위한 초자연적인 정부가 없이 현재의 부와 나날의 부의 증가를 평등하게 모든 계급에게 분할하도록 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결과는 현재의 상태보다 더 해로운 것이다. 만일 노동절약 기계와 모든 현대 기구의 유리가 평등하게 분할된다면, 그 결과는 오래지 않아서 노동 시간의 고도의 감소와 여가의 고도의 증대일 것이다. 나태는 타락된 존재들에게 가장 해로운 것이다. 만일 노동과 얼굴의 땀의 필요가 아니었다면, 우리 인류의 저하는 저하되어온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되었을 것이다. 나태는 사악의 근원이며, 정신적, 도덕적, 육체적 타락이 틀림없이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축복의 천년통치를 위한 하나의 준비로서, 사람들에게 축복을 베푸는 **그 적절한 때가 될 때까지** 이 축복을 보류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친절이다.

하나님 왕국의 불가사의한 정부의 지배 아래서, 모든 축복이 인간 사이에 공정하게 분할될 뿐이 아니라, 여가도 같은 불가사의한 정부가 정리하며 지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결과는 미덕을 낳고, 정신적, 도덕적, 육체적 완벽을 향하여 위로 갈 것이다. 발명의 현재 증가와 지식의 증대에 관한 다른 축복은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이 “준비의 날”에 일어나도록 허용되어있다. 그래서 인간은 이것이 “두뇌시대”이기 때문이라고 우쭐해 한다. 그러나 그것은 의심할 바 없이, 이 현명한 철학자들을 몹시 실망케 하는 방식으로 해결토록 대부분 허용할 것이다. 세상에 나라가 생긴 이래 그 때까지 있었던 적이 없는 고난의 때를 이미 일으키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축복들의 증대다.

위에서 인용하였듯이, 예언자 다니엘은 지식의 증대와 환난의 때를 결부하고 있다. 지식이 인류의 악행 때문에 환난을 일으킨다. 지식의 증대는 세상에 놀라운 노동절약 기계와 편리를 주었을 뿐이 아니라, 수천의 생명을 연장하는 의료 기술의 증대를 이끌어 오고, 그것이 인류를 계몽하였기 때문에 인간학살, 전쟁이 덜 통속적이 되고 있고, 따라서 그 이외 수천의 생명이 살아남게 되어, 어느 다른 역사기간에 증가한 것 보다 오늘날 아마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인류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이렇게 사람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지만, 노동의 필요성은 대응하게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두뇌시대” 철학자들은 이 크고 빠르게 증가하는 계급들의 고용과 생계를 장만하기 위해서 그들 앞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 대체로 기계로 바뀌어진 증가하는 계급들의 봉사는 해고될 수 있으나, 그들의 필수품과 소용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이기주의는 능력과 유리를 갖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을 계속 지배할 것이며, 그들

을 공정뿐이 아니라, 분별을 없게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자기 보존의 본능과 그들의 권리에 대한 증대된 지식을 겸한 비슷한 이기주의는 어떤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을 것이며, 다른 더 빈곤한 계급의 사람들을 자극할 것이다. 그래서 이 **축복들의** 결과는 참으로 세상에 나라가 생긴 이래 그 때까지 있었던 적이 없는 가공할 환난의 때임을 일시 증명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타락된 상태에 있는 인간은 유도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고는 이 축복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천년통치에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된 인간 마음에 다시 써넣어질 때까지, 인간은 완전한 자유를 손해나 위험이 없이 이용할 능력이 없을 것이다.

환난의 날은 갈릴리의 맹렬한 바다를 꾸짖으신 그가 마찬가지로 권세를 가지고 인간의 걱정의 맹렬한 바다에게 “잠잠 하라!” “고요 하라!” 라고 명하실 적절한 때에 끝날 것이다. 평화의 왕이 권세 중에 “일어날” 때 아주 잔잔해 질 것이다.(막 4:39, 마 8:26) 그 다음에 격노하고 충돌하는 요소들은 “여호와와 기름 부으신 자”의 권세를 인정할 것이다.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사 40:5)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 중에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렇게 시작될 것이다.(창 28:14)

그 때가되면 그들이 진화나 “두뇌시대”의 자연스러운 발전과 세련됨의 탓으로 돌렸던 것이, 그 대신에 인간의 축복을 위한 “그의 준비의 날” 중에 여호와와 번개 같은 진리의 섬광(시 77:18)이었음을 인간은 깨달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오직 성도들만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고, 하늘의 지혜에 오직 통찰력이 있는 자만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호와와 누리는 친밀함이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속해 있고, 그 계약 또한 그러하니,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구나”이기 때문이다.(시 25:14) 일반적 지식이 증가해온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을 알기에” 그리고 그의 계획을 이해하기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벧후 1:8) 조정도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래서 그의 말씀과 계획의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헛된 철학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관습을 식별하고 저항하는 것이 가능하다.

인간 창조에 대한 성경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땅의 형상대로 완벽하고 정직하게 창조하셨다.(창 1:27) (2) 인간은 여러 가지 발명품을 찾아내었으며 그의 자신을 더럽혔다.(롬 5:12, 전 7:29) (3) 모두가 죄인들이므로 인류는 그 스스로 어찌할 수 없으며, 아무도 형제를 결코 속죄하지 못하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죄물도 드리지도 못한다.(시 49:7,15) (4)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에서 이것을 위하여 예비를 만드셨다. (5)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었으며, 인간의 속죄물의 대가로 지불했다. (6) 이 희생의 대한 보답으로, 그 위대한 속죄의 일을 완성하는 순서에 따라, 신의 본성으로까지 그가 지극히 높여지셨다. (7) 그가 적절한 때에 최초의 완벽과 최초에 가졌던 모든 축복으로 인류의 회복을 이룩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성서 안에 처음에서 끝까지 명백히 가르치고 있으며, 진화론의 정반대이다. 더 정확히 말해서, “거짓되이 부르는 지식의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은 하나님의 말씀과 격렬하게 대립된 충돌을 한다.(딤후 2:16)

“아직 지상의 하늘을 건너 분노의 구름이 달린다.
 하나님의 복수가 그의 마음에 무겁게 매달려 있다.
 아직 그가 일어서리라 - 처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으나 --
 그때에는 침례 받은 영광과 아름다움 중에.

“오라 땅아 일어나리라. 너의 하늘 아버지의 도움이
 그의 징계하는 손이 만든 상처를 낮게 하리라.
 거만한 학대자의 무정한 지배를 심판하실 것이며,
 그리고 그의 속박을 끊어버리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리라.

“그 때에 너의 땅위에 죽지 않는 초목이 솟아나리라.
 너 산아 부르짖어라, 너 계곡아 노래 부르라!
 너희 목마른 바위가 다시는 버려져 찌푸리지 아니하리라.
 믿지 않는 자의 조롱, 이방인의 경멸도 없으리라.“

“몹시 뜨거운 모래가 10배의 추수를 내리라.
 그리고 새 에텐동산이 가시밭을 장식하리라.
 지금도 우리는 욕지 위에 넓은 요동을 본다,
 위대한 천사가 그의 황금의 지휘봉을 쳐들어 올리며.“

“내려오는 권세의 밝은 이상을 구하며,
 모든 문에게 명하고, 모든 탑을 측량한다.
 또한 너의 사자, 유다를 그의 예정된 통치에서
 아직 기다리게 하는 더딘 인장을 꾸짖는다.“

연구 10

영적 본성과 인간의 본성은
분리되고 별개의 것

- 일반적인 오해
- 땅의 본성(인간의 본성)과 하늘의 본성(영적 본성)
- 땅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
- 영적 존재에 관한 성서의 증언
- 죽음을 면할 수 없음과 불멸
-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존재가 영생을 가질 수 있을까?
- 총애를 부여하시는데 있어서의 공정
- 상상된 원칙이 검토되었음
- 완전한 상태에 다양성
- 하나님의 주권
- 인간에게 만족한 분배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
- 그리스도의 몸을 택하심
- 어떻게 그들의 본성의 변화가 완수되나?

일반적인 오해

인류 대부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이전 상태인 에덴에서 잃은 인간의 완벽으로 회복하게 되어있다는 것과(겔 16:55) 이 일반적인 계획의 예외로서 기독교의 교회는 인간의 본성에서 영적 본성으로 변화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 본성에 이르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상상한다. 그러나 성서는 땅의 모든 가족에게 생명, 축복, 회복의 약속을 약속하면서, 다만 복음시대에 선택된 교회에게 영적 본성으로 변화를 제공하고, 약속한다. 어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희망을 확증하는 구절은 단 하나도 성서에서 찾아볼 수 없다.

만일 인류 대부분이 모든 타락, 약점, 고통, 불행, 죄에서 유래된 죽음에서 구원되고, 타락하기 전에 맛보던 인간 완벽의 상태로 회복된다면, 그 사람들은 복음시대에 부여되는 특별한 “위로 부르심”을 받고,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빌 3:14, 뱀후 1:4)가 되는 자들과 같은 정도로 실제로 완전히 그 타락에서 구원된다.

무엇이 완벽한 인간을 성립하는가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함과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성질’과 ‘불멸’이란 용어들의 오해와 공정의 그릇된 관념이 합해서 이 오해에 도달하고, 그렇지 않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성서들을 불가사의하게 했다. 성서의 단 한 구절로도 증명되어있지 않지만, 공통한 견해는 완벽한 인간은 지상에 있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과 지상 사람에게 보이는 모두는 오직 부분적으로 진화된 인간이라는 것과 완벽에 달하기 위해서는 그가 영적 존재가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다루는”(딤후 2:15)에서 유래되는 그 조화와 미를 구성하는 대신에 성서의 혼동을 유발한다.

땅의 본성(인간의 본성)과 하늘의 본성(영적 본성)

성서는 두 사람, 단지 두 완벽한 사람(아담과 예수)이 있었다고 가르친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창 1:26) 즉 이성, 기억력, 판단, 의지력, 등의 유사한 정신력과 공정, 자비심, 사랑, 등의 도덕상의 본질로 창조되었다. “땅에서 났으며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은(고전 15:47) 정도와 한계와 범위에 있어서 널리 다르지만, 같은 종류의 본질을 갖춘 영적인 존재의 땅에 속한 형상이었다. 하나님께서 타락된 인간에게 까지 “이제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사 1:18)

여호와께서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것과 같이, 인간은 땅의 모든 것의 주권자로 창조되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로 가축과 물고기와 새, 등 모든 것을 복종시키게 하자 하였다.(창 1:26) 모세는 우리에게 이야기(창 1:31)하기를,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만드시기를 오직 시작한 것이 아니라, 완성한— 인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을 “**아주 좋다**”, 즉 완벽하다고 생각하셨다. 그의 지적인 피조물에 있어서 완벽에 못 미치는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좋은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창조된 대로, 인간의 완벽은 시편 8:5-8 에 표현되어있다.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영화로 면류관을 씌우셨으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어 모든 것을 그의 발아래 두셨습니다. 작은 가축과 소, 그 모두, 벌판의 짐승들,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

성경을 진화론에 순응케 하려는 어떤 사람이 제안하기를, 히브리서 2:7에 있는 “조금”이라는 말은 인간을 **잠깐 동안** 천사보다 낮게라고 이해할 수 있다며, 천사보다 **정도가** 낮게 라는 뜻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을 위한 권위도 없고, 판단력도 없다. 이것은 시편 8:5에서 인용된 것인데 헤브라이어와 그리스어 원본과의 정밀한 비교는 그 중요성에 관해서 의심할 수가 없다. 분명히 표현된 그 관념은 천사보다 정도에 있어서 낮다고 되어있다.

그 시편에서 다윗은 본래 상태에 있어서 사람(아담)을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른 사람과 땅의 왕을 두시려는 그의 최초의 계획을 단념하지 않으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며, 다시 같은 본래 상태로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암시한다. 사도 바울은(히 2:6) 같은 사실 곧 하나님의 최초의 목적을 단념하지 않았다는 것과 원래 당당하고 완벽하며, 땅의 왕인 인간을 염두에 두시고, 돌보시고, 회복하시게 되어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끈다. 그 다음에 그는 부언하기를,(히 2:8,9) 우리는 이 약속하신 회복을 아직 보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그것의 성취를 위하여 취하시고 있는 첫 단계를 본다고 한다. 우리는 예수께서 완벽한 성년의 영광과 영예로 면류관을 쓰신 것을 본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적합한 속죄물이나 대리로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고, 타락된 모두에게 인간의 회복을 위한 길을 이렇게 준비하실 수 있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다. 가장 면밀한 번역자들 중의 하나인 워더햄(Rotherham)은 이 절(히 2:6,7)을 다음과 같이 표현 한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이 그를 염두에 두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십니까?
당신은 그를 천사보다 **조금 낮추셨으며**
영광과 영예로 그에게 면류관을 씌워
당신의 손으로 이루신 것을 다스리도록 임명하셨습니다.”

땅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

정도에 있어서 조금 낮다 함이 조금 덜 완전함을 의미한다고 추단해서도 안 된다. 한 피조물이 완전하지만, 그러면서도 다른 완전한 피조물보다 낮은 단계의 존재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완전한 말은 한 완벽한 인간보다 낮을 것이다.

생명이 있건 없건 여러 가지 본성들이 있다.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의 도표를 준비 한다:

하늘/ 영적 존재의 등급	땅/ 동물의 존재의 등급	식물계의 등급	광물계의 등급
신	인간	나무	금
--	짐승	관목	은
--	새	풀	구리
천사	물고기	이끼	철

기재된 각 광물들이 순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금이 최고로 등급이 매겨져 있다. 만일 각 서열의 식물들이 완전하게 된다 해도, 그것들은 본성과 등급에 있어서 여전히 다를 것이다. 동물들도 마찬가지다. 만일 각 종들이 완전하게 된다 해도 다양성이 여전히 있을 것이다. 본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본성을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적 존재의 등급도 역시 완전해도 본질이나 종류에 있어서 서로 보다 높고 낮은 관련이 있다. 신의 본성은 모든 영적 본성 중에서 가장 높고 우수하다. 신이 천사의 본성보다 우수하듯이, 그리스도는 부활 때 완전한 천사들 보다 “**그만큼 뛰어나게**” 되었다.(히 1:3-5)

위의 도표에 지정된 계급들은 분리되고 별개의 것이지만, 아직도 그것들 사이의 비교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면밀히 주의 해 봅시다. 광물계의 가장 높은 등급은 식물계의 가장 낮은 등급보다 열등하거나 **정도가 낮다**. 왜냐하면 식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식물계의 최고의 등급은 동물계 중에서 최하의 등급보다 **정도가 낮다**. 왜냐하면 생명 있는 동물은 동물의 가장 최하의 형태에서까지도 생존을 의식할 만큼 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동물계나 땅의 존재들 중에서 최고이지만 “천사보다 정도가 낮다”. 왜냐하면 천사는 영적 또는 하늘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 낱말 **본성**은 때때로 적응하는 의미에서 사용된다. 예를 들면, 개가 **사나운 본성**을 가지고 있다거나, 말이 **온순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거나 **본성이 나쁘다**라고 말 할 때와 같다. 그러나 그 낱말을 그렇게 사용할 때, 그것은 단지 다른 것과 비교하여 기술되고 있는 하나의 **성벽**을 의미하며, 엄밀히 말하자면 본성에 관련이 없다.

우리가 죄로 타락된 지금 보고 있는 인간과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만드신 완벽한 인간사이 에는 놀라운 대조가 있다. 죄가 그의 성질뿐이 아니라, 용모도 점차 변화시켰다. 번식된 세대들은 무지, 방탕, 일반적 악행으로 인류를 더럽히고 망쳐 놓았기 때문에 인류 대부분 속의 하나님의 형상이 거의 지워졌다. 도덕적, 지적인 질이 작아졌다. 그리고 과도하게 발전된 동물적인 본능은 더 높은 본능(도덕적, 지적 자질)과 이젠 균형이 맞추어지지 않는다.

인간은 그만한 의학의 조력이 있는데도, 그의 평균수명이 지금은 약 30년일 정도로 체력을 잃었다. 이에 반하여, 최초에 인간은 같은 처벌 아래 930년을 생존하였다. 그러나 죄와 죄의 처벌 때문에 이렇게 모독되고 타락되었으며, 죽음이 그의 안에 작용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로 그 기간에 인간은 마음과 신체를 그의 최초의 완벽과 영광, 영예와 주권으로 회복하게 되어있다.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고 그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들은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잃은 것들이다.(롬 5:18,19) 인간은 하늘의 낙원이 아니라, 지상의 낙원을 잃었다. 죽음의 처벌아래 그는 영적 생존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을 잃었다. 그리고 “잃은 것을 찾고 구원하려고 왔다”라고 선언하신 그의 구세주가 회생을 치르고 잃은 모든 것을 획득하셨다.(눅 19:10)

영적 존재에 관한 성서의 증언

위에 더하여 완벽한 인간은 영적 존재가 아니라는 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우리주님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영광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 영적 형상, 영적 존재- 으로 있었다고 우리에게 알린다. 그러나 인류를 위하여 속죄물이 되기 위하여 그가 죽음으로서 죄인의 대리인이 되게 된, 그 죄인과 같은 본성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했으므로, 그의 본성이 변화되는 것이 필연적이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 주님은 그 자신의 단계 보다 한 단계 낮은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않고, 두 단계를 내려와서 인간의 본성을 취했다고 했다.- 그가 사람이 되었다. 그는 “육체가 되었다.”(히 2:16, 빌 2:7,8, 요 1:14)

이것은 다음의 세 가지를 가르친다는 것을 유의하기 바란다: (1) 천사의 본성은 영적 존재의 유일한 계급이 아니라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사람이 되시기 전의 그의 본성보다 낮다. (2) 그가 사람이 되시기 전의 우리 주님의 위치는 지금만큼 높지 않으셨다. 이것은 자진해서 인간의 속죄물이 되는 그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탁월한 위치로 높이셨음” 이기 때문이다.(빌 2:8,9) 그는 지금 영적 존재 중에서 최고 계급의 본성을 소유한다. 곧 신의(여호와)의 본성의 참여자이다. (벧후 1:4)

그러나 신과 천사와 인간의 본성은 분리되고 별개의 것이라는 증명을 우리는 이렇게 발견 할 뿐이 아니라, 완벽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천사의 본성이 완전하다고 해서 천사가 신이나 여호와와 동등함을 함축하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는 것을 증명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않고** 다른 본성 곧 **인간의 본성**을, 그러나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완벽치 않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완벽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기 때문이다. 지금의 인간 같은 타락되고 거의 죽은 존재가 아니라, 그는 완벽의 활기로 가득 찬 **한 사람**이 되었다.

되풀이해서,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한 **완벽한 사람의 능력**의 완전한 표준인 완전한 법을 지킬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완벽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으면 완벽한 사람인 아담이 상실한 생명을 위해서 속죄물(대응한 대가- 딤펬 2:6)로 줄 수 없었을 것이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있게 되었으므로, 죽은 사람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 있게 되었습니다.”(고전 15:21) 만일 그가 조금이라도 완벽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가 정죄 아래 있었다는 것과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 제물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과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였을 것이다. 한 완벽한 사람이 시험을 받고, 실패하고, 그래서 정죄되었다. 그래서 한 완벽한 사람만이 구세주로서 **대응한 대가**를 줄 수 있었다.

이제 우리는 공명정대하게 그 질문을 또 다른 형식으로 우리 앞에 당면하고 있다. 즉 성서가 그렇게 나타내듯이, 만일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한 완벽한 사람이었으면, 한 완벽한 사람은 천사가 아니고, 천사보다 정도가 낮은 한 인간인 육체의 존재라는 것을 그것이 증명하지 않는가? 논리적인 결론은 틀림이 없다. 이 위에 시편의 작자의 영감을 받은 말씀(시 8:5-8)과 히브리서 2:7-9에 그것에 대해 바울의 참고가 있다.

예수님은 인간과 영적인 두 본성의 결합도 아니었다. 두 본성의 융합은 이도 저도 아니지만 신의 제도에 불쾌한 결합이 있는 잡종을 낳는다.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을 때에 그는 한 완벽한 인간 존재였다. 그 이전에는 한 완전한 영적 존재였다. 그리고 그가 부활한 이래로는 그는 가장 높은 신의 계급의 한 완전한 영적 존재이다. 예수님은 신의 본성 상속의 보증을 30살에 침례(마 3:16,17) 안에서 상징된 것 같이, 죽기까지의 헌신을 할 때까지 받지 않았다. 30살은 율법에 따라서 성년남자, 그러므로 **한 성년**으로서 스스로 헌신하기 옳은 때이다. 그가 신의 본성의 **보증**조차 받을 수 있기 전에, 인간의 본성을 **죽기까지 헌신**해야 했다. 우리 주님은 헌신을 실제로 실행하고, 죽기까지 인간의 본성을 실제로 희생하실 때까지, 신의 본성의 완전한 참여자가 되지 않았다. 한 성년이 된 후, 그는 죽기까지 순종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신의 본성으로 높이셨다.(빌 2:8,9) 만일 이 성서가 진실이라면 인간의 본성이 실제로 희생될 때까지 곧 죽을 때까지 그는 신의 본성으로 높여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는다. 곧 예수님 안에는 본성의 혼합이 없었지만, 그는 두 번 본성의 변화를 체험했다. 첫째, 영적 본성에서 인간의 본성으로,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에서 영적 본성의 제일 높은 질서로, 즉 신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각 경우에 있어서 다른 본성을 취하기 위하여 한 본성을 포기해야 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될 때까지, 세상 앞에 흠이 없는 상태를 유지한 완벽한 인간성의 이 당당한 예에서 우리는 우리 인류가 아담 안에서 타락되기 전의 완벽과 회복하게 되는 완벽을 본다. 사람의 속죄물이 되는데 있어서 우리 주 예수는 사람이 잃은 것을 위해 **동등한 것**을 주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의 믿음과 필요조건에 순종을 통하여 영적 본성이 아니라, “잃었던” 완벽한 **인간**의 본성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완벽한 인간존재의 완전한 기능과 능력은 언제까지나 발휘될 수 있고, 또 새롭고 다채로운 흥미의 대상들에 발휘될 수 있으며, 지식과 기술은 굉장히 증대될 수 있다. 그러나 지식이나 능력의 그러한 증대는 본성의 변화를 초래하거나 본성을 보다 더 완벽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오직 완벽한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고 발전하는 것뿐일 것이다. 지식과 기술의 증대는 의심할 바 없이 언제까지나 인간의 축복된 특권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사람일 것이며, 오직 이미 소유한 인간 본성의 능력을 더 충분하게 이용하는 것을 배우는데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의 광범한 한계를 넘어서는 그는 바랄 수 없으며, 그의 욕구가 그의 능력의 범위에 제한되었으므로 그가 진보하기를 원하지도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한 사람으로서 인류의 대부분이 회복될 그 완벽한 인간의 본성의 한 예증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부활하신 이래로 그는 극복하는 교회가 부활 때 그와 같이 함께 할 영광스러운 신의 본성의 예증이다.

이 현재시대가 본성의 **변화**를 제안 받은 이 계급의 발전에 주로 바쳐있고, 사도들의 서한이 이 “적은 무리”의 교훈에 바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선택된 일단의 완성으로 끝난다고 추리해서는 안 된다. 다른 한편으로, 반대극단으로 가서, 이 계급의 사람들(“적은 무리”)에게 제안된 신의 본성과 영적 몸(고전 15:44)을 받게 된다는 특별한 약속이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해서도 안 된다. 모든 인류에게 제안된 다른 귀중한 약속들 위에 “귀중하고도 매우 웅대한 약속들”을 이들에게 준 것이다.(벧후 1:4)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 성서는 “적은 무리”속에 신의 본성의 완벽과 회복된 세상 사람들 속에 인간의 본성의 완벽은 두 분리된 것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관찰해야 한다.

영적 존재가 무엇인가? 무슨 능력을 그들은 소유하고 있는가? 무슨 율법으로 그들은 지배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많은 사람들은 영적 존재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신화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래서 이 주제에 많은 미신이 우세하고 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관념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는 인간이 보다 높은 영적 존재의 성질을 깨달을 수 없음을 암시 하지만(고전 2:14) 마치 신화나 미신적이라는 어느 관념을 경계하려는 것처럼 그는 명백히 진술하기를, 육적인(인간의) 몸뿐이 아니라, 영적 몸도 있고, 땅의 몸뿐이 아니라, 하늘의 몸도 있으며, 하늘의 몸의 영광뿐이 아니라, 땅의 몸의 영광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본바와 같이, 땅 (인간)의 영광을 아담의 죄 때문에 잃긴 했으나, 주 예수님과 그의 신부 (그리스도, 머리와 몸)가 천년통치 기간에 인류를 위해 회복하게 되어있다. 하늘의 몸의 영광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믿음의 눈에 드러난 정도 외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 영광들은 분리되고 별개의 것이다.(고전 15:38-49) 우리는 육적인 흙의, 땅의 몸이 무엇인가를 어느 정도까지는 알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적인 몸의 완전함의 영광은 대강만을 추단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살과 피와 뼈이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요 3:6)

그리고 두 별개의 종류의 몸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 몸이 무엇이든, 그것이 살과 피와 뼈로 구성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것은 천상의, 하늘의, 영적 몸일 것이다(“영에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나 영적 몸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른다. 왜

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다”(요 3:6, 요일 3:2)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제외하고는 영적 존재이건 인간의 존재이건, 어떤 존재가 한 본성에서 다른 본성으로 변화된 적이 있다는 기록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다. 이것은 예외적인 목적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였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셨을 때, 의심할 바 없이 그들이 영구히 천사인 채로 있을 것을 의도 하셨다. 사람도 그렇다. 각기 그 자신의 단계에서 완전하다. 적어도 성서는 아무 다른 목적에 대한 암시를 주지 않고 있다. 무생물 창조에 만족한, 거의 끊임없는 다양성이 있는 것같이, 생명 있는 지적인 창조에도 완벽에 있어서 같은 다양성이 가능하다. 완전한 상태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영광스럽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듯이, 하늘(천상)의 몸들의 영광은 한 가지 종류의 영광이고, 땅(흠)의 몸들의 영광은 또 다른 종류이며, 다른 영광이다.(고전 15:40)

부활 후에 우리 주님과 영적 존재들인 천사들에 관해 기록된 사실들을 조사함으로써, 이렇게 영적인 것을 영적인 말과 결합시키면서(고전 2:13) 영적 존재들에 관해서 우리는 얼마간의 일반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첫째로, 천사들은 나타날 수 있으며, 종종 나타난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여호와와 천사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은 모두 공적 봉사를 위한 영들로서, 구원을 상속받을 자들을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시 34:7, 히 1:14) 그들이 눈에 보이게 섬겼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게 섬겼는가? 의심할 바 없이 후자이다. “앗스르(Assyrians)의 한 군대가 엘리사를 에워쌌다. 그의 종복이 두려워했는데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젊은 종복의 눈을 열어 주시므로, 그가 보니, 산간 지방에 불말(불같이)과 불 병거들이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다. 또 한편, 발람에게는 천사가 보이지 않았는데, 나귀는 그의 눈이 열려 그를 보았다.”(왕하 6:14-17, 민 22:21-27)

둘째로, 천사들은 인간의 몸으로 짐짓 가장할 수 있으며, 인간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 주님과 두 천사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하여 저녁을 준비하여, 그들은 저녁을 먹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막 가려고 할 때까지 그들 중에 하나는 주님이시고, 다른 둘은 천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 후, 그 두 천사들은 소돔(Sodom)에 내려와 롯(Lot)을 구하였다.(창 18:1,2) 한 천사가 기드온(Gideon)에게 한 인간으로 나타났으나, 그 후에야 천사 자신을 알게 했다. 한 천사가 삼손(Samson)의 부모에게 나타났는데 그들은 그가 제단의 화염가운데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사람으로 생각했다.(삿 6:11-22, 13:2-21)

셋째로, 영적 존재는 그들의 정상의 상태에서는 영광스러우며, 종종 그들을 영광스럽고 광채 난다고 칭한다. 무덤의 문에서 돌을 굴러 낸 천사의 겉모양은 “번개와 같았다.”(마 28:2,3) 다니엘은 한 영적 몸의 섬광에 마주쳤는데, 그가 묘사하기를, 그의 눈은 타오르는 햇불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팔과 발은 빛난 구리와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았다고 했다. 그의 앞에 다니엘은 한 죽은 사람 같이 엎드려졌다.(단 10:6,10,15,17) 타서스(Tarsus)에 사는 사울도 대 낮에 햇빛 광채이상

빛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비슷한 섬광에 마주쳤다. 사울은 그의 시력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행 9:3,4)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음 사실을 발견했다: 영적 존재는 확실히 영광스럽다. 그러나 영적 존재들을 보도록 사람의 눈을 열어주거나, 그들이 인간으로 **육체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외에는,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결론은 우리가 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상술을 검토할 때 더한층 확증된다. 주님이 사울에게 홀로 보이고, 함께 가던 사람들은 음성의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행 9:7)

다니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가 묘사하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를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큰 떨림이 자신들에게 내리자 달아나 숨어버렸다. 다시 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선언하기를, “페르시아(Persia) 왕국 영역의 군왕이 이십일 일 동안 나를 저항하였다.”(단 10:13)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군왕이 이십일 일 동안 저항한 이 사람 앞에 죽은 사람 같이 엎드려졌는가? 어떻게 이럴까? 확실히 그는 군왕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아니다. 그가 **보이지 않게** 그와 더불어 임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주님은 부활 후에 영적 존재다. 따라서 그는 우리가 본 천사(영적 존재) 가운데에서 예증된 같은 능력을 역시 소유하고 있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장에서 더 충분히 알게 되는 바와 같이, 그러한 것이 실정이다.

이렇게 성서는 영적 본성과 인간의 본성이 분리되고 별개의 것으로 본다는 것과 한 본성에서 다른 본성으로 진화할 것이라는 증거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한다. 그와 반대로 성서는 오직 극소수만이 인간에서 그들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이미 높여지신 신의 본성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훌륭하고 특별한 면모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위대한 미래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들을 준비해주는 그 훌륭하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이다.

죽음을 면할 수 없음과 불멸

인간 존재와 영적 존재, 그리고 땅에 속한 약속과 하늘에 속한 약속에 관한 성경 말씀의 비교에서 우리가 배운 것과 엄밀히 조화되는 부제(죽음을 면할 수 없음과 불멸)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것이다. 이 부제 낱말들에 보통 매우 불확실한 의미를 주고 있으며, 그 의미들의 그릇된 관념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성서를 사용하는데 이 부제 낱말들에 관계되는 주제에 대하여 오류의 견해를 일으킨다.

“죽음을 면할 수 없음”이란 낱말은 **죽는 경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죽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불멸”이란 낱말은 **죽는 경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단지 죽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죽음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죽음을 면할 수 없음의 일반의 틀린 관념은 죽음이 불가피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불멸의 의미의 일반적 관념은 거의 더 정확하다.

불멸은 멸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 말들의 구성만으로도 그 말들의 참된 정의를 가리킨다. 아담이 범죄 전에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 불멸 상태에 있었는지를 정해 보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혼동 된 것은 **죽음을 면할 수 없음**이란 말의 그릇된 관념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추론하기를, 불멸의 존재는 죽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일 아담이 불멸의 존재였다면 하나님께서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창 2:17)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논리적인 결론이다. 이와 반대로, 그들은 말하기를, 만일 그가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존재**였다면, 아무리 해도 그가 죽음을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위협이나 처벌로 될 수 있을까? 하며 그들의 틀린 정의에 따라 말한다.

문제는 **죽음을 면할 수 없음**이란 말에 준 그릇된 의미 속에 있다는 것이 감지될 것이다. 정확한 정의를 적용하면 모두가 명백하다. 아담은 멸하게 될 수 있는 존재였다. 즉 그는 죽음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그는 가득 차고 완전한 한도로 생명을 가졌으나, **선천적인 생명을 가지지 않았다**. 그의 생명은 금단의 열매를 제외하고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로” 유지된 생명이었다.(창 2:16) 그리고 그가 계속 창조자에게 순종하며 그와 조화되어 있는 한, 그의 생명은 확보되었다. 생명을 지탱하는 요소들(나무 열매들)은 부인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보인 것은 아담이 생명을 가졌고, 죽음을 완전히 피할 수 있었으나, 그는 아직도 죽음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다.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존재가 영생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다면 질문이 있게 되는데, 만일 아담이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존재로 시험에 있었다면 그는 불멸을 얻기 위해 시험에 있었는가? 일반적인 대답은 ‘네’ 일 것이다. 우리는 ‘아니요’ 라고 대답한다. 그의 시험은 그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명과 축복가운데 존속하기에 합당 한가 아닌가를 보기 위해서였다. 만일 아담이 복종하면 불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무데에도 약속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그러한 모든 추측을 방지하지 않을 수 없다. 순종하는 한, 그는 **그 당시에 맛보던 축복의 영속됨**이 약속되었고, 만일 불순종하면 모든 것의 손실(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고 위협 당했다. **죽음을 면할 수 없음**이란 낱말의 의미의 그릇된 관념은 일반대중을 ‘죽지 않는 모든 존재는 불멸이다’라는 결론으로 이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늘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 천사들, 그리고 모든 인류를 이 불멸계급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이것은 오류이다. 하늘의 천사뿐이 아니라, 타락에서 구원된 인류의 거대한 다수는 항상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존재일 것이다. 완벽과 행복의 상태에 있긴 하지만, 만일 죄를 범하면 일반대중은 항상 죄의 삯인 죽음을 당할 수 있는 본성일 것이다. 그들의 존재의 안전보장은 아담의 경우와 같이 지상으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복종 여하에 달렸다. 하나님의 공정, 사랑, 지혜와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일을 함께 협력하게 하시는 그의 권능은 현재 죄를 허용하시는 조처로 충분히 증명될 것이다.

성서에는 아무데도 천사들이 불멸이라거나, 회복된 인류(구속된 교회는 제외하고)가 불멸일 것이라고 진술되어있지 않다. 이에 반하여, 불멸은 오직 신의 본성에만 속한다. 즉 원래 여호와께만, 그 후, 현재 지극히 높여진 상태에 계신 우리 주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약속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입을 때 그의 몸인 교회에 속한다.(딤후 6:16, 요 5:26, 벰후 1:4, 고전 15:53,54)

불멸은 다만 신의 본성에 속하는 것이라는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뿐이 아니라, 천사들은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존재이며, 사실상 한때 그들 중에 한 천사 장이었던 사탄이 멸망하게 되어있다는 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히 2:14) 그가 멸망될 수 있다는 사실은 천사들이 한 계급으로서 죽음을 면할 수 없음을 증명한다.

여태까지 고려된 것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아는 것은 완강한 죄인들이 전멸될 때, 불멸의 존재와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존재들은 기쁨과 행복과 사랑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 첫 번째 계급은 선천적인 생명 곧 자기 속에 있는 생명(요 5:26)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불가능한 본성을 소유하고 있다. 두 번째 계급은 죽음이 가능하지만, 완벽한 존재이며, 사악과 죄의 매우 죄스러움의 지식 때문에 죽음이 정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 두 번째 계급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충실하기 때문에 완벽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요소들로 그들은 영구히 공급될 것이며, 그래서 그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죽음을 면할 수 없음과 불멸의 용어의 의미와 성서에서의 그들의 활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영원한 고통(지옥)이란 교리의 바로 그 기초를 파괴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성서에 없는 학설에 근거를 두었다: (1)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멸로 창조하셨다. (2) 그는 멸망될 수 없다. (3)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시킬 수 없다. (4) 그러므로 완강한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어떻게든지 **계속 생존함**에 틀림없다는 것이 요지다. (5)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조화되어있지 않으므로, 그들의 영세는 비참한 것임에 틀림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죄인들의 그러한 영속함에 대비하여 예비하셨다는 것과 인간은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존재이며, 충분한 빛과 지식에 벗어난 고의적인 죄를 범한 죄인의 최대한의 처벌은 고통(지옥)속에서의 생존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한다. “죄를 짓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겔 18:4,20)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하느냐?”

로마서 9:20

총애를 부여하시는데 있어서의 공정

어떤 사람은 공정에 대해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총애를 부여하시는데 있어서 차이를 두셔서 안 됨을 요하며, 만일 그가 한 사람을 높은 위치로 높이시면 어떤 사람이 자기 **권리**를 상실해서 낮은 위치로 당연히 지정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경우 이외에는 **공평하게** 모두를 같은 위치로 높이셔야함을 요한다고 한다.

상상된 원칙이 검토되었음

만일 이 원칙이 옳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천사들보다 더 높게 창조하실 권리나, 모든 천사와 모든 인간을 다 같이 높이시려고 의도하시지 않으신 한 예수님을 그 다음에 신의 본성으로 더욱 높이실 권리가 없으심을 제시할 것이다. 이 원칙을 아직 더 전개하면, 만일 어떤 인간이 지극히 높임을 받고, 신의 본성에 참여자로 되게 하면, 언젠가는 모든 인간이 다 같은 위치로 올려 지게 되어야 한다. 그뿐이 아니라, 이 원칙을 왜 극단까지 이끌지 않는가. 그래서 같은 진보의 법을 짐승과 곤충의 창조에도 적용하여,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니 언젠가는 짐승과 곤충 모두가 가장 높은 존재의 단계(신의 본성)에 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가? 이것은 명백히 불합리한 것이다. 그러나 가정된 원칙에서 본다면 그것은 어느 다른 추론에 못지않게 이치에 맞는다.

완전한 상태에 다양성

필시 아무도 그 틀린 가정을 이점까지 전개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틀린 가정이 단순한 공정에 기초를 둔 원칙이라면, 그것이 어디에서 중단하면 여전히 공정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일 그러한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모든 그의 일들 가운데에 즐거운 다양성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모든 자연은 동물계나 비 동물계나 영광과 신의 권세와 지혜의 다양성을 전시한다. 그리고 훌륭한 다양성과 아름다움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은 그 손으로 하신 일을 알리네.”(시 19:1)라 함과 같이, 그의 지적인 창조는 그의 권세의 우수한 영광을 다양성 가운데 훨씬 더 전시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된 교훈과 이성과 자연의 유사에서 결론을 내린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공정에 대해서 옳은 관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총애**는 결코 정당하게 공로로 받는 보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단순한 공정의 행동은 특별한 감사를 위한 경우가 아니며 사랑의 아무 증명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위대한 사랑(공로 없이 주시는 은총)을 피조물들에게 한없이 주신다. 이것은 답례로 마땅히 그들의 사랑과 찬양을 필요로 할 것이다.

만일 뜻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죄를 범한 적이 없다 해도, 우리를 단지 짧은 기간만 사는 피조물로 만드실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그는 어떤 종의 낮은 피조물을 만드셨다. 그는 우리가 잠시 동안 그의 축복을 즐기게 하시고는 그 다음에 불공정함 없이 우리를 모두 존재에서 없어지게 하실 수 있었다. 사실은 그렇게 짧은 기간의 생존이라 해도 그것은 총애다. 어쨌든 우리는 오직 그의 총애로 생존한다. 한번 죄로 잃은 존재의 구원은 얼마나 훨씬 더 큰 총애인가! 더욱이, 우리가 인간이고 짐승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총애다. 천사가 본래 인간보다 조금 높다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총애다. 그리고 주 예수님과 그의 신부가 신의 본성에 참여자가 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총애다. 그러므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것을 감사로 받는 것이 그의 모든 지적인 피조물에 어울린다. 어떤 다른 정신은 공정하게 정죄를 받을 만하며, 만일 불평하는 정신에 빠지면 비천과 파멸로 끝날 것이다. 인간은 천사의 위치로 초청을 받은 적이 전혀 없으므로, 천사가 되기를 열망할 권리가 없다. 천사에게 신의 본성을 제공한 적이 전혀 없으므로, 천사는

신의 본성을 열망할 아무 권리도 없다.

사탄의 비천을 초래한 것은 그의 자만심의 포부이며, 그의 포부는 파멸로 끝날 것이다.(사 14:14)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추어질 것이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여질 것입니다.”(눅 14:11) 그러나 반드시 가장 높은 위치로가 아니다.

성서에서 가르친 택하심에 관한 주제가 일부는 공정에 대한 그릇된 관념에서, 일부는 다른 근거들에서, 많은 논쟁과 오해의 근거가 되었다. 성서가 택하심을 가르친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택하심이 정말 어떤 원칙에 근거되어 있는지는 의견의 상당한 차이가 있는 문제다. 어떤 의견은 그것이 독단적, 무조건의 택하심이라 하고, 다른 의견은 그것이 조건적이라고 주장한다. 이 쌍방의 견해에는 어느 정도 진리가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하나님의 편에서 택하심은 한 어떤 목적이나 직무나 조건을 위한 그의 선택의 표현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조물 중 얼마는 천사들, 얼마는 인간들, 얼마는 짐승들, 새들, 곤충들, 등, 이 되고, 또 얼마는 그의 신의 본성에 속하게 될 것을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신의 본성으로 받아드려질 모두를 어떤 조건들에 따라서 선택하시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들이 신의 본성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느 피조물이 어느 단계에서 생존한다는 것은 순전히 총애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원하는 사람이나 달리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자비 곧 친절이나 총애(롬 9:16)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선택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보다 더 나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의 본성으로 초대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가 죄를 범하지 않은 천사들을 빼놓고, 구원된 죄인들 중 얼마쯤을 신의 영광으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것을 가지고 그가 원하시는 대로하실 권리를 가지고 계시며, 그의 계획의 성취를 위하여 이 권리를 발휘하시기를 원하신다. ‘사람들이여,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말대꾸합니까?’ 빛음을 받은 것이 빛은 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라고 말하겠습니까? 도공이 같은 진흙 덩어리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습니까?’(롬 9:20,21) 모두가 같은 신의 권세로 창조되었다. 얼마쯤은 보다 더 높은 본성과 보다 더 큰 영예를 갖고, 얼마쯤은 보다 낮은 본성과 보다 덜 귀한 영예를 갖도록 창조하셨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며 그(인간)를 지으신 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들들에 관하여 앞으로 있을 일들을 나에게 물어라. 내 아들들에 관하여, 내 손이 한 일에 관하여 너희는 나에게 명령하느냐? 바로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도 창조하였다. 내가(내 손이) 하늘을 찢으며, 모든 천사의 무리에게 내가 명하였다.’” “하늘의 창조주이신 참 하나님, 땅을 지으신 분이시며 그것을 만드신 분, 그것을 굳게 세우시고 그것을 헛되이 창조하시지 않으시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지으신 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이며, 다른 이가 없다.”(사 45:11,12,18) 아무도 하나님께 지시할 권리가 없다. 만일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헛되이 창조하시지 않으시고 회복된 완벽한 사람들이 거주하도록 지으셨으면, 우리가 누구라고 하나님께 대꾸하며, 그들의 본성을 변화하여, 모두를 천사나 그의 신의 본성의 참여자로 만들지 않은 것이 불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와서 장래 일을 “묻는 것”이 우리의 관념을 실행하셔야 한다고 하나님께

“명령”하거나 단언하는 것 보다 얼마나 훨씬 더 어울리는가? 주여, 주제님은 범주를 짓지 않게 당신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시 19:13) 하나님의 자녀 중 아무도 알면서 주님께 지시하지 않을 줄 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 오류에 빠지는지 모른다.

인간에게 만족한 분배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된 자녀들로서 그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다. 그리고 그들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말씀에 분명히 드러내시었다. 바울이 말하기를, 첫 사람(인류가 완벽하게 될 때의 표본)은 땅에서 났으니 흙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의 후세는 복음교회를 제외하고는 부활 때 여전히 흙으로 만들어지고, 땅에 순응되는 인간일 것이다.(고전 15:47,38,44) 다윗이 선언하기를, 인간이 천사들보다 단지 조금만 낮게 만들어지고, 영광과 영화와 지배권으로 관을 씌웠다고 했다.(시 8:4-8) 그리고 베드로, 우리주님, 그리고 예전의 모든 예언자들이 선언하기를, 인류가 그 영광스러운 완벽으로 회복되고, 아담이 인류의 전형으로서 누리듯이 땅을 다시 지배하게 된다고 한다.(행 3:19-21)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기로 택하신 것이 이 몫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몫인가! 죄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불행과 고뇌, 타락과 슬픔의 장면에 여러분의 눈을 잠깐 동안 감고, 여러분의 정신 시각 앞에 완전한 지구의 영광을 그려보시오. 죄의 단 하나의 얼룩도 완전한 사회의 조화와 평화를 망치지 않는다. 단 하나의 쓰라린 생각, 단 하나의 불친절한 얼굴표정이나 말도 없고, 각 마음에서 솟아 나오는 사랑이 다른 모든 마음 안에서 같은 감응을 받으며, 모든 행위는 자비심을 보인다. 거기에는 병이나 고통이나 아무 부패의 흔적인 그러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조차 다시는 없을 것이다. 여러분이 일찍이 본적이 있는 상당한 건강과 인간 형태와 용모의 아름다운 모든 그림들을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완벽한 인류는 아직도 보다 뛰어난 사랑스러움의 존재일 것을 아시오. 속의 순수함과 정신적, 도덕적 완벽은 모든 빛나는 용모에 새기고 영광을 더할 것이다. 그러한 것이 땅의 사회일 것이며, 이렇게 그들이 부활일의 완성이 현실화 할 때, 눈물 흘리는 사별한 사람들은 그들의 눈물이 모두 닦일 것이다.(계 21:4)

이것은 인간 사회에 있어서 만의 변화이다. 그러한 인류가 “거주하도록 지으신” 땅은 그들을 위해서 알맞고 유쾌한 거주가 된다는 것도 상기한다. 이 거주는 전형적인 사람이 최초로 거주한 에덴낙원의 전형과 같게 된다. 낙원이 회복될 것이다. 땅은 다시는 가시와 찔레나무를 돋게 하지 않을 것이며, 생계를 산출하기 위하여 얼굴에 땀을 흘릴 필요가 없이, “땅은 산물을 (쉽게 자연적으로) 낼 것이다”(시 85:12) “사막이 백합화 같이 필 것이다”(사 35:1) 낮은 층 동물의 창조가 완전하고 기꺼이 순종하는 종들이 될 것이다. 모든 유쾌한 다양성이 있는 자연은 모든 방향에서 하나님의 영광, 권세, 사랑을 찾고 이해하라고 인간에게 주의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정신과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것이다. 지금 널리 퍼지고 있는 어떤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바라는 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함과 우리 현재의 만족스럽지 못한 환경에 기인한 비정상적 상태이다. 어떤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열망하는 것은 하나님 같지 않다. 대부분의 사물이 하나님께는 오래된 것이며, 그는 오래되고 완전한 것들에서 가장 기뻐하신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때, 인간도 오래되고 완전한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듯이 가장 기뻐할 것이다. 완

벽한 인간은 본성이 다른 까닭에 영적 존재의 영광을 충분히 알거나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 존재의 영광을 오히려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같은 이유로 물고기와 새가 각기 그 자신들의 본성과 생육지를 오히려 가장 좋아하고 즐기는 것과 똑 같다. 사람은 인간 단계에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영광에 아주 흡수되고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소유한 것들 외의 또 다른 본성이나 상태를 열망하거나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의 현재 경험의 일견은 이것을 예증할 것이다. 돈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막 10:23, 눅 18:24) 현재 사악과 죽음의 지배 밑에서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급함에 없는 좋은 것들이 인간의 본성을 아주 현혹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목적을 영적 약속에 고착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몸을 택하심

그리스도의 몸인 기독교의 교회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일반적 계획에 예외라는 것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교회를 택하실 것을 신의 계획 가운데 정하셨다는 말씀을 보아 분명해진다.(엡 1:4,5) 그 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로 타락을 예견하셨을 뿐이 아니라, 이 계급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기로 예정하셨다. 복음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계급을 불러내고 계신다. 그 목적은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시고,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고, 전 인류의 의로움과 평화의 설립을 위한 천년 왕국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이다.(롬 8:28-31)

이것은 교회선택이 하나님 편에서 예정된 일이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 **개별적 구성원들**을 무조건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단의 사람이 특정한 기간(복음시대) 이내에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을 정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각 개별적 구성원의 행위를 예견할 수 있다는 것과 정말 누가 합당하며 그래서 누가 “적은 무리”의 일원들을 구성한다는 것을 예지하실 수 있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택하심에 관한 교리를 진술하고 있는 방법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깨우치려고 노력한 것은 각 개인을 미리 정하신다는 생각이 아니라, **한 계급**을 명예로운 위치를 채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다. 그 계급의 선택은 여러 가지 믿음의 가혹한 시험, 순종, 세속적 특권의 희생, 등의 필요조건을 죽기까지 수행하는 가에 좌우된다. 그렇게 각 개인의 시험과 각 개인이 “이겨냄”에 따라서 **예정된 계급**의 개인적 구성원들이 선택하고 있다. 이 계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과 혜택을 예정하셨다.

로마서 8:30에 그리스어 **doxazo** 에서온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은 **명예롭게 됨**을 의미한다. 교회가 그 위치로 택해진 것은 큰 명예중의 하나이다. 아무도 그렇게 큰 명예를 얻기 위한 열망을 생각할 수가 없다. 우리 주님도 그 위치를 얻기 위해 열망하기 전에 먼저 초대를 받았다. 우리가 읽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영광스럽게 되신(**doxazo**-명예롭게 되다)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내가 네 아버지가 되었다.’”(히 5:5)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님을 이렇게 명예롭게 하셨다. 그리고 그와 함께 공동 상속자들이 될 당선된 몸의 모두는 여호와와의 총애로 이렇게 명예롭게 될 것이다. 교회의 머리와 같이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약 1:18) 하나님의 영적 본

성으로 **잉태될** 때, “명예”의 시작을 경험한다. 그리고 영으로 낳을 때, 그 명예로 완전히 안내될 것이다. 곧 영적 존재들(하늘의 영광을 받은 머리의 형상)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예를 주실 그들은 완벽하고 청순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유전으로 죄인인 까닭에 그는 우리를 명예로 오직 초청(불으심)하셨을 뿐이 아니라, 그 명예를 우리가 받도록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죄에서 **의롭다 인정하실** 것도 역시 준비하셨다.

적은 무리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매우 일반적인 부르심 -“초대를 받은 사람은 많으나” -을 베푸신다.(마 22:14) 모든 사람이 부르심을 받지 않는다. 부르심이 우리 주님의 전도 기간 처음에는 육적 이스라엘에게 제한되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종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 특별한 총애의 연회로 올 것을 강요(강제가 아님)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듣고 오는 사람들일 지라도 모두가 다 함당하지는 않다. 예복(그리스도의 귀여워 의로움)을 주었으나 어떤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버림을 받아야 된다. 의롭다고 인정되는 예복을 입고, 새로운 본성으로 낳게 되는 명예를 받는 사람들 중에, 그들의 서약에 충실함으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스스로 확실히 하는 것에 어떤 사람은 끝내 실패하고 만다. 영광 가운데 어린양과 나타나기에 적합한 그들에 관해서 선언하기를, “그들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충실한 사람들이다.**”(계 14:1, 17:14)

그 부르심은 참되다. 교회를 선택하고 높이시려는 결심은 불변이나, 누가 이 선택된 계급에 속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조건 나뉘이다. 미리 정해진 명예를 함께 나눌 사람 모두는 그 부르심의 조건을 완수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 지라도 여러분 중에 그 약속에 달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질까 두려워합니다.”(히 4:1) 하나님의 위대한 총애는 원하는 사람이나 달리는 사람에게 달려 있지 않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원하는 **사람에게** 달음박질하는 **사람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조물로 그가 원하시는 것을 행사하시는 **절대적인 권리와 목적**을 분명히 정당화하였으므로, 모든 하나님의 총애를 부여하시는 특징적인 원칙은 모든 사람의 전체적인 행복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를 끈다.

우리는 성서 권위에 의거하여 인간의 본성과 영적 본성은 분리되고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확립했다고 판단한다. 두 본성을 혼합하는 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계획의 부분이 아니라, 불완전일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본성에서 또 다른 본성으로 변화하는 것은 통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단 한 경우에 있어서 예외이지만, 어떻게 그 변화가 성취될 것이고, 어떤 조건들에서 그것이 달성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변화를 가져오는가를 배우는 것은 깊은 흥미 대상의 문제가 된다.

어떻게 그들의 본성의 변화가 완수되나?

교회가 주님과 더불어 신의 본성으로(벧후 1:4) 높여질 수 있는데 의거하는 조건들은 주님께서 의거하여 그것을 받은 조건들과 정확히 같다. 그가 산 제물로 희생하신 것과 같이, 자기의 몸을 산 제물로 희생하시면서, 그의 발자취를 바로 따르고(벧전 2:21) 그 다음에 희생이 죽음으로 끝날 때까지 충실하게 그 헌신의 서원을 성취하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에서 신의 본성으로 변하는 이 변화는 우리 주님께서

인간 본성을 희생하신 것과 같이, 복음시대 이내에, **인간의 본성을 그것의** 모든 관심들, 현재와 미래의 희망, 목적들과 더불어 죽을 때까지 희생하는 그들에게 보답으로 준다. 부활 때 그런 사람들은 나머지 인류와 더불어 인간의 완벽으로 회복되는 축복이나, 모든 회복에 수반하여 일어나는 축복에 참여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신의 본성에 참여자들로서, 주님의 형상, 영광,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깨어날 것이다.(롬 8:17, 딤후 2:12)

새 본성의 시작과 발달은 인간 생명의 시작과 발달에 비유된다. 인간인 경우에 잉태가 있고, 그 다음에 탄생이 있는 것과 같이, 새 본성인 경우에도 역시 그렇다.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에게서 새로 나게 하신다고 한다.(약 1:18, 뵤전 1:3, 요일 5:18) 즉 그들은 그의 말씀으로 하나님에게서 신의 생명에 첫 충동을 받는다. 속죄물에 대한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을 때, 그들은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고(속죄 받고, 의롭다고 인정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온당한 봉사입니다.”라는 부르심을 듣는다.(롬 12:1)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들이 그들의 의롭다고 인정된 인간성을 예수님의 산 제물과 병행하여 하나님께 산 제물로 헌신할 때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바로 그 행위를 하에서 영적 생명이 시작된다. 그러한 사람은 즉시 인간의 욕구를 못 박힘까지, 새(변화된) 마음이 고무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하는 그 자신을 발견한다. 헌신하는 순간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간주하신다.(갈 6:15, 고후 5:17)

이 때아 “새로운 피조물”에게 이전의 것(인간의 욕구, 희망, 계획, 등)은 사라지고 모두 새것이 된다. 그 때아 “새로운 피조물”은 지나간 희망, 목적, 욕망, 등을 가지고 있는 이전 인간 본성을 못 박을 때 계속 자라고 발전한다. 이 두 과정은 헌신하기 시작하는 때부터 인간이 죽고, 영적 성과를 낳을 때까지 동시에 진보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계획을 더욱 더 계속 나타낼 때, 그는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몸들까지 그렇게 소생시켜서(롬 8:11)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들이 그에게 봉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적절한 때에 우리는 모든 점에 있어서 새로운 신의 마음에 적응되는 새로운 몸, 영적 몸, 하늘의 몸을 가질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태어남**은 부활 때 이루어지며(골 1:18) 이 계급의 부활은 **첫째**(최고의)부활이라고 부른다.(계 20:6) 우리가 입양의 영을 받을 때부터 영적 존재라고 간주되기는 하나, 부활 때까지 실제로 영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롬 8:23-25, 엡 1:13,14, 롬 6:10,11) 우리가 실제로 영적 존재가 될 때, 즉 우리가 영으로 태어날 때 다시는 우리가 육적 존재가 아닐 것이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이다.(요 3:6)

부활 때 영적 본성으로 태어남은 헌신할 때에 성령으로 잉태가 선행해야 한다. 이것은 육적 탄생이 육으로 잉태가 선행되어야함과 꼭 마찬가지로. 땅에 속한 첫 아담을 닮은 모양으로 육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육으로 먼저 잉태되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 잉태되어, 적절한 때에 하늘에 속한 자를 닮은 모양으로 첫째 부활에 영으로 태어날 수 있게 된다. 변절하지 않는 한, “우리가 흠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의 형상을 지녀온 것 같이, 또한 우리

는(교회)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지닐 것입니다.”(고전 15:49, 히 6:6)

하늘의 소명을 받아드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우리의 헌신은 특별한 한 순간에 결정되는 것이지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마음과 조화되게 하는 것은 점차적인 일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땅을 향하여 구부러진 모든 생각을 하늘을 향하여 구부리게 하는 것은 점차적이다. 사도 바울은 이 과정을 변화하는 일이라고 부른다. 그는 이 문제를 그의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하늘에 속한 본성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아드리실 만하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스스로 증명하도록 하십시오.”(롬 12:2)

그 사도의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바로 전 절,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하니, 여러분의 몸을 살아있고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으로 바치십시오.”라고 하신 말씀에서 보여준 것 같이 그가 형제로서 인정하는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유의해야 한다.

한 인간이 전향되거나 죄에서 의로움으로 변화될 때, 그리고 불신앙이나 하나님께 대항함에서 그에게 의지함으로 전향될 때, 그것이 바울이 의미한 변화라고 일반적으로 믿고 있다. 진실로 그것은 한 큰 변화이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은 **한** 변화이지, **그**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성격의 변화이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정해진 조건들에 따라 복음시대에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본성의 변화를 언급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 조건들을 성취하라고 격려한다. 만일 그가 이야기한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성격**의 변화가 이미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는 그들에게 형제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이다. 형제들은 또,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으로 바칠 무엇인가를 가졌다. 왜냐하면 속죄물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된 그들만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받아드리실 만하다고 간주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자기의 완벽한 인간성을 산 제물로 드린 것 같이 **본성**의 변화는 복음시대에 현재의 인간의 만족과 특권을 무시할 뿐이 아니라, 미래의 **인간으로의** 생존에 대한 모든 그의 권리와 주장을 버리면서, 그들의 의롭다고 인정된 인간성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들에게 이루어진다. 맨 먼저 희생된 것은 인간의 의지이다.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나, 어느 다른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인도되어야 한다. 신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될 것이며, 인간의 의지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지로서 간주하고, 무시하고 희생해야 한다. 신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었으니, 우리는 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추론하고 판단하기를 시작한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되며,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된다. 진실한 믿음으로 그들 스스로를 제물로 드리지 않은 결과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이 변화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전에 실제로 죄가 아닌 것은 무엇이든 즐길 수 있었다. 세상과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단지 어려움은 죄 있는 경향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헌신하고 변화된 사람은 죄를 억제하려는 노력 위에 현재의 좋은 것들을 희생하며, 그들의 모든 정력을 하나님을 봉사하는데 바쳐야 한다. 봉사와 희생에 충실한 그들은 이 세상이 그들의 휴식처가 아니라는 것과 이곳에 영속하는 도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히 13:14)을 참으로 매일 실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희망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남아있는 그 안식”(히 4:9)으로 돌려질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축복된 희망은 계속된 희생을 하도록 소생하고 고무할 것이다.

따라서 헌신을 통해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며, 욕망과 희망과 목적이 약속 해주신 영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해서 일어나기를 시작하고, 인간의 희망, 등은 죽는다. 따라서 변화되거나 변화과정에 있는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신의 본성에까지 참여하는 자로 간주된다. 이 “새로운 피조물”과 다만 의롭다고 인정받은 믿는 사람들(“형제”) 사이에 차이를 잘 유의하기 바란다. 뒤의 계급 사람들은 여전히 땅에서 났으니 흙으로 만들어졌고, 죄 있는 욕구는 제외하고 그들의 희망, 대망, 목적은 약속하신 만유의 회복 때 충분히 만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앞의 계급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요 17:14) 그들의 희망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중점을 둔다. 이 하늘에 속하는 희망에서 새로 낳고, 하늘에 속한 약속들의 영광을 깨닫고, 신의 계획에서 그들에게 할당된 역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보통 사람에게 매혹하는 땅의 영광의 전망이 이제는 만족한 부분이 아닐 것이다.

이 새로운 신의 마음은 완전한 신의 본성(마음과 몸)의 상속을 보증하는 증거이다. 어떤 사람은 신의 몸이란 표현에 깜짝 놀랄 것이나, 기록되기를, 지금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의 존재 자체의 정확한 표상이라는(히 1:3)것과 이기는 자는 “그와 같이 되고, 그를 있는 그대로 볼 것입니다.”(요일 3:2)라고 하였다. “육적(인간의) 몸이 있으면 영적 몸도 있습니다.”(고전 15:44) 우리는 우리의 신의 아버지나 우리 주 예수님이 몸은 없이 단지 훌륭한 마음뿐이라고 상상 할 수 없다. 그들의 것은 영광스러운 영적 몸들이다. 그 영광이 얼마나 훌륭한가 하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며, 우리도 역시 신의 본성을 함께 할 때까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인간에서 영에 이르는 **마음**의 변화는 점차적인 일이지만, 한 인간에서 영적 **몸**의 변화는 점차적이 아니라, 순간적인 것이다.(고전 15:52) 바울이 말하듯이 지금 우리가 이 보물(신의 마음)을 질그릇에 가졌으나 적절한 때에 그 보물은 그것에 충당한 영광스러운 그릇 곧 영적 몸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영적 본성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았다.(창 5:1) 예를 들면, 하나님께는 의지가 있으시다. 인간도 천사도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이성과 기억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의 지성이 있는 피조물(천사와 인간)도 그렇다. 각각의 정신적 작용의 성질은 똑같다. 추리를 위한 자료(데이터)가 같고, 조건이 비슷하면 이 다른 본성들은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신과 천사와 인간의 본성의 지능들은 비슷하지만, 그럼에도 영적 본성들은 인간보다 훨씬 큰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것은 그 능력들이 다른 지능에서 유래해서가 아니고, 같은 지능의 더 넓은 범위와 그것이 작용하는 다른 환경에서 유래해서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인간의 본성은 영적 본성의 완전한 흙으로 만들어진 형상이며, 똑같은 지능을 가지고 있으나 땅의 영역에 제한되어 있다. 그것을 지나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의 혜택과 행복을 위해서 들어내시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시는 만큼만을 식별하는 능력과 성벽을 가지고 있다.

신은 영적 본성 중에 가장 높은 질서이며, 더구나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 사이에 거리가 얼마나 광대무변한가! 전경 안에 그가 그의 장대한 일의 얼마간을 우리 앞에 지나가게 하실 때, 우리는 신의 지혜와 권능과 자애의 영광의 오직 일별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한 인간성의 영광을 측량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사색을 마음에 분명히 두고 우리는 어떻게 인간의 본성에서 영적 본성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즉 같은 지능을 더 높은 상태로 이끌어줌으로서 이해된다. 하늘에 속한 몸으로 옷 입혀질 때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에 속하는 하늘의 능력을 가질 것이며, 그것에 속하는 사려의 영역과 능력의 범위를 가질 것이다.

헌신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경험하는 세속적인 마음에서 하늘에 속한 마음으로 되는 변화는 본성의 변화의 시작이다. 본성의 변화는 두뇌의 변화도 아니며, 두뇌의 변화된 효과에 있어서 기적도 아니고, 변화된 것은 마음의 의지와 성벽이다. 우리의 의지와 감정은 우리의 개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와 감정이 이렇게 변화될 때 우리는 변화되며 실제로 하늘에 속한 본성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진실로 이것은 오직 매우 작은 시작에 지나지 않으나, 이것을 성령으로 잉태됨이라고 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됨은 언제나 작은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완성된 일에 대해서 보증이나 확신이다.(엡 1:13,14)

어떤 사람들은 변화될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알겠는가? 하고 묻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광의 참여자가 될 수 있기 위하여 살고 고생하고 희생한, 같은 존재인지를 어떻게 알겠는가? **우리가** 같은 의식 있는 존재일까? 아주 확실히, ‘네’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우리가** 그와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롬 6:8) 우리 인간 몸에 매일 일어나는 변화는 과거를 잊게 하거나, 우리의 본인임을[■] 잃게 하지 않는다.

이 사려들은 그 아들이 영적 상태에서 인간 상태- 인간의 본성과 지상의 제한-로 변화되었을 때, 어떻게 그가 하나의 사람이었음을 이해하는 데에도 우리를 도울 수 있다. 그리고 쌍방의 경우에 있어서 같은 존재이었지만, 첫째 상태 밑에서 그는 영적이었고, 둘째 상태 밑에서 그는 인간이었다. 왜냐하면 그 두 본성들은 분리되고 별개의 것이나, 그런데도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지능(기억력, 등)은 두 가지의 본성에 공통하므로 예수님은 그가 사람이 되기 전에 그의 이전에 누렸던 영광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 세상이 있기 전에 제가 아버지 곁에서 **가졌던** 영광(영적 본성의 영광)으로 이제 저를 아버지 곁에서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요

■ 우리 인간의 몸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과학은 우리의 구성 원자에 있어서 매 7년마다 완전한 변화를 목격한다고 선언한다. 그래서 인간의 몸에서 약속하신 영적 몸의 변화는 기억력이나 본인임을 파괴하지 않을 것이나, 그들의 능력과 범위를 늘릴 것이다. 같은 기억력과 같은 추론하는 능력, 등을 더불어 지금 우리의 것인, 같은 신의 마음은 그의 새 영적 몸과 조화되어 측정할 수 없는 높이와 깊이로 확장된 신의 마음의 능력을 발견할 것이며, 기억력은 가장 초기의 인간의 유년기로부터 모든 우리의 생애를 추적할 것이다. 그래서 대조로 우리는 우리의 희생의 영광스러운 보답을 완전히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인간이 영적 본성의 **형상**이 아니라면 이것은 그 경우가 아닐 것이다.

17:5)라고 하신 그의 말씀이 증명하듯이, 그가 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영적 본성의 그 영광을 가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기도는 그의 영적 존재의 가장 높은 형태인 신의 본성으로 지극히 높임을 받은 현재의 상태 안에서 대답되고도 남는다

바울의 말씀을 다시 언급하면서,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다음 구절에서 유의 한다: 그는 ‘너희는 너희자신들을 이 세대를 본받게 하지 말고, 너희 자신들을 신의 닮음으로 변화하라’고 말하지 않고, “**본받지 말고.....도리어 변화를 받으십시오.**”라고 말한다.(롬 12:2). 이것은 잘 표현되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자신이 본받게 하거나 변화하게 하지 않고, 우리 주위에 세상의 정신인 세속적인 영향으로 이 세대를 따라 본받도록 우리 자신 따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휘되는 하늘의 영향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거룩한 뜻 또는 성령)에 우리자신을 복종하게 하기 때문이다. 헌신한 여러분은 어떤 영향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변화시키는 영향은 현재 희생과 고생으로 이끈다. 그러나 끝은 영광스럽다. 만일 당신이 이 변화하는 영향 밑에서 발전하고 있으면, 선택하고 받아드리실 만하며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스스로 매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희생의 제단에 그들의 모든 것을 제공한 그러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명심하기 바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상에 속한 약속과 하늘에 속한 약속 두 가지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오직 후자만이 우리에게 속한다는 것.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거기에 있게 하라. 우리의 부르심은 영적 본성뿐이 아니라, 영에 속하는 가장 높은 질서인 신의 본성에 이르기 위함이다. “천사들보다 뛰어나게 되는”(벧후 1:4, 히 1:4) 이 하늘의 소명은 복음시대로 제한되어 있다. 그것은 그 전에는 결코 없었으며, 복음시대 종말에 그것은 그칠 것이다.

땅의 부르심이 비록 불완전하게 이해되었지만, 그것은 하늘의 부르심에 앞서 있었으며, 복음시대 이후에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생명(인간으로 회복된 사람들을 위한 것)과 불멸(달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에게 줄 상)이 둘 다 이 시대에 드러났다.(딤후 1:10) 인간의 본성과 영적 본성은 둘 다 그들의 완전한 상태에서 영광스러운 것이나, 여전히 분리되고 별개의 것일 것이다. 하나님의 완료된 일의 영광에 속하는 중대한 면모는 아름다운 다양성일 것이나, 그러면서도 생물과 무생물 모든 것 사이에 훌륭한 조화(서로 조화되며, 하나님과의 조화)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

“시온아, 일어나서 영원한 기쁨의 노래를
 일시에 외쳐 부르기 시작하라,
 당신의 적을 파멸하시는
 하나님께 영원한 찬미가 속함이다.
 그대 하나님의 교회여, 깨어나라! 깨어나라!
 높은 곳에서 빛이 비추기 때문이다,
 너의 의상에서 흠과 먼지를 털어라,
 너의 영광이 가까이 오고 있다.

“너를 땅위로 높이 올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을 쓰실 것이다,
 그는 너의 비탄을 유쾌함으로
 너의 슬픔을 기쁨으로 돌릴 것이다.
 너 자신에게 빛나는 의상을 입히고,
 너에게 청결한 의상을 입혀라.
 너의 왕이 너를 인도하시리라
 거룩하고 안전하고 확실한 길로.”

연구 11

세 가지 길

넓은 길, 좁은 길, 대로

- 넓은 길은 멸망으로
- 좁은 길은 생명으로
- 생명이란 무엇인가?
- 신의 본성
- 신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과의 관계
- 좁은 길의 최후에는 보답
- 위로 부르심은 복음시대에 한정됐음
- 좁은 길의 어려움과 위험들
- 거룩한 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쪽으로 인도하는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 쪽으로 인도하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은지!”(마 7:13,14 Diaglott 번역)

“거기에 대로가 나서, 거룩한 길이라고 불릴 것이다. 더러운 자는 그리로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그 길로 걷는 자를 위하여 있을 것이며, 어리석은 자들은 거기서 서성거리지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포식하는 들짐승도 그리로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그런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을 것이며, 구속함을 얻은 사람들이 그곳을 걸어가게 된다.”(사 35:8,9)

위의 성서들에서 이렇게 세 가지 길(“넓은 길”, “좁은 길”, “대로”)에 우리의 주의를 이끈다.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이 길은 타락한 인류에게 가장 쉽기 때문에 넓은 길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6천년 전에 멸망되도록 정죄된 죄인으로서 아담은 (그리고 인류는 그 안에서 상징되었음) 이 길을 걷기 시작하여, 9백 30년 후에 그 길의 끝(멸망)에 달했다. 해와 세기가 지나감에 따라 타락의 길은 더욱 더욱 평탄하게 닳아 헤어져서, 인류는 더욱 재빨리 멸망으로 달려갔다. 그 길은 죄와 더불어 나날이 더 윤이 나고, 더욱 미끄럽고 미끈거리고 지고 있다. 그리고 그 길이 더욱 미끄러워지고 있을 뿐이 아니라, 인류는 나날이 저항력을 잃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간의 평균수명은 약 35세다. 지금 인간은 첫 사람보다 9 백년이나 빠르게 그 길의 끝(멸망)에 달하고 있다.

6천년 동안 인류는 넓은 타락의 길을 한결같이 쫓아갔다. 비교적 겨우 소수만이 그들의 행로를 바꾸고, 걸음을 다시 되돌려 회고하려고 노력한다. 어떤 사람의 이렇게 하려는 노력은 칭찬할만하고 유익한 결과가 없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모든 걸음을 다시 하거나, 본래의 완벽에 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6천년 동안 죄와 죽음이 인류를 잔인하게 지배하고,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몰았다. 그리고 복음시대 까지 멸망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전 시대에는 희망의 빛이 전형과 그림자 안에 희미하게 보여, 비록 한 소수만이 그 빛을 기쁘게 환호하여 맞고 좇아 행동했다 하더라도, 생명과 불멸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사도들이 구속과 죄의 용서와 더불어 일어나는 **멸망에서 부활**의 좋은 소식을 선언한 때까지 드러나지 않았다.(딤후 1:10)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은 **생명** -구세주의 공로와 희생에 근거한 모든 인류를 위한 생명으로 회복-을 드러내며, 이것이 많은 구약성경 전형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또한 복음교회에게 위로 부르심의 상인 **불멸**을 드러내고 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에서 달아나는 길이 좋은 소식을 통해서 밝혀졌다 하더라도, 죄로 타락되고 대적(마귀)이 인간의 판단력을 잃게 하였기 때문에 인류의 대다수는 좋은 소식에 유념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이 생존하게 되는 상태로 회복된다는 생명의 약속을 지금 감사하게 받아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려져 있고, 이 길을 따라서 헌신한 신자들이 가면 그들은 인간적인 본성 이상으로 더 높은 본성(영적 본성)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었다. 이 새로운 길을 우리 주님께서 왕 겸 제사장이라고 부르신 **“우리를 위해서 열어 주신 것입니다”(히 10:20)**

“좁은 길은 생명으로”

우리 주님께서서는 이 길의 좁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에 남아 있기를 차라리 좋아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좁아서 그것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적습니다.”(마 7:14)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 좁은 길과 그것의 위험과 어려움을 숙고하기 전에, 그것이 인도하는 끝인 생명을 유의해 봅시다. 이미 본바와 같이, 생명은 인간의 단계보다 낮을 뿐이 아니라, 높은 단계의 여러 가지 단계에서 누릴 수 있다. 생명은 넓고 포괄적인 용어이나, 여기서 우리의 주님께서 사용하신 생명은 신의 본성에 속하는 가장 높은 형태의 생명인 불멸에 관한 것이다. 불멸은 상이다. 그것을 위해서 달리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 하셨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우리자신 속에서 실감할 뿐이 아니라, 낮은 동물과 식물 속에서까지도 그들의 작용을 보며, 더 높은 형태인 천사와 신의 속에 생명의 실재를 알게 되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포괄적인 용어의 뜻을 밝힐 수 있을까?

우리는 모든 것 속에 있는 생명의 비밀의 원천을 발견할 수 없다 해도, 신의 존재인 여호와가 모든 생명의 대 원천이며, 그에게서 이 모든 샘들이 공급된다는 것

을 우리는 안전하게 추정할 수 있다. 모든 생물들은 그에게서 유래되며 생명을 위해서 그에게 의존한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이나 피조물에 있는 것이나 다 같다. 그것은 한 활기를 돋우는 본질이고 물질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내재하는** 본질이며, 피조물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원인에서 **유래한다**. 그러므로 그는 생명의 원인이시거나, 창조자이시거나 원천이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상상하듯이 피조물은 아무 점에서나 창조자의 본질이나 본성의 한 부분이나 자손이 아니라, 생명이 불어넣어진 하나님의 수공품이다.

신의 본성

신의 본성에서만 생명이 독립적이고, 무제한하고, 무진장하고, 언제나 연속적이며, 환경으로 생산되거나 지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므로, 당연히 여호와께서 그의 피조물의 생계를 위해서 그가 명하신 자연 법칙과 양식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오직 신의 본성에만 관계되는 이 특성이 **불멸**이라는 용어로 묘사되어 있다. 전 장에서 보여준 것 같이 **불멸**은 사망의 면제를 의미하며, 따라서 병과 고통의 면제를 의미한다. **불멸**은 **신성**과 동어로 사용할 수 있다. 마치 태양에서 지구가 빛과 활력을 받는 것 같이, 신의 불멸 원천에서 모든 생명, 축복, 각양 좋은 은사, 및 온전한 선물이 나온다.

태양은 지구에 빛을 주는 대 원천이다. 모든 것을 조명하여 햇빛이 비추는 물체의 본질에 따라서 빛의 색과 색조의 많은 다양성을 나게 한다. 금강석, 벽돌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유리에 비추는 그 같은 햇빛은 현저하게 다른 결과를 낳게 한다. 빛은 같으나, 그 빛이 비추는 물체들은 빛을 받아드리고 투과하는 능력에 있어서 다르다. 생명과도 그렇다. 생명은 모두 하나의 무진장한 원천에서 흘러나온다. 굴(oyster)은 생명을 가지고 있으나, 벽돌이 많은 햇빛을 반사 할 수 없듯이, 굴의 유기체의 본질은 많은 생명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있다. 생명의 더 높은 현시의 각각인 짐승, 물고기와 조류 가운데서도 그와 같다. 햇빛 아래 여러 가지 종류의 유리같이, 이 여러 가지 피조물은 그들의 유기체에 생명을 불어넣을 때 그들이 소유하는 유기체의 활력을 다르게 나타낸다.

신의 본성과 인간 본성과의 관계

광택 있는 금강석은 빛을 잘 적응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그 자체 내부에 빛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으며, 그 자체가 마치 소규모의 태양처럼 보인다. “천사보다 조금만 낮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 중에 하나인 사람도 그렇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생명을 받아드리고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웅대하게 창조되었고, 결코 희미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어떤 다른 지상의 피조물보다 더 웅대하였다. 이것은 심은 **생명력**에 있어서 어떤 차가 있어서가 아니라, 더 웅대한 **유기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강석은 햇빛이 비치는 때를 제외하고는 빛을 반사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생명의 공급이 계속될 때만 생명을 소유하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합시다. 인간은 고유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가 생명의 원천이 아닌 것은 금강석이 빛의 원천이 아닌 것과 같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무진장한 생명의 공급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는 가장 강한 증거들 중에 하나는 죄가 들어간 이래 죽음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전했다

는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이 에덴에서 생명을 지탱하는 나무들에 접근할 수 있게 준비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두신 그 낙원은 먹기에 좋고 보기에도 탐스러운 “모든 (종류의) 나무”가 풍부하게 공급될 것을 준비하셨다.(창 2:9,16,17) 먹기에 좋은 생명 나무들 중에 한 나무는 금지하셨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일시 금지하셨지만, 생명을 완전하게 지탱하는 나무들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게 그를 허락하셨다. 그리고 그는 범죄 후에만 그 나무들과 분리되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죽음의 처벌이 발효될 수 있었다.(창 3:22)

이렇게 인류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계속되는 생명 공급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마치 금강석의 미가 계속되는 햇빛 공급에 의존하는 것과 같다. 죄가 인간에게서 살 권리를 빼앗았고, 생명나무 공급이 회수되자 보석(인간)이 광택과 아름다움을 바로 잃기 시작하고, 마침내 살 권리는 그것의 마지막 자취를 무덤 속으로 빼앗긴다. 인간의 아름다움을 옷 좀 나방이 먹어치우듯 없애버린다.(시 39:11) 빛을 회수하면 금강석이 그것의 아름다움과 광택을 잃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서 공급을 회수하시면 인간은 생명을 잃는다. “땅의 사람이 숨(생명)을 거두면 그는 어디에 있겠습니까?”(욥 14:10)

“자기 아들들이 존중히 여김을 받아도 그는 알지 못하고,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욥 14:21) “네가 들어갈 곳인 무덤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전 9:10) 그러나 속죄물을 얻었고(욥 33:24), 그 구세주가 죽음의 처벌을 제공하였으므로, 보석의 아름다움이 회복하게 되고,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때에 다시 창조자의 형상을 완전하게 반영하게 된다.(말 4:2) 속죄제물인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것입니다.”(요 5:28) 만물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첫째 회복의 기회를 모두에게 줄 것이며, 구세주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인간 완벽의 달성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좁은 길의 최후에는 보답

그러나 이것은 좁은 길의 결과로 예수님이 언급하신 보답이 아니다. 다른 성서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다음과 같다: 좁은 길을 택하고 행하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보답은 고유의 생명, 오직 신의 본성만 소유할 수 있는 최상의 정도인 생명인 “신의 본성” 곧 불멸이다. 얼마나 대단한 희망인가! 감히 우리가 그러한 영광의 높이를 열망할 수 있을까? 명확하고 명백한 초청이 없이는 확실히 어느 누구도 정당히 이렇게 열망 할 수 없을 것이다.

디모데전서 6:14-16 에서 불멸의 본성이나 신의 본성은 원래 오직 신의 소유였다는 것을 우리는 배운다. 기록된바, “그가(예수님이) 그의 때에(천년시대) 복되시고 홀로 능하시며 왕 중의 왕이시며 주중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요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라는 것을 보이실 것이다”. 모든 다른 존재들, 천사, 인간, 짐승, 새, 물고기, 등은 각각의 생명의 한계를 담고 있는 그릇에 지나지 않으며, 특성, 용량과 질에 있어서 창조자께서 기뻐하신 대로 각각에게 주신 유기체에 따라서 모두가 다르다.

그 위에, 우리는 다음을 배운다: 원래, 다만 홀로 불멸을 소유하신 여호와께서 그의 아들 우리의 주님을 같은 신의 본성인 불멸의 본성으로, 지극히 높이셨다는 것과 그러므로 그는 지금 아버지의 존재 자체의 정확한 표상이라는 것이다.(히 1:3) 그래서 기록되기를, “아버지께서 그 자신 안에 내재하는 생명을 가지신 것처럼 그렇게 그는 아들에게도 그 자신 안에 내재하는 생명을 가지게 하셨습니다.”(요 5:26) **그 자신 안에 내재하는 생명**, 곧 다른 원천에서 끌어당기거나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내존 하는 생명은 “불멸”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이다. 그래서 주 예수님의 부활 이래로 두 존재가 불멸의 존재이다. 더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여! 똑같은 제공을 복음시대에 선택하고 있는 어린양의 신부에게 주신다. 그럼에도 이름뿐인 교인인 큰 무리의 모두가 이 위대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적은 무리”의 이기는 자들만이 받을 것이다. 이 적은 무리는 불멸을 얻도록 달음질치는 (고전 9:24)자들이고, 주님의 발자취를 친밀히 따르는 자들이며, 주님처럼 죽기까지라도 희생의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이다. 이들은 부활 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태어날 때, 신의 본성과 신의 형상을 가질 것이다. 이 불멸, 독립, 자존, 신의 본성은 좁은 길이 받도록 인도해주는 바로 그 생명이다.

이 계급은 무덤에서 인간의 존재로 일어나게 되어있지 않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육적인 몸을 무덤 속에 뿌렸을지라도, 영적인 몸으로 일으킴을 받는다는 것과(고전 15:44) 이 모두가 “변화” 될 것이라는 것과(고전 15:52) 그들이 한 때 인간 본성인 땅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지녀온 것 같이, 하늘에 속한 그의 형상을 지닐 것이라는 것(고전 15:49)을 보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적 몸이 무엇인지, 그러나 “언제든지 그가 나타나실 때에는,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요일 3:2) 그리고 “드러날 영광”에 함께 참여할 것이다.(골 1:27, 고후 4:17, 요 17:22, 뱀전 5:10, 살후 2:14)

위로 부르심은 복음시대에 한정됐음

본성의 변화를 받게 하기 위한 위로 부르심은 유일하게 복음시대에만 제한되어 있을 뿐이 아니라, 이 시대의 유일한 제공이다. 그러므로 이 장의 초두에서 인용한 우리 주님의 말씀(마 7:13,14)은 **지금 제공된** 유일한 상으로 인도하는 길에 있지 않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포함한다. 좁은 길에 있지 않은 모든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넓은 길에 있다. 오직 좁은 길을 걷는 이들만이 세상에 내린 정죄를 아직까지 면했다. 지금 열려있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유일한 길은 그 노정의 어려움 때문에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 극히 소수이다. 나약해진 인류의 대부분은 자기욕구충족의 넓고 쉬운 길을 더 좋아한다.

좁은 길은 생명, 불멸로 끝나지만, 그 길을 택함으로 받는 상이 죽기까지 인간 본성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죽음의 길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죽음과 같은** 좁은 길이다. 아담의 죄와 죽음의 처벌에서 해방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헌신한 사람들은 기약이 이르면 그들이 일반적으로 세상과 함께 실제로 받았을 그들의 간주된 인간 권리들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거나 **희생한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위해서 그의 목숨을 버리고 희생하신 것처럼 이들도 그와 함께 공동 희생자들이 된다. 그의 희생이 불충분하여 다른 사람들의 희생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의 희생이 아주 충분하지만 이들은 그의 신부 겸,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그와 더불어 봉사하고 희생하게 허락되

었다. 그래서 세상은 죽음의 정죄 아래 있고 아담과 **함께** 죽어가고 있지만, 이 “적은 무리”는 이미 설명한 믿음의 보답과 희생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와 **함께** 신의 본성과 영광의 참여자가 되기 위하여 인간의 존재로서 그와 **함께** 희생하고 죽는다. 만일 우리가 주와 **함께** 죽는다면 우리도 역시 확실히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당하면 우리도 역시 **함께** 하늘의 영광을 받을 것이라란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다.(딤후 2:11,12 그리고 롬 8:17)

천년시대 시초에, 지금 좁은 길에서 걷는 사람들은 그들이 받기 위해서 달린 그 위대한 상인 불멸함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신의 본성과 권세를 부여받았으므로, 그들은 그 시대에 세상을 회복하고 축복하는 위대한 일을 위해서 대비될 것이다. 복음시대의 끝맺음과 동시에 불멸로 인도하는 좁은 길은 끝날 것이다. 왜냐하면 좁은 길은 “적은 무리”를 시험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인데, “적은 무리”의 선택이 완결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받아들일 만한 (그리스어, **dekos** -고후 6:2) 때”, 즉 그 동안에 예수님의 공로 안에 들어오고, 그와 함께 죽게 되는(딤후 2:11) 희생자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때이다. 아담의 처벌에서 온 죽음은 영구히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 죽음은 천년시대에 전패될 것이다. **희생물**로 죽는 죽음은 오직 복음시대에만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보답될 것이다.

이 시대의 성도들이 생명을 얻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은 오직 “**새로운 피조물**”로서만 이다. 그리고 오직 인간 존재로서만 우리는 희생물로서 죽기까지 헌신한다. 만일 인간 피조물들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면, 새로운 존재인 영적 존재들로서 우리는 그와 함께 살 것이다.(롬 6:8)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곧 변화된 마음은 그 새 본성의 싹틈이다.

좁은 길의 어려움과 위험들

새로운 생명은 쉽게 질식될 수 있다.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확신하기를, 진리를 통해서 성령으로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산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우리의 생명을 잃음) 그러나 영으로 육체의 행위(인간 본성의 성벽)를 죽이면 우리는(새로운 피조물로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롬 8:13,14)고 했다. 이것이 모든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최고로 중요한 생각이다. 만일 우리가 인간 본성을 희생하기로 하나님과 서약하고, 만일 그 희생을 그가 받으셨다면, 그것을 취소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나님께 지금 죽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결코 되살아나지 않게 실제로 죽어야한다. 그러면 육체를 따라 살도록 되돌아감으로서 얻을 수 있는 전부는 그 새 영적 본성을 희생하여 얻어지는 약간의 육신의 만족이다.

그러나 **상**을 열망하고, 성령으로 태어난, 헌신한 사람들이 많이 세상의 유혹들, 육신의 욕망들이나 마귀의 술책 때문에 부분적으로 압도되어 있다. 그들은 우리 앞에 놓인 상을 부분적으로 잊고, 하나님의 총애와 세상의 총애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운데 길을 걸으려고 시도한다. 이것은 “세상과 벗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임”(약 4:4)과 상을 위해서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는 것과 서로 영광을 받아드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오는 영광만을 구하라(요일 2:15, 요 5:44)는 권고를 그들이 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상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전적으로 떠나지 않고 서약을 경히 여기는 이들은 채찍질과 연단으로 깨끗함을 받는다. 그 사도가 그것을 표현하듯이 그런 사람을 육체의 멸망을 위하여 사탄에게 넘겨주어, 영(새로 성령으로 태어난 본성)이 주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다.(고전 5:5) 그리고 만일 징계로 올바른 훈련을 받으면, 그 사람들은 마침내 영적 상태로 받아질 것이다. 그들은 천사들이 가진 것 같이, 영구한 영적 생존을 가질 것이나, 불멸의 상을 잃을 것이다. 그들은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그들의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다.(계 7:9-17) 그러나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일지라도 이기는 자의 “적은 무리”의 위치만큼 영광스럽지 않을 것이다. 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 겸 제사장이 될 것이며, 그의 신부로서 그와 함께 상속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며, 그와 함께 불멸의 왕관을 쓰게 될 것이다.

우리의 것은 험악하고 험준한 좁은 길이며, 여행의 각기 잇따른 걸음을 위해서 힘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의 말씀으로 격려된다. 용기를 내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권능은 약한 가운데서 완전해 지기 때문이다.(요 16:33, 고후 12:9) 이 길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을 신성하게 하고 순화하기 위해 하나의 분리하는 원칙으로서 역할 하게 된다.(롬 8:17, 벰전 2:9) 이 일들을 생각하여, 우리가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싸우며, “영광의 면류관”(불멸, 신의 본성)을 굳건히 잡으면서, 적절한 때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자비를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도록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가까이 가도록 합시다.(딤후 6:12, 딤후 4:8, 벰전 5:4, 히 4:16)

거룩한 대로

복음시대의 특별한 희망은 매우 뛰어나게 영광스러우면서도 그 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대응하게 어렵기 때문에 좁고, 한 걸음마다 고난과 위험에 에워싸여 있어서 소수만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 길의 여정 끝에 위대한 상을 받을 수 있지만, 다가오는 시대에 있는 일들의 새 질서는 완전히 다르다. 다른 희망이 약속되어있기 때문에 그 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다르다. 불멸로 인도하는 길은 어느 때 같으면 합법적이고 타당한 희망, 야망과 욕구의 희생(인간 본성의 영원한 희생)을 요구한 길이였다. 그러나 세상의 희망인 인간의 완벽과 회복으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죄를 버리는 것만을 요구하며, 인간의 권리와 특권의 희생을 요구하기보다는 그들의 적당한 즐거움을 누리게 한다. 그것은 개인의 청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 아담이 누리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으로 인도할 것이다.

실제로 인간의 완벽으로 돌아가는 길은 매우 분명하고 쉽다. 매우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길을 잘못 알 수 없다. 매우 분명하기 때문에 “그 길로 걷는 사람과 그 길에 생소한 그들이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사 35:8 - Leeser) 매우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이웃사람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알아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렘 31:34) 소수의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좁은 길인 대신에, 그 길을 공공의 도로, “대로”라고 부른다. 좁고, 가파르고, 험하고, 어렵고, 에워싸인 셋길이 아니라, **쉬운** 여행을 위해서 특별히 대비된 길이다. 여행자들의 편리와 편함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되었다. 이사야 35장의 8절과 9절은 그것이 공공의 길이며 구속함을 입은 자들 모두에게 열린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으니, 그 귀중한 피로 사신 기회와 축복들을 인정하고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거룩함의 대로에서 인간의 완벽과 영생과 완전 회복의 웅대한 목표에 이르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들은 의롭다고 인정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성하고 완벽하다고 간주된 신분으로 인정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이 거룩함의 대로에서 시작하였으면, 그들은 그 후 즉시 노력과 복종의 결과로 **실제의** 완벽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고, 그 때에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구세주가 모든 것을 노력하고 복종하기에 유리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새 왕국의 지혜롭고 완전한 행정이 각 개인을 그의 필요에 따라서 조력해 줄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든 생각이 나겠지만, 이것은 속죄물의 정당한 결과이다. 우리의 주님이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죄물로 주시고, 모두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로 실제의 완벽에 달하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훌륭하고 넓은 대로를 즉시 만들어 주시지 않는가? 왜 그가 그 걸림돌, 함정, 유혹을 제거하지 않는가? 왜 그 길을 찾기 어렵게 좁고, 험하고, 고통스러우며,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에 더 한층 어려운 길을 만드시는 대신에, 그가 죄인을 하나님과 완전한 조화로 돌아가게 돕지 아니하시는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함과 현재의 좁은 길은 특별한 상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 상속자의 적은 무리의 시험과 선택을 위한 것이라는 것과 몸은 선택되어 그들의 머리와 함께 극히 높여질 때 모든 민족을 축복할 것임을 깨닫지 못함이 그 주제가 어떤 사람들을 매우 혼동된 관념으로 이끌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거룩함의 대로(생명으로 인도하는 쉬운 길)를 지금 시대에 그러한 길은 존재도하지 않은 때 전도하려고 하며, 그들은 사실들과 성서를 그들의 틀린 논리와 맞게 하려고 문제를 혼동하고 타협한다.

곧 열리게 될 대로에서는 오직 죄 있는 것들만 금지될 것이다. 그런데 좁은 길을 통과하는 그들은 그 자신들을 부인하고, 오히려 죄들에 대비하여 계속 싸울 뿐이 아니라, 죄가 아닌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한다. 이것이 희생의 통로다. 이에 비해, 오는 시대의 통로는 의의 대로이다.

그 대로에 대해서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포식하는 들짐승도 그리로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그런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상징적인 언어로 의미 있게 진술 되어있다.(사 35:9) 죄 많은 길들을 기꺼이 버리고 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들의 길에 지금 얼마나 많은 무서운 사자들이 있는가! 타락된 여론의 사자가 있다. 이는 의복, 가정과 사업제도, 등 일상생활 관계의 일에 양심의 명령을 과감히 순종해 보려는 것에서 많은 사람을 단념하게 한다. 폭음으로 유혹하는 사자도 있다. 이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폭음이 제거되기를 기꺼이 생각하는 것을 방해한다. 금주가들과 절제 노력가들은 오직 다음 시대의 권능과 권세로서만이 제거할 수 있는 그들의 손에 있는 엄청나게 큰 임무를 지금 발견한다. 그리고 도덕상의 개혁을 하려

고 하는 다른 훌륭한 노력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포식하는 짐승도 그리로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뜻은 일반의 이익의 비용으로 이기적인 개인의 이익을 진척하기 위하여 조직된 거대한 주식회사들이 관용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나의 거룩한 산(오는 왕국) 모든 곳에서 해를 입히지도 파괴하지도 않을 것이다.”(사 11:9) 사악, 등의 성벽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지라도, 지금 이 시대의 좁은 길과 비교하면 그것은 아직도 쉬운 길일 것이다. 돌들(걸림돌)이 모두 치워질 것이며, 진리의 기준이 사람들을 위하여 높여질 것이다.(사 62:10) 무지함과 미신은 지나간 일이 될 것이다. 의로운 자는 당연한 보답을 받는다 하면, 악한 자는 당연한 응분의 벌을 받을 것이다.(말 3:15,18) 돌아온 방탕아처럼 인류는 건전한 징계와 알맞은 격려와 분명한 교훈으로 조상 아담이 타락한데서 장려한 완벽에 이르기까지 훈련과 단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며(멸망에서 거룩함의 장려한 대로로)노래와 영구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을 것이다. 그들은 환희와 기쁨을 얻을 것이며 비탄과 한숨은 달아나게 된다.”(사 35:10) 우리 주님은 이 길들 중에 오직 두 길에 대해서만 언급하셨다. 왜냐하면 셋째 길은 아직 열리기에 적합한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기쁜 소식을 알리실 때, “여러분이 방금 들은 이 성구가 오늘 성취되었다.”라고(눅 4:21) 그가 말씀하셨으나, 그 당시 적합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생략하여 언급하심과 같다.(눅 4:19과 사 61:2를 비교할 것) 그러나 지금 좁은 길이 종결에 가까이 이르고 있을 때, 장려한 의의 대로가 여명기의 빛 가운데 더욱 더 명료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우리가 발견한 것은 “넓은 길”이다. 즉 현재에 인류의 대부분이 “이 세상의 통치자” 때문에 미혹되고, 악용된 취미로 인도되어 그 길을 걷고 있다. 넓은 길이 열렸으며, 우리 인류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넓은 길에서 그 길의 무모한 진로를 시작하였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응하는 속죄물로 주시고, “넓은 길”이 인도하는 멸망에서 **모두**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거룩함의 대로”를 열게 되어있다. 거룩함의 대로는 그의 귀중한 피로 사신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모두가 특정한 때에 이용할 수 있으며, 걷기 쉬운 것이다. 그 위에, 같은 귀중한 피의 공로로 열린 현재의 “좁은 길”은 특별한 상으로 인도하는 특별한 길이며, 이 좁은 길은 **신의** 본성의 참여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축복을 위해서 곧 드러날 영광의 왕국에서 주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지금 선택하고 있는 그들을 위한 **시험**과 단련으로서 특별히 좁고 어려운 길로 만들어있다. 이 **희망**을 가진(이 상을 보는) 사람들은 모든 다른 희망을 비교적으로 손실과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빌 3:8-15)

연구 12

여러 시대에 관한 계획을 묘사하는 도표의 설명

- 여러 시대
- 수확
- 실제의 신분과 간주된 신분의 단계
- 우리 주 예수님의 진로
-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의 진로
- 이름뿐인 교회 안에 세 계급
- 수확의 분리
- 하늘의 영광을 받은 기름부음을 받은 계급
- 큰 환난의 계급
- 잡초는 태워버려짐
- 세상은 축복을 받음
- 결과는 영광스러움

여러 시대

이 책 뒤에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묘사하는 접힌 도표가 붙여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의 진보적인 성질과 인간본성에서 신의 본성으로 완전한 “변화”를 달성하게 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모두 마땅히 취해야 하는 진보적인 단계를 눈으로 익혀 이해하는데 도우려고 우리는 추구하였다.

첫째, 우리는 **A, B, C** 세 가지 대 경륜에 관한 개관을 고찰한다. 이들 중 첫 번째 경륜 **A**는 인간의 창조에서 노아 홍수 때까지 지속되고, 두 번째 경륜 **B**는 노아 홍수에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의 천년통치의 시작까지, 세 번째 경륜 **C**는 “지정된 때의 기한이 찼을 때에 있을 경륜”으로서, 그리스도의 통치의 시작부터 “다가오는 여러 시대”를 거쳐 지속된다.(엡 1:10; 2:7)

이 세 가지의 대 경륜은 성서에서 종종 언급되어 있다. **A**는 “있던 세상”이라고 부르고(벧후 3:6) **B**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라고 부르시고(요 12:31) 바울은 “현재 사악한 세상”(갈 1:4) 베드로는 “지금 있는 세상”이라고 각기 부른다.(벧후 3:7) **C**는 현재 사악한 세상과는 현저히 달라서, “거기에는 의가 깃들여 있을 오게 될 세상”이라고 부른다.(히 2:5; 벧후 3:13) 지금은 사악이 통치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 한편, 오게 될 세상에서는 이 질서가 반복될 것이다. 곧 의가 통치하고 악행자들이 고난을 받을 것이며, 마침내 모든 사악은 파멸될 것이다.

이 각 세 가지의 대 경륜(획기적 시대나 “세상”)들에 있어 인간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독특하고 분리된 윤곽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각기는 하나의 큰 계획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아서, 따로따로 고려되면 이 부분들이 그것들의 깊은 계획을 나타내지 못하지만, 완성되면 신의 지혜를 드러낼 것이다.

A는 첫 “세상” (“있던 세상” /첫째 대 경륜)

그 첫 “세상” (“하늘들과 땅” 이나 그 사태의 질서)이 노아 홍수 때 사라졌으므로,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사탄이 통치자라고 하신 “이 현재 사악한 세상” 과는 다른 질서였음이 틀림없으리라고 추정된다. 그러므로 이 현재 사악한 세상의 통치자가 노아 홍수 전에 영향이 없던 것은 아닐 지라도, 그는 노아 홍수전에 “있던 세상” 의 통치자가 아니었다. 몇 성서들은 그 시기에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빛을 던져주고 있으며, 그래서 그의 계획의 전모에 분명한 통찰력을 준다. 이 성서로 비추어 견해는 다음과 같다: 노아 홍수전의 첫 “세상” (첫 경륜)은 천사들의 지휘와 특별한 직무 아래 있었으며, 천사들로 하여금 영락하고 타락된 인류를 회복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을 해 보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다.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의 허락으로, 그들은 그것을 해 보기를 열망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관심이 피조물을 보고 노래하고 기뻐 외치는데서 명백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욥 38:7)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천사들이 그 첫 획기적 시대의 허락된 통치자들이었다는 것이 그 기간에 대한 모든 참조를 통해서 알 수 있을 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현재 경륜을 과거와 미래와 대비하면서 그가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히 2:5)고한 언급에서 그것을 합당하게 추단 할 수 있다. 아니다. 장차 오는 세상은 주 예수님과 그의 공동상속자의 지배 밑에 있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현재 사악한 세상” 의 것 보다 더 의로운 행정일 뿐이 아니라, “천사들의 직무” 밑에 있던 첫 세상(첫 경륜)의 것보다도 더 성공적일 것이다. 천사들이 인류를 개심시키기에 무능력함이 다음 사실로서 명백해졌다: 인간의 사악이 너무 커져서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와 의분으로 여덟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당시의 모든 인류를 홍수로 멸망케 하실 정도였다는 것.(창 7:13)

B는 “현재 사악한 세상” (둘째 대 경륜)

“현재 사악한 세상” 동안 인간이 스스로 통치해보게 묵인되어있다. 그러나 타락 때문에 인간은 “이 세상의 통치자” 인 사탄의 지배 밑에 있어서, 노아 홍수에서 현재까지 긴 기간 동안에, 그 사탄의 비밀한 간계와 술책에 대비하여 자치를 성취하려고 한 노력들이 허사가 되었다. 사탄의 지배 밑에 인간이 시도해본 통치는 세상에 일찍이 일어난 적이 없던 가장 큰 환난의 때에 끝나게 되어있다. 그래서 이같이 인류를 구하려는 천사들의 능력의 무익함뿐이 아니라, 만족한 상태에 도달하려는 인간 자신의 노력의 무익함이 증명될 것이다.

두 번째 대 경륜, B는 세 가지 독특한 시대(D,E,F)로 구성되어있다. 이 각각은 진보적인 단계로서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위로 향하고 앞으로 인도한다.

1. D는 “조상의 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특별히 관계하신 시대이다.

2. E는 “유대 시대” -야곱의 죽음 뒤에 오는 기간이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자손들을 그의 특별한 책임(“그의 백성”)으로 다루신 기간이다. 이들에게 그는 특별한 은혜를 나타내셨으며, “내가 땅의 모든 가족 중에 너희만 알았다(총애를 더불어 인정했다)” 라고 선언 하셨다.(암 3:2) 이들은 한 민족으로 그리스도 교회,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 성” 의 전형이었다.(벧전 2:9) 그들에게 하신 약속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더 나은 약속” 의 전형이었다. 광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땅까지 가는 그들의 여행은 우리가 죄의 광야를 통해서 하늘의 가나안까지 가는 여행의 전형이었다. 그들의 제사는 실체가 아니라, 전형적으로 그들을 의롭다 인정하였다.

이것은 솟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이다.(히 10:4) 그러나 복음시대, F에서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가 이루어지는 “더 나은 제물” (히 9:23)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는 “왕 겸 제사장” 이 있다. 이는 으뜸가는 지도자이시며 “우리가 선언하는 대제사장” (히 3:1)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자신들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드리는 모든 사람으로 구성되었다. 복음시대에 우리는 유대인 시대와 그 시대의 의식과 법적 요구들이 그림자였던 것의 실재를 발견한다.(히 10:1)

3. F는 “복음시대”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나오는 기간이며, 생명의 면류관과 그의 부르심과 조건에 순종함으로서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매우 위대하고 귀중한 약속들이 믿음으로 보이는 기간이다.(벧후 1:4) 사악은 아직도 세상을 통치(지배)하도록 묵인되고 있다. 그래서 사악에 접촉으로 그들로 하여금 시련을 겪게 하여 그들이 자발적으로 인간의 본성과 그것에 겸한 특권과 축복을 더불어 포기하고 그들이 부활할 때 주의 형상이 되기에 합당하다고 간주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죽음에 일치하고 있는 산 제물로 드리려는지 아닌지를 시험할 수 있기 위해서이다.(빌 3:10; 시 17:15)

C는 “다가 올 여러 시대” (셋째 대 경륜)

대 경륜 C는 많은 “다가 올 여러 시대” (G,H)로 구성 되어있다.

1. G는 “천년시대”, 이들 중 첫 번 것이다. 이 시대에 관해서만 우리가 어떤 명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유일한 시대이다. 그 기간은 일천년이다. 그 기간에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통치를 통하여 땅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며,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바 만유의 회복” (행 3:19-21)을 성취할 것이다. 그 시대에 죄와 죽음이 영구히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적을 그의 발아래 두실 때까지 왕으로 통치해야 합니다..... -맨 마지막 적으로서 죽음(아담의 죄로 온 죽음)이 없어질 것입니다.” (고전 15:25,26) 그 시대는 장려한 재건의 기간이다. 그 통치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그들은 그가 약속하신 바와 같이 교회, 그의 신부, 그의 몸일 것이다. 이르시기를, “이기는 사람은 마치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왕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좌에 앉게 하겠다.” (계 3:21)라고 하셨다.

2. H는 “다가 올 여러 시대” -장려한 재건의 기간 다음에 온다. 이 시대는 완전함과 축복과 행복의 시대가 된다. 이 시대의 일에 관해서는 성서들은 아무런 언급이 없다. 먼 시일을 앞둔 지금으로서는, 그 다가 올 여러 시대가 신의 은혜아래 영광과 축복의 시대일 것임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수확

각 경륜에는 각 경륜의 일의 시작과 발전을 위한 독특한 시기가 있으며, 각 경륜은 각 경륜의 결실을 나타내는 수확으로 끝난다. 유대인 시대 끝에 수확은 40년의 기간이었다. 예수님께서 A. D. 29에 하나님에게서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신 뒤 곧(행 10:37,38) 예수님의 성직에서 시작하여 A. D. 70에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 수확기간에 유대인 시대가 끝나고 복음시대가 시작 됐다. 접힌 도표 안에 표현되었듯이 이 경륜들은 겹친 데가 있다.

유대인 시대는 3년 반 동안 전도직무를 하신 끝에, 주님께서 “보시오! 당신들의 집이 당신들에게로 버린바 될 것이오.” 라고 말씀하시며 그 백성을 배척하셨을 때 끝났다.(마 23:38) 그러나 이 후, 그들에 대한 칠십 주(하루를 일 년으로 쳐서 -겔 4:6)의 총애에 관한 예언자의 선언(단 9:24-27)과 일치하여 복음소명을 3년 반 동안 그들에게 제한함으로서 그들에게 총애를 보여주었다. 그 칠십 주의 마지막 한 주의 절반(하루를 일 년으로 쳐서 -겔 4:6)이 지날 때에 메시아가 끊어질(죽을) 것이나,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고전 15:3)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주의 절반이 지날 때에- 유대인 총애의 칠십 주 계약의 만료 전 3년 반 때에- 제사와 예물을 그치게 한 것이다. 참 희생의 제물이 자기를 바칠 때 여호와께서 물론 전형의 것을 다시는 인정하실 수 없다.

그래서 철저한 의미에서 유대인 시대는 칠십 췌 주 끝(십자가의 수난 후 3년 반만)에 끝나고, 그 후에 복음이 고넬리우스(Cornelius)로 시작하여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도되었다.(행 10:45)

이것으로 유대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총애와 유대인 교회의 인정에 관한 한, 그들의 시대는 끝났다. 그들의 국가적인 존재는 그 후에 따른 큰 환난의 때에 끝났다.

그 유대인 시대의 수확기에 복음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시대의 계획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머리와 몸)를 부르시고, 발전시키고, 시험하시는 것이다. 이 시대는 영적 경륜이다. 그러므로 복음시대는 예수님이 침례 때 “성령과 권능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신 때부터 시작하였다는 것이 타당하다.(행 10:38; 눅 3:22; 4:1,18) 그의 몸인 교회에 관하여는 3년 반 후에 시작되었다.

“수확”은 복음시대를 끝내는 기간도 포함한다. 이 수확기에, 두 시대- 끝나 가는 복음시대와 시작하는 회복시대(천년시대)-의 겹침이 다시 있다. 복음시대는 모형적 표상(“그림자”)인 유대인 시대가 끝났을 때처럼 여러 단계로 끝난다. 유대인 시대 수확기의 첫 일곱 해가 육적 이스라엘에서 육적 이스라엘을 위한 일에 특별한 의미에서 바쳐지고, 그 일곱 해가 총애 시대였던 바와 같이, 복음시대 수확기에 복음 교회에도 같은 의의를 가진 것으로 지적된 유사한 칠 년이 있으며, 그 다음에 사악의 처벌과 의의 통치를 위한 예비로서 세상에 있는 환난(“불”) 기간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것에 관해 더 다시 설명함.

영광으로 이르는 길

실제의 신분과 간주된 신분의 단계

K, L, M, N, P, R, 각각은 다른 단계를 표시한다. N은 **완벽한 인간성**의 단계이다.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 이 단계에 있었다. 그러나 불순종의 순간부터 그는 타락한(죄 있는) R 단계로 떨어졌다. 그 단계에 그의 모든 후손들이 태어난다.

이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에 해당한다.

P는 율법의 동물제사로 발효된 전형적으로 의롭다고 간주된 단계이다. 그것은 실제적인 완벽함이 아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히 7:19)는 말씀 때문이다.

N은 완벽한 사람인 아담의 위치였던 인간 완벽의 단계뿐이 아니라, 의롭다고 간주된 사람들의 위치의 단계도 표시한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전 15:3) 그래서 그 결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 곧 그의 완전하고 완성된 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을(롬 3:26) 받아드리는 모든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마치 완벽한 인간처럼 마치 그들이 죄를 지어 본적이 없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간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속자로 받아드리는 모든 사람은 인간 완벽의 단계인 N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것으로만 인간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거나 그와 어떤 영적 친교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입장이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들(인간 아들들)이라고 부르신다. 따라서 아담은 한 아들이며(눅 3:38) 그가 불순종하기 전에 친교를 가졌다. 우리 주 예수님의 완성된 속죄물로 해방을 받아드리는 사람은 모두 원래의 순결로 회복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 함께 우정이나 친교를 갖는다.

복음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받은 인간에게 어떤 조건에서 본성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과 그들은 이 땅의 인간이 됨을 그치고, 그들의 구세주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의 영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시면서 특별한 제공을 하셨다. 어떤 신자들(의롭다고 인정된 사람들)은 그들의 죄의 용서함을 믿는데서 오는 기쁨과 평화로 만족해 있어, 더 높이 올라오라고 부르는 소리를 무시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속죄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되고 그들은 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고 느끼어(고전 6:19,20)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라고 말한다.(사도행전 9:6) 그러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해답이 있다. “**형제들이여**, 나는 하나님의 동정심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살아 있고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분별 있는 신성한 봉사입니다.”(롬 12:1)

우리 자신들을 산 제물로 바치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 까? 그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소유한 모든 능력과 재주를 하나님을 위한 봉사에 헌신하여 이제부터 우리는 자기나, 친구나, 가족이나, 세상이나, 그밖에 아무 것이든 탄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자신의 귀중한 피로 우리를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에게 순종하는 봉사를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흠이 있거나 불완전한 전형적 동물제사들을 받아드리시지 않으시며, 우리 모두는 아담을 통해서 죄인들인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의 제물이 될 수 있을까? 바울은 보여주기를, 그것은 오직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받으실 만한 희생의 제물이 된다고 한다. 우리는 죄를 알지 못했던 예수님 같이 거룩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죄된 인류이고, 우리가 행위의 완벽에 달하는데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목표인 완벽에 달하였다고 보지도 않고, 아직 완전

히 성공하지도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보물을 (깨지기 쉽고 새기 쉬운) 질그릇에 가지고 있으므로, 궁극적인 완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해줄 수 있다.(고후 4:7) 그러나 우리의 거룩함과 제물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함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친절하게 의롭다고 인정하신 사실에서 온다.

이 부르심을 감사히 여기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치욕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여김을 입은 것을 기뻐하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고후 4:18) 곧 “생명의 면류관”(계 2:10)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 생명의 면류관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위로 부르심의 상”(빌 3:14)이고 “나타나게 될 영광”(벧전 5:1)이다. 이들은 정결함을 받아 하나님께 바치는 순간부터 다시는 인간으로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낳았다고 간주된다. 곧 다시는 인간이 아니라, 그때부터 영적 자녀들로 여긴다. 그들은 지금 그들이 처음에 믿은 때보다 그 상(the prize)에 한 단계 더 가까워졌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 존재는 아직 불완전하다. 그들은 단지 영적으로 **태아** **일뿐**, 아직 성령으로 **낳지** **않** **았** **다**. 영적 태아, 즉 영적 유아들이다.

M 단계는 성령으로 잉태하는 단계이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므로 그들은 이제 인간이 아니라, 영적 존재로 간주한다. 이것은 한때 그들의 것이었지만, 일단 의롭다고 인정된 인간본성을 그들이 이제는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하며 받으신 산 제물로 쏟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낳은 것들(인간의 희망, 의지, 야망)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 졌다. “하나님의 영이 참으로 여러분 안에 머물면, 여러분은 육체가 아니라, 영과 조화를 이룹니다.”(고후 5:17; 롬 8:9) 만일 당신이 성령으로 태어나면 “여러분은(인간존재로서)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졌다.”(골 3:3)

L 단계는 영적 탄생, **완전한 영적** 존재의 상태를 표시한다. 그러나 **L 단계**에 이를 수 있기 전에 우리 서약의 조건들을 실행해야 한다. 우리가 모든 인간사에 대해서 죽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서약하는 것은 첫 단계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지상의 생애를 통하여 그 서약을 실행하는 것은 더 나아간 단계이다. 후자는 내가 내 “몸을 연달아 쳐서 순종케”(죽은 것으로)하고 우리 자신의 의지를 물리치며 오직 주님의 뜻만을 실행하는 것이다.(고전 9:27) **L 단계**에 입장함은 탄생(영적 존재로서 완전한 입장)이라고 부른다. 교회 전체는 “수확”때(복음시대의 끝)에 세상에서 거두어질(선택될) 때에 이 단계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 후,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몸을 가진 완전해진 영적 존재로 될 것이다. “이 죽음을 면할 수 없음이 불멸성을 입어야 하기 때문이다.”(살전 4:16, 고전 15:51,52,53) 그러면 온전한 것이 도래할 때, 부분적인 것은 그칠 것이다. 즉 우리가 지금 지배되어 있는 육체의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성령으로 잉태된 상태가 끝나고 영적 존재로 될 것이다. 그러나 영적 존재의 완벽을 넘어서 취하게 되는 아직 더 한가지의 단계, **K 단계**가 있다,

K 단계는 “나타날 영광”, 신의 영광과 지위의 권능을 표시한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권능과 지위의 영광을 우리가 언급한다. **L 단계**에 달함은 최고의 개인의 영광을 초래한다. 즉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완벽해지고, 완전히 우리의 주님과 머리가 되시는 그와 같이 된 후, 우리는 권능과 지위의 “영광” 안에서 그와 함께 연합하게 된다. 그때 우리는 그와 함께 그의 왕좌에 앉게 된다. 이것은 마치 그가 부활 때 완전하게 된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으로 높여진 것과 같다.(계 3:21; 히 1:3) 이렇게 우리는 영구한 영광인 **K 단계**에 들어갈 것이다.

이제 접힌 도표를 면밀하게 연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의 여러 가지 면모들의 삽화들을 주목해 보시다. 이 삽화들에서, 완벽을 표시하기 위하여 피라미드(Pyramid) 형태를 우리는 사용한다. 이것은 그것의 적절함과 성서에 그것의 분명한 참조가 있기 때문이다.

a 피라미드(완전한 형태)는 완벽한 존재였던 아담을 표시한다. 그것의 위치가 인간의 완벽을 표시하는 **N 단계**에 있는 것을 주목 해 보십시오.

b 피라미드(꼭대기가 없는 불완전한 형태)는 타락한 아담과 타락하고 죄 많고, 정죄된 그의 후세를 표시한다. 그래서 그것의 위치는 죄(완벽하지 않음, 타락)의 단계인 **R 단계**에 있다.

c 피라미드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우정을 맺도록 의롭다고 간주된 아브라함과 그 당시의 다른 사람들을 표시한다. 그것의 위치는 역시 **N 단계**에 있다. 아브라함은 타락한 인간 가족의 구성원이었으며, 날 때부터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R 단계**에 속하였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간주 곧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 때문에 죄 없는 완벽한 사람으로 여기셨다고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로 아브라함을 타락한 죄 많은 인간 세상보다 높이 **N 단계**로 올렸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그를 아담이 잃은 총애로 받아들이셨다. 즉 “벗”(약 2:23)으로서 하나님과 친교를 갖게 되었다. 완벽한(죄 없는) **N 단계**에 있는 모두는 하나님의 벗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벗이다. 그러나 **R 단계**에 있는 죄인들은 하나님과 적(“사악한 일을 통한 적”)이 된다.

d 형태는 노아 홍수 이후 세상의 인류를 표시한다. 그것의 위치는 여전히 **R 단계**에 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적이 되어있으며, 복음교회의 선택이 끝나고 천년시대가 시작될 때까지 **R 단계**에서 계속된다.

e 피라미드(꼭대기가 없는 불완전한 형태)는 한 국가로서 전형적으로 의롭다고 인정된 “육적 이스라엘”을 표시한다. 유대 시대에 숫소와 염소의 전형적인 제사가 그들을 깨끗하게— 실체가 아니고 전형적으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였기 때문에”(히 7:19)— 할 때, 이스라엘은 국가로서 전형적으로 의롭다고 인정되었다. 그러므로 그것의 위치는 전형적인 의롭다고 인정된 단계인 **P 단계**에 있다. 이 단계는 시나이(Sinai) 산에서 율법을 준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율법을 끝낼 때까지 지속된다. 전형적인 의로 인정됨은 유대인 전형의 제물보다 “더 나은 제물”의 설정으로 끝났다.(히 10:1) “더 나은 제물”은 “세상의 죄를 없애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실제로 완전하게 한다.”

f 형태는 유대인 수확기에 이스라엘의 환난의 날을 표시한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그들을 키질하셔, 이름뿐인 교회에서 밀 곧 “참 이스라엘 사람”을 모아 내오시고, 특별히 밀을 분리하신 후에 그가 “겨(그 체계의 찌꺼기 부분)를 끌 수 없는 불로 태울” 때, 육적 이스라엘이 경험한 시련의 불을 **f** 형태로 삽화를 넣었다. 그것은 그들이 피하기에 무력했던 환난의 날이었다.(눅 3:17, 21:22; 살전 2:16)

우리 주 예수님의 진로

g 피라미드는 나이 30세에 완벽하신 인간 예수님을 표시한다. 영적 상태의 영광을 떠나셔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후 나이 30세에 완벽하시고 성숙하신 인간 예수님을 표시한다. 하나님 율법의 공정은 절대적이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것이다. (신 19:21) 한 완벽한 사람이 인류를 위하여 죽어야 되는 것이 필요했다. 이것은 공정의 요구가 다른 길로는 충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천사의 죽음이 죄 값을 치르고 인간을 해방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죄를 온전히 제거할 수 없는 솥소와 염소의 죽음”(히 10:4,11)이 죄 값을 치르고 인간을 해방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계 3:14)이라고 불리는 그가 인류를 구속할 그 속죄물(대응하는 대가)로 주기 위하여 한 사람이 되었다. 곧 "육신이 되었다"

그는 한 완벽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았다면 타락된 인류의 한 일원이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가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거룩하고 악의가 없고 더럽혀지지 않았고 죄인들과 구별되었다.”(히 7:26) 그는 죄인들이 가진 같은 모양(“죄 많은 육체를 닮은 모양”) 곧 인간 닮음을 취했다.(롬 8:3; 빌 2:7) 그러나 그는 완벽한 상태에 있는 인간 닮음을 취했다. 그는 죄 있는 것을 닮거나 완벽하지 못함도 닮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전도직무 중 자발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을 나누셨을 때, 그의 활력과 건강과 힘을 그들에게 줌으로서 그들의 고통과 연약한 것을 취하신 일은 예외로 있었다. 기록된 바, “그는 친히 우리의 허약함을 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지셨다.”(마 8:17; 사 53:4) 거둬들이며, “효능(활력, 생기, 활기)이 그에게서 나와 모두를 낮게 하였다.”(막 5:30; 눅 6:19; 마 8:16)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계셨을 때 그는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빌 2:8) 그는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히 10:7; 시 40:7) 그리고 이 헌신을 침례로 상징화하였다. 그가 이렇게 친히 헌신한 그의 존재를 드릴 때 그의 희생의 제물이 거룩(순결)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들이실만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받아드리심을 그의 성령과 권능으로 그를 채우심으로서 나타내 주셨다. 그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그에게 기름부음이 되었다.

이 성령으로 채우심은 한 새로운 본성(신의 본성)으로 잉태된 것이었다. 이 새로운 본성은 본인이 제물로 바침(인간본성의 희생)을 완전히 성취했을 때 완전히 발전되거나 탄생되어야 된다.

h 피라미드는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표시한다. 이 새로운 본성으로 잉태됨은 인간 상태보다 한 단계 높았다. 그것의 위치는 성령으로 태어난 단계인 **M** 단계에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서 그가 인간존재로서 끝날 때까지 그의 생애의 3년 반을 이 단계에서 보내셨다.

i 피라미드는 완전한 영적 존재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표시한다. 3년 반을 **M** 단계에서 보내신 다음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영적 존재의 완성으로(**i**, **L** 단계) 일으킴을 받으셨다. 곧 성령으로 탄생하셨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처음 나신 분”이었다.(골 1:18) 그것의 위치는 완전한 영적 탄생의 단계인 **L** 단계에 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요 3:6)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 때와 부활 후에는 한 영이었다. 한 영적 존재이며, 어떤 점으로도 다시는 인간 존재가 아니다.

진실로, 부활 후 그는 나타나는 능력을 가졌고 그가 다시는 죽은 상태로 있지 않다는 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증명해 주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인간의 주위 상황으로 다시는 지배되지 않고 (문이 잠겼을 때도)바람과 같이 가고 오고 할 수 있으며, 아무도 그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습니다.”(요 3:8) 요한복음 20:19,26과 비교하십시오.

침례를 받을 때, 그가 희생하기로 헌신한 순간부터 그의 인간은 죽은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그 때에 새 본성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부활에서 완성되었다. 이때에 그는 완전한 영적 단계인 **L** 단계에 도달하였으며, 영적 몸으로 일으킴을 받으셨다.

K 단계는 신의 영광과 지위와 권능의 단계를 표시한다.

k 피라미드는 부활 후 40일 동안 그가 친히 살아있음을 보이시다가 높은데 계신 존엄하신 분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표시한다. 그것의 위치는 신의 영광의 **K** 단계에 있다.

l 피라미드는 복음시대에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아 계시며,”(계 3:21) 교회의 지도자이시며 안내자로서 그의 교회의 머리이신 영광의 존재이신 예수님을 표시한다. 이 전 복음시대에 교회는 발전, 훈련, 시험과정에 있다. 그 목적은 복음시대 종말(이 시대 수확기)에 교회가 그의 신부가 되고 공동 상속자가 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에서이다. 그러므로 적당한 때가 오면, 교회도 그와 함께(**K** 단계에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교회는 그의 고난도 함께 당해야 된다.(롬 8:17)

r 피라미드는 영광의 **K** 단계를 떠나서서 보다 낮은 영적 **L** 단계로 재림하신 예수님을 표시한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의 진로

영광으로 인도하는 교회의 단계들은 “우리에게 본을 세우셔서 우리도 그의 발자취를 따라 행하게 하신” 교회의 선도자이신 주님의 것과 같다. 오직 예외는 교회는 더 낮은 단계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우리 주님은 인간의 **완벽**의 **N** 단계에서 세상으로 탄생하시고, 아담의 자손인 우리 모두는 더 낮은 **R** 단계에 있다. 죄의 단계, 완벽치 못하고 하나님과 적이 되는 단계에 있다. 그래서 우리

에게 첫째로 필요한 것은 **의롭다고 인정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N 단계에 이른다.

어떻게 이것이 성취될까? 선행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아니다. 죄인들은 선행을 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추천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롬 5:8)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되거나 완벽한 인간의 단계로 이르게 되는 조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그의 피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타락되기 전에 위치했던 그 완벽의 단계로 우리를 올려주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되었다.(N 단계로 올려짐)”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결과로** 의롭다고 인정되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시다.”(롬 5:1)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적이 아니라, 아담과 우리 주님과 같은 단계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인간의 아들들로 간주하신다. 한 예외적인 것은 그들은 실제로 완벽하였지만, 우리는 다만 완벽하다고 간주되어 있다. 이 의롭다고 인정됨은 “너희는 값으로 산 바 되었고”, “구속되었으며” “모든 것으로부터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되었다.”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돌려준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을 입어,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점이 없으며 거룩한 상태에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처벌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지우신 것으로** 인정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마치 죄인인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결과로, 그의 의로움이 그의 구속을 받아드리는 자들 모두에게 **되돌려주게 된다**.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원래 소유하였던 모든 권리와 축복을 회복한다.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더 충만한 우정을 회복한다. 이 우정은 믿음을 실천함으로 즉시 가질 수 있고, 생명과 더 충만한 우정과 기쁨이 하나님의 “특정한 때”에 보증된다.

그러나 의롭다고 인정받음이 축복된 일이라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본성을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인간존재이다. 우리는 죄와 하나님에게서 이간된 그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되었다. 그래서 인간 죄인들이 되는 대신에 우리는 인간 아들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들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복음시대 안에 그는 “공동 상속자들”의 “적은 무리”를 불러내신다. “내 아들이야 네 마음을 내게 주어라.”(잠 23:26) 예수님이 내게 본을 세우신 것과 같이 네 자신, 네 모든 지상의 권세, 네 의지, 네 재능, 네 모두를 나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인간 단계보다 높은 단계의 아들로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하나님 존재의 정확한 표상”인(히 1:3) 부활하신 예수와 같이 한 영적 몸을 가진 영적 아들을 만들겠다. 만일 네가 모든 세속적인 희망, 야심, 목적, 등을 포기

▣ **본성**이란 단어는 한 사람에게 대해 그는 악한 본성을 가졌다고 말 할 때에 적용되는 의미에서 사용된다. 엄밀히 말해서 누구도 본래 악하지 않다. 인간본성은 “아주 좋은” 신의 본성의 한 **땅의 형상**이다.(창 1:31) 그래서 모든 사람은 좋은 본성의 소유자들이다. 어려움은 이 좋은 본성이 타락된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악하고 잔인하게 되는 것은 부자연한 것이고,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이 그에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 위의 **본성**이란 단어를 우리가 사용한 것은 그것의 첫째 의미이다. 우리 인간본성의 모든 특권과 축복(**지상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되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하고 인간본성을 완전히 헌신하고 인간본성을 내 봉사에 사용하면, 내가 너를 너의 나머지 인류보다 더 높은 본성을 주겠다. 내가 너를 “신의 본성의 참여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 -로 만들 것이다. 네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만일 네가 그와 함께 고난을 당한다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롬 8:17)

복음 가운데 그들 앞에 놓인 이 상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 상을 타기 위하여 기쁘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린다.(히 12:1)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됨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 주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될 수 있는 일을 모두 하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의 끝낸 일을 받아드릴 때에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되었다. 곧 **N 단계로** 올림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 만일 우리가 더 높이 올림을 받으려면, 의로운 행위가 없이는 그것을 달성할 수 없다. 진실로, 우리는 우리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의롭다고 인정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의롭다고 인정되어 있으며, 계속 믿음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를 받음으로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그것이 우리가 희생 제물 하나님과 서약을 맺었기 때문이다.(시 50:5)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큰 상을 감사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상을 위해서 인간에게 말고, 하나님께 바침으로서 표현하기를 요구하신다. 이것이 거룩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 제물이고, 우리의 분별 있는 신성한 봉사이다.(롬 12:1)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드릴 때 다음의 질문이 생긴다: 주님, 이 나의 희생, 시간, 재능, 영향, 등을 어떻게 드리기를 원하시나요? 그 다음에,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고찰하면, 우리는 그의 지시하시는 음성을 듣게 된다. 곧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으로 식구가 된 사람들에게 영적 양식이나 육신의 양식으로 섬기며, 우리의 능력에 따라, 그들의 필요에 따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의류나 육신의 의류로 그들에게 옷을 입힘으로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그에게 우리의 **모두**를 드리라는 음성을 듣게 된다. **모두**를 바쳤으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를 받고, **M 단계**에 달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 능력의 덕분으로 지금 만일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하면 우리는 우리 서약의 모두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귀중한 피로 우리를 사신 그의 권능이나 성령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자취를 걷고 있는 동안

“승리를 확보했다고 결코 생각지 말라,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앉지 말라.
당신의 힘 드는 일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는.”

면류관은 우리의 충실한 형제 바울과 같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 얻게 되고(딤후 4:7) 그보다 더 일찍 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때까지 노동하고 봉사하는 우리의 희생의 불꽃과 향이 매일 올라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희생이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 제물이다.

이기는 계급에 속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 존재로 **L** 단계에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 때까지 살아 남아있는 같은 계급의 사람들은 영적 존재와 같은 단계로 “변화”될 것이고, 질그릇 (육신)의 용해가 수반될 것이나, 한 순간도 “잠자지” 않을 것이다.(고전 15:51,52) 다시는 약하고 속세에 속한, 멸하게 될 수 있는 썩을 존재가 아닌 이들은 성령으로 완전히 태어날 것이다. 곧 하늘의, 영적, 썩지 아니할 불멸의 존재일 것이다.(고전 15:44,52)

그들의 “변화”후 곧 그들의 영적 존재들(**L** 단계)로 달성 후, 하나의 전부 찬 일단으로서 그들이 주님과 영광을 받고 (**K** 단계) 권능과 큰 영광 가운데 주님과 결합하기 전에 얼마나 걸릴지 우리는 모른다. 그리스도 전체의 몸이 머리와 결합하고 충만한 영광의 지위를 받게 되는 이것이 그의 신부와 “어린양의 혼인”이라고 우리는 이해한다. 그 때에 교회가 주님의 기쁨으로 완전히 동화 될 것이다.

이름뿐인 교회 안에 세 계급
접힌 도표를 다시 봅시다.

n, m, p, q는 네 가지의 별개의 계급이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주장하는 이름뿐인 복음시대 교회 전체를 결합적으로 표시한다.

n과 **m**계급은 둘 다 성령으로 잉태된 **M** 단계에 있다. 이 두 계급들은 복음시대를 통하여 함께 존재했다. 둘 다 살아있는 희생의 제물이 되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였다. 둘 다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들 사이에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n계급은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의 신부의 계급을 표시한다. 그들의 서약을 이행하고 속세의 뜻과 목적과 야망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들이다. 이 계급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영광중에 **K** 단계에서 주님과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을 이기는 자들로 이루어 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적은 무리”이다.(눅 12:32)

m계급은 성령으로 잉태된 큰 무리의 계급을 표시한다. 하나님과 서약하였으나, 슬프도다! 그들의 서약을 수행함에서 움츠리는, 성령으로 태어난 자녀들 중에 더 큰 일단이다. 이 계급은 인간 의지를 죽이기를 주저하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역경과 환난의 길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한 영적 단계인 **L** 단계로 올라오게 하신다.

그러나 **m**계급은 이긴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영광의 보좌의 **K** 단계로 갈 권리를 잃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존중하면, 만일 우리가 주님의 찬성을 원하면, 만일 우리가 그의 몸인 그의 신부의 구성원들이 되어 그의 보좌에 앉기를 열망한다면, 우리는 우리 희생의 서약을 충실히 그리고 자발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p 계급은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나 헌신하지 않은 이름뿐인 교회의 대부분을 표시한다. 그것의 위치는 **M** 단계가 아니라, **N** 단계에 있음을 주목하기 바란다. 그들은 의롭다고 인정되었으나 거룩하게 되지 않았다.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으며, 그러므로 영적 존재들로 잉태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로서 받아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보다 높은 단계에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시대에 가능한 위로 부르심을(빌 3:14) 받아드리지 않았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적 가족의 인원내 속하지 않는다. 만일 그들이 만유의 회복 때에(행 3:21) 계속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왕국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면, 그들은 마침내 완벽한 지상의 사람인 아담의 모습에 이를 것이다. 그들은 아담을 통하여 잃은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그들은 정신적, 도덕적, 육체적으로 같은 인간 완벽에 이를 것이며, 아담이 하나님 형상이었듯이, 다시 그의 형상이 될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이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들(p 계급)의 의롭다고 인정받은 N 단계의 위치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듣고 믿은 그들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일반 세상 사람들 보다 빨리 즐기는 특별한 축복의 위치이다. 모든 사람이 천년시대에 정확한 진리의 지식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른 시작을 하고 옳은 방향으로 어느 정도 앞서서 이익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p계급은 현시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됨의 참된 이익을 끝내 활용하는데 실패하고 만다. 어떤 사람들에게 받아드릴 만한 희생을 가능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들로 n계급이 되는 것을 가능케 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 참된 이익이 지금 부여되고 있다. p계급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롭다고 인정받음)를 “**헛되이**”(고후 6:1) 받는다. 그들은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희생을 받으실 만한 이 때(고후 6:2) 그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의 제물로 바치기 위해 은혜를 끝내 사용하지 않고 만다.

이 p계급의 사람들은 “성도들”도 아니고 헌신한 “몸”의 구성원들도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른다.(롬 12:1) 같은 의미에서, 전체의 인류는 회복되었을 때에 다른 본성의 것일지라도, 영구히 그리스도의 형제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어느 단계에서나 어느 본성의 것이나 그와 조화를 이루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시다.

q계급은 이름뿐인 교회에 관련된 계급으로서, 예수님을 죄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서 결코 믿지 않았으며, 따라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다. 곧 N 단계에 위치하지 않는다. N 단계 밑에 q구분으로 표시되어있다. 이들은 “양의 털을 쓴 이리들”(마 7:15)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자신들을 기독교도인 이라고 부르며, 이름뿐인 교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되어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속자로서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R 단계에 속한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한 부분이고 교회로는 부적절하며, 교회에 큰 해가된다. 여러 가지의 계급들, n, m, p, q로 혼합된 상태에서 함께 어울리며, 모두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교회가 복음시대를 통해서 존재했다. 우리 주님이 예언하신 바와 같이, 이름뿐인 하늘 왕국(이름뿐인 교회)은 밀과 잡초로 심은 밭과 같다. 이 시대 종말에 있는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두어라.” 수확기에 주님이 거두어드리는 사람들(“천사들” - 사자)에게 ‘먼저 잡초를 거두어 그것을 태우기 위하여 단으로 묶고, 그 다음 가서 밀을 나의 창고에 모아드리라’고 말하실 것이다.(마 13:30,38,41,49)

수확의 분리

우리 주님의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여 준다: 주님이 이 복음시대에 둘 다 함께 자라고, 둘 다가 이름뿐인 교회의 구성원들로 인정받을 것을

의도하셨지만, 그는 하나님께 승인 받고, 소유된 성도들(**n**)인 참된 교회의 구성원들이 드러나게 될 때(마 13:39) 이 다른 요소들 사이에 분리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도 의도하셨다.

복음시대에 좋은 씨가 자라고 잡초나 가짜의 씨도 자란다. “좋은 씨는 왕국의 아들들이다.” 곧 영적 자녀들인 **n**과 **m**계급이고, “잡초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마 13:38) 그러므로 **q**계급의 모두와 **p**계급의 많은 수는 “잡초”이다. 왜냐하면 “아무도 두 주인을 위하여 종노릇할 수 없고”(마 6:24)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자기를 종으로 그에게 순종한다면, 여러분이 그에게 순종하므로 그의 종”이기 때문이다.(롬 6:16) **p**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사신 주님께 그들의 정당한 봉사와 재능을 헌신하지 않음으로서, 의심할 여지없이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께 반대하여, 결과적으로 적을 봉사하는데 그들의 많은 시간과 재능을 주고 있다.

이제 접힌 도표에서 복음시대의 수확(복음시대의 끝)을 주목해 봅시다. 그것이 유대인 시대의 수확과 정확히 평행인 7년과 33년으로 나뉜 두 부분들을 주목합시다. 이 수확은 유대인의 그것과 같이, 시험하고 체질 하는 때가 교회에게 먼저 오고, 그 후 진노(“마지막 일곱 재앙”)를 이름뿐인 교회를 포함하여 세상에 쏟는 때가 있게 되어있다. 유대인 교회는 복음교회가 영적 단계에서 맛보는 모든 것의 육적 단계에서 “그림자”나 표상이었다. 유대인 시대의 수확기에 육적 이스라엘을 시험한 그것은 그 당시에 그들에게 준 진리였다. 그 당시에 마땅한 진리는 낮이었으며, 낮이 “참된 이스라엘 사람”을 이름뿐인 유대인의 교회에서 분리하였다. 참 밀의 수는 자칭자들에 비해서 오직 한 조각에 지나지 않았다. 이 시대의 수확도 그렇다. 복음시대의 수확은 유대인 시대의 그것과 같이, 거두어들이는 자의 수장이시고 그 때에는 임재하시게 되는 우리 주님 감독 아래 있다.(계 14:14) 이 시대의 수확에서 우리주님의 첫 일은 참을 거짓에서 분리하는 것이다.

이름뿐인 교회는 그의 혼합된 상태 때문에 주님께서 이를 “바빌론”(Babylon) 곧 혼동이라고 부르신다. 그리고 수확은 다른 계급들을 이름뿐인 교회가운데서 분리하는 시기이고, **n**계급에 속한 이들을 원숙하게 하고 온전케 하는 시기이다. 밀과 잡초가 분리되고, 익은 밀과 익지 않은 밀이 분리될 것이다. **n**계급에 속한 이들은 밀의 “첫 열매”이며, 분리된 후 적절한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영구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며, 주님 같이 될 것이다.

하늘의 영광을 받은 기름부음을 받은 계급

s형태는 바빌론에서 갈라져 나오는 적은 무리를 표시한다. 그는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고, 그의 이름을 지니고, 그의 영광을 함께 나누는 상의 목적을 향해 가는 도중에 있다.

w피라미드는 하늘의 영광을 받은 머리와 몸인 그리스도를 표시한다.

잡초는 태워버려짐

t, **u**, **v**형태들은 “우리 주의 날”에, “환난 기”에 무너지고 산산조각이 되고 있는 이름뿐인 교회인 바빌론을 표시한다. 이것이 두려운 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실제로 참된 밀에게는 크게 유리한 일이 될 것이다. 바빌론은 무너진다. 왜냐하면

그녀가 아무라고 주장하는 그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름뿐인 교회는 많은 위선자들을 포함한다. 위선자들이 세상의 눈에 명예로운 신분 때문에 스스로 자신들을 그녀와 관련하였고, 그들의 행위로 바빌론을 세상의 콧구멍에 악취로 만들고 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들 본래의 성격을 아셨다. 그러나 그의 목적에 따라서, 수확기까지 홀로 방치하신다. 이 수확기에 그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그의 왕국(참된 교회)에서 거두어 묶음으로 동여매서 이름뿐인 교회와 거짓을 선언하는 자에게 **파멸적인** 환난인 용광로에 던질 것이다.....그때에 의로운 사람들(n계급)은 그들의 아버지와 왕국에서 해와 같이 밝게 빛날 것입니다.”(마 13:41-43)

교회에 다가오는 환난은 대부분 배신과 여러 가지 종류의 강신술의 증가로 야기될 것이고, 바빌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많은 교리를 신봉하기 때문에 호된 시험이 될 것이다. 유대시대의 수확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광과 권능을 기대하고 있는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세상의 지혜를 가진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었던 바와 같이, 복음시대의 수확기에도 그것이 다시 걸림돌이 되고 거침이 되는 바위가 될 것이다.

큰 환난의 계급

그리스도 위에 진리의 금, 은, 보석과 그와 함께 일치하는 성질 이외에 다른 어떠한 것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누구든지 진노(“불”)의 때에 심하게 괴로움을 받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교리와 실행의 모든 나무나 풀이나 짚은 타버릴 것이기 때문이다.(고전 3:12-15)

s형태는 올바르게 집을 세우고, 따라서 찬성을 받은 인격을 소유하는 자들을 표시한다.

t형태는 최고의 상을 받지 못하는 “큰 무리”를 표시한다. 성령으로 거듭났으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세웠다. 밀이지만 첫 열매(**s**)를 모으는 기간에 충분히 익지 않았다. 그들(**t**)은 왕좌와 신의 본성의 상을 잃게 되나 최후로, 신의 본성보다는 한 지위 낮은 영적 존재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들은 진실로 헌신하였지만 세속적 정신으로 정복되어, 그들의 평생을 희생에 끝내 바치지 못한다. “수확” 기간에도 살아있는 신부의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진리**로 분리되고 있는 동안, 이 계급 **t**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의 귀들은 듣기에 둔할 것이다. 그들은 분리기간에 믿기에 느리고 행동하기에도 느릴 것이다. 신부가 완성되어 주님께 결합되었다는 것과 그들이 무관심하고 세상일에 지나치게 편중된 일에 짓눌려 위대한 상을 잃었다는 것을 후에 깨달을 때 그들은 의심할 바 없이 크게 실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과 세상 인류 모두를 위한 사랑이라는 그 계획의 아름다움을 그들이 그 때에 식별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슬픔을 완전히 이겨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외칠 것이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우리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함께 기뻐하고 기쁨에 넘쳐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어린양의 결혼 날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준비를 마쳤기 때문이다.”(계 19:6,7) 주님의 풍부한 예비를 역시 유의합시다. 그들이 받은 전갈은, “네가 어린양의 신부가 아닐지라도, 결혼 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 어린양의 결혼 만찬에 초대된 사람들은 행복하다.”(계 19:9)

이 일단의 큰 무리들은 적절한 때에 주님의 징계를 통해서 그와 그의 계획에 완전히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며, 그들의 겉옷을 씻어서 그들이 마침내 신부 다음의 위치에 달할 수 있을 것이다. 영적 L 단계에 y로 표시되어있다.(계 7:14,15)

세상은 축복을 받음

세상에 미칠 환난의 날은 바빌론이 무너지고 분쇄하기 시작한 후에 있을 것이다. 세상의 환난은 모든 인간 사회와 정부들을 무너뜨리고, 의의 통치를 위하여 세상을 예비할 것이다. 이 환난의 때에 이방 사람들의 온전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버려두신(롬 11:25) 육적 이스라엘(e)은 하나님의 총애로 회복되고, 복음교회인 영적 이스라엘이 완성되고, 하늘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천년시대에 이스라엘은 지상 존재의 단계에서 모든 존재의 선두에 서서 지휘하는 국가가 되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과 더불어 점차 하나가 되고 조화 되도록 이끌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회복뿐이 아니라, 그들(모든 사람과 육적 이스라엘)의 완벽한 인간본성의 회복은 점진적인 일일 것이며, 그것의 완전한 성취를 위해서 온 천년시대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동안에, 아담의 죽음의 결과들이 점진적으로 삼켜지거나 소멸될 것이다. 그것의 여러 단계들- 무덤뿐이 아니라, 병, 고통, 연약함- 은 그 시대의 끝에, 우리의 접힌 도표의 대 피라미드가 완성될 때까지 위대하신 회복자의 권능에 순종할 것이다. 아버지 다음 그리스도(x)는 모든 것들- 큰 무리, 천사들, 인간들- 의 머리가 될 것이다. 순서나 계층에 있어서, 그 다음은 영적 존재인 큰 무리(y)이고, 그 다음에 천사들, 그 다음에 지상 국민의 선두에 서게 되는 참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포함하는 육적 이스라엘(z), 그 다음에 죄를 짓기 전에 아담 곧 인류의 머리와 같은 완벽한 존재로 회복된 인간세상(W)이다. 이 회복은 천년시대- “만유의 회복의 때”- 에 점진적으로 성취될 것이다.(행 3:21)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백성들 가운데서 멸망할 것이다.(행 3:23) 이들은 첫째, 충분한 빛의 영향을 받는 기회에 100년 동안 올바르게 되고 완전해지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모두.(사 65:20) 둘째, 완벽을 위하여 진보했으나 천년시대 끝에 마지막 시험에서 불성실함이 입증된 사람들.(계 20:9) 그러한 사람들은 부활이나 회복의 약속이 다시없는 둘째 사망을 당한다. 그러나 충분한 개인적인 재판은 개인마다 한번은 예비 되어있다. 그러나 속죄물은 한번만 주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다시 죽지 아니하신다.(롬 6:9)

결과는 영광스러움

교회를 높이고, 그 높임을 받은 교회를 통해서 만유의 회복 때에 이스라엘과 지상의 모든 가족을 축복하기 위한(행 3:21)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때, 천사들의 노래가 생각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선의를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눅 2:14)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일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였다고 말하겠는가?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되게 지배하시지 않았거나 사람과 악마의 격노가 그를 찬미하도록 하시지 않았다고 말하겠는가?

피라미드 형태는 완벽한 존재들을 예증하는데 알맞을 뿐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가 됨을 표시하는 예증에도 알맞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가 됨이 곧 하나님

의 계획의 완성이다. 그 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뿐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지도자의 지위 밑에 모든 것의 조화와 완벽이 달성되고 **하나**가 될 것이다.(엡 1:10)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단지 시작된 이 웅대한 구조의 “시작”, “머리”, “머릿돌”, “우두머리(위의) 모퉁잇돌” 이었다. 그리고 그 머릿돌의 모든 선과 각도에 조화되게 각 밑의 돌마다 쌓아 올려야 한다. 아무리 많은 종류의 돌들이 이 구조에 있다 해도, 땅과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에 아무리 많은 별개의 본성이 있다 해도 그가 영원히 받으실 만 하게 되기 위하여 그들은 모두 그의 아들의 형상같이 되어야 한다.

이 건축물에 속하게 될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과 그와 그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사랑(예수님 안에서 상세히 예증된)하는 정신의 영을 받아야 한다. 사랑은 율법의 성취이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영혼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눅 10:27)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을 한 머리 밑에 하나로 함께 모으는 것을 개설하듯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첫째로 선택되었고, 둘째로 그의 몸인 교회가 선택되었다. 천사들과 다른 영적 계급들이 다음의 계층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훌륭한 인물들이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다. 가장 높은 계급에서 시작해서 모두가 조화되고 하나가 될 **때까지**의 순서가 진행될 것이다.

하나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이 시험받은 우두머리, 모퉁이 머릿돌이 먼저 놓인다는 것과 이 모퉁이 머릿돌을 **기초**의 돌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의로움에 대한 모든 희망의 기초는 땅위가 아니라, 하늘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예증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아래 쌓아 올려가며, 이 하늘의 기초와 연합된 그들은 하늘의 견인과 율법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이 순서가 땅의 건축물과 정 반대일지라도, 그 돌의 형태로 전 구조가 발견되게 되는 그 돌이 맨 먼저 놓여 져야 하는 것이 얼마나 적합한가. 그리고 우리의 기초가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으로** 놓여 있으며, 우리가 산 돌들로서 “모든 일에서 그에게까지 **쌓아올려지는**” 것이 얼마나 적합한가. 이렇게 천년시대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본성마다, 각 피조물마다 완전한 순종의 규율에 따라, 하나님께 찬미하고 봉사하게 될 때까지 일은 진보할 것이다. 그 때에는 우주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 날에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영혼은 누구든지 백성 가운데서 멸망될 것”(둘째 사망)이기 때문이다.(행 3:22,23)

광야에 친 천막

시대의 접힌 도표에서 보여준 같은 교훈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전형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 전형의 교훈은 뒤에 더 충분히 검토할 것이다. 이미 자세히 검토한 같은 단계들을 가르치는 것 같이, 지성소를 향해 가는 다른 단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전형을 나란히 놓았다. 천막의 뜰의 외부에는 타락된 R 단계에 위치하는 죄로 물든 전 세상 사람들이 놓여있다. “문”을 통해서 “뜰”로 들어가면, 우리는 N 단계에 위치하는 믿는 사람들이나 **의롭다고 인정된** 사람들이 된다. 헌신하는 마음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천막의 문으로 가까이 가서, 들어가면(M 단계) 제사장들이 된다. 그들은 “뺑”으로 힘을 돋고, “금 촛대”에서 비취는 하나님 말씀들을 가르침 받아 “금 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을 드리는 것을 가능케 한다. 마침내 첫째 부활에서 그들은 완전한 영적 상태 곧 L 단계에 위치하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에 K 단계에 위치하는 하늘 나라의 영광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게 된다.

축복된 희망

“조금 있으면 땅의 싸움이 끝날 것이다,
조금 있으면 그의 눈물이 닦여질 것이다,
조금 있으면, 여호와와 권능이
이 어두움을 천년의 날로 바꿀 것이다.

“조금 있으면, 지금 인간을 압도하는 사악은
지나간 추억에 속할 것이다,
조금 있으면 그들을 한때 구속한 사랑이
그들의 울음이 감사하는 노래로 변할 것이다.

“조금 있으면! 그것은 언제나 더 가까워진다.
그 영광스러운 날의 더 밝는 여명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라, 빛이 시간마다 더욱 투명해진다,
완전한 날에 이르기까지 점점 밝아진다.

연구 13

이 세상 왕국들

- 첫 지배권
- 첫 지배권의 상실
- 첫 지배권의 되찾음과 회복
- 전형적인 하나님의 왕국
- 그 찬탈자
- 현재 지배권의 두 면
- 현존하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 권세에 대한 느부갓네살(Nebuchadnezzar)의 견해
- 권세에 대한 다니엘의 견해와 해석
- 다른 관점에서 본 이 세상 왕국들
- 현 정부들에 대한 교회의 올바른 관계
- 왕들의 신의 권한, 간단히 검토했음
- 기독교계의 주장은 거짓
- 다섯째 전 세계의 제국에서 보다 좋은 희망

첫 지배권

신의 계시의 제 1장에 하나님께서 그의 땅의 피조물과 그것의 통치권에 관하여 그의 목적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그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길짐승을 복종하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기 시작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는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복종시켜라.”(창1:26-28)

이렇게 땅의 지배권은 첫 사람 아담 안에서 대표되어 있는 인류의 손에 맡겨두었다. 아담은 완전하였다. 따라서 땅의 주인이나, 땅의 지배자나, 땅의 왕이 되기에 충분히 자격이 있었다. 번성하고, 땅을 가득 채우고, 정복하고, 땅에 지배권을 가지라고 하신 이 위임은 아담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준 것이었다. “**그들로 하여금 지배권을 갖게 하자.**” 등.(창 1:26) 만일 인류가 완벽한 채로 죄 없이 남아 있었다면, 이 지배권은 인류의 손에서 결코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위임에 있어서, 같은 인간에 대한 지배권이나 권력은 아무에게도 주지 않고 공동이익을 위해 땅을 경작하고 땅의 산물들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땅의 지배권을 모든 인류에게 준 것이 유의될 것이다. 땅의 식물과 광물의 자원을 인간의 지배권에 두었을 뿐이 아니라, 동물의 모든 종류도 역시 인류로 하여금 처분하게 하고,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게 맡겨두었다. 만일 인류가 완벽한 채로 남아 있고, 창조자의

본래의 계획을 수행하였다면, 수가 증대함에 따라 인간들이 함께 의논하고, 그들의 노력을 조직화하고, 공동의 축복의 공정하고 사려있는 분배를 위한 방법과 수단들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때가 경과함에 따라, 그들의 막대한 수 때문에 함께 만나고 의논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공통적 감정을 발현하고, 그들을 대표해서 행하기 위하여 여러 계급의 사람들이 그들을 대표하는 특정한 사람을 그들 가운데서 선거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을 것이다. 만일 모든 사람이 정신적, 육체적, 도덕적으로 완벽하며 각자 모두가 하나님과 그의 규정을 지고로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그러한 제도 하에 있어서 불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알게 된 것은 지상의 정부를 위한 창조자의 최초의 계획은 조직에 있어서 공화국이었던 것. 이 정부안에서 각 개인이 공동 부담하고, 각자 모두는 그들과 일반의 이익을 위해서 그의 직무의 의무를 행사하기에 모든 점에서 널리 자격이 있는 군주일 것이다.

사람에게 준 지상의 이 지배권은 지배권의 영구한 지속이 좌우되는 단 한 가지 조건을 가졌다. 그 조건은 신이 주신 통치권은 항상 만물의 최고 통치자의 한 가지 율법과 조화되어 행사된다는 것. 그의 한 가지 율법은 간단히 말해서 사랑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영혼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롬 13:10, 마 22:37-40)

첫 지배권의 상실

인간에게 베풀어진 이 큰 총애에 관하여 다윗(David)이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말하기를, “당신은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영화로 면류관을 씌우셨으니, 당신의 손으로 이루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어 모든 것을 그의 발아래 두셨습니다.”(시 8:5,6) 아담이란 사람 안에서 인류에게 준 이 지배권이 지상에 하나님 왕국의 첫 번째의 설립이었다. 사람이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이렇게 지배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최고의 통치자에게 대한 사람의 불순종은 그의 생명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상의 대표적인 통치자로서 그의 모든 권리와 특권도 상실했다. 그 때부터 그는 반역자이고, 지배권을 상실 당하고, 죽음의 판결을 받았다. 그 때에 신속히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은 끝났으며, 그 이래 한 전형적인 방식으로 이스라엘에서 짧은 기간 동안 외에는 하나님의 왕국은 설립되지 않았다. 에덴에서 비록 사람이 그의 살 권리와 지배권을 잃었을지라도, 어느 것도 그에게서 갑자기 빼앗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정죄된 생명이 지속하는 동안, 정통의 권리를 가진 주님이 그가 산 지배권을 획득하는 하나님의 적절한때까지, 인간은 그 자신의 생각과 능력에 따라서 지상의 지배권을 행사하도록 허용되었다.

첫 지배권의 되찾음과 회복

우리 주님의 죽음은 사람뿐이 아니라, 지상의 지배권까지 포함하여 그의 모든 최초의 상속도 되찾았다. 그것을 속죄물로 샀으므로 권리증은 지금 주님 안에 있다. 그는 지금 정통의 권리를 가진 상속자이며 적절한 때에, 머지않아 그는 그의 속죄물로 산 소유를 획득할 것이다.(엡 1:14) 그러나 그가 사람을 산 것은 사람을 그의 노예로 붙들어 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이전 상태로 회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상의 지배권과도 그렇다. 주님은 지배권과 모든 사람의 최초의 축복을 속죄물로 샀다. 그 목적은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어 지상의 지배권과 축복을 행사하는 능력이 있게 될 때, 그것들을 인간에게 반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메시아의 통치는 영구한 것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그의 강한 쇠 지팡이의 통치로 그가 모든 반란과 반항을 억누르고, 타락된 인류를 최초의 완벽으로 회복하여, 그들이 최초에 계획했던 대로 충분히 지상의 지배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능력이 있게 될 때까지만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회복되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지정된 대행자인 사람 아래 다시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이다.

전형적인 하나님의 왕국

유대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재판관들 아래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나라로 조직하셨다. 그것은 일종의 공화국이나, 단지 전형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그 후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 통치 하에 설치된 더욱 독재적인 통치는 어떤 점에서 메시아가 통치하는 때 약속하신 왕국의 전형적인 것이었다. 주위의 나라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셨고, 그들의 통치자들은 시편 78:70,71에서 우리가 배우는 바와 같이, 명목상으로 그의 밑에서 봉사하였다. 이것은 역대하 13:8과 역대상 29:23에 매우 명확히 기록되었다. 여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부르고, 솔로몬은 “그의 부친 다윗에 이어 하나님의 왕좌에 앉았다”라고 말하였다. 다윗은 첫 왕인 사울에 이어 앞서 40년 간 같은 왕좌에 앉아 통치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 왕국을 완전히 제거하실 때까지 그들을 되풀이하여 징계하셨다. 다윗의 혈통으로 군림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Zedekiah)때에 왕권의 홀이 제거되었다. 거기서 전형적인 하나님의 왕국이 타도되었다.

그 사건에 관한 하나님의 결정은 말씀으로 표현되었다. “너의 불경스러운 이스라엘의 악한 왕아, 부정행위가 종말을 고할 너의 날이 이르렀으니, 주권자인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왕권을 제거하고, 왕관을 벗겨라. 이것이 그대로 있지 않을 것이다.....내가 그것을 파괴하고, 파괴하겠다. 또한 이것에 관해 말하자면, 그것은 정통의 권리를 가진 자가 올 때까지 결코 누구의 것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오면 내가 반드시 그것을 그에게 주겠다.”(겔 21:25-27) 이 예언의 실현에 있어서 바빌론의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백성들을 사로 잡아가고, 그들의 왕을 제거하였다.

이 후에 페르시아의 시루스(Cyrus)가 국가의 존재를 회복시켰지만 그들은 그들의 국가의 마지막 파멸 때인 서력 70년까지 그 잇따른 제국인 메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게 피지배자였고 공물을 바치는 자들이었다. 서력 70년 이래 그 민족은 세상 모든 국가에 산재되었다.

이스라엘 왕국은 붕괴된 이래, 어느 점에서나 하나님의 정부, 법, 등을 대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본적이 있는 유일의 왕국이다. 이스라엘 왕국 이전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으나 다른 나라는 아무도 하나님을 설립자로나, 다른 나라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대표자라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면류관을 시드기야(Zedekiah)에서 벗기고, 이스라엘 왕국이 전복되었을 때에 그것은 세상의 정통

상속자인 그리스도가 그것을 요구하러 올 때까지 전복된 채 남아있을 것이라고 선포되었다. 따라서 추론적으로 정권을 잡은 모든 다른 왕국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재설립될 때까지 “이 세상의 통치자”(요 12:31, 14:30, 16:11)아래 “이 세상 왕국들”이라고 낙인이 찍혀져 있다. 그러므로 이들 중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제안하는 주장은 가짜이다. 이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첫 강림 때에도 “세워지지” 않았다.(눅 19:12) 첫 강림 때와 그 이래 하나님께서는 세대에서 그 왕좌의 공동 상속자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기에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그들을 선택하시는 중이다. 그의 재림 때야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왕국과 권세와 영광을 받고, 만유의 주로서 통치하실 것이다.

그 찬탈자

이스라엘 왕국 이외의 다른 모든 왕국들은 성서적으로 미개인이나 이방인들로서 “이 세상의 통치자”(사탄)밑에 있는 “이 세상 왕국들”이라고 부른다. 시드기야(Zedekiah) 통치 때에 하나님 왕국의 제거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승인하실 수 있거나, 그가 율법이나 국사를 특별히 감독하신 정부 없이 남겨두었다. 정치공백기간에 예루살렘과 세상의 지배를 이방인의 정부가 행사할 것이라는 선고를(눅 21:24) 공언하신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정부를 간접적으로 인정하셨다.

하나님의 왕권과 정부를 제거한 때와 이 제거된 왕권과 정부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 큰 힘이 있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회복기간 사이에 낀 시기인 이 정치공백기간은 성서적으로 “이방인의 때”(눅 21:24)라고 칭한다. 그리고 이 동안에 “이 세상 왕국들”이 통치하도록 허용된 이 “때”나 시대는 확정되고 한정되었으며, 메시아 아래 하나님 왕국의 복구의 시기도 또 성서에 확정되고 명시되어있다.

이 이방인의 정부들이 아무리 악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은 한 지혜로운 목적을 위하여 허용되거나 “하나님이 지위에 놓으셨다”(롬 13:1) 그들의 불완전과 실정은 죄의 매우 죄스러움에 대한 일반적 교훈의 한 부분을 형성하며, 타락된 인간이 그 자신조차 만족하도록 스스로 다스리기에 무능함을 증명한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때에만 그들을 제압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 자신들의 목적들을 수행하도록 허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유익을 위하여 모두를 협력하게 하시고(롬 8:28) 마침내 “사람의 격노가 주를 찬미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계획하신다. 유익을 가져오지 않거나 소용에 닿지 않거나 교훈을 주지 않는 그 남은 격노는 주께서 금하신다.(시 76:10)

완전한 정부를 설립하기 위한 인간의 무능은 그의 타락되고 사악한 상태 속에 그 자신의 약점에 기인된다. 완전한 정부를 만들어내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좌절시킬 이 약점들은 처음에 사람을 최고의 통치자에게 불충하도록 유혹한 사탄에게서도 역시 이용당했다. 사탄은 계속적으로 인간의 약점들을 이용했으며, 선을 악으로 보이게 하고 악을 선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을 잘못 전하였으며, 인간을 진리에 대해 눈이 멀게 하였다. 이렇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작용하면서(엡 2:2) 사탄은 그들을 그의 뜻대로 사로잡았으며, 우리 주님과 사도들이 그를 일컫는 바와 같이, 그 자신이 이 세상의 통치자나 지배자가 되었다.(요 14:30, 12:31) 그는 정당하게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된 것이 아니라, 협잡과 속임과 타락된 인간들의 지배를 통해서 찬탈로 이룩한 것이다. 그가 찬탈자이기 때문에 그는

즉석에서 폐하여질 것이다. 만일 그가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 참된 권리를 가졌더라면 그는 이렇게 처리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지배권의 두 면

현재 행사되고 있는 바와 같이, 지상의 지배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면과 눈에 보이는 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전자는 영적 면이고, 후자는 인간의 면으로서 뚜렷이 영적 통치자인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눈에 보이는 지상의 왕국들이다. 사탄이 그러한 지배를 소유하기 때문에 그가 우리 주님에게 그의 지휘 아래 지상 최고로 보이는 주권자로 만들 것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였다.(마 4:9) 이방인의 때가 만료할 때에 현재 지배권의 두 가지의 면들은 끝날 것이다. 사탄은 묶일 것이며 이 세상 왕국들은 전복될 것이다.

타락되고, 눈이 멀고, 신음하는 피조물은 수세기 동안 매 걸음마다 패배되고 그의 최선의 노력까지도 무익함을 증명하였으나, 그의 철학자들이 꿈꾼 황금시대가 바로 가까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대하면서 그의 따분한 길을 꾸준히 걸었다. 신음하는 피조물은 그것이 구원을 기대하고 신음하는 그 구원보다 아직 더 큰 구원이 멸시받은 나사렛 사람(예수)과 신음하는 피조물의 구원을 위하여 머지않아 왕국 권세 중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나타나게 될 그의 추종자들을 통해서 오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롬 8:22,19)

현존하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현재 사악한 정부를 허용하심에 관하여, 그리고 이 왕국들이 목적을 위하여 허용된 그 목적을 하나님의 지배하는 섭리 아래 섬기게 되면, 더 좋은 정부를 소개하시려는 그의 궁극적 계획에 관하여, 그의 자녀들이 어둠 속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 왕국들”의 여러 광대한 전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실 때마다, 우리의 격려를 위하여 평화의 왕인 메시아 밑에 그의 의롭고 영원한 왕국을 설립함으로써 이 세상 왕국들이 전복됨을 보여 주셨다.

통치권을 행사하려는 인간의 현재의 노력은 여호와의 뜻과 권세의 성공적인 무시가 아니라, 여호와의 허용 때문이라는 것이 느부갓네살(Nebuchadnezzar)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갈에서 보인다. 그 전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 대제국들(바빌론, 메도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을 그리스도의 왕국의 설립 때까지 통치하도록 허용하신다.(단 2:37-43) 이것은 그 지배의 이 계약기간이 어디서 끝날 것인가를 보여준다.

지금 우리가 이 예언적인 견해들을 언뜻 볼 때, 예언적인 견해들은 주님의 전형적인 왕국인 이스라엘 왕국이 전복될 때에 바빌론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상기합시다.

땅의 정부들에 관한 느부갓네살(Nebuchadnezzar)의 환상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전에 기록된” 것들 중에 현존하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명을 받은 우리가 성서의 인내와 위안을 통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롬 15:4,

13:1) 느부갓네살의 꿈과 예언자를 통한 꿈의 신의 해석이다.(단 2:31-45)

권세에 대한 느부갓네살(Nebuchadnezzar)의 견해

다니엘은 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왕이여, 왕이 한 큰 형상을 보셨습니다. 그 형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비상하며 그 모양이 몹시 무시무시하였습니다. 그 형상에 관하여 말하면, 머리는 좋은 금이고 가슴과 팔들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구리이고 그 다리는 철이요 그 발의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또 왕이 계속 보고 계시는데, 마침내 돌 하나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잘려져 나와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부서 뜨렸습니다.”(단 2:31-34)

“그 때에 철과 진흙과 구리와 은과 금이 다 함께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었고, 바람이 그것들을 휩쓸어가니 그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가득 채웠습니다.”(단 2:35)

권세에 대한 다니엘의 견해와 해석

“이것이 그 꿈인데, 우리가 이제 왕께 그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왕들의 왕이신 당신에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국과 위력과 힘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다시 그는 인간의 아들들이 살고 있는 어디서든지, 들짐승과 하늘의 날개 달린 생물들을 당신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을 그 모든 것의 통치자로 삼으셨으니, 당신이 바로 금으로 된 머리입니다.”(단 2:36-38)

“당신 뒤에는 당신보다 못한(은)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구리로 된 다른 왕국 곧 세 번째 왕국이 일어나 온 땅을 통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왕국에 관해 말하면, 그것은 철 같이 강하게 될 것입니다. 철은 다른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뺏아 버리는 것이니, 산산조각을 내는 철 같이 그 왕국은 이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산산조각을 낼 것입니다. 그 발과 발가락이 일부는 진흙이고 일부는 철인 것을 보신 것처럼 그 왕국은 분열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철의 단단함이 어느 정도 그 속에 있게 될 것인데, 철이 진흙과 섞인 것을 당신이 보신대로입니다. 그리고 발가락의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이니, 그 왕국이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부서지기 쉬운 것이니 드러날 것입니다.”(단 2:39-42)

역사학도는 과거에 나타난 지상의 많은 보다 작은 제국들 가운데 다니엘이 묘사한 위의 넷의 제국을 쉽사리 추적할 수 있다. 이들은 전 인류의 제국이라고 부른다. 첫째로, 바빌론, 금으로 된 머리(38절). 둘째로, 메디아-페르시아, 바빌론의 정복자이며 가슴과 팔들이 은. 셋째로, 그리스, 메디아-페르시아의 정복자이며, 배와 넓적다리는 구리. 넷째로, 로마, 강한 나라이며 그 다리는 철이고, 철과 진흙이 섞인 발이었다. 이 제국들 중 셋은 이미 끝났으며 넷째 로마제국은 성경에 기록된바와 같이, 우리 주님의 탄생 때에 만국을 식권하였다. “그 무렵,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Caesar Augustus) 사람이 거주하는 **온 땅에** 포고령을 내려 등록하게 하였다.”(눅 2:1)

철 제국인 로마는 단연 가장 강하며, 그의 앞선 제국들보다 더 오래 지속되었다. 사실 로마 제국은 유럽의 국가들 안에 대표로서 아직 계속하고 있다. 이 분할은 그 형상의 열 발가락들 안에서 표시되어있다.

발에 철과 섞인 진흙의 요소는 교회와 국가의 혼합을 표시한다. 이 혼합은 성서에서 “바빌론”, 즉 혼동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곧 알 수 있듯이, **돌**은 참된 하나님 왕국의 상징인데 바빌론이 돌의 모조인 진흙을 대용했다. 진흙은 로마제국(철)의 파편의 나머지와 연합했다. 그리고 교회와 국가가 혼합된 이 조직 곧 이 세상 왕국들과 결혼한 이름뿐인 교회는 주님이 바빌론(혼동)이라고 부르심 자체를 기독교계 곧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추정한다. 다니엘이 설명하기를, “철이 진흙과 섞인 것을 당신이 보신 것처럼 그들은 인간의 자손과 섞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달라붙지 않을 것인데, 철이 진흙과 섞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 왕들의 날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파멸되지 않을 한 왕국을 세우실 것인데,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로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왕국을 부서뜨리고 멸할 것이며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단 2:43,44)

다니엘은 여기에서 이 이방인 정부들의 끝맺는 때를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곳에서 우리는 발견한다. 모든 예언된 사건은 오늘날 끝이 문에까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지시한다. 로마 교황 조직이 오래 주장해오기를, 교황 조직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왕국이며, 교황 조직이 이 예언을 이행하여 모든 다른 왕국들을 산산조각으로 부셨으며 소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이름뿐인 교회는 진흙이 철과 섞인 것 같이 오직 땅의 제국과 연합한 것이었으며, 로마 교황 조직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오직 가짜 하나님의 왕국이었다.

로마 교황 조직이 이 땅의 제국들을 쳐서 부스러뜨리지 않았다는 가장 좋은 증거들 중에 하나는 그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진흙이 마르고 “부서지기 쉽게” 되었으므로 그것은 그의 접착성의 효력을 잃고 있으며, 철과 진흙이 붕괴의 표시를 보인다. 그래서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왕국인 그 “돌”이 쳐서 부서뜨릴 때 속히 무너질 것이다.

다니엘의 해석을 계속하면, 그는 말하기를, “산에서 돌 하나가 손에 의하지 않고 잘려져 나와 철과 구리와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당신이 보신 바와 같습니다. 위대한 하나님께서 이 후에 일어날 일을 왕께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꿈은 믿을 만하고 그 해석은 신뢰할 만합니다.”(단 2:45)

산에서 손에 의하지 않고 잘려 나와 이방인의 권세를 쳐서 흩어버리는 그 돌은 하나님의 왕국인 참된 교회를 상징한다. 복음시대에 이 “돌” 왕국이 인간의 손으로가 아니라, 진리의 힘이나 성령 곧 여호와와 보이지 않는 권능으로 돌의 미래의 위치와 위대함을 위해서 형성되고 있으며, “잘려져 나오고”, 조각되고 있으며, 형체를 짓고 있다. 그 돌이 완성될(완전히 잘려져 나올) 때, 그것이 이 세상 왕국들을 치고 분쇄할 것이다. 백성들이 아니라, 정부들이 형상으로 상징되어있으며, 백성들이 구원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들이 분쇄하게 되어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생명을 멸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셨다.(요 3:17)

돌이 예비동안에 잘려 나오고 있는 동안, 그 돌을 미래에 완성될 산에 비추어 초기의 산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때로 그렇게 부른다. 그러나 실제로 그 돌은 그것이 그 형상을 쳐서 부서뜨리기 전에는 산이 되지 않는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가 완전한 의미에 있어서 온

땅위에 널리 퍼지는 왕국이 되게 되는 때는 “하나님의 날”, “전 인류에 임한 진노의 날”, “환난의 때”가 끝나고, 왕국이 설립되고, 모든 다른 지배권들이 왕국에 복종하게 될 때이다.

그리스도 교회의 이기는 자에게 주신 우리주님의 약속을 이제 상기해 봅시다. “이기는 사람은 마치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왕좌에 앉은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좌에 앉게 하겠다.” “이기고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러면 그가 사람들을 쇠 지팡이로 다스릴 것이며, 그들은 질그릇과 같이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과 같다.”(계 3:21, 2:26,27, 시 2:8-12) 그 쇠 지팡이로 분쇄의 일을 성취하였을 때, 처 부순 그 손은 회복하는 손으로 바뀌질 것이고,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그는 그들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사 19:22, 렘 3:22,23, 호 6:1, 14:4, 사 2:3) 그들에게 재 대신 머리쓰개를, 애통 대신에 환희의 기름을, 낙담한 영 대신 찬양의 망토를 주게 하셨다.(사 61:3)

지상의 정부들에 관한 다니엘의 환상

느부갓네살의 환상 안에, 우리는 지상의 제국들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영광과 웅대함과 세력의 전시라고 본다. 그래도 금에서 철과 진흙으로 저하되는 속에 나타난 것과 같이, 그 환상 안에 그들의 부패와 마지막 파괴의 암시도 본다.

참된 교회가 세상에서 선택되고(돌 계급이 산에서 끄집어 나오고) 있는 동안, 돌 계급은 세상 사람들에게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참된 교회는 사람에게 업신여김과 버림을 받았다. 사람들은 참된 교인 속 안에 보기에 흠모할만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다.(사 53:3,2) 이 거대한 형상에서 상징된 통치자들과 정부들이 세상을 계속적으로 실망시키고, 속이고, 상처를 입히고 압박하였지만, 세상은 그들을 좋아하고, 감복하고, 칭찬하고 옹호한다. 세상은 산문과 시 가운데 이 형상의 위대하고 성공한 대행자들, 알렉산더, 씨저, 보나파르트(Alexanders, Caesars, Bonapartes)기타를 격찬한다. 이들의 위대함은 동포들을 학살함에서 나타났으며, 이들은 권세의 욕망에서 수백만의 고아와 과부를 만들어내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여전히 이 형상의 “열 발가락”에 나타나고 있는 정신이다. 이 정신이 “현존하는 권세”의 명령에 서로 학살하기 위하여 현대 재능의 모든 극악한 장치로 무장한 1천 2백만 이상의 정렬된 군대가 전시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본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세움을 받는다.”(말 3:15) 그렇다면 돌로 침으로서 이 거대한 형상의 분쇄와 하나님 왕국의 설립은 압박을 받는 자를 해방하는 것을 뜻하고, 모두의 축복을 뜻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겠는가? 그 변화가 잠시 재난과 환난을 일으킬 자라도 그것은 의의 평화를 이루는 열매를 마침내 맺을 것이다.

그러나 관점의 차를 상기하면서, 은총을 크게 받은 예언자 다니엘에게 준 환상 가운데 묘사된 대로, 지상의 같은 4 제국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관찰하고, 그와 조화를 이루는 4 제국들을 관찰해 봅시다. 우리에게 이 왕국들이 불명예스럽고 짐승 같이 보이듯이, 하나님에게도 이 4 제국들은 4개의 거대하고 몹시 굶주린 야수들처럼 보였다. 그의 견해로는 오는 하나님의 왕국(돌)은 느부갓네살이 본 것보다 비례적으로 더 장려하였다. 다니엘이 말하기를, “내가 밤에 환상 중에 보고 있었는데, 보라! 하늘 사방의 바람이 광대한 바다를 요동케 하였다. 그러자 거대한 짐승 넷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저마다 서로 달랐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었다..... 그리고 보라! 다른 짐승 곧 두 번째 짐승은 곧 곰 같았다..... 이 후에 내가 계속 보고 있는데, 보라!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은 것이 나왔다..... 이 후에 내가 밤의 환상 중에 계속 보고 있는데, 보라! 네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두려움을 갖게 하고 무시무시하고 유달리 강하였다. 또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삼키고 부서뜨리며, 남은 것을 발로 짓밟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이전의 모든 짐승과 달랐으며, 열 뿔을 가지고 있다.”(단 7:2-7)

모두가 상징적인 그들의 머리들, 발들, 날개들, 등과 더불어 첫 세 짐승들(바빌론 사자, 메디아-페르시아 곰, 그리스 표범)에 관한 세부는 네 번째 짐승, 로마의 세부들 보다 우리 현재의 고찰에 있어서 덜 중요함으로 우리는 생략한다. 네 번째 짐승, 로마에 대해서 다니엘은 말하기를, “이 후에 내가 밤의 환상 중에 계속 보고 있는데, 보라! 네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두려움을 갖게 하고 무시무시하고 유달리 강하였다. 또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그 뿔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보라! 다른 뿔 곧 작은 것이 그 뿔들 가운데서 돋아나더니, 먼저 있던 뿔들 가운데 세 개가 그 앞에서 뽑혔다. 그리고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과장된 것들을 말하는 입이 있었다.”(단 7:7,8)

여기에서 로마 제국을 보여준다. 그의 권세의 분할이 열 뿔 가운데서 보인다. 뿔은 권세의 상징이다. 다른 작은 뿔이 그 뿔들 가운데서 돋아나더니 먼저 있던 뿔들 가운데 세 개를 뿌리까지 뽑고, 다른 뿔들을 지배하는데, 그 작은 뿔은 로마 교회인 황제의 뿔(권세)의 작은 시초이며, 점차적인 향상을 상징한다. 그 작은 뿔이 권세가 증대할 때, 작은 뿔을 민권(뿔)으로 설립하기 위해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분할들(권세들, 뿔들) 중 3개 곧 로마제국의 세뿔(3 권세)인 헤후리, 동방 엑사르케이트, 오스트리고스(the Heruli, the Eastern Exarchate and the Ostrogoths)가 잡아 뽑혔다. 이 마지막 특별히 현저한 뿔(황제)은 지성을 상징하는 그의 눈과 그의 입(그의 과장된 말/ 그의 주장들) 등이 놀랄만하다.(단 7:8)

로마를 상징하는 이 네 번째 짐승에게 다니엘은 기술적인 이름을 주지 않고 있다. 다른 것들은 사자 같다, 곰 같다, 표범 같다고 묘사 하고있는데 반하여, 넷째 것은 아주 사납고 무시무시하여, 지상의 아무 짐승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었다. 같은 상징적인 짐승(정부)을 환상에서 보면서 계시록의 저자 요한도 역시 그것을 묘사하는 이름을 짓기에 난처해하였으며, 결국 그것에게 여러 가지 이름을 준다. 다른 것들 중에 그는 그것을 “마귀”(계 12:9)라고 부른다. 그는 확실히 적절한 이름을 선택하였다. 왜냐하면 그의 피나는 박해에 비추어 볼 때, 로마는 확실히 모든 지상의 정부들 중 가장 악마 같기 때문이었다. 이교도 로마에서 로마 교황으로 변화에 있어서도 그것은 사탄의 주요한 특질들 중에 하나를 예증한다. 왜냐하면 로마가 자체

를 이교에서 바꾸어, 기독교도(그리스도의 왕국)▣라고 주장하였듯이, 사탄 자신도 빛의 천사로 변장하기 때문이다.(고후 11:14)

이 마지막 짐승인 로마 짐승, 특히 이 짐승의 독특한 빨인 교황 빨에 관하여, 약간의 상술을 준 후에 예언자는 진술하기를, 이 빨에 대비해서 심판이 선고될 것이며, 그 빨은 그 **짐승**이 파멸될 때까지 점차적인 과정으로 **소실될** 빨의 지배력을 잃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짐승 곧 로마 제국은 그것의 빨들(분할들)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하늘의 통치자의 직권을 인정하기 위한 준비로서 태반의 사람들의 반란과 “주의 날”에 정부의 전복으로 살해당할 것이다. 이것이 아직 검토될 다른 성서에서 분명히 보인다. 그러나 교황 빨의 **소실**이 맨 처음 온다. 그의 권세와 영향은 나폴레옹이 교황을 프랑스에 감금했을 때에 소실하기 시작하였다. 그 다음에 교황에 대한 저주나, 그들의 기도들이 보나파르트(Bonaparte)의 권세에서 그들을 구해주지 않았을 때, 교황이 주장했던 신의 권능과 권세가 근거가 없다는 것이 여러 나라에게 명백해 졌다. 그 이후에 교황의 정치적 권력은 1870년 9월에 빅토르 임마누엘(Victor Emmanuel)의 손에서 그의 정치적 권력의 마지막 자취를 잃을 때까지 빠르게 쇠퇴해졌다.

그런데도 그 빨이 “소실”되고 있는 동안 그간 줄곧, 그것은 불경의 과장된 말들을 계속 토해내고 있었으며, 그것의 마지막 큰 언설은 1870년에 그것이 전복되기 오직 몇 달 전 교황의 **절대 무류**를 선언할 때에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예언에 기록되어 있다. “**그 때에**(즉, 이 ‘빨’에 대비한 포고령 **후에**, 그의 소진이 시작한 후에) 그 빨이 말하는 과장된 말소리 때문에 나는 계속 보고 있었다.”(단 7:11)

이렇게 역사상 우리는 우리의 시대로 내려왔으며, 땅의 제국들에 관한 한 기대될 일은 그들의 전적인 파멸이라는 것을 보게 해 주었다. 순서를 따라 있을 다음의 일은 그 말씀으로 묘사되어있다: “나는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멸하여져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을 때까지 보았다.”(단 7:11의 마지막 반) 짐승 자체뿐이 아니라, 죽이는 것과 타는 것은 상징들이며, 현재 정부의 전적이고 가망 없는 분쇄를 의미한다. 12절에 예언자는 이 네 째 짐승의 끝맺음과 그의 앞서 있던 세 짐승들의 끝맺음 사이에 차이를 유의한다. 그 셋은(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잇따라 그 **통치권**을 빼앗기고, 지상의 통치권 유지는 끝났으나, 나라로서 그것들의 생명은 즉시로 끝나지 않았다. 그리스와 페르시아는 여러 세기 훨씬 전에 전 세계의 지배권을 그들의 손에서 빼앗겼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짐승들 중에 네 째이며 마지막인 로마제국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통치권과 생명을 즉시 잃고, 전적으로 파멸될 것이다. 그와 더불어 다른 제국들도 역시 소멸될 것이다. (단 2:35)

이용된 방법이나 수단이 무엇이던지 간에, 이 붕괴의 **원인**은 통치권을 받을 권리

▣ 로마를 “마귀”라고 부르는 사실은 결코 **개인의** 마귀를 논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알려진 특질을 가진 그러한 사자들, 곰들, 표범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부들을 그들에 비유했다. 그래서 알려진 특질을 가진 마귀도 있기 때문에 그 네 째 제국을 마귀에 비유했다.

를 가진 자인 그리스도 밑에 하나님의 왕국인 지상의 다섯 번 째로 전 세계의 제국의 설립일 것이다. 네 째 짐승의 지정된 때가 “하나님에 의해 정해졌음”으로, 네 째 짐승에서 다섯 째 왕국의 지정된 시절이 올 때, 메시아 밑에 다섯 째 왕국의 전속은 예언자가 이 말씀 가운데에 묘사했다. “내가 밤의 환상 중에 계속 보고 있는데, 보라! 하늘의 구름과 함께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오고 있었다. 그는 옛날부터 계신 분에게 나아가게 되었으며, 그들은 그를 그 앞으로 가까이 데리고 갔다. 그러자 그에게 통치권과 위엄과 왕국이 주어져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들이 모두 그를 섬기게 하였다. 그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고 한정 없이 지속될 통치권이며, 그의 왕국은 파멸되지 않을 왕국이다.”(단 7:13,14)

이것을 천사가 다음과 같이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왕국과 통치권과 온 하늘 아래 있는 왕국들의 웅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자들인 백성에게 주어졌다. 그들의 왕국은 지속될 왕국이며, 모든 나라들은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순종할 것이다.”(단 7:13,14,27)

지상의 통치권은 “모든 것을 그의 발아래 복종시키시는”(고전 15:27)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계신 분”) 그리스도의 손에 놓게 되어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 위에 즉위되면 그는 그가 여호와의 뜻과 법과 불일치하는 모든 권능과 권세를 복종시킬 때까지 통치하여야 한다. 이 큰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이방인 정부들의 전복이 첫째로 필요하다. “이 세상의 통치자”와 같이 “이 세상의 왕국들”은 평화롭게 항복하지 않을 것임으로, 묶여야하며 강제로 감금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있다. “그 왕들에게 고랑을, 그 영광 받는 자들에게 철 족쇄를 채우며 그들에게 판결을 기록된 대로 집행하게 하여라. 그러한 영화는 그의 모든 충성스러운 자들의 것이로다.”(시 149:8,9)

우리가 이렇게 현재의 정부들을 우리 주님과 예언자 다니엘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그들의 사납고 파멸적이며, 잔인하고 이기적인 특질을 인식할 때, 우리 마음은 이방인 정부들의 종말을 열망하며,, 현시대의 이기는 사람들이 신음하는 피조물을 통치하고 축복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그의 머리와 함께 즉위될 그 축복된 때를 즐거움으로 기다린다. 틀림없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주님과 함께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십시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형상 안에서, 그리고 짐승들로 상징된 이 각 정부들은 전 세계의 제국으로 권세를 얻기 전에 존재하였다. 하나님의 참된 왕국도 역시 그렇다. 하나님의 참된 왕국은 세상에서 분리되어, 통치자의 위치를 뺏고자 하지 않고, 그것의 때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면서 오래 존재했다. 그리고 다른 제국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왕국은 지정을 받아야 하며, 그것의 앞선 왕국(짐승)을 쳐서 부서뜨리고, 파멸하는데 그의 권세를 발동할 수 있기 전에 권세가 “세워지게” 되어야한다. 그러므로 적합한 말씀은 “이 왕들의 날에 (그들이 아직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동안)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권능과 권세로 설립).” 그리고 그것이 세워진 후에 “그것은 이 모든 왕국을 부서뜨리고 멸할 것이며, 영구히 서 있을 것이다.”(단 2:44)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어떠한 방법으로 찾든, 이 세상 왕국들이 넘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개시될 것을 기대해야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

이 권세로 쳐서 부서뜨려 세상 왕국들을 전복시킬 것이다.

또 하나의 관점에서 본 현 정부들

다른 관점에서 본 이 세상 왕국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위의 지배력을 허용하시거나 권한을 주실지언정, 세상을 통치하는 최고의 권능과 권세는 창조자이신 여호와께 속하고, 언제나 그에게 속할 것이다. 아담은 왕 중의 왕께 불충한데서 유래된 불완전과 나약함 때문에 곧 약해지고 무력해졌다. 군주로서 처음에 그가 그의 의지의 힘으로 하등동물에게 복종을 명하고, 유지하던 권세를 잃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지배도 역시 잃었다. 그래서 그가 옳은 일을 하기 원할 때에 그의 나약함이 못하게 하고, 악한 것이 그에게 있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였다.(롬 7:21,19)

그러므로 우리의 반항적인 인류를 변명하려고 하면서도, 스스로 다스리려하고 그 자신의 복지를 위해서 조정하려는 헛된 노력에 우리는 동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방향에 있어서 세상의 성공을 얼마쯤 말할 수 있다. 이 짐승 같은 정부들의 참된 특질을 알아보는 한, 그들이 부정했으나 무정부 상태보다 매우 우월하기 때문이다. 무법과 무질서 상태보다 훨씬 낫다.

무정부 상태는 “이 세상의 통치자”(사탄 -요 12:31)에게 필시 전혀 기꺼워 할 만하겠지만 그의 국민에게는 그렇지 않았으며, 사탄의 권세는 절대적이 아니었다. 그의 권세는 인류를 통해서 작용하는 그의 능력의 한도까지 제한되어있다. 그리고 그의 정책은 인간의 견해와 열정과 편견에 대부분 적합해야 한다. 인간의 견해는 하나님에게서 독립된 자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시험하라고 허용하셨을 때, 사탄이 그의 영향과 지배력을 미치기 위하여 기회를 붙잡았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잊기를 바랐기 때문에(롬 1:28) 보이지 않지만 이 교활하고 강력한 적의 영향에 스스로를 노출했다. 그러므로 그 후 내내 인간은 그 자신 개인의 나약뿐이 아니라, 별수 없이 사탄의 간계에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것이 상황이므로, 이 세상 왕국들을 하나님에게서 독립하여 스스로 다스리려고 하는 타락한 인류의 노력으로 이제 판단하면서, 이 세상 왕국들을 살펴봅시다. 개개의 타락과 이기심은 공정의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 왕국 밑에 완전한 공정이 좀처럼 베풀어지지 않지만, 아직도 인간 사이에 서로 이제까지 조직된 모든 정부들의 표면상의 목적은 모든 백성의 공정과 복지를 진척시키기 위한 것이다.

어떤 정도로 그 목적이 달성되었나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모든 정부들의 주장이며, 백성들이 정부들에게 복종하고 정부들을 후원하면서, 그러한 것이 백성들의 목적이 되었다. 그리고 공정의 목표가 크게 무시될 경우에, 대중이 정부들에 관하여 무의식하고 속임을 당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쟁, 동요, 혁명들이 그 결과였을 것이다.

세상 정부들에서 권세의 지위를 얻은 비열한 폭군들의 어두운 행위들은 그 정부

들의 법과 제도를 대표한 것이 아니라, 권세를 찬탈하고, 권세를 비열한 목적으로 돌리는 점에서 그들은 그 정부들에게 그들의 짐승 같은 특질을 나타내었다.

정부들마다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법들, 가사상과 상업상의 이익의 보호를 위한 법들, 범죄의 형벌에 대한 법들, 등의 대부분 현명하고 공정하고 선한 법들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논쟁 문제에 있어서 호소하는 법정들도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서 공정이 적어도 어느 정도 베풀어진다. 그리고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불완전하긴 하나, 그러한 기관의 장점과 필요성이 명백하다. 비록 이 정부들이 부족하지만, 그것들 없이는 사회의 더 비열한 요소가 숫자의 힘 때문에 더 공정하고, 더 좋은 요소를 정복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나약과 타락된 취미와 관념들을 통해서 작용하는 사탄의 술책과 속임을 통해서 불의의 통치자들의 대부분이 권세로 승진함으로 짐승 같은 특질이 표현되듯이, 우리가 정부들의 짐승 같은 특질을 인정하면서도, 정부들이 스스로 다스릴 때, 우리는 그 정부들을 부족하고 타락된 인류의 최선의 노력으로 인정한다. 온 세기 내내 하나님께서 그 노력을 하고, 그 결과들을 보게 그들을 허용하셨다. 그러나 여러 세기 실험 후, 그 결과들은 세계 역사의 어느 때와 같이, 오늘날 조금도 만족하지 않다. 사실 불만이 어느 전 때보다 더 일반적이고 널리 펼쳐있다. 왜냐하면 압박과 부정이 어느 때보다 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조정 아래 지식의 증가로 인간의 눈이 뜨이고 있기 때문이다.

때때로 설립되어온 여러 정부들은(정부들이 대표하는) 백성 스스로 다스리는 백성의 **평균 능력**을 전시했다. 독재적인 정부들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서까지도, 일반 대중이 그들을 참았다는 사실은 많은 개인들이 의심할 바 없이 평균 능력보다 항상 훨씬 우수할 지라도, 한 백성으로서 그들이 더 나은 정부를 설립하고 후원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우리가 오늘 세상의 상태를 이전 시대의 상태와 비교할 때 일반 대중의 감정에 뚜렷한 차이점을 발견한다. 독립정신이 지금 널리 퍼져있으며, 인간은 그렇게 쉽사리 통치자들과 정치가들로 말미암아 눈속임 당하거나 속거나 끌려 다니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옛날의 속박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이 공중의 감정의 변화는 스스로 통치하려는 인간 노력의 맨 처음부터 온 점차적인 변화가 아니라, 16세기 이래 분명히 현저해졌다. 그리고 변화의 진보는 지난 50년 안에 가장 신속하였다. 그러므로 이 변화는 과거 시대의 경험의 결과가 아니라, 인류의 일반대중 사이에 최근 지식의 증가와 일반보급의 자연적인 결과이다. 지식의 이 일반적 보급을 위한 준비는 서력 1440년경에 인쇄술의 발명과 책들과 뉴스 잡지들의 필연적인 증가로 시작됐다. 일반 대중의 계몽에 있어서 이 발명의 영향을 16세기경에 느끼기 시작했으며, 그 이래 모두 진보적인 단계들에 익숙해져 있다. 대중의 일반교육이 유행되고, 발명들과 발견들은 일상적인 발생이 되었다. 인간들 사이에 지식의 증가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이며, 그가 적절한때에 실현되게 되어있는데, 이 지식의 증가는 지금 사탄을 묶는 역사를 하고 있는 강력한 영향들 중의 하나이다. 사탄을 묶는 역사는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이 “예비의 날”에 사탄의 영향을 축소하고 그의 권세를 제한하는 것이다.

각 모든 방향에 있어서 지식의 증가는 인간들 사이에 자기를 존중하는 감정과 그들의 타고난 인간의 절대적인 권리들의 인식을 일으켜준다. 이 절대적인 권리들은 무시되거나 경멸되는 것은 오래 묵인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정 반대의 극단으로 갈 것이다.

여러 세기를 거쳐 되돌아 훑어보고 어떻게 국가들이 그들의 불만의 역사를 피로 기록했는가를 보라. 그리고 예언자들은 선언하기를, 지식의 증가 때문에 아직 더 일반적이고 널리 퍼진 불만은 세계적으로 파급되는 혁명으로, 모든 법과 질서의 전복으로 마침내 스스로 나타낼 것이며, 모든 계급에게는 무질서와 비탄이 그 결과일 것이며, 그러나 이 혼란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바라는 바를 만족시킬 그의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그 자신들의 실패와 그들의 최후이자 최대의 노력이 무질서로 끝나는 것을 발견함으로 지치고 낙심한 인간들은 하늘의 권세를 기쁘게 환영하고 그 앞에 굴복할 것이며, 그의 강하고 공정한 정부를 인정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 뿐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보배로운 것이 정녕 이를 것이다.”- 권세와 큰 영광중에 하나님의 왕국.(학 2:7)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결코 지상의 통치자들을 상대로 간섭하지 않았다. 그 반대로 예수님과 사도들은 교회를 가르치기를, 그들이 비록 권력의 남용 아래 종종 고생할지라도 이 권력에 감수하라. 법에 순종하라. 비록 인품으로서 존중이 합당치 않을지라도 그들의 관직의 이유로 권력자를 존중하라. 지정된 세금을 내라. 하나님의 율법과 불일치하는 경우 외에는(행 4:19, 5:29) 어느 확립된 법에 거스르지 말라,(롬 13:1-7, 마 22:21)고 하셨다. 이 세상정부에서 분리되고, 정부에 참여하지 않을지라도 주 예수님과 사도들과 초기교회는 모두 법을 준수하였다.

현 정부들에 대한 교회의 올바른 관계

현존하는 권세 곧 이 세상정부들은 인류가 그들 밑에서 필요한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을지라도(롬 13:1) 교회 곧 오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관직을 얻기를 열망하는 헌신한 신자들은 이 세상 왕국에서 관직의 명예와 봉급을 탐내거나 이 권력에 대항하지도 말아야 한다.

그들은 하늘의 왕국의 동료시민이고 상속자들이다.(엡 2:19) 그런 사람은 이 세상 왕국 밑에서 **외국인**에게 일치하는 것과 같은 권리들과 특권들만을 주장하여야 한다. 그들의 사명은 이 세상의 현 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세상을 돕는 것이 아니며, 현재 세상의 사건들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오직 노력의 낭비일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의 진로와 그것의 종국이 둘 다 성서에 분명히 규정되어있으며,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왕국을 **우리에게 주실** 그의 지배 아래 완전히 있기 때문이다. 지금 **참된** 교회의 영향은 작으며, 전부터 항상 작았다. 정치적으로 사실상 아무것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작다. 그러나 참된 교회의 영향이 아무리 위대하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과 사도들의 실례와 교훈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으로 하여금 스스로 통치할 그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시험하시기 위한 것임을 알고, 참된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것 이 돼서는 안 된다. 성도들은 오직 세상에서 분리하고, **그들의 빛**을 비춤으로서(마 5:16)만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 세상을 책망한다. 따라서 모든 의의 율법을 평화롭고, 질서 있게 순종하는 사람들로써, 권하는 사람들로써, 불법과 죄악을 책망하는 사람들로써와 아울러 약속하신 하나님의 왕국과 그 밑에서 기대할 축복을 지시하는 사람들로써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지, 정치에 참가하고 권력을 얻기 위하여 세상을 책동함으로서 전쟁, 죄악과 일반적인 타락으로 말려드는 일반적으로 채택된 방법으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다. 평화의 왕의 장래 신부는 영광스러운 순결 가운데, 세상에서 그의 주님의 대표자로서 선을 위한 힘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교회의 온전한 배려와 노력을 하나님의 왕국을 전도하고, 성서에 기록된 계획에 따라서 그 왕국에 대한 중요성을 촉진하는데 주어야 한다. 만일 이것을 충실하게 행하게 되면, 현재 정부의 정치에 손을 댈 시간도 없을 것이며, 의향도 없을 것이다. 주님은 그것을 위한 시간이 없었고, 사도들도 그것을 위한 시간이 없었다. 사도들의 본보기를 따르는 성도들은 아무도 그럴 시간이 없다.

왕들의 신의 권한 간단히 검토했음

사도들이 죽은 직후, 초기교회는 바로 이 유혹에 희생되었다. 모든 지상의 왕국들을 제거 할 다가오는 하나님의 왕국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그 왕국의 상속자라고 전도하는 것은 인기가 없었으며 박해, 비웃음, 멸시를 받았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호전시키려고 고난을 당하는 대신에 교회를 세상의 인기를 받는 위치에 들어가게 하려고 생각하였다. 세상의 권세와 결합함으로써 그들은 성공하였다. 결과적으로 교황제도로 발전되었으며, 조만간 국가들의 여주인과 여왕이 되었다.(계 17:3-5, 18:7)

이 방책으로 모든 것이 변화였다. 고난을 받는 것 대신에 명예가 왔고, 겸손 대신에 교만이 왔으며, 진리 대신에 과오가 왔다. 그리고 박해를 받는 것 대신에 그녀는 그녀의 새로운 비합법적인 명예를 비난하는 모든 사람의 박해자가 되었다. 그녀는 그녀의 방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학설과 궤변을 창안하기 시작했다. 첫째 그녀 자신을 속이고, 그 다음에 국가들을 속여서 약속된 그리스도의 천년통치가 왔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지상의 왕들을 통치한 그녀의 교황이 그리스도 왕을 대표했다는 것을 믿게 하였다. 그녀의 주장들은 전 세상을 속이는데 성공적이었다.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그녀의 틀린 교리로 취하게 했다.”(계 17:2) 이렇게, 그녀의 주장들을 저항하는 모두에게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가르침으로 그들을 위협한다. 유럽의 왕들은 그녀의 칙령과 그녀의 추정된 권력으로 왕관을 씌어주기도 했고, 벗겨주기도 했다.

이렇게 유럽의 왕국들은 오늘날 기독교 왕국들이라고 주장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즉 교황이나 프로테스탄트의 교파들 중의 어떤 사람의 임명을 통해서 군주들이 통치한다고 공포 하게 되었다.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은 교황의 주장들 중에 다수를 교회의 관할권, 등에게 내맡기었지만, 이 지상의 왕들이 기독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 이 명예를 그들은 유지하였다. 이렇게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은 같은 잘못을 범하고, 정부들과 왕들을 지명하고 인가하는 점에서, 그와 같은 것을 “기독교의 왕국들”이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라고 명칭을 붙이는 점에서, 군주들의 권력을 행사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그 이상한 수수께끼인 “기독교 세상”이

란 명칭을 많이 듣는다. 복음의 참된 원리에 비추어 판단해 볼 때, 참으로 수수께끼이다. 우리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 관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셨다.(요 17:16, 롬 12:2)

기독교계의 주장은 거짓

하나님께서서는 이 왕국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왕국이라고 부르는 것을 결코 승인하지 않으셨다. 이름뿐인 교회에 의해 속임을 받아 이 국가들은 거짓의 기 밑에 항해하는 배 같이, 그들이 실제로는 장본인이 아닌 아무라고 주장한다. 백성의 투표와는 달리, 그들의 오직 권리는 “정통의 권리를 가진 자가 올 때까지”라고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한정된** 허락 안에 있다.

그들의 불완전한 법과 종종 이기적이며, 사악한 통치자들을 가지고 있는 이 불완전한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계 11:15)이라는 주장은 참된 그리스도의 왕국과 그의 “평화의 왕과 의의 통치자에게 큰 모욕이다.(사 32:1) 주의 왕국 앞에 그들은 머지않아 반드시 붕괴될 것이다.

그 잘못에서 유래하는 심각한 손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주의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왕국에서 딴 데로 이끌어, 그들이 지상의 왕국들과 더불어 타당치 못한 인지와 그들과 친교를 갖게 되고, 이 야만적이고 세속적인 종족들에게 기독교의 은혜와 복음을 주입하려는 거의 무익한 시도를 하게 되며, 참된 왕국에 관한 복음과 그것에 집중하는 희망을 경시하게 인도하였다. 이 속임 밑에, 현재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미합중국의 헌법 안에 편입되어, **그것으로** 미국이 기독교의 국가가 될 수 있기를 매우 갈망한다.

신교의 장로교회의 교인은 여러 해 동안 이 정부 밑에서 관직을 선거하거나 맡기를 거부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들은 그리스도 교인이 어느 다른 것에 관여하는 것이 부적당함을 인정한다. 우리는 이 생각과 큰 동감을 갖으나, 만일 하나님의 **이름**이 헌법에 언급되면, 그 사실이 이 정부를 이 세상 왕국에서 그리스도 왕국으로 변하게 하고, 그 밑에 관직을 선거하고 간직할 자유를 그들에게 주게 될 것이라는 그 결론과는 동감하지 않는다. 오, 얼마나 어리석은가! 얼마나 큰 속임인가! 그 속임으로 “창녀들의 어미”가 모든 국가들을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하였다.(계 17:2) 왜냐하면 같은 방법으로 유럽의 왕국들이 사탄에서 그리스도로 변해져서 “기독교 국가들”이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다섯 째 전 세계의 제국에서 보다 좋은 희망

지상의 국가들 중에 가장 훌륭하고 가장 나쁜 것은 오직 “이 세상 왕국들”이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의 권세의 계약기간이 이제 만료되어, 그들의 위치를 임명된 그들의 후계자인 메시아의 왕국 곧 지상의 다섯 째 제국에게 자리를 양도할 수 있게 되었다.(단 2:44, 7:14, 17:27) 이 견해는 진리를 확립하고 과오를 분쇄하는데 큰 공헌을 한다.

그러나 현재와 마찬가지로 이 점에 관해서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에게서 인가를

받은 교황제의 행위들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지지해야 함으로 그들은 기어코 그의 기간이 급속히 만료되고 있는 소위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부르는 현재 붕괴하는 왕국들을 옹호할 작정이라고 스스로 느낀다. 그래서 그들의 감응은 의와 자유 쪽보다는 억지로 압박하는 쪽으로, 다가오는 참된 그리스도의 왕국 쪽보다는 이 세상 왕국들 쪽으로 종종 강요되었다.(계 17:14, 19:11-19)

세상은 급속히 “이 세상 왕국들”이 그리스도 같지 않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지정에 의한 것이라는 그들의 주장이 의심할 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것과 그리고 유사한 질문들에 대해 그들의 이성적인 힘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다. 공정의 하나님과 평화의 왕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속임수를 행하였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될 때, 사람들은 그들이 지닌 신념보다 훨씬 더 맹렬하게 행동할 것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의 경향은 기독교 자체가 근거 없는 속임이며, 그의 목적은 시민의 통치자들과 연합하여 오직 대중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오, 사람이 지혜롭다면 주님의 일과 계획을 이해하는데 전념하련만! 그러면 현재의 왕국들은 점차 허물어질 것이다. 개혁은 신속히 개혁을 따르고 자유는 자유를 따르고 정의와 진리는 의가 지상에 확립될 때까지 지배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타락된 상태에서 그들은 이것을 하지 않고, 그들이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기에 사로잡혀 저마다 속달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 왕국들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큰 환난의 때와 동시에 사라질 것이다.(벧후 3:10, 마 24:21) 통치권이 정통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어질 때에 사라진 통치권을 붙잡으려고 헛되이 시도하고 있을 그들에 대해 주님이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확실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싸움을 그에게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고 하신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며, 나라들이 헛된 것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들고일어나고 고위 관리들이 함께 뭉쳐 여호와와 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말하기를, ‘그들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그들의 줄을 우리에게서 던져버리자!’ 하늘에 앉아 계신 분이 웃으시리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조소하시리라. 그 때에 그가 그들에게 분노하여 말씀하시고 격한 불쾌감으로 그들을 당황케 하시며 말씀하시리라, ‘나의 거룩한 시온에 내가 내 왕을 세웠노라.’‘그러므로 오! 왕들아! 이제 분별력을 가지라. 교훈을 받아라, 오! 땅의 재판관들아! 두려워하면서 여호와를 섬기고 떨면서 기뻐하여라.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그 아들에게 입 맞추어라(그와 친해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격분하지 않으시겠고, 너희가 그 길로부터 소멸되지 않으리니, 그의 분노는 쉬이 타오르기 때문이다. 그를 의지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다.’”(시 2:1-6, 10-12)

하나님의 왕국이 가깝다

“파수군이여, 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다오—
 약속에 대한 그의 표시가 무엇인지를.
 여행자여, 저 산봉우리를 넘어서,
 영광을 발하고 있는 별을 보라!
 파수군이여, 그의 아름다운 광명이
 희망이나 기쁨의 무언가를 예언하는가?
 여행자여, 네, 그것은 날을 가져옵니다 —
 이스라엘에 대해 약속하신 날.

“파수군이여, 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다오.
 아직 더 높이 그 별은 오른다.
 여행자여, 축복과 빛,
 평화와 진리를 그의 행로를 예고한다.
 “파수군이여, 그의 광선들만이
 그들을 낳은 자리를 꾸미는가?
 여행자여, 여러 시대는 그 시대의 것이다.
 보라, 그의 영광이 땅을 채우고 있다.

“파수군이여, 이야기해 다오,
 아름다운 시온의 영광의 아침이 밝아오는가?
 그의 오는 것을 표하는 표지들이
 너의 길 위에 아직 비쳤는가?
 여행자여, 네, 일어나라! 주위를 돌아보라!
 빛이 하늘에 비치고 있다!
 너의 신부의 예복을 입어라!
 아침이 밝아온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연구 14

하나님의 왕국

- 주제의 돌출
- 왕국의 특성
- 복음시대의 왕국
- 바울에 의해 수정된 틀린 관념
- 왕국에 대한 틀린 관념의 결과
- 하나님 왕국의 두 가지 면들
- 영적 면과 그것의 일
- 지상 면과 그것의 일
- 그 두 면의 조화로운 운영
- 지상 면의 영광
- 하늘 면의 영광
- 계약의 뿌리, 이것에서 이 가지들이 자람
- 왕국의 지상 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
- 잃은 지파들
- 하늘의 예루살렘
- 이스라엘은 전형적 민족
- 이스라엘의 잃은 것과 회복
- 택하심을 받은 계급들
- 왕국의 상속자들
- 십 지파이의 통치
- 천년 통치의 목적의 한 예
- 왕국은 아버지께 넘겨드림
-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었다.

주제의 돌출

용어 색인과 성경을 손에 들고, 이 주제를 주의 깊게 검사해보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주의 깊게 검사하는 즉시, 성서 가운데 이 주제의 돌출을 발견하여 놀라게 될 것이다.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것의 왕인 메시아를 바로 중심으로 상징하는 약속들과 예언들로 가득하다. 한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아래 그들의 나라를 높이게 하신다는 것이 각 모든 이스라엘인의 희망이었고(눅 3:15)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오셨을 때, 그가 오신 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왕국을 지상에 설립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왕으로서 오신 것이기를 희망했다.

우리 주님의 선구자이며 사자인 요한은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다가왔다.”(마 3:2)라는 공표로 그의 전도문을 열었다. 주님은 그의 성직을 정확하게 같은 공표로 시작하셨으며(마 4:17) 사도들은 같은 전갈을 전도하기 위하여 파견되었다.(마 10:7, 눅 9:2) 왕국은 주님이 그의 공공의 성직을 시작하신 주제였을 뿐이 아니라, 그것이 참으로 모든 그의 전도의 주요한 주제였다.(눅 8:1, 4:43, 19:11) 다른 주제들은 단지 이 한 주제와 관련하거나, 이 한 주제를 설명할 때에 언급되었다. 그의 비유들의 대부분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본, 그리고 다른 면들에 있어서 왕국의 실

레들이 아니면,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이 왕국 참여에 필수적인 것으로 지적하는데 이바지하고, 유대인들이 그들이 아브라함의 타고난 자손들이요, 그러므로 그 약속을 이어받는 타고난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왕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확신하는 유대인의 오해를 고치는데 도왔다.

우리주님은 그의 추종자들과의 대화에서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왕국을 내게 지명하신 것과 같이, 왕국을 위하여 나도 너희를 지명한다. 그리하여 너희는 나의 왕국에 있는 내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재판(통치)하게 될 것이다.”(눅 22:29,30) 그밖에,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왕국을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눅 12:32)라고 말씀하시면서, 다가오는 왕국에 관한 그들의 기대를 강화하고 용기를 주셨다. 그런데 왕관을 쓰고, 왕위에 앉는 대신에, 그들의 인지한 왕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의 제자들은 몹시 실망했다. 그가 부활 후, 그들 중 둘이 엠마오(Emmaus)라는 마을로 가는 도중에 가상의 외국인에게 그 실망을 표현하였듯이, 그들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출하게 되어있는 자로 **신뢰했다**”. 즉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내고, 이스라엘을 권세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 것을 신뢰했다. 그러나 그들은 며칠 앞서 일어난 변화로 몹시 실망했다. 그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 전체에서 왕국이 설립될 수 있기 전에 그의 **희생**이 무엇보다 먼저 필요로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을 깨닫게 해주셨다.(눅 24:21, 25-27)

왕국의 특성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인간을 구속함 없이 땅의 통치권을 주실 수 있었다. 왜냐하면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 왕국의 통치자이시며, 그가 원하시는 자에게 그것을 주심”이기 때문이다.(단 4:3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계획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보다 더 웅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한 왕국은 아무리 좋다할지라도 모든 인류가 죽음의 판결을 받았으므로 다만 일시적인 특성일 수밖에 없는 축복을 가져올 수 있었을 것이다. 그의 왕국의 축복이 영구하고 완전한 것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 인류는 첫 째 죽음에서 속죄되어야 하고 따라서 아담 안에서 온 인류에게 전한 정죄에서 법적으로 해제되어야 했다.

그 예언들을 설명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다가오는 왕국의 희망을 되살아나게 하셨다. 이것이 나중에 그가 승천하셨을 때, “주여, 당신은 **이때에**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하실 것입니까?”라고 그들이 물었다는 사실로 명백하다. 그의 대답이 명백하지는 않아도 그들의 희망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관할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것이 아니다.”(행 1:6.7)라고 하셨다.

실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전 유대민족과 같이, 하나님의 왕국이 오로지 지상의 왕국이라고 상상하는 점에서 하나님 왕국의 불완전한 개념을 가졌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오로지 하늘의 왕국이라고 그 반대로 상상하는 점에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과 꼭 같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과 수수께끼들은 적절한 때에 이 잘못된 생각들을 고치시기 위하여 의도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왕국(정부)이 **땅에** 설립되며, 인간 가운데 통치하게 된다는 관념

을 항상 제시하셨다. 그리고 그는 왕국에 참여를 위한 희망을 그들에게 고취하게 할 뿐이 아니라, 그는 그 왕국의 설립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기도 하셨다.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십시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마 6:10)

유대인들 가운데 세속적으로 현명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사기꾼과 광신자로 보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제자들을 단지 잘 속는 사람들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의 지혜와 재치, 그리고 그의 기적들을 잘 부정하거나, 조리 있게 설명할 수도 없었음에도, 예수님이 세상의 상속자이며 세상을 통치할 약속하신 왕국을 설립 할 것이라는 주장과 세상에 비천하고 멸시받는 계층인 그의 모든 추종자들이 그 왕국에서 그와 함께 공동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그의 주장이 그들의 불신의 견지에서 볼 때, 고려하기에 너무 불합리하게 보였다.

훈련받은 전사들, 유능한 장군들과 막대한 부를 가진 로마는 세상의 주인이었으며, 나날이 더 강력하게 자라고 있었다. 그러면 이 나사렛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돈이나 영향력도 없이,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단지 극소의 추종자들을 가진 이 어부들은 누구인가? 오래 약속된 이 세상에 일찍이 설립된 적이 없던 장려하고 강력한 왕국을 설립하는 것에 관하여 감히 이야기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주장들 가운데 약점이라고 추측된 것을 폭로하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그것으로 그의 추종자들의 기만된 점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그에게 요구하기를, “언제 당신이 전도하는 이 왕국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인가요? 언제 당신의 병사들이 도착하는가요? 언제 이 하나님의 왕국이 나타나나요?”(눅 17:20-30) 그들이 만일 주님에게 대적하여 편견을 갖지 않고, 그 자신들의 추측된 지혜로 눈이 멀지 않았더라면, 우리 주님의 대답은 그들에게 한 새로운 생각을 주었을 것이다. 그는 대답하시기를, 그의 왕국은 결코 그들이 기대한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가 전도하신 왕국과 그가 그의 추종자들을 그 안에 공동상속권으로 초대한 그 왕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왕국이며, 그들이 그것을 보기를 기대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왕국은 현저히 볼 수 있게(눈에 보이는 표명)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사람이 여기를 보라!, 저기를! 하고 말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은 당신들 가운데[■] 있습(있게됨)니다.”(눅 17:20,21) 한 마디로 말해서, 그의 왕국이 올 때 그것은 어디에나 존재할 것이며, 어디에나 유력할 것이지만, 아무데에서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보여주셨다.

이렇게 그는 그들에게 그가 전도하신 영적 왕국에 관념을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보여주게 될 바와 같이, 적절한 때에 실현화될 약속하신 왕국에 관한 유대인들의 기대에 있어서 다소의 진리가

■ Diaglott과 Rotherham의 번역은 이것을 “당신들 가운데에”와 동의어인 “당신들 사이에”로 번역한다. 예수님이 설립하게 된다고 주장하신 그 왕국이 그가 위선자이며, 회칠한 무덤이라고 부르신 바리새인들의 마음 안에 있으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확실히 어느 이론과 하나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설립되면, 이 왕국은 모든 계급 “가운데에”나 “사이에” 모두를 통치하고, 심판할 것이다.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주님의 참조는 눈에 보이지 않을 왕국의 영적 면의 것이다. 그리고 이 면의 왕국이 **맨 처음** 세워질 때, 그것의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며, 당분간 인식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왕국의 영적 면에 있어서 상속권의 특권은 그 때에 유일하게 제공되고 있었으며, 그 때에 시작한 상속권의 특권은 전 복음시대동안 우리의 부르심의 하나의 희망이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로지 영적 면의 왕국만을 언급하셨다.(눅 16:16) 이것은 우리가 진행해나감에 따라 더욱 분명히 보일 것이다.

니고데모(Nicodemus)는 불가사의를 해결하기를 열망하지만, 필시 이 일반 대중, 특히 바리새인들 사이에 반대의 감정 때문에 그러한 주장이 그에게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됨을 공공연히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워 그가 예수님께 밤에 온 것 같다. 주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요 3) 오직 부분적으로 기록되었지만, 하나님 왕국의 특성에 어느 정도 더 통찰력을 준다. 분명히 그 대화의 주요한 점들이 언급되었다. 그래서 이 사실들에서 우리는 전체의 취지를 쉽사리 모을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합리적으로 의역할 수 있다:

니고데모——“라비, 우리는 당신이 선생으로서 하나님에게서 오신 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선생님이 행하시는 이런 표적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의 어떤 것은 매우 모순된 것 같아서 설명을 요청하기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과 선생님의 제자들은 돌아다니며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나, 선생님은 군대도 없고 재산도 없고 영향력도 없어, 아무리 보아도 이 주장이 진실 같지 않고, 이것으로 선생님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반적으로 선생님을 사기꾼으로 봅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가르침들에 진리가 틀림없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선생님이 행하시는 이런 표적들을 할 수 없습니다.” 저의 방문한 목적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 왕국이 어떤 성질의 것이며, 언제 어디서 오며, 언제 어떻게 그것이 설립될 것인가를 문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하늘의 왕국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기 위한 너의 요구는 지금 네가 납득하도록 대답을 줄 수 없다. 내가 그것을 충분히 알고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설명한다 해도 너는 너의 현재 상태에서 이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하늘로부터 **낳지** [□]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그리스어 **eidon**, + 알다나, 알려주다) 수 없느니라”

내 제자들조차도 그들이 선포하고 있는 왕국의 특성에 관해 아직 매우 희미한 관

□ 때로는 **잉태됨(begotten)**, 때로는 **낳다(born)**로 번역된 그리스어 **gennao**와 그의 파생어들은 실제로 두 개념을 포함한다. 그래서 인용된 절에 따라 그것은 두 가지 영어 단어들 중에 어느 하나로 번역될 수 있다. 잉태됨과 낳다(begetting과 birth)의 두 개념이 그 단어 안에 항상 있기 때문에 birth(낳다)는 begetting(잉태됨)의 자연적인 결과이며, 잉태됨(begetting)은 낳다(birth)의 자연으로 앞서는 일인 것같이, 만일 하나가 진술되면 또 다른 하나도 항상 함축된다. **gennao**와 관련된 활동적 대행자가 남자일 때에 그것은 **잉태됨(begotten)**으로, 여자일 때에는 **낳다(born)**로 번역되어야 한다. 따라서 요한1서 2:29, 3:9, 4:7, 5:1,18에 있어서 **gennao**는 **begotten(잉태됨)**이라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남성의)께서

님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없는 같은 이유로 그들에게도 말할 수 없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그들이 이해할 수도 없다.

그러나 니고데모야, 하나님의 지배의 한 가지 특수성은 더 많은 빛을 주시기 전에, 그는 이미 소유한 빛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왕국통치를 함께 나누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데는 믿음의 표현이 요구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한 걸음 앞선 것만을 분명히 자주 보면서, 한 걸음씩 기꺼이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들은 믿음으로 걷고 있으며, 보는 것으로 걷고 있지 않다.(고후 5:7)

니고데모——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모태 속에 두 번째 들어가서 낳게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침례자 요한”이 전도하고, 물속의 침례로 표시한 회개가 어쨌든 상징적인 **탄생**이라는 것을 뜻합니까? 나는 선생님의 제자들이 마찬가지로 전도하고 침례를 베푸는 것을 유의합니다. 이것이 선생님의 왕국을 보거나 거기에 들어갈 그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탄생입니까?

예수님——우리민족은 헌신한 민족인 하나님과 서약한 백성이다. 그들이 이집트를 떠났을 때 그들은 모두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시나이(Sinai)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약의 중보자인 모세 안에서 그들을 받아드리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계약을 잊었다. 어떤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 같이 공공연히 살고 있으며, 많은 다른 사람들은 독선적인 위선자들이었다. 그러므로 요한의 전도와 내 제자들의 전도는 **회개**이다. 곧 하나님께 돌아오고, 만든 계약을 인정하게 되라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의 침례는 이 회개와 마음과 생활의 개심을 뜻하며, **새로운 탄생을 뜻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보다 더하지 않으면 너는 왕국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요한의 침례로 상징한 개심 위에, 네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영으로 낳지 않으면 내 왕국을 볼 수 없다. 회개는 너를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상태로 되돌릴 것이다. 그 상태에서 네가 나를 모세가 상징한 메시아로 즉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헌신하면, 네가 새로운 생존과 신의 본성으로 변화를 받게 아버지께로부터 **잉태될** 것이고, 만일 그것이 발달하여 소생하게 되면, 첫 부활에서 한 새로운 피조물인 한 영적 존재로 **낳게 됨**을 보증할 것이다. 그리고 너와

■ 계속 활동적 대행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로는 남성이건 여성이건 그 번역은 활동의 성질에 좌우된다. 이렇게 **에서(from/out of)**를 의미하는 **ek**와 연결되어 사용되면 그것은 **낳다**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3:5,6에 있어서 **gennao**는 단어 **ek**로 지적된 바와 같이 **낳다(born)**로 번역되어야 한다. —“물에서”, “육에서”, “영에서”

+ 이 똑같은 그리스어는 사도행전 15:6에서 **고려(consider)**로 번역되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고려**(알다, 이해하다)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다.” 똑 같은 단어가 로마서 11:22에서는 **보라(behold)**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친절과 준엄함을 **보십시오**.(알라, 이해하라)” 요한1서 3:1도 역시 표현하기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하셨는지 **보십시오**.(고려하라, 알라, 이해하라)”

같은 사람들은 왕국을 볼뿐이 아니라,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니고데모여, 이 새로 성령으로 태어남으로 일어나게 될 변화는 참으로 위대한 것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면 네가 의문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알고, 감상할 수 있기 전에, 네가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내 첫 말에 놀라지 말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요 3:7) 육으로 난 너의 현재 상태와 내가 전도하고 있는 왕국에 들어가거나 왕국의 구성원이 될 성령으로 난 그들의 상태 사이에 차이는 대단히 크다. 성령으로 태어날 때, 이 왕국의 구성원이 될 존재들에 관해 네가 약간의 관념을 얻을 실례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바람은 그 원하는 곳으로 불며 당신은 그 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는 모른다. 영에서 난 자도 모두 이와 같다.” 바람이 여기저기 불 때, 그것이 너의 모든 주위에 효과를 발휘할 지라도, 너는 바람을 볼 수 없다.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너는 알지 못한다. 이것이 부활 때에 성령으로 태어난 그들 곧 내가 전도하고 있는 왕국에 “들어가거나”, 왕국의 구성원이 될 그들에게 대해 내가 줄 수 있는 충분한 실례이다. 그들은 모두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을 것이며,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니고데모---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라니요!

예수님---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영적 존재는 임재 할 수 있으나,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 하면서 너는 엘리사(Elisha)와 그의 종, 또는 발람(Balam)의 나귀에 대해서 읽어 본 적이 없느냐? 그리고 영적 존재는 사람들 사이에 임재 할 수 있어도 보이지 않는 이 원리를 나타내는 많은 실례들을 성서에서 읽어 본 적이 없느냐? 더구나 너는 천사들이 영적 존재라고 공공연히 믿는 바리새인의 속한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너에게 첫 번에 말한 것을 나타낸다. 사람이 위로부터 낳지 않고는 왕국과 그에 연관된 여러 가지 일들을 볼(알게 될, 합리적인 것으로 이해하게 될) 수 없다.

만일 내가 공표하는 그 왕국에 네가 들어가고, 나와 함께 한 공동 상속자가 되려면 너는 한 걸음씩 빛을 따라야 한다. 네가 그렇게 함에 따라 더 많은 빛이 올 것이며, 네가 빛을 받기에 준비된 만큼 빠르게 올 것이다. 나는 지금 네가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때가 된 이 일들을 전도하고 있고, 이적을 행하고 있다. 그런데 너는 내가 하나님에게서 온 선생이라고 인정은 하나, 너는 너의 믿음을 좇아 행동하여 공공연히 내 제자와 추종자가 되지 않았다. 너는 네가 아는 것을 실천할 때까지 더 알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아는 것을 실천하는 그 때,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많은 빛과 다음 단계를 위해서 증거를 주실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바리새인들) 우리가 하는 증언을 받아드리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당신들이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요 3:11,12) 내가 너에게 하늘 일들에 대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익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게 납득되지 않을 것이며 내 전도가 너에게 더 어리석게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땅의 특성의 것이나, 네가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는 땅의 일들로 실려 된 것을 가르친 것이 네가 공개적으로 내 제자나 추종자가 되게 인도할 정도로 너의 마음에 충분히 납득하게 하지 않았다면, 만일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하늘 일들을 내가 너에게 말해준다 해도 더 이상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본 적이 없으므로 아무도 내 증언을 확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나 홀로만이 하늘의 일들을 이해한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로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하늘 일들의 지식은 성령으로 태어난 후에만 받을 수 있으며, 하늘의 일 자체들은 영으로 태어날 때에 곧 영적 존재가 될 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주님의 입장에서 바리새인들의 편견과 교육 때문에 지상 면의 왕국의 왜곡된 견해 말고는 무엇이든 깨닫지 못하게 막힌 그들에게 왕국의 특성을 선언하시는데 인내가 필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왕국에서 함께 나누는 특유의 계급의 선택은 진행됐다. 오직 소수지만 이스라엘에서 선택되었지만, 오로지 그 나라에게만 7년 동안 제공되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듯이, 오직 택함 받은 사람들만이 받아드리고, 한 국민으로서 그들이 특권을 위해서 준비되지 않았고 제공한 조건들을 납득하고 따르는데 실패한 때문에 메시아의 왕국에서 함께 나누는 특권은 한 국민으로서 그들에게서 떠나, “그의 이름을 위한 백성”(행 15:14)을 이방인들에서도 취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왔다.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역시 “적은 무리”인 택함 받은 사람들만이 그 특권을 이해하고 그의 왕국과 영광에서 공동 상속자에 합당하다고 간주되고 있다.

복음시대의 왕국

심각한 과오가 이름뿐인 교회 안으로 이입되었다. 이름뿐인 교회는 이 약속하신 왕국이 단지 현재의 상태(육신상태)에 있는 이름뿐인 교회를 뜻하고, 교회의 일은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단지 자비의 일이라고 곡해한다. 이 과오가 극단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더불어 이름뿐인 교회의 현재 신성하지 않은 동맹과 통치를 지상에 하나님 왕국의 통치라고 믿게 된 것이다. 사실,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고, 자비의 일이 지금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는 데에 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질, 만 천하에 아직 설립될 진정한 미래의 하나님의 왕국을 부정하는 것은 세상을 이겨내는데 우리의 격려와 도움을 위한 우리 주님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에 의해 기록된 가장 유력하고, 극히 강조된 약속들을 폐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 주님의 비유에서, 교회를 종종 왕국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습니다.”(골 1:13)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그리스도가 지금 통치하시는 왕국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를 지금 받아드리는 우리는 그가 세상에서 왕국을 강제적으로 설립하시기 전에 그가 사신 지배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에게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실지로 지키게 하실 의의 율법과 현재 이 세상의

■ 가장 오래되고 신뢰성이 있는 MSS에서 “하늘에 있는”(요 3:13, King James Version)이라는 말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통치자인 찬탈자로 지탱된 암흑의 왕국 사이의 차를 인식한다.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충성을 바꾸어, 우리는 스스로 새 통치자의 국민으로 간주하고, 그의 은혜로 권능과 큰 영광으로 아직 세워지게 될 그 왕국에서 그와 함께 공동 상속자들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바다부터 바다까지 강부터 땅 끝까지 신민을 둘 것입니다.”(시 72:8)라는 것과 모든 통치권이 그를 섬기고 그에게 순종할 것이며, 그에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실 것이다.(단7:27, 빌 2:10)라는 약속들을 결코 취소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에 반하여 지금 “적은 무리”의 선택은 그 약속들을 확증한다.

우리 주님의 비유들을 주의 깊게 검토하면, 그 비유들은 권능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온다든가, 세우신다는 것은 미래라고 명백히 가르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당연한 일로서 왕이 오시기까지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어떤 귀인이 왕권을 확보하여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간 그 비유는(눅 19:11-15) 분명히 왕국의 설립을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두고 있다. 그리고 긴 여러 해 후 주님께서 교회에게 보내신 전갈은 “너는 죽기까지 충실함을 증명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계 2:10) 이것에서, 그와 함께 통치할 왕들은 이 생애에서 면류관을 받거나, 왕으로 통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현재 교회는 권능과 영광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그것의 초기이거나 준비 중인 상태에 있다. 진실로, 왕국에 관한 신약의 모든 표현들은 그렇게 가르친다. 하늘의 왕국은 지금 세상 손아귀에 폭행을 당한다. 왕은 학대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졌다. 그리고 그의 발자취를 따를 사람은 누구나 어떻게든 박해와 폭력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오직 **참된** 교회에만 해당되고, 이름뿐인 교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지금 우리가(교회, 준비 중인 왕국)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적절한 때에 그가 그의 큰 권능과 통치권을 획득하실 때에 우리도 역시 영광을 받고 그와 함께 통치할 것이라는 약속이 보류되어 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조화되어, 야고보(약 2:5)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준에 대하여는 가난하고 경멸받은 사람들을 지금 통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택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돈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라고 하셨다.(막 10:23) 예수님이 여기에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왕국은 세상과 더불어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름뿐인 교회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부자들이 교회로 밀어닥치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왕국의 상속자들에게 인내와 끈기와 덕과 믿음을 권고하며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여러분에 대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스스로 확실히 하기 위하여 더욱 더 전력을 다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 여러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주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여러분이 넉넉히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벧후 1:10,11)

바울에 의해 수정된 틀린 관념

어떤 사람은 로마서 14:17에 있는 바울의 언급을 **상징적인** 왕국에 관련한다고 추측한다. 그러나 문맥에 비추어 검토해 볼 때, 그 일절은 단순히 다음과 같다는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지금 옮겨진 우리 형제들은(골 1:3) 음식, 등에 대해 우리가 유대인으로 율법 밑에서 가지지 못했던(롬 14:14) 어떤 자유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만일 이 자유를 아직 깨닫지 못하는 형제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들의 양심을 범하게 한다면 오히려 이 자유를 사용하지 맙시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으니, 우리 음식에 관한 우리의 자유로 우리 형제를 파멸하지 말고, 왕국의 특권은 지금이나 미래에나, 음식에 관한 자유보다 훨씬 더 큰 축복들에 있다는 것을 상기합시다. 즉 올바른 행동에 관한 우리의 자유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평화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음으로 오는 우리의 기쁨을 뜻한다.(지금이나, 언제나) 왕국의 이 자유들은 매우 크기 때문에 음식에 관한 비교적 중요치 않은 자유는 우리의 형제의 복지를 위해서 현재로서는 희생되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비록 어떠한 성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왕국의 약속들이 신비적인 속임이라거나, 우리의 현재 조건들이 이 약속들을 성취한다는 관념이 부정되었다.

왕국에 대한 틀린 관념의 결과

초기 교회에게, 왕국의 명예와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권의 약속들은 그들에게 기대하라고 예고 한 현재의 시련과 박해를 받는 중, 충실하기 위한 강한 자극들이었다. 일곱 교회에게 준 계시록에 있는 위안과 격려의 모든 말들 가운데, “이기는 사람은 마치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왕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좌에 앉게 하겠다.”와 “이기고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 내가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라고 선언한 말들보다 더 분명히, 또 강력히 눈에 띄는 말은 없다.(계 3:21, 2:26)

이 약속들은 현재의 마음속에 은혜로운 일이나, 더욱, 현재 생애에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는데 적용하는 것으로 이치에 닿게 곱해질 수 없는 것들이다. 이기는 사람은 봉사에 종사하여 **죽음**으로 이겨야 하고, 이렇게 왕국명예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계 20:6)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고난당하는 것을 피하려고 애쓰고 있고, 명예와 권세를 붙잡을 각오가 언제나 되어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 한다: (1) 사도들의 시대에서도 교회내의 어떤 사람들은 미래의 명예와 권세의 약속들을 현생에 적용시키려는 경향이 있었다. (2) 따라서 그들은 마치 세상이 교회를 명예롭게 존중하고, 복종까지도 해야 하는 때가 이미 왔다고 생각하듯이, 행하기 시작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관념들은 자만심을 장려하고, 희생적 정신을 망각케 함으로서 교회에게 해가 되는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 과오를 고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는 그들에게 비꼬아서 말하기를, “그대들은 이미 흠족합니다. 그대들은 이미 부유합니다. 그대들은 우리 없이 왕 노릇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는 부연하기를, 진심으로, “나는 그대들이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하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박해받은 사도들도) 그대들과 함께 왕으로 통

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전 4:8) 그들은 기독교 정신에서 나오려고 노력하고, 그것에서, 가능한 한 많은 명예를 얻으려고 노력함으로서 그들의 기독교를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만일 그들이 주님의 추종자들로서 **충실하면** 그들은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만일 참으로 오래 기대했던 통치가 시작되었다면, **그도** 역시 그들 못지않게 통치하고 있을 것을 그들에게 상기하게 하고, 충실함 때문에 그는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며, **그들의 통치**는 시기상조이고, 영광이라기보다 오히려 함정의 증명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하게 한다. 그 다음에 그는 약간의 풍자로 부언하기를, “우리는(사도들과 충실한 종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지만, 그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그대들은 강합니다. 그대들은 평판이 좋지만 우리는 불명예 가운데 있습니다.”(고전 4:10)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수치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14절): 나는 더 낮고 너희에게 경고하기 위한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의 명예가 드러나게 될 영광과 명예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과 자기부정이 왕국에서 영광과 명예와 불멸성과 상속권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고전 4:16) 지금 고난을 당하고 욕을 받고 박해를 당하라. 그러면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께서 **그 날에** 생명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고전 4:10-17, 딤후 4:8)

그러나 초기의 교회가 많은 박해를 충실하게 인내한 후,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정복하고, 하늘의 왕국을 지상에 설립하고, 주님의 재림 **전에** 국가들을 통치하는 것이라는 뜻의 이론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세속적인 술책, 허식과 자만심, 과시하는 겉치레와 의식을 위한 기초를 놓았다. 교회 안에, 이 과시하는 겉치레와 의식은 세상에 감명을 주고, 세상을 매혹하고, 위압하기 위해서 설계되었으며, 이러한 제도 때문에 결국은 교황제도가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그의 법과 모든 가족, 국가, 국민의 직무원에게 존경과 복종을 명할 권리를 가졌다는 교황제도의 주장들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었다. 이 그릇된 주장 밑에 교황은 한동안 유럽의 왕들에게 왕관을 씌우기도 하고, 벗기기도 하였으며 지금은 강요할 수 없는 그 권세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뿐이 아니라, 그 자신들을 속인 것으로 보인다.)

교황제를 통하여 같은 관념이 프로테스탄트로 내려왔다. 프로테스탄트도 더 막연하긴 하나 어쨌든 교회의 **통치**가 진행 중에 있다고 주장하며, 고린도의 사람들과 같이 신봉자들은 “배부르며” “부유하고”, 우리 주님이 여실히 묘사하신 바와 같이 “왕들로서” 통치한다.(계 3:17,18)

이렇게 교회의 단지 이름뿐인 교인들, 즉 참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은 그들, 참된 믿이 아니라, 잡초, 단지 밭의 모조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보다 수적으로 우세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모든 참된 희생과 자기부정을 아주 반대하고 의를 위하여(진리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지 않고, 대신 기껏해야 금식의 외형, 등만을 지키고 있다. 그들은 실제로 세상과 더불어 통치하고 있으며, 우리 주님의 두 번째 임재 때 세워질 진정한 왕국에서 함께 나누는 통치를 위한 예비가 되어있지 않다.

어느 주의 깊은 관찰자에게도, 이 견해와 주님과 사도들의 가르침 사이에 나타나 는 부조화가 있다. 주님과 사도들은 왕이 올 때까지 왕국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쳤다.(계 20:6, 3:21, 딤후 2:12) 따라서 하늘의 왕국은 그것이 영광과 권능으로 세워질 그 시기까지 모독을 당해야한다.

하나님 왕국의 두 가지 면들

왕국의 첫 출현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왕국은 외관의 표시를 나타내며 **오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적절한 때에 그 왕국은 외관상으로 보이게 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징조들로 모두에게 분명하게 되게 되어있다. 완전히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왕국은 두 부분, 영적(하늘의) 면과 지상의(인간의) 면으로 될 것이다. 영적 면의 것은 그 왕국을 구성하는 그들이 아무도 본적이 없고 볼 수도 없는(딤후 6:16, 요 1:18) 신의 본성인 영적 본성에 속한 것이므로, 언제나 인간에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것의 존재와 권능은 주로 하나님 왕국의 지상 면의 구성원이 될 그것의 인간 대표자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다.

영적 면과 그것의 일

왕국의 영적 면의 구성원이 될 그들은 복음시대의 이기는 성도들 곧 영광을 받은 그 그리스도(머리와 몸)이다. 그들의 부활과 권능으로 높여짐은 모든 다른 사람들의 부활과 높임에 앞서 일어난다.(히 11:39,40) 이것은 이 계급을 통해서 모든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들의 것은 **첫 부활**이다.(계 20:5^㉑) 이

■ 이 절에서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년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하였다**”라는 말들은 위조된 것이다. 이 말들은 가장 오래되고 신빙성이 있는 그리스어 원고(MSS), 시나이(Sinaitic), 바티칸(Vatican) 1160 그리고 시리아의(Syriac) 번역이나 아람어의 번역에는 있지 않다. 현대의 사본들에서 발견된 많은 절들은 성경에 정당하게 속하지 않는 **부가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기해야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고 명하셨으므로 위조의 성질이 확인되자마자 그러한 부가된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위에 지적된 말들은 아마 5세기경에 우연히 본문에 삽입된 것 같다. 그 이유는 초기의 원고(MS)는 어느 것도(그리스나 시리아 MS) 이 조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마 처음에 단지 한 독자에 의해 본문에 대한 그의 생각의 표현으로 쓴 **가장자리의 주석**이었는데 본문과 주석을 구별하지 못한 어떤 차후의 등사자가 본문 자체로 복사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이 조목의 부정은 여기에 설명된 “계획”에 대해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들의 나머지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 충분한 뜻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죽어 가고 있는** 너는 죽으리라”는 선고를 받기 전에 살았던 그 완전한 뜻에서 다시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약함이 없거나, 죽어 가지 않는 완전한 삶만이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용어인 삶의 뜻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세상 사람은 이미 생명을 잃었고 죽어가고 있으며 지금은 **살고 있다**기보다 **죽어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적당한 묘사가 될 수 있다. (고후 5:14, 마 8:22.)

용어 **부활**(그리스어 **anastasis**)은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에게 관계될 때 그것은 인간을 그가 타락된 데서 그 상태로 곧 아담을 통해서 잃은 성년 남자의 최고의 완벽으로

하늘의 영광을 받은 일단(그 그리스도) 앞에 놓인 그 위대한 일은 그들의 신의 본성으로 높여짐을 필요로 한다. 신의 권능 외에는 아무도 그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없다. 그들의 일은 오직 이 세상에 관한 일일뿐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과 지상에 있는** 다시 말해서, 인간들 사이뿐이 아니라, 영적 존재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에 관한 일이다.(마 28:18, 골 1:20, 엡 1:10, 빌 2:10, 고전 6:3)

지상 면과 그것의 일

하나님 왕국의 지상 면의 일은 이 세상과 인류에 제한 될 것이다. 그 지상 면의 왕국에서 통치에 참여할 만큼 높게 명예를 받은 그들은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에게서 최고의 높임을 받고 가장 큰 명예를 받은 사람들일 것이다. 이들은 연구 8(페이지 90)에서 언급된 계급이다. 그들의 재판 날은 이 복음시대 보다 앞서 있었다. 믿음을 시험받아 충실하다고 평결되었으므로, 죽어 잠든 데서 깨어날 때에 그들은 다시 재판이 아니라, 그들의 충실함에 대한 보답(**인간**으로서 완벽으로 순간적 부활)을 즉시 받을 것이다. 따라서 이 계급은 나머지 인간을 회복하고 축복하는 때에 그리스도의 인간 대행자들로서 이 계급 앞에 놓인 위대한 일을 위해서 즉시 준비될 것이다. (이들과 영적 계급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천년시대에 완벽으로 회복될 것이다.) 영적 본성이 그리스도 일을 성취하는데 필요하듯이, 완벽한 인간 본성은 인간 사이에 하게 될 일의 미래의 성취에 적합하다. 이들은 인간 사이에서 봉사할 것이며 인간에게 보일 것이다. 그 위에 그들의 완벽의 영광은 부단한 모범이 될 것이며, 다른 인간들에게 같은 완벽에 달성키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데 격려가 될 것이다. 옛 구약시대의 충실한 인물들이 왕국의 인간 면에 있을 것이며, 인간에게 보일 것이라는 것은 그를 거부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충분히 증명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것을 볼 것이다.”(눅 13:28) 주님께서서는 그 자신이나 사도들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눈에 보일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는 것도 유의해야 된다. 사실상 인간은 왕국의 지상 면을 볼 수 있고, 그와 섞일 수 있으나 영적 면과는 섞일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들이 그렇게 큰 명예를 거절하였다는 것을 발견하고, 의심할 바 없이 몹시 괴로워할 것이다.

그 두 면의 조화로운 운영

하늘 왕국의 이 두 면들이 조화되게 작용하는 정확한 방식에 관해서 뚜렷한 사실이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가오는 신의 권능의 표시는 그 전형적인 시대에 하나님의 관계를 훨씬 초과하겠지만, 그들의 대표자들인 모세, 아론, 여호수아, 예언자

■ 계속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인류가 **완벽에서** 타락된 완벽은 그 **완벽으로** 그들이 회복이나 부활(일으켜지는)하는 천년시대에 점진적으로 일어날 완벽이다. 천년시대는 오직 시험의 시대일 뿐이 아니라, 역시 축복의 시대이며 **생명**으로 부활이나 회복을 통해서 **잃어버린** 모든 것이 그들이 알고 있고 기회를 가질 때에 기꺼이 복종하는 모두에게 회복되게 되어있다. 단지, 죽어 잠든 데서, 현재에 맞보던 것 같은 생명과 의식의 한계로 깨우는 것은 물론 순간적 일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과정은 점차적일 것이며, 그의 완전한 성취를 위해서 전 시대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인류가 아담 안에서 잃었던 완전한 표준의 생명에 완전히 도달하게 되는 것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달성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완전한 생명에 못 미치는 것은 어느 것이나 부분적 죽음의 상태이므로 위의 조목이 영감을 받은 기록의 부분이 아닐지라도 **죽은 사람들의** 나머지는 회복의 천년과 축복이 완결될 때까지 다시 **살지 않을 것**(잃어버린 생명의 충만을 되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엄격한 사실이다.

들,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 안에서 그들이 작용할 수 있는 방식의 실례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시대의 일은 모든 죽은 사람들을 깨워 일으키는 일과 완벽에 이르기까지 **복종하는 사람들의** 회복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 일은 정부의 사건들을 올바르게 정돈할 수 있도록 인간 가운데 완벽한 인간들을 지도자로 삼은 완전한 정부의 설립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 일은 여러 종류의 박애의 조치뿐이 아니라, 적당한 교육적 시설에 대한 설치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왕국의 보이지 않는 영적 구성원의 지도 아래, 틀림없고 확고한 단계로 인류를 이렇게 향상시키는 이 고귀한 일에 지명되는 것은 높은 명예다. 옛 구약시대의 충실한 인물들이 이 일에 지명되고,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이 마지막으로 파멸되고,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이 묶인 후에, 곧 옛 구약시대의 충실한 인물들은 준비되어,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듯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하늘 왕국의 신이 지명하신 명예스러운 대표자들로서, 옛 구약시대의 충실한 인물들은 이윽고 모든 인간의 명예와 협력을 받을 것이다.

지상 면의 영광

하나님 왕국의 지상 면에서 한 자리를 얻게 되면, 완벽한 인간 마음의 모든 욕망과 큰 뜻의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은 왕국으로 최초에 들어갈 때부터 영광스럽고 만족한 몫일 것이나, 그 영광은 시간이 경과하고, 축복된 일이 진전됨에 따라 쌓아질 것이다. 그리고 천년기간 끝에 이 고귀한 인간협력자들을 통해서 대단히 큰 규모로 그리스도가 만유의 회복의 위대한 일을 성취하실 때, 교정할 수 없는 자들을 제외하고는(마 25:46, 계시20:9) 모든 인류는 여호와 앞에서 티나 주름이나 어떤 그런 종류의 것 들 없이 승인을 받을 때, 그 일에 도움 된 사람들은 그들의 동료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 앞에서 “별들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단 12:3) 그들의 고마워하는 인간 동료들은 그들의 사랑의 일과 노동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영구히 기억에 남을 것이다.(시 112:6)

하늘 면의 영광

그러나 왕국의 지상 면을 구성할 완벽한 인간들의 쌓이는 영광이 크겠지만, 하늘 면의 영광은 뛰어난 영광일 것이다. 전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지만, 후자는 창공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다. 태양과 같이(단 12:3). 땅의 명예뿐이 아니라, 하늘의 명예들도 그리스도의 발아래에 놓여 질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영원의 헤아릴 수 없는 시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날 영광을 어림잡을 수는 있으나, 분명히 이해할 수 없다.(롬 8:18, 엡 2:7-12)

계약의 뿌리, 이것에서 이 가지들이 자람

아브라함에게 만드신 약속이 진실임이 확증되게 되는 것은 그 왕국의 이 두 가지 면을 통해서이다. “너를 통하여 그리고 네 씨를 통하여 땅의 모든 가족이 분명히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씨를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다.” 지상과 하늘의 씨, 둘 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대행자들이다.(창 28:14, 22:17)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들의 두 면들은 분명히 보여주시고 의도하셨으나, 오직 지상 면만을 아브라함이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육적 씨에서 영적 계급의 주요인물(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셨으며, 주요한 축복

인 영적 축복이 그 하늘의 부르심을 위한 적절한 때에 살고 있는 그 민족의 모두에게 제공했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계약 가운데 본 적이 있던 것보다 아주 훨씬 지나친 것이었다. -총애 위에 총애.

사도 바울은(롬 11:17) 아브라함의 계약을 한 뿌리로 말하고, 그 뿌리에서 육적 이스라엘이 **자연히** 자랐으나, 불신앙 때문에 본래의 가지들이 꺾였을 때, 이방인의 믿는 자들로 **접붙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두 가지 씨** 곧 지상(인간)과 하늘의(영의) 씨의 발전을 목적으로 약속의 이중 수행을 증명한다. 지상(인간)과 하늘의(영의) 씨는 왕국의 두 가지 면을 구성할 것이다. 이 뿌리 계약은 이 두 별개의 종류의 가지들을 맺고, 이 가지들은 부활할 때에 각기 그의 고유한 별개의 완전한 열매 곧 왕국의 권능이 있는 인간의 계급과 영적 계급을 맺을 것이다,

발전의 순서에 있어서는 육적(지상의) 통치자들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하늘의 통치자들이었지만, 위치와 취임 때의 장려의 순서에 있어서는 영적인 것이 처음이고, 그 다음이 육적의 것이다. 그래서 “첫째가 마지막으로 되고 마지막으로 첫째가 될 것이다.”(마 19:30, 1 록 16:16)

왕국의 지상 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

스데반(Stephen)이 언급하고(행 7:5) 이스라엘이 신뢰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지상의 것이었다. 그 약속은 **땅**에 관련되어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에게 소유지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스데반은 말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부디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보라. 내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영구히 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의 씨를 땅의 먼지 알갱이처럼 되게 하겠다. 그러므로 만일 사람이 땅의 먼지 알갱이를 셀 수 있다면 너의 씨도 계수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어나서 그 땅을 그 길이로도 다녀보고, 그 너비로도 다녀 보아라. 너에게 내가 그것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창 13:14-17) 스데반은 이 약속이 **아직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기 땅에서 어떠한 상속 소유지도, 아니 발바닥만큼도 주시지 않으셨다고 스데반이 선언하였기 때문이다.(행 7:5a)

사도 바울은 많은 다른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 같은 옛 구약시대의 충실한 인물들의 계급에 대해 쓰면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스데반의 말과 동의한다. 그리고 바울은 더 나아가서, 그 지상의 약속들은 그리스도(머리와 몸)에 관한 아직 더 높은 하늘의 약속들이 성취될 때까지 성취될 수 없으며,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라는 것을 보여준다. 바울은 옛 구약시대의 충실한 인물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모든 사람은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한 채 믿음 안에서 죽었다. 하나님께서 우리(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나은 것을 내다보시고, **그들이 우리를 떠나서는 완전해지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히 11:13,39,40) 따라서 보여준 것은 구세주이며 회복자는 모두를 위하여 자기 인간을 희생의 제물로 포기하였으므로 영적이라는 것과 누가 영적 계급의 기구(대행자)로서 명예를 받을지는 모르나, 탁월한 위치로 높여질 때 이 영적 계급에게서 모든 축복들이 나아가는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다.(롬 12:1, 빌 2:9, 갈 3:29)

따라서 왕국의 지상 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실을 둘러싸고, 세상 사람들의 미래의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안에 그 민족의 탁월함에 관련이 있는 수많은 예언들이 집중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올 이 축복은 굴욕을 받고 무너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천막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온 지상에서 찬미가 될 때에 있게 된다. 우리는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모두 다음 세 가지를 분명히 지적하는 말들을 발견 한다: (1) 만유의 회복의 때에(행 3:21) 이스라엘은 한 민족으로서 모든 민족 중, 국사의 새로운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첫 민족일 것이다. (2) 지상의 예루살렘은 그것의 폐허 더미 위에 재건될 것이다. (3) 그들의 정치는 처음과 같이, 왕이나 재판관들 밑에 회복될 것이다.(시 45:16, 램 30:18, 사 1:26)

그러면 이스라엘이 틀림없이 그 많은 중 맨 먼저 예언자들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을 알아보고, 기뻐할 것이라는 것보다 더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의 율법을 익히 앎과 율법 아래 오랜 훈련은 틀림없이 왕국의 권세 아래, 순응과 복종을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켰을 것이라는 것보다 더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인정되고 축복을 받을 모든 민족 중, 첫 민족일 것이라는 것 위에, 이스라엘에 관해서 다시 기록하기를, 여호와가 틀림없이 유다의 천막들을 먼저 구원하리니(스 12:7)라 했다.

잃은 지파들

우리는 이스라엘의 “잃어진 족속들”을 어디에서 찾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논의를 개시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그 “잃어진 족속들”을 오늘날의 어떤 문명한 국가들까지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제시된 증거들이 부당하지 않다 해도 전체적으로 그것은 대부분 추리이며 추측이다. 그러나 만일 몇 문명국가가 “잃어진 족속들”의 자손들이라는 것을 아직 분명히 증명할 수 있다 해도, “하늘의” “위로 부르심” 밑에서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위로 부르심”은 그들이 민족적으로 배척된 이래,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아무 차이를 모르기 때문이다. (갈 3:28, 히 3:1, 빌 3:14) 만일 그러한 증거가 분명해진다면 해도(아직까지는 없음) 그것은 그 민족에 관한 예언들과 약속들이 완전한 일치를 이룰 것이다. 그 예언들과 약속들은 지상 면의 왕국에서, 그리고 그 밑에서, 성취를 아직 기다리고 있다.

오랫동안 성취되지 않은 약속들에 관한 여전히 잠재하는 얼마간의 신뢰뿐이 아니라, 본래의 애착과 그들의 타고난 모든 편견은 이스라엘이 일반적으로, 그리고 신속히 새 통치자들을 받아드리는데 호의적일 것이다. 그 위에, 율법에 대한 그들의 무시할 수 없는 복종의 습관들은 새 정부의 원칙에 그들의 신속한 화합에도 역시 호의적일 것이다.

하늘의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전형적인 하나님 왕국 밑에서 제국의 소재지였던 바와 같이, 예루살렘은 같은 위치를 다시 차지할 것이며, “위대하신 왕의 도시”일 것이다.(시 48:2, 마 5:35) 도시는 왕국이나 정부의 한 상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새 예루살렘 곧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새 정부로 상징되고 있다.(계 21:2,10) 처음에는 새 정부는 오직 그리스도의 신부인(계 21:2,9, 22:17) 영적 계급으로만 구성될 것이다.

요한이 본 것 같이, 새 정부는 점진적으로 땅으로 내려올 것이다. 즉 그것은 여호와와 그의 날에 현재 제국들이 부서뜨려질 때, 점진적으로 정권을 장악할 것이다. 그러나 적절한 때 이 도시(정부)의 지상 면은 확립될 것이며, 그 지상 면의 정부의 부분(구성원들)은 옛 구약시대의 충실한 인물들일 것이다. 거기에는 도시들(정부들) 두 개가 아니라, 도시 하나 곧 하늘의 정부 하나가 있을 것이다. 그 도시는 바로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참된 기초가 있는 도시”, 즉 구세주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확고한 바위 위에 기초를 둔, 정의 안에서 확립된 정부일 것이다. 그 확고한 바위는 그가 준 인간의 속죄물의 진의(참뜻)이며, 단호한 신의 정의가 이 전에 범죄자를 변명할 수 없었던 것같이, 구원을 받은 자들을 정죄할 수 없다.(히 11:10, 고전 3:11, 롬 8:31-34.)

평화의 영화스러운 도시여! 그것의 벽들은 그곳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 보호, 축복을 의미하며, 정의에 둔 그것의 기초는 결코 뒤흔들 수 없다. 그리고 그 도시를 건축하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시(왕국)에서 비칠 그 빛 가운데서, 전 세계 국민이 완벽에 이르고, 하나님의 왕국과 완전한 조화를 이룰 때까지 거룩함의 대로를 걸을 것이다.(계 21:24)■

이미 보여준 바와 같이, 인류가 천년시대 종말에 완벽에 이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백성의 신분으로 인정될 것이며, 태초에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인간이 군주인 왕으로 땅의 완전한 지배를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요한의 상징적 예언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계 21:24-26) 왜냐하면 환상에서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 왕국의 빛 가운데 걷는 것을 보았을 뿐이 아니라, 땅의 왕들이 영광중에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국을 더럽히는 사람은 결코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시험을 먼저 철저히 받지 않은 사람, 그리고 거짓과 불의를 행하거나, 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그 도시(왕국)에 관련될 수 없다. 오직 어린양이 영생을 얻기에 족하다고 기록할 그들과 그가 “나의 아버지께 축복 받은 사람들아, 와서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왕국을 상속 받아라”라고 말한(마 25:34) 대상인 그들만이 그 도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러면 상기해야 할 것은 의심할 바 없이, 사실상 예루살렘 도시가 다시 건설되며, 필시 그것이 세상의 수도가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예루살렘과 그 미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많은 예언들은 예루살렘을 한 상징으로 장려하게 확립될 하나님의 왕국에 관련한다는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상징된 지상 면 왕국의 미래의 영광에 관하여, 예언자들이 열렬한 말씨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르기를,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 외쳐라.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도로 사셨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기쁨의 이유가 되게, 그 백성으로 크게 기뻐할 이유가 되게 창조하겠다.” “너희는 모두 예루살렘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와 함께 기뻐하여라” “너희는 더 없는 기쁨을 경험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 하셨다. 보라, 내가 그에게 평화를 강처럼 나라들의 영광을 범람하는 급류처럼 베풀 것

■ 다음 용어들은 신용할 만한 고전에서 생략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구원받은 그들의”나 “그리고 명예”. 후자도 요한계시록 21:26에서도 빠져있다.

이기 때문이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왕좌라고 부를 것이고, 모든 나라가 그리로 모이겠고” “그리로 틀림없이 많은 백성들이 가며 말할 것이다. _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왕국)으로,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러면 그가 우리에게 그 길을 교훈 하실 것이니, 우리가 그 길로 걸을 것이다.’ 율법이 시온(영적 면의 왕국)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지상 면의 왕국)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사 52:9, 65:18, 66:10-12, 렘 3:17, 사 2:3)

이스라엘은 전형적 민족

이스라엘과 맺은 미래 축복의 많은 귀중한 약속들을 고찰하고, 그 민족에게 이루어질 약속들의 정확한 성취를 기대할 때, 한 민족으로서 그들은 실제의 민족일 뿐 아니라, 전형적인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 견해로서 그들은 전 세상 인류의 전형이며, 복종과 생명에 대한 율법의 계약은 천년시대와 그 후 여러 미래시대에 세상 사람들에게 맺어질 새 계약의 전형이었다.

전형적인 계약 밑에, 속죄의 피와 그 피를 그 민족에게 뿌리는 제사직은 새 계약의 피와 천년시대에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고 축복할 왕 겸 제사장을 상징하였다. 이렇게 제사직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민족은 모두를 위하여 실제 희생을 해 주시고, 모두에게 실제의 축복이 오게 될 모든 민족을 상징했다 - “모든 사람”, “온 세상”.

그러면 미래의 축복은 과거에서와 마찬가지로 먼저 유대인에게 있고, 또한 이방인에게도 있을 것이지만(롬 1:16, 2:10) 유대인들이 신의 총애를 우선으로 차지하게 됨은 오직 시간문제 일 것이라는 것을 상기합시다. 이 우선은 그들을 적절한 때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로 될 율법(갈 3:24) 밑에 받은 훈련의 자연적 결과일 것임을 우리가 보여주었다.

율법이 첫 강림 때, 오직 그들의 극소수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했지만(롬 9:27, 11:5) 재림 때에는 한 국민으로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것이며, 한 국민으로서 그들이 전 세계 국민 중 첫 열매가 될 것이다. 택하심을 받은 계급들에게 속하는 모든 축복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모든 축복은 궁극적으로 그 국민 중에 실제의 성취가 있을 뿐 아니라, 땅의 모든 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역시 대형적 성취가 있을 것이다. 그 정부 밑에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 행한 일에 따라 갚으실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영광, 영예, 및 평화가 있을 것인데, 먼저 유대인뿐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편파성이 없기 때문입니다.”(롬 2:6,10,11)

이스라엘의 잃은 것과 회복

사도 바울은 미래에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들의 확실함에 특별히 우리의 주의를 끌고, 그들이 불신앙으로 어떤 총애를 잃었으며, 어떤 총애가 아직 확실한 것들인가를 보여준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한 국민으로서 그들이 구하던 바로 그것(롬 11:7) 곧 신의 총애와 신께 드릴 봉사에 있어 최고의 위치를 얻지 못한 것은 자만심, 마음의 완고함과 불신앙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바울의 언급은 아브라함에게서 내리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첫 강림 때 살고 있는 그 세대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말은 최고의 호의인 신의 본

성을 얻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한, 위로 부르심(빌 3:14)이 제공되는 시대인 복음시대에 살아온 모든 그의 세대들에게 적용된다. 이 호의를 이스라엘이 한 국민으로서 인정하거나 붙잡지를 못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찾으시고 복음을 통하여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은 육적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상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도 모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 한 계급, 택함을 받은 자인 적은 무리는 부르심에 유의하고 순종과 자기희생으로 그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스스로 확실히 한다.(벧후 1:10) 이렇게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서 얻지 못한 것과 이름뿐인 교회도 역시 얻지 못한 것을 택함 받은 계급인 충실한 신자들(“그리스도의 몸”)은 얻게 된다. 이들의 선택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지에 따라 선택된다.(살후 2:13, 벧전 1:2)

그러나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이스라엘이 이 모든 특별한 총애를 잃었으나, 이것은 그들이 총애에서 완전히 잘린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만일 부르심을 받고 있는 동안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드렸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와 나머지 인류가 맞본 영적 호의들로 접붙여질 특전을 아직 가졌기 때문이다. 이 이유를 바울이 주장하기를, 만일 그들도 불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본래의 야생 올리브 나무를 본성과는 반대로 정원 올리브 나무에 접붙일 수 있는 것 같이,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으시며, 기꺼이 그것을 바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롬 11:23,24)

택하심을 받은 계급들

그 위에, 바울은 주장하기를, 이스라엘이 그가 얻으려는 최고의 축복 곧 하나님 왕국의 최고의 위치를 잃긴 하였으나, 그 국민을 위해서 아직 성취될 예정인 큰 약속들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한다. 바울은 추론하기를, 하나님의 선물, 부르심, 계약, 그리고 약속은 성취되지 않은 채로 내버려두시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아셨다. 그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부인할 것을 아셨다. 그래서 이 지식에 미루어, 그들에게 하신 그의 명료한 약속들은 “이스라엘이 그가 진지하게 구하는 것 곧 최고의 호의를 얻지 못하였지만”(롬 11:7)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상을 축복하는 봉사에 아직도 쓰이게 되어 있다는 보증을 우리에게 준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계약의 약속들은 한 백성으로 그들이 하늘의 씨가 될 것인지 아니면, 땅의 씨가 될 것인지, 환언하여 그들이 약속들 가운데 언급된 더 높은 봉사를 상속하고 성취할 것인지, 아니면 더 낮은 봉사를 상속하고 성취할 것인지에 그것을 불명확하고 미해결의 상태로 놔두는 성질의 것이었다고 바울은 계속하여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첫 제공으로 영적 총애들도 역시 그들에게 주시고, 그래서 그가 일찍이 약속하신 것보다 더 많이 주셨다 할지라도, 그는 더 높은 영적 총애를 적절한 때까지 비밀에 부치시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들은 지상의 총애만을 말하였다. 한 마디로 말해서 하늘의 약속들은 지상의 약속들 속에 숨졌다.

이 약속들은 실패할 수 없으며, 숨긴 총애를 먼저 제공하고, 이스라엘이 그 숨긴 총애를 맹목적으로 거부했다 해서, 다른 면(지상)의 약속을 결코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지 않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서 선택되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서 버림을 받았으

나, 구세주(그리스도, 머리와 몸)가 완성될 때, 신의 총애가 육적 면의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며, 예언자가 기록한 바와 같이, 영광스러운 구세주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행위를 제거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호의로 회복) 받을 때가 올 것이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다(롬 11:26, 사 59:20)

사도 바울의 기록된 말은 다음과 같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신성한 비밀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분별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 사람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이방인에게서 선택된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감각이 둔해지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부분적으로 있게 된다는 것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구세주(그리스도, 머리와 몸)가 시온에서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행위를 제거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내가 그들과 맺는 계약이다’ 기쁜 소식에 관하여는 그들이 여러분 때문에 적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에 관하여는 그들의 조상 때문에 그들은 사랑을 아직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은 그가 후회하실 일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인 여러분이 한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지만 이제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자비를 받게 된 것처럼. 그들이 이제 불순종하여 여러분에게 자비가 미치게 된 것은 그 자신들도 영광을 받은 교회로 이제 **너의** 자비를 통해서 자비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함께 불순종 안에 가두어 두신 것은 그 모두에게 자비를 보이시기 위한 것입니다.”(롬 5:17-19와 비교해 볼 것) “오, 하나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의 깊음이어! 참으로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도 없고 그의 길은 더듬어 알아 낼 수 없구나!”(롬 11:25-33)

왕국의 상속자들

“누가 여호와와 **산**(왕국의 상징)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의 거룩한 곳에서 일어설 수 있을까? 그 손이 결백하고 마음이 깨끗한 자, 나의 영혼을 진실로 무가치한 것으로 이끌지 않고 기만적으로 서약하지도 않는 자로다.”(시 24:3,4)

예루살렘 도시는 산꼭대기에 세워졌다. 그 산은 타이로포에온(Tyropoeon) 계곡으로 두 부분으로 갈라져 한 쌍 봉우리로 되어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 도시이며, 벽 하나로 둘러싸이고, 다리들이 두 부분을 연결한다. 이 두 산봉우리들 중 하나 위에 성전이 세워졌다. 이것은 영광을 입은 교회 안에 왕과 제사장 지위의 결합이나, 두 가지 면을 가진 오직 한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땅에 기원을 둔 것이 아니라, 지상 면과 분리되어있으면서도 지상과 결합된 새로운 하늘이나 영적 성질의 것(히 9:11)인 영적 성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윗이 두 가지 장소를 주목하는 것같이 보인다. 어쨌든 도시에 속하는 것은 영광이고, 거룩한 성전인 오직 제사장들만이 들어가도록 허용된 신성한 곳으로 올라

■ 영적 이스라엘은 “야곱”이라고 결코 부르지 않는다.

가는 것은 아직 더 큰 영광이었다. 다윗은 둘 중 어느 하나에 달하려면, 사람은 생의 순결함과 마음의 정직함이 누구에게나 필연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왕 겸 제사장에 속할 사람들은(벧전 2:9) 만일 그와 함께 공동상속자의 자격이 되려면,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대제사장이 순결한 것 같이, 순결하도록 권고를 받고 있다. 주님을 향하여 이런 희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정결하신 것처럼 정결하게 한다.(요일 3:3) 이것은 이미 보여준 바와 같이, 절대나 실제의 순결함으로 우리에게 평가된 의도의 순결함 곧 그리스도의 귀여 한 순결함이다. 그것은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가 아니고, 영을 따라서 행하는 동안,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할 수 없는 결함을 보충해 주시거나, 우리의 피할 수 없는 나약함을 보상해 주시는 순결함이다.

그러나 순결함과 성실함과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은 둘 중 어느 면의 것이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그리스도 밑에서 지상 면의 왕국을 상속할 그 옛 구약시대의 충실한 인물들에게도 그러하다.

그들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며(히 1:9, 시 45:7) 과실로 정복되거나 나약함이나 빠지기 쉬운 죄악 때문에 죄를 범할 때에 깊이 슬퍼하며 회오하였다. 복음시대의 충실한 사람들 역시 그러했으며, 천년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인 진리의 성령이 온 인류에게 부어질 때(골 2:28, 행 2:17) 천하 만민 모두 그럴 것이다. 그 시대의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조정 아래,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준비된 왕국인 회복된 최초의 지배권이 행사되는 그 도시(마 25:34)로 들어갈 권리를 가지려면, 마음과 생활의 순결함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역시 필요할 것이다.

쇠 지팡이의 통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누구나 다 그의 통치가 마음에 들 것이라고 그릇된 상상을 한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다. 그의 규칙들은 어느 앞선 정부의 규칙들 보다 훨씬 더 엄할 것이며, 백성들의 자유는 지금 자유의 증대를 극성스럽게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증오를 일으킬 정도로 제한될 것이다. 속이는 자유, 허위진술 하는 자유, 무리하여 실패하는 자유, 남들을 속이는 자유는 완전히 박탈될 것이다. 식량이나 음료에 있어서 스스로나 남들을 악용하게 하거나, 어느 방법으로나 유익한 습관을 더럽히는 자유는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부인할 것이다. 어느 종류의 부정을 하는 자유나 면허는 아무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다. 아무에게나 주게 될 유일한 자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참되고 영광스러운 자유 즉 어느 방법으로나, 모든 방법으로 그 자신들과 남들에게 선을 행하는 자유일 것이다, 그러나 그 거룩한 왕국 모든 곳에서 해를 입히거나 파괴하는 것은 아무것도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사 11:9, 롬 8:21)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자유에 대한 그릇된 습관과 그릇된 관념 위에 기초를 둔 현재의 제도를 무너지게 할 뿐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예전의 습관과 관습을 분쇄하므로 엄격한 통치라고 느낄 것이다. “그는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계 2:26,27, 시 2:8-12와 시 49:14를 비교할 것)라는 예언의 말씀대로 통치의 확고부동과 활력 때문에 그것은 상징적으로 쇠 지팡이의 통치라고 부른다.

이렇게 다음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나는 공의를 측량줄로 삼고 의를 수준기로 삼을 것이다. 우박(의로운 재판)이 거짓의 도피처를 쓸어버리겠고, 물(진리)이 은신처에 범람할 것이다.” 그리고 숨긴 모든 것이 알려질 것이다.(사 28:17, 마 10:26)

천년 통치의 목적의 한 예

많은 사람들은 그 완전하고 공정한 통치에 대해서 반항적으로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통치자(사탄)의 지배 밑에, 그들의 동료 인간 위에 군림하고, 보상하는 봉사를 하지 않고 전적으로 남들의 비용으로 사는 것에 익숙해진 까닭이다. 그와 같은 사람이 그 왕국의 교훈(공정, 정의, 의)을 배우기 전에 그들은 방종과 욕구충족의 현재생활에 대해 그 통치 아래 **당연히** 요구되는 많은 엄한 매질들을 받을 것이다.(시 89:32, 눅 12:47,48) 이 주제에 대한 교훈은 살고 있는 세대에게 먼저 오며, 가까워지고 있다.(약 5장)

그러나 행복한 생각이다! 생명의 왕이 쇠 지팡이의 통치로 의와 공정의 율법을 실시할 때, 인류의 대부분은 “의는 나라를 높이지만 죄는 민족들에게 치욕스러운 것이다.”를 배우게 될 것이다.(잠 14:34)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율법은 관계자 모두를 위해서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배울 것이며, 궁극적으로 그들이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것을 배울 것이다.(시 45:7, 히 1:9) 그 통치 밑에 율음을 사랑하기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영속하는 생명의 무가치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며, 백성 가운데서 온전히 멸망될 것이다.(행 3:23, 계 20:9, 시 11:5-7)

왕국은 영구히 존속

왕국은 아버지께 넘겨드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실 것이다.”(슥 14:9) 여호와께서 천년시대에 그리스도의 관리 아래 설립하실 왕국은 여호와의 왕국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대리자로서 그리스도의 직접 지배 밑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반란 후 미국정부가 남부 여러 주를 처리했던 것과 매우 같은 방식이다. 그들이 미합중국의 헌법에 따르지 않을까 하여 남부 여러 주는 그 자신들의 관리를 선임함으로서 스스로 통치하는 것이 얼마간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주정부들을 재건하고 그들을 중앙정부와 완전한 화합이 되도록 되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발휘할 최대의 권세를 가진 주지사들이 지배하는 위치에 배치되었다.

이런 식으로 지상의 일에 대한 그리스도의 특별한 통치는 한 제한된 기간동안이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는 그 목적의 성취함과 동시에 끝날 것이다. 인간은 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들을, 그 중에서도 특히 여호와의 율법들과 일치하는 자치를 상실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개인적으로 그의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겔 16:55)하실 뿐이 아니라, 지상의 왕으로서 그의 이전 지위로도 돌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권리를

회복해 주시고, 권리를 확보해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인간에게 현재 경험의 교훈을 인식시키기에 꼭 맞는 방법으로, 즉 자기 자신의 회복을 향해 노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인간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강하고 완전한 정부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리고 인간 회복을 완수하는 이 명예는 그가 그 권리를 확보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에게 증여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적을 그의 발아래 두실 **때까지**, 그를 인정하지 않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으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통치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인류의 재건회복에 관해서는 그의 사명을 성취하였으므로 그는 왕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넘겨드릴 것이며, 인류는 최초의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직접 상대할 것이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중재가 화해의 장려한 일을 충분히 그리고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이다. (고전 15:25-28, 24)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었다.

왕국은 하나님께 넘겨질 때, 여전히 하나님의 왕국일 것이며 율법은 항상 같을 것이다. 그 때에 완전히 회복된 모든 인류는 영으로서만이 아니라, 기록된 율법대로 완전한 순종을 행할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는 순종과 노력의 정신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전부이다. 그 완전한 율법의 모든 기록된 법전은 그들에게 한 번에 죽음의 판결을 내릴 것이다.(고후 3:6)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받아드리실 수 있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물을 통해서만 이다.

실제로 완전해질 때까지는 “살아 계신 하나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히 10:31) 지금이나 실제로 완전해질 때까지는 아무도 엄격한 공의의 율법 앞에 설 수 없다. 모두 그리스도의 공로와 희생 때문에 값없이 주신 자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왕국을 아버지께 넘겨드릴 때에는 그는 여호와의 완전한 율법 밑에 영구한 행복을 즐기기에 자격 있고 즐길 수 있는 **흠 없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다. 모든 두려움은 그 때 살아질 것이며 여호와와 회복된 피조물들은 맨 처음에서와 같이 완전한 일치를 이룰 것이다.

천년시대 끝에 그리스도가 지상의 통치권을 아버지께 넘겨드릴 때, 그는 통치권을 아버지의 대표자로서 인류에게 넘겨주신다. 인류가 이 명예를 갖게 되는 것이 기초가 놓인 때에서 의도되었다.(고전 15:24, 마 25:34) 그 때에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히 존속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 읽어 알 수 있다. “그 때에 왕은 오른편에 있는(천년통치에 조화와 순종으로 호의적인 위치에 도달한)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려고 의도하시는 축복 받은 사람들아, 와서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왕국을 상속받아라.”(마 25:34)

인간을 위하여 준비된 왕국과 명예를 아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된 더 높은 왕국과 명예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셨고(고전 2:7)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엡 1:4) 때문이다. 그리고 예시된 바와 같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특별한** 중재와 통치가 끝날 지라도 그리스도의 영광과 통치권과 권능이 그 때에 그칠 것이라고 우리는 결론짓지 말아야 한다.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여호와와 함께 오른 쪽에 모든 신의 영광과 권능과 영구히 연합되어있으며, 그의 신부 겸 공동 상속자는 그의 증대하는 영광을 영구히 같이 나눌 것이다. 얼마나 놀랄만한 일들이 다른 세상에서 이 지극히 높여진 여호와와 대항자의 권능을 기다리고 있는가하는 것은 신의 권능의 무한과 활약과 우주의 끝없음을 암시하는 것 외에는 여기서 그 이상 추측하지 않으려고 한다.

진실로, 우리의 관심이 집중하는 왕국이 무슨 면에서든, 그것은 “모든 나라의 요망하는 것”이다.(학 2:7) 그 이유는 그 밑에서 모두가 축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두 그 때를 진정으로 열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십시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마 6:10. 눅 11:2)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사악을 근절하고 모든 나라를 축복하고 구제할 왕국을 기다리면서.(롬 8:22,19, 16:20) 이것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무식하게 오래 신음하고 있다.

연구 15

여호와와 날

- “여호와와 날”, “복수의 날”, “진노의 날”
- 큰 환난의 때
- 큰 환난의 원인
- 큰 환난에 관한 성경의 증언
- 큰 환난의 불과 폭풍, 그것의 동요와 용해는 상징적인 것으로 보인다
- 다윗의 증언
- 계시록 저자의 증언
- 반대당들, 자본가들과 임금직공들이 판단한 현재 형세와 미래의 전망
- 성공치 못할 구제책
- 바로 적절한 때에 장막이 제거되고 빛이 들어짐
- 이것의 증명
- 환난의 때에 성도들의 상태와 그것에 대한 그들의 타당한 태도

“여호와와 날”, “복수의 날,” “진노의 날”

“여호와와 날”은 이 세상 왕국이 사라지고, 인간을 좌우하는 사탄의 권세와 영향을 묶어 버리는 동안에 그리스도 밑에 하나님의 왕국이 지구상에 점진적으로 “세워지게”되는 그 기간의 이름이다. 그 날은 인류에게 오는 심한 환난과 고통과 당황함의 어두운 날로 어디에서나 묘사되어 있다. 그러한 규모와 큰 변화들을 수반하는 혁명이 환난을 초래하리라는 것은 당연하다. 소규모의 혁명들이 각 시대마다 환난을 초래했다. 그런데 어느 이전 혁명보다 훨씬 더 큰 이 혁명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으며 결코 다시 일어나지 않을 환난의 때가 될 것이다. (단 12:1, 마 24:21,22)

그 날을 “여호와와 날”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왕권과 권능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환난의 때에 모든 일을 맡으면서 여호와와 대리자로 임재하시길 하겠지만, 모두를 축복하는 평화의 왕(사 9:5)으로 임재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것을 정복하는 여호와와 장군으로서 임재하시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그릇되고 불완전한 견해와 조직이 무너짐에 따라, 새 왕의 기준이 증대할 것이며, 결국은 모두가 그를 왕 중의 왕으로 인정하고 섬길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세우는 것이 여호와와 일이라고 예언자들이 진술하고 있다. “내게 청하여라. 그러면 내가 나라들을 너의 상속 재산으로 땅 끝까지 너의 소유로 주리라.”(시 2:8) “이 왕들의 날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울 것이다.”(단 2:44)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아 계셨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 같은 이를 옛날부터 계신 분 앞에 데려왔다. 그러자 그에게 한 통치권을 주고 모든 나라는 그를 섬기고 순종하게 할 것이다.”(단 7:9,13,14,22,27) 여기에 바울의 말을 부가한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통치의 목적을 성취하신 “그 때에는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신 분(아버지)에게 복종할 것입니다.”(고전 15:28)

이 기간을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사 61:2, 63:1-4) 그리고 “진노의 날”(시 110:5)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노여움의 관념만을 납득하거나 신의 악의를 추측하는 사고방식은 심각한 잘못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운영하시는 것과 조화를 이루는 어떤 율법을 확립하셨으며, 어떤 근거에서나 이 율법들과 모순되는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행동의 방침에 따른 처벌이나 신의 노여움을 사게 될 것이다.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고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무시되었으며, 우리가 보여준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음대로 하게 방치하시고, 그와 그의 권고를 그들의 마음에서 없애도록 그들을 방임하셨다.(롬 1:28)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특별한 보살핌을 하나님의 길과 그를 봉사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한 아브라함과 그의 씨(자손)에게 제한하셨다. 한 백성으로서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과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마음의 불성실 때문에, 그들이 메시아를 당연히 받아드리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바로 마찬가지로 당연히 그들의 존재를 끝낸 환난을 맞기에 마땅하게 되고, 결국 환난으로 이르게 했다.

큰 환난의 때

그래서 복음시대에 참된 그리스도 교회(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계급)가 세상에 가져온 빛은 옳고 그른 것의 차이, 선과 악의 차이와, 다가오는 시기에 대하여 한 사람은 보답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은 처벌받게 됨을 문명화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 하였다.(요 16:8-11, 행 24:25) 그들이 만일 주님의 교훈에 유의했다면 이것은 인간에게 폭 넓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강박하여, 그들은 성서의 교훈으로 거의 소득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소홀히 한 결과로 여호와와의 날의 환난이 올 것이다. 그밖에, 환난이 그의 권고를 무시함으로 오는 까닭에, 그리고 불의에 대한 보답으로 오는 것이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견해에서 보면, 세상에 다가오는 환난은 하나님께서 예견하신 죄의 당연하고 정당한 결과이다. 만일 그들이 그의 권고를 따랐더라면 그 죄의 정당한 결과에 대비하여 그들을 보호했을 것이다.

큰 환난의 원인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전갈은 “여러분의 산 희생을 바치십시오”(롬 12:1)이지만, 그가 세상에 주신 전갈은 “네 혀를 잘 지켜 악한 것을 삼가고, 네 입술을 잘 지켜 속이는 말을 하지 말아라. 악한 일에서 떠나 선한 일을 하고, 평화를 찾아 구하며 그것을 추구하여라.”(시 34:13,14)였다. 어느 전갈이든 소수의 사람만이 유의했다. 단지 적은 무리가 희생했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직은 최선의 정책이다”라는 모토를 못질해 놓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 세상은 오히려 탐욕의 소리에 유의했다. 즉 네가 얻는 방법이 무엇이든, 너의 이익 때문에 누가 잃든 간에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 이 모든 것을 얻어라 하는 소리에 유의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만일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들을 어느 정도 지킨다면, 여호와와의 날의 환난은 오지 않을 것이며, 올 수 없을 것이다. 그 율법을 짧게 요약하면, 네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7-39) 타락된 육감적 마음은 하나님 율법에 적이 되어(롬 8:7) 그것에 복종치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서 환난이 올 것이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과 같다(갈 6:7)

육감적이나 타락된 마음은 자기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조금도 사랑하지 않기 때

문에 항상 이기적이고, 움켜쥐곤 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가끔 폭력을 사용하고, 살인까지 하게 한다. 이기적인 원칙은 어떤 방식으로 행사하더라도, 출생, 교육, 주위 환경의 사정에 따라 지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세상에 어느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다음 시대에 다음 일들이 성취될 때까지, 메시아의 쇠 지팡이의 힘으로, 세력이나 탐욕으로가 아니고 사랑으로 무엇이 옳은가를 결정하고, 그 옳은 것을 실시할 때까지, 모두가 이기주의와 세력의 이익에 비해, 의와 사랑의 통치로 보다 나은 유익함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때까지, 진리와 의의 햇빛의 영향 아래 인간의 이기적이고 돌 같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아주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와 같이(창 1:31) 다시 한 번 인간미 있는 마음이 될 때까지 마찬가지일 것이다.(겔 36:26)

돌이켜 볼 때, 신과 같은 사랑과 친절함에서 어떻게 무정한 이기주의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불순종 때문에 아담이 신의 총애를 잃고, 그가 원하는 것마다 풍부하게 공급되었던 그의 에덴 집에서 추방당하자마자, 이기주의를 조장하기 쉬운 환경들을 만나게 되었다. 우리의 정죄된 양친은 에덴에서 나가서 생존을 가능한 한 길게 연장하려고 생존 투쟁을 시작했을 때, 그들은 즉시 가시나무, 찔레나무, 엉겅퀴와 메마른 땅과 마주쳤으며, 이런 것들과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피곤과 얼굴의 땀을 내게 했다.(창 3:18,19) 부도덕한 자질은 끊임없이 악행을 저지르므로, 최대한의 범위를 존속시킨 반면, 정신적 도덕적 자질은 실행의 부족으로 지지러지기 시작하였다. 식량이 생활의 주목적과 관심이 되었다. 그리고 식량을 구하기 위한 노동 비용이 표준이 되었고, 이 표준으로 모든 다른 이익이 평가되었다. 그래서 재물이 인간의 주인이 되었다. 그러한 환경 밑에서 인류가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게 되고, 움켜쥐려고 하고, 각자가 최대한도로 첫째로 필수품들, 둘째로 재물이 주는 명예와 호사를 얻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사탄이 크게 이용한 당연한 경향에 지나지 않는다.

지나간 여러 시대에, 여러 가지 영향 아래(그 중에서도 특히, 무지, 인종의 편견, 국가의 교만) 세상의 거대한 부는 일반적으로 소수의 지배자들에게 맡겨 있었다. 그 소수 지배자들에게 일반대중은 그들의 국가 대표자들에게 하듯이 노예적 복종을 바쳤고, 그 소수의 부 속에서, 그들은 그 자신들이 대표자로서 교만과 흥취를 느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메시아의 손에서 만유의 회복을 통해 세상을 축복하기로 계획하신 때가 다가왔을 때, 여호와께서 현대 여러 시설과 발명을 통해서 무지함과 미신적 관습의 장막을 제거하시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이 현대 여러 시설과 발명에 따라,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향상하고, 지상의 통치자들의 세력이 감소되었다. 다시는 세상의 부가 왕들의 소유로 있지 않고, 주로 백성들의 소유로 되고 있다.

부는 많은 악을 초래하지만, 그것은 얼마간에 축복도 역시 초래한다. 부는 보다 좋은 교육을 얻는다. 그러나 이렇게 그들은 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위로 향상되고, 왕족과 다소 제휴되어 있다. 그러므로 귀족사회가 존재하고 있다. 귀족사회는 자체를 후원하고, 할 수 있는 한, 다 획득하기 위하여 탐욕스러운 분투를 조력하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신을 상류 신분으로 유지할 돈과 교육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성이 퍼지고, 사람들이 지금 아주 풍부한 교육 시설들을 이용하자, 그들

은 독립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때로는 위험한 것이기는 하지만 적은 지식으로 이끌어낸 그들 안에 있는 자부심과 이기심을 따라, 그들은 모든 사람과 특히 자기 자신들의 이득과 생활환경을 지금 부가 맡겨 있는 계층보다 적은 수의 사람들의 치른 희생으로 촉진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안다고 상상한다. 이들 중 많은 사람은 재물 숭배자들(한 쪽에 자기 자신들, 다른 한 쪽에 부자들)의 상반되는 관심들이 쉽게 그리고 공평히 조정될 수 있다고 의심할 바 없이 참으로 믿고 있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유복하다면 그들은 매우 자비심이 많을 것이며 그들은 아주 기꺼이 그들의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할 것이라고 의심할 바 없이 느낀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상태에서 극히 소수만이 참으로 그러한 정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세상의 적은 재산을 이용하는데 충실하지 않은 사람은 많은 부를 소유해도 충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눅 16:10) 실제로, 상황들이 이것을 증명한다. 부자들 가운데서 가장 몰인정하고, 가장 이기적인 사람들 중 다소는 비천한 계급에서 갑자기 올라온 사람들이다.

이에 반하여, 모든 계급의 편에서 탐욕과 움켜쥐는 이기주의를 결코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비난하면서도, 보호 시설, 병원, 결인 숙소, 공공 도서관, 학교와 아울러 부유한 사람들보다 대중의 이익과 편함을 위한 여러 가지 다른 기업들로서 병자들, 무력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예비는 부유한 사람들한테서 나온 세금과 기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유의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다. 이 공공 기관들은 거의 언제나 그들의 존재는 부유한 사람들 가운데서 인정이 많고 자비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빛지고 있으며, 더 빈곤한 계급들은 성공적인 경영을 초래하는데 시간도 없고 일반적으로 필요한 교육이나 관심도 없는 것이 문제들이다.

그런데도 오늘날 부유한 계급과 노동계급 사이에 증대하는 대립을 본다. 노동계급 편에서는 쓴맛이 증대하고 있고, 부유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법률의 강한 힘 외에는 아무것도 그들이 그들의 권리라고 믿는 것을 보호할 수 없다는 느낌이 증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유한 사람들은 정부와 더욱 밀착해가고 있다. 그리고 법률과 정부들은 부유한 사람들을 돕고 빈곤한 사람들을 억제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여, 임금 노동자의 일반 대중은 그들의 이익은 공산주의와 무정부로 가장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나쁜 정부와 가장 값비싼 정부는 무정부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 공산주의와 무정부 쪽으로 끌리고 있다.

큰 환난에 관한 성경의 증언

많은 성서들은 이것이 환난의 성격이고, 환난 중에 현재의 시민, 사회와 종교의 제도들이 끝날 것이라는 것과 이것이 정신상, 도덕상과 육적 인간의 불완전 때문에 환난 중에 지식과 자유의 증대가 귀착할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성서들은 머지않아 인용될 것이나, 그 동안에, 다음 사실을 우리 독자들에게 알려주면서,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것 중 몇 성서들에 주의를 끌게만 할 따름이다. 그 사실이란, 구약의 많은 예언들 중에 이집트, 바빌론, 이스라엘은 실재의 성취만이 예정되었음을 주로 상징할 뿐이 아니라, 제 2의 그리고 더 큰 성취도 상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바빌론의 멸망, 등에 관한 예언들은, 만일 실재의 바빌론뿐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과 대형의 바빌론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지나치게 엄청나다고 고

려 될 것임에 틀림없다. 요한 계시록은 실재의 바빌론이 몰락 된지 오랜 후에 기록된 예언들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분명히 오직 상징적 바빌론에만 적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명백히 직접적으로 실재의 바빌론에 전한 예언자들의 말들의 가까운 유사성은 특별한 점에 있어서 상징적 바빌론에 속한다는 것이 따라서 보인다. 예언의 이더 큰 실현성취에 있어서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한다. 바빌론은 기독교계라고 부르는 이름뿐인 교회를 상징한다. 이미 보여준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미래에 **의롭다고 인정된** 상태에 있을 전 세상을 종종 상징하면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 겸 제사장, 이스라엘의 거룩한 레위들, 그리고 속죄의 희생으로 의롭다고 인정되고 하나님과 화해상태로 이끌린 믿고 숭배하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이스라엘에는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고, 이집트에는 재앙들이 약속되어 있고, 강한 바빌론에는 놀랍고 완전하며 영구한 멸망이 “바다에 던져진 큰 맷돌과 같은 돌같이”(계 18:21) 결코 회복이 되지 않고 영원한 혐오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 약속되어 있다.

사도 야고보는 이 환난의 날을 지적해 주며, 그것이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차이점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가 말하기를, “자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여, 여러분에게 닥쳐오고 있는 비참한 일들 때문에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그것의 가치를 잃었다) 여러분의 겉옷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며, 그 녹은 여러분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어, 불에 타듯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불과 같은 것을 쌓아 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수확을 한 일꾼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하는데도 여러분이 거머쥐고 있는 샅이 계속 부르짖습니다. 다시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는 외침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습니다.”(약 5:1-4)

그가 부언하기를, 환난을 겪게 되는 계급은 다른 사람들의 희생으로 얻은 사치에 익숙해졌다. 그 희생된 사람들 중 몇은 의로운 사람들이며, 그들이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조차 짓 밟혔다. 그 사도(야고보)는 “형제들”에게 후일을 바라보며, 주님을 통해서 오는 해방을 기대하면서 그들의 몫이 무엇이든 끈기 있게 떠맡으라고 열심히 권한다. 바로 이 사태의 상태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세상에서 깨어있는 그들 가운데 “거주하는 땅에 닥칠 일들의 두려움과 예상 때문에 사람들은 기절하게 될 것이다.”(눅 21:26)

우리 시대의 노동임금의 일정한 경향은 노동조합이나 파업들, 등으로 인위적으로 유지하거나, 올리지 않으면 낮은 노동임금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그리고 일반 대중의 현재 감정을 보아서, 언제 인내력이 최하의 한계점에 이르고, 결과로서 언제 반란이 틀림없이 일어날 것인가는 단지 시간문제라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다. 자본금은 기업과 제조업의 경로에서 인출되고, 소유자에게 곤란하게도, 무익한 상태에 보호료로 스스로 소비되게 지하 저장실과 금고 안에 저장될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재정의 공황과 기업의 뒤떨음도 초래할 것이다. 왜냐하면 큰 기업은 지금 주로 신용대부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의 당연한 결과는 그날그날의 양식을 위해 그들의 임금에 의존하고 있는 수십만의 고용인이 내쫓기게 될 것이며, 그들의 필요 불가결한 것을 위해 모든 법을 무시할 사람들과 거지들로 세상을 채우게 될 것이다.

그 때에 예언자 에스겔(겔 7:10-19)이 묘사한 바와 같이 될 것이다. 사는 사람은

기빠하지 말고 파는 사람은 애통하지 말아라. 진노가 그 모든 무리를 향하고 있고 재산 안전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때에 모든 손이 연약해지고 환난을 피하기에 무력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은을 거리에 던질 것이며 그들의 금은 무가치한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의 은과 그들의 금도 여호와와 진노의 날에 그들을 구출하지 못할 것이다.

한 국가로서, 이스라엘 존립의 맨 마지막 40년은 그들의 나라를 완전한 전복으로 끝나게 한 그 국민에게 온 환난의 날, “복수의 날”이었지만, 그들의 진노의 날은 이름뿐인 기독교계에 다가올 아직 더 크고, 더 광대한 환난의 오직 한 그림자나 전형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지금부터 확실히 보이게 되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총애의 시대에 한 국민으로서, 그들의 과거 역사가 복음시대의 전형이었던 바와 같다. 그때에는, 모든 사람이 위에 인용한 에스겔의 예언의 앞뒤 관계들은 그 완전한 성취에 있어서 모든 인류를 포함함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지만, 왜 여호와와 진노의 날에 관한 이 예언들이 다소 직접적으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게 전해져야 하고,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하나의 예언의 증언(슥 1:7-9, 14-18)을 고려합시다.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시고 초대받을 자들을 구별하셨다.(계 19:17과 비교할 것) 여호와와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타국 의상을 입은 모든 자들을 벌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광포와 궤홀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약탈자)들을 내가 ‘역시’ 벌하리라.” 이것은 이 환난의 때에 부와 권력의 엄청난 전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뿐이 아니라, 현재 조직들을 무너지게 하는데, 이 환난의 때 하늘(하나님)의 대행자가 될 그들도 마찬가지로 부정하고 불의한 수단 탓으로, 역시 처벌받을 것도 나타낸다. 다가오는 환난은 모든 계급들을 포함할 것이며, 모든 대중에게 고난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큰 환난의 불과 폭풍, 그것의 동요와 용해는 상징적인 것으로 보인다

“여호와와 큰 날이 가깝다. 가깝고도 매우 급히 이른다. 여호와와 날의 소리가 심하다. 거기서 용사가 부르짖고 있다. 그 날은 진노의 날, 고난과 심한 고통의 날, 폭풍과 황폐의 날, 현재의 곤란뿐이 아니라, 불확정과 전조가 불길한 어두움과 불명료한 날, 구름(환난)과 광포한 흑암의 날이며, 일곱 번째의 **상징적인** 나팔소리인 이 일곱 번째 나팔은 이 환난의 날을 통하여 부르며, 여호와와 날의 **사건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여호와와 나팔이라고도 부르는 그 나팔소리와, 강하고 견고한 정부들의 불만이 많으며 서로 일치하지 않는 위협인 요새 도시와 잘 축성된 성곽들을 향하여 외치는 날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리니, 그들이 정녕 어떤 진로를 추적할지를 모르고 불확정한 상태에서 더듬어 찾는 눈먼 사람처럼 다닐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실재로 그들의 피는 먼지처럼 쏟아져 나올 것이며, 그들의 살은 똥과 같이 될 것이다. 부가 전에는 안락과 모든 사치를 제공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은도 금도 여호와와 진노의 날에 그들을 구출하지 못할 것이다. 도리어 그의 **열정**의 불에 온 땅이 삼켜지리니, 그가 땅의 모든 주민(부유한 사람들)을 진멸하되 참으로 끔찍하게 진멸하실 것이기 때문이다.”(슥 1:14-18) 이 진멸은 의심할 바 없이 모든 계급의 많은 생명의 손실도 역시 포함해서 말하지만, 많은 부유한 사람들의 파멸은 그들이 다시는 부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날의 환난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예언서를 상세하게 추구하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이나, 위에 예언자에서 마지막으로 암시된 견해, 즉 하나님의 **열정의 불**에 온 땅이 **삼켜지는 것**을 간단히 추구할 것이다. 이 예언자는 같은 불, 등을 다시 스바냐 3:8,9에 언급하고 있다. (8절)“너희는 계속 나를 기다려라. 여호와와 말이다. 내가 노략물을 향하여 일어서는 날까지 기다려라. 내 판결은 나라들(국민들)을 모으고 그 왕국들을 한데 모아서 그들(왕국)에게 나의 질책을, 나의 모든 타오르는 분노를 쏟는 것이다.”- 현재 정부들을 반대하는 공통한 관심을 가진 모든 나라들의 백성을 모으는 것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일반의 안전을 위하여 왕국들이 연합하게 될 것이다. 그 때문에 환난은 모든 왕국에게 있을 것이며, 모두가 무너질 것이다. (9절의 계속)“내 열성의 불에 온 땅이 삼켜질 것이다.”- **그 때에** 왕국들의 파멸 후, 환난의 불 속에 현재 사회질서의 파멸 후, - (9절)“나는 못 백성들에게 순수한 말씀(인간의 전통으로 오염되지 않은)인 순결한 언어로 바꾸어 주는 일을 해서, 그들이 다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고 어깨를 나란히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열정의 불은 하나의 상징이며, 전 지구를 덮을 환난과 파멸의 격렬함을 표시하는 강력한 상징이다. 불은 어떤 사람들이 상상하듯이, 실재의 불이 아니라는 것이 그 후에 **사람들이** 남아있으며,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에서 분명하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암시하듯이, 성인들이 아니라는 것이 그 당시에, 그들이 하나님께 **전향**하는데 반하여 성도들은 이미 개종(전향)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분명하다. ▣

성서 전반에 걸쳐 **지구**는 상징적으로 사용될 때 사회를 표시한다. **산**은 왕국을 표시하고, **하늘**은 영적 지배의 권세를, **바다**는 세상의 들떠있는 난폭하고 불만스러운 무리들을 표시한다. **불**은 타는 것이 무엇이든- 잡초, 불순물, 지구(사회적 조직)나, 그 무엇이든- 파멸을 표시한다. 그리고 **유황**이 상징적인 **불**에 부과될 때는 유황이 파멸에 대한 생각을 강하게 한다. 아무 것도 유황의 가스보다 모든 형태의 생명에게 더 치명적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 생각을 마음에 두고, 만일 우리가 진노의 날에 대한 베드로의 상징적 예언을 조사하면 그것이 스바냐의 위의 증언과 완전한 일치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것이다. 그는 말하기를, “그 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실재의 지구와 실재의 하늘이 거기서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노아 홍수이전

▣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불을 실재의 것으로 생각하고, 실재의 지구가 용해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의 논의를 부정하기 위해서이다. 이들은 그들의 이론을 적합 시키기 위하여 주장하기를, 여기서 언급된 **“사람들”**은 지구가 용해되고 식은 후에 지구로 돌아와서 집들을 짓고 살며, 포도원에 심고 그들의 열매를 먹으며, 그들의 손의 일을 오래 즐길 성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현재 몇 년을 상속을 위한 훈련(준비)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이론을 따르면, 훈련(준비)이 천년이나 더 많은 해를 지구가 식기를 기다리는 **공중의** 경험들 가운데 완전히 잃을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잘못된 생각이며, 우리 주님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비유적 표현들, 비유들, 상징들, 및 수수께끼들을 너무 문자 그대로 해석에서 온 결과다. 같은 잘못된 생각을 이어, 그들은 이 불 후에 산도 없고 바다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불뿐이 아니라, 모든 이것들이 상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에 존재한 경륜(사물의 제도)이 소멸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동일한 말씀(‘신의 권위’)으로 지금 있는 하늘과 땅(현재 경륜)은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되어 있으며...” (벧후 3:6,7) 물이 실재였다는 사실이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불도 역시 실재임에 틀림없을 것이라고 믿게 하나, 이것은 결코 당연한 결론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은 한 때 실재의 돌로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참 성전인 교회가 거룩한 성전인 영적 건물로 세웠고, 지상의 물질로 세운 성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체쳐놓지 않는다. 노아의 방주도 역시 실재의 것이었으나, 그것은 다시 사회를 채우고 개조할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능력의 전형이었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보이지 않게), 그 날에는 하늘이(현재 공중의 권세 잡은 곧 영의 권위. 사탄이 그것의 우두머리이며 통치자 -엡 2:2) 요란한(치찰음이 현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질 것이고, 요소들이 심히 뜨거워서 용해될 것이며, 땅(사회 조직)과 그 안에 있는 일들(교만, 사회 층, 귀족사회, 왕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날에는 하늘이 불타서 용해되고, 요소들이 심히 뜨거워져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약속대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새 하늘(새로운 영적 권세, 즉 그리스도의 왕국)과 새 땅(권력이나 억압의 기반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의 기반인 한 새로운 기반 위에 조직된 땅의 사회)이 있으니....”(벧후 3:10-13)

사도들 중에 어떤 이들, 그 중에서도 특히 베드로, 요한, 바울은 예언자들이기도 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사도들로서 그들은 교회를 위하여 이전의 예언자들의 예언들을 해설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대변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다가 올 일들을 예언하시기 위하여 예언자로서도 그들을 역시 이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올 일들이 성취되기에 적합할 때, 적절한 때의 양식을 믿음으로 식구가 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때 적합한 종들이나 해설자들을 일으키신다. (이 사실에 있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 24:45,46) 사도들은 예언자로서, 구약성경의 예언자들이 그러했듯이(벧전 1:12,13) 그들의 시절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오직 대략으로만 이해할 수 있었던 것들을 기록하도록 감동되었다. 구약성경의 예언자들과 같이, 사도들의 말은 특별히 인도되고 지도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 내용이 언제 사용되는지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말씀의 의미의 깊이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명확히 하나님 당신께서는, 예언을 전달하는 대변자나 매개가 누구든지 간에, 교회를 항상 인도하시고 부양하신다. 이것을 사실로 깨달음은 하나님의 대변자들 중 몇 사람들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씀에 더 큰 확신과 신뢰를 갖도록 틀림없이 이끌어 줄 것이다.

예언자 말라기(4:1)는 같은 상징 밑에 주의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는 말하기를, “가마처럼 불타는 날이 오리니, **교만한 모든 자들과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곡초처럼 되고 말 것이다. 다가오는 그 날이 틀림없이 그들을 살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뿌리든지 가지든지 남기지 않을 것이다.”

자만심과 교만과 억압을 다시 솟아나게 할 수 있는 그밖에 모든 원인은 주의 큰 환난의 날과 그 후 천년시대의 훈련들로 완전히 소멸될 것이다. 제일 마지막 훈련은 요한계시록 20:9에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자만심(죄 많고 혐오한 온갖 형태)은 아주 근절하게 되어있고, 모든 교만

한 사람들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아주 파멸하게 되어있지만, 그것은 이 계급 가운데 개선의 희망이 없다고 결론이 되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의 공정한 분노의 이 불이 탈 것이지만, 심판자는 **어떤 사람들을 소멸하는 불에서 끌어내는**(유 23)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도움을 거부하는 그들만이 그들의 자만심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만심을 그들의 인격의 부분으로 형성하고 있어, 개전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같은 예언자, 말라기(3:1-3)는 이 날을 다르게 기술하고 있다. 그는 다시 불의 상징 밑에, 잘못된 불순물을 **없어지게** 함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끗해지고 축복을 받아, 그에게 가까이 데려오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너희가 기뻐하는 계약의 사자. 보라! 그가 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가 오늘날을 누가 견딜 것인가? 또한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시험에) **서 있을** 것인가? 그는 정련하는 불같고....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사람처럼 앉아서 레위 자손(믿는 자들의 전형. 그들 중 제 1 위는 왕 겸 제사장)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가 그들을 금과 은처럼 정화하리니 그들은 틀림없이 여호와에게 의로운 예물을 바치는 백성이 될 것이다.”

바울은 이 같은 불과 주의 날에 믿는 자들을 정련하는 과정을 언급하는데(고전 3:12-15) 상징적인 불이 모든 잘못을 **소멸할** 것이며, 이렇게 하여 믿음의 순화를 가져오게 할 것이라는 것에 의문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언급한다. 그는 오직 인정된 기초인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을 끝낸 일에 믿음을 세우는 그들만을 언급한다고 선언한 후에 그는 말하기를, “그런데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신의 진리와 대응하는 인격)이나 목재나 건초나 짚(전통적인 과오와 대응하는 불안정한 인격)으로 집(인격)을 짓는다면, 각자의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그것을 보여 줄 것입니다. 그것이 불로 밝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 그 자체가 각자의 일(벧후 1:5-11)이 어떤 것인지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확실히 가장 편견적인 사람조차도 영적 일을 시험하는 불은 실재의 불이 아니라는 것을 시인할 것이다. 불은 여기에서 목재와 건초와 짚으로 묘사된 상태의 완전한 소실을 묘사하기 위하여 적합한 상징이다. 이 불은 신의 진리의 금, 은과 보석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속죄물의 희생의 반석 위에 기초를 둔 믿음과 인격의 건축을 소멸하기에 무력할 것이다.(고전 3:12,13)

사도 바울은 이어 고린도전서 3:14,15절에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누구든지 그 위에(그리스도 위에) 건축한 일이 남아 있다면 그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의 상은 진리를 참된 인격을 발달시키는데 이용하면서 건축하는데 그의 충실함에 비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갑주를 취하면서(엡 6:13) 누구든지 그의 일이 타 버린다면 그는 손실(상의 손실, 불충실함으로)을 입겠지만, 그 사람 자신은 구원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불을 통과한 것 같을 것입니다.” 불에 그슬리고, 논게 되고 놀라게 된다. 그리스도의 속죄물의 반석 기초 위에 세운 모든 사람은 안전하다. 그들의 덮개로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전혀 당황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죄물의 분명하고 충분한 지식을 받게 된 후에, 그리스도와 그의 일을 **고의로** 거절하는 그들은 둘째 사망을 받아야 될 것이다.(히 6:4-8, 10:26-31)

아직 또 하나의 방법으로 주의 환난의 날이 상징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사도 바울(히 12:26-29)은 시나이에서 율법의 계약의 시작은 천년시대(그리스도 왕국)의 통치가 개시될 때, 세상에 새 계약 제정의 전형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가 말하기를, 전형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실제의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단호히 마침내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시킬 것이다”라고 그는 약속하셨다.(히 12:26). 이것에 관하여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말), ‘단호히’라는 표현은 만들어진 것으로서 흔들리는 것들을(틀린, 조작된, 참이 아닌) 제거하심을 뜻합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참되고 의로운 것들만)이 남아있게 하려는 것입니다”(히 12:27).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게 되어있으니 계속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 있도록 합시다. 그것을 통하여 경건함과 외경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방식으로 신성한 봉사를 드립시다”(히 12:28). 왜냐하면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또한 소멸하는 불”(히 12:29)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사도는 다른 데서, 그와 다른 사람들이 불의 상징 밑에 언급하는 것을 여기서는 주의 날의 환난을 상징하기 위하여 폭풍을 이용하는 것을 본다.

같은 사건들이 여기서는 불의 상징 밑에 기술되고 있는 것이 유의된다. 즉 하나님의 계획, 성품, 말씀에 관한 과오와 세상에 있는 사회와 시민들의 일들의 과오, 등 믿는 자들과 세상사람 모두에게서 오는 모든 허위성들을 휩쓸어 가는 사건들이 불의 상징 밑에 기술되고 있는 것이다. 교활한 정의의 적인 사탄의 간교한 술책 때문뿐이 아니라, 주로 자신의 타락된 욕구를 통해서 인간에게 온 이 날조들이 제거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참으로 좋을 것이다. 그러나 과오들이 휩쓸어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은 관계되는 모두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 대가는 몹시 뜨거운 불, 무서운 폭풍우, 환난의 암흑의 밤일 것이다. 이 암흑의 밤은 결코 흔들려질 수 없는 그 의로운 왕국의 영광스러운 빛남에 앞서 올 것이며, 병에 걸리고 죽어 가는, 그러나 구속된 세상을 축복하고 고치는 의로운 해가 장려함과 권세로 빛나게 될 그 천년시대의 영광스러운 빛남에 앞서 올 것이다.(말 4:2와 마 13:43과 비교할 것.)

다윗의 증언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첫 강림에 우리 주님께 관하여 것처럼 많이 예언하시기를 기뻐하신, 예언자 다윗은 환난의 날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소개될 이 환난의 날을 좀 생생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의 기술들 가운데 그는 이 여러 가지의 상징들- 불, 폭풍우, 암흑- 을 교대로 그리고 교환하여 이용하고 있다.

실례를 들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시 50:3)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결코 잠잠히 계시지 않으시리니, 그의 앞에는 불이 삼키는 일을 하고 그의 주위는 폭풍이 몹시 부는 날씨가 되는구나.” (시 97:2-6)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정함이 그 보좌의 기초이다. 불이 그를 앞서 나아가며 사망의 적대자들을 소멸하는구나. 그의 번개가 세계를 밝게 비추니 땅이 보고서 심히 떨었도다. 산들도 여호와와 앞 곧은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아 내렸다. 새 하늘이 그 때에 그의 의를 알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의 영광을 보았구나.” (시 46:6) “나라들은 소란스럽고 왕국들은 흔들렸으며 그가 음성을 내시니 땅이 녹았구나.” 또 (시 110:2-6) ‘너 주의 적들 가운데서 정복해 나가거라’(2절).....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오른편에서 자신의 분노의 날에 왕들을 정녕 쳐부수시겠고(5절) 나라들 가운데서 심판을 집행하시어 시체들이 가득하게

하시리니,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우두머리(통치자들)를 정녕 쳐부수실 것이다.”(6절), 또 (시 46:1-5) “하나님은 **우리의** 도피처이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쉼자리 찾을 수 있는 도움이시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땅(사회)이 변하여도, 산들(왕국들)이 흔들려 드넓은 바다(소동을 일으키는 대중이 삼킴) 한가운데로 빠져들어도, 그 물이 거칠어져 거품을 내뿜어도(격노), 그것의 소란으로 산들이 진동하여도.....하나님께서 아침이 될 때에 그를(신부, 충실한 “적은 무리”)을 도우시리라.” 그리고 같은 시편 6-10절에서, 같은 이야기가 다른 상징으로 다시 진술 되어있다. “이방이 소란스럽고 왕국들이 흔들렸으며, 그의 음성을 내시니 땅(사회)이 녹았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한 산성이시로다.” 그 다음에, 환난을 지나서 그 환난 기간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그가 부언하기를, “너희는 와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아라.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이방들아, 너희의 이전의 길을 단념하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내가 나라들 가운데서 높여지리니, 내가 땅에서 높여지리라.” 그 “새로운 땅”, 사회의 새로운 질서와 조정은 어느 곳에서나 만물을 지배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그의 율법을 높일 것이다.

계시록 저자의 증언

주의 날이 환난의 한 큰 날이며 모든 형태의 악을 파괴하는 날일 것이라는 사실(그러나 지구를 실제적으로 불태우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님**)의 증명으로 또 하나의 증언은 성경의 맨 마지막의 상징적 예언에서 제공해 주고 있다. 주께서 그의 큰 권세를 잡으시고 왕으로 통치하실 때를 언급하면서 **폭풍과 불**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나라들이 격분하였으며 여러분의 진노가 이르렀습니다.”(계 11:17,18) 그리고 또 “그의 입에서는 날카롭고 긴 칼이 튀어나오는데, 그것으로 나라들을 치실 것이다. 그는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또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에 찬 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으신다..... 그리고 내가 보니, 야수(상징적)와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말을 타신 자와 그의 군대와 맞서 싸우려고 함께 모여 있었다. 그리하여 야수가 잡혔고,거짓 예언자도 함께 잡혔다. 둘 다 산 채로 유황으로 타는 불 못에 던져졌다.”(계 19:15,19,20)

여기서 우리는 이 상징들 곧 “야생”, “거짓 예언자”, “야수의 형상”, “불 못”, “말”, 등을 고찰하기 위하여 본제를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을 위해서 독자가 다음 권을 참조하기로 둔다. 이제 우리는 독자들이 큰 상징적 전투와 현재시대를 종결하고 천년시대를 개시하는(계 20:1-3) 것으로 여기에서 기술된 땅의 포도나무의 수확은 오직 다른 곳에서 상징적으로 불, 폭풍, 흔들림, 등으로 부르던 같은 크고 소란한 사건들을 포함하는 다른 상징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하기 바란다. 요한계시록의 전투와 포도 짜는 기구 표상들에 관련하여 같은 비슷한 표상들로 사건들을 기술하는 점에 있어서, 요엘 2:9-16과 이사야 13:1-13의 현저한 일치를 유의하십시오. 이 용된 상징적 표상의 여러 가지는 우리를 도와서 그 크고 유의할 만한 주의 날의 모든 특징들을 더 충분히 이해하게 해준다.

현재 사태

반대당들, 자본가들과 임금직공들이 판단한 현재 형세와 미래의 전망

우리는 여기서 그 날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을 뒤로 남기고, 우리가 지금 세상의 형세들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충돌을 위해 스스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을 지금 볼 때, 이 현재 세상 형세들에 우선 특히 주의를 기울이려고 한다. 이 충돌은 심한 절정에 이를 때에 필연적으로 짧은 것임에 틀림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인류가 절멸될 충돌이다. 이 전투의 두 경쟁 당파들이 이미 보인다. 부, 오만, 교만이 한쪽에, 그리고 일반적인 빈곤, 무지, 편협, 불의의 예민한 의식이 다른 쪽에 있다. 이기적인 동기로 추진된 양쪽은 모두 그들의 세력들을 전 문명세계에 지금 조직하고 있다. 진리로 기름 부은 우리 눈으로 어디를 보든지, 바다와 파도가 산들을 부딪쳐 이미 거칠어지고, 치며, 거품을 내 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수가 항상 늘어가고 있는 무정부주의자들과 불만을 품은 자들이 위협하고 노리고 있음을 표시한다. 우리는 사회의 여러 당파나 요소들 사이에 **알력**이 예언자들에 의해 기술된 지구(사회)가 불에 타게 되고, 요소들이 공동으로 발생된 열로 녹고, 무너지게 될 찰나로 급히 이르고 있는 것도 역시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이 논평의 어느 쪽에 가담하고 있든지, 그 자신들의 이익, 습관과 교육에 반하는 것을 보는 것은 그들에게 물론 어려울 것이다. 부자들은 이 세상의 소유를 비례적 할당보다 더 많이 가질 권리, 노동과 모든 상품을 될 수 있는 대로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 그들의 노력의 보수에 권리, 비록 다른 사람이 경제적 사정으로 생존의 필수품 모두를 가지고서라도, 편함이 조금 있는 생존을 겨우 끌고 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하더라도, 그들의 지성을 써서 그 자신들의 수익을 만들고, 그들의 축적된 부를 늘리도록 그들의 실업을 운영할 권리가 있다고 느낀다.

•그들(부자들)은 이렇게 추론한다. “그것은 부득이하다. 수요공급의 법칙이 작용해야 한다. 부와 빈곤은 세상에 언제나 있었다. 그리고 만일 아침에 부가 균등하게 분할된다면, 어떤 사람은 방탕이나 낭비로 밤이 되기 전에 가난해지는 한편, 다른 사람들은 더 주의 깊고 분별이 있어 부유할 것이다. 그밖에 그들은 유효하게 논할 것이다: 보다 지력 있는 사람들이 수입과 어떤 이익의 기대가 있는 경우 외에는, 큰 손해의 염려를 무릅쓰고 수천인을 고용하는 거대한 사업을 떠맡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기술공과 인부는 이에 반하여,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1) 노동계급은 어느 때 이상으로, 오늘날 많은 편의를 즐기고 있고, (2) 임금이 더 많다. 따라서 더 큰 안락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이 즐기는 점에 있어서, 그것은 단지 어느 정도 오래 금해왔던 권리이며, 그것은 우리시대의 발명, 발견과 점점 증가하는 지식, 등의 편위의 한 몫을 이렇게 당연히 끌어내는 것이라고 우리는 본다.”

“우리는 노동을 명예스러운 것으로 인정하며, 좋은 관념, 교육, 정직과 원리와 동반되면 어느 직업에 못지않게 명예스럽고, 똑같이 많은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이에 반하여,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재능과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게으름은 모든 인간에게 수치이며 불명예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가치가 되고 고

맴게 여기게 되는 모든 것은 어떤 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지성적, 사회적, 재정적으로 우리 현재의 개량과 진보를 여실히 알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고용주 편에서 인간의 의도의 결과라기보다, 오히려 주위의 사정들의 결과라는 것을 여실히 알고 있다. 우리는 우리 모든 인류의 개량된 상태는 특히 과거 50년의 지성, 발명, 등의 큰 증가의 결과라고 본다. 이것들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서, 자본뿐이 아니라, 노동이 조수의 파도로 올려져, 더 높은 수준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만일 밀물이 계속 불어나, 모두에게 이익을 주리라는 전망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만족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걱정스럽고 불안스럽다. 우리는 두 가지 현상을 본다: (1) 밀물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 (2) 밀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가운데 높이 올려 져서, 마치 선박이 해면에 굳게 그리고 단단히 고정되어 있음과 같이, 편안하고 호사스럽고 풍부함에 고정되어 있음에 반하여, 대중은 아직 이렇게 안정되거나 보증되어 있다고 하기보다, 지금 약해지고 있는 썰물의 저류 때문에 여전히 낮거나, 더 낮은 경지로 이끌려가고 있는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 그러므로 너무 늦기 전에 우리의 현재 상태와 그 이상의 발전을 보증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인가를 붙잡고 싶어 한다.”

“이 내용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우리(기술공과 인부들)는 모든 인류가 현대의 축복을 광범위하게 나누어 왔지만, 사업의 더 큰 재능의 이유로나, 상속이나, 사기행위와 부정행위로 수천 수백만 달러를 소유하게 된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람 이상으로 이 이익을 보고 있을 뿐이 아니라, 기계의 발명으로 도움이 되어, 그들은 임금 노동자 봉급의 감소에 대한 비율로 그들의 부의 증가 비율을 지속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노동절약을 위한 기계류, 등과 겹하여 증가하는 독점사업의 세력에 대비하여 증가하는 기술공들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들을 취하지 않으면, 수요 공급의 냉혹한 법칙이 우리를 완전히 삼켜버릴 것이라고 우리는 본다. 우리가 보호하려는 계획을 준비하고 추구하는 것은 **현재의 상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임박한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인구에 대부분은 자연 증가와 이민으로 나날이 그 수가 더한다. 그리고 나날이 노동 절약을 위한 기계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날이 직업을 찾는 수는 증가하고, 그들의 봉사의 수요는 감소한다. 그러므로 만일 이러한 추세가 끊임없이 허용된다면, 수요공급의 법칙이 노동의 경향을 머지않아 1 세기 전으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며, 우리 시대의 모든 이익을 자본가 손에 남길 것이다. 우리가 피하기 위하여 추구하는 것은 바로 **다음과** 같다:”

●(저자) 많은 참된 축복의 궁극적 경향이 현명하고 공정한 법률로 제지하지 않는 한, 위해의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오랜 동안 보았다. 그러나 잇따라 일어나는 발명 **속도**와 이 노동 절약을 위한 기계류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증가된 노동의 수요가 너무 커져서, 궁극적인 결과가 지연되었으며, 대신, 세상은 “벼락 경기”-물가, 임금, 부, 신용대부(부채)와 사상의 인플레이션-를 누렸다. 이로부터 반작용이 지금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에, 원래는 다섯 사람이 할 수 있던 일과 같은 양의 일을 한 사람이

성취하는 것이 가능케 하는 온갖 종류의 경작기구들이 막대한 양으로 생산되었다. 이것은 두 배의 효과를 낸다: 첫 째로, 세배만큼의 농지가 경작되어, 다섯 노동자들 중, 세 명에게 일을 줌으로서, 고용되지 못한 다른 두 명을 다른 노동을 위해서 경쟁시키는 것이고, 둘째로, 고용된 세 명은 기계를 이용함으로써 기계 없이 열다섯 명이 할 수 있는 양의 대 수확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비슷한 현대의 발명으로 같거나 더 큰 변화들이 다른 분야에서 일어났다. 예를 들면, 제철 제강업이다. 그것의 발전이 대단히 거대하여, 이전에는 약 열 두 사람이 일한 만큼의 분량을 현재에는 기계류를 사용하여 한 사람이 성취하는 것이 가능케 하는 사실이지만, 고용인들의 수가 크게 증가되었다. 그 결과들 중에 하나는 아주 머지않아, 이 광범한 생산력은 현재의 막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보다 더 클 것이며, 수요는 증가하기를 계속하기보다 아마 감소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현재 필요 이상, 철도로 빠르게 공급되고 있으며, 철도들의 매년 수선작업은 아마도 현재 철도회사들의 절반 이하의 수로 공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치 못할 구제책

이렇게 자본과 노동에 때때로 게으름을 일으키는 과잉생산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그들로 하여금 필수품들과 사치품들을 모으게 하고, 그 결과 과잉생산을 얼마간 구제할 고용이 모자라게 되는 독특한 상태와 우리는 접촉되어 있다. 그리고 과잉생산과 고용의 부족 양쪽을 향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중에 있고, 어떤 종류의 구제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불균형과 모순적인 경향을 올바르게 진단할 수 있는 사회, 경제의 달인이 그 구제책을 찾아 제시하고 있으나, 경제적 불균형 사회의 사람들은 그 구제책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임금 노동자들이 계속 말하기를, “그러므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기 시작할 때, 경쟁은 자본과 기계류에서 이익을 상당히 줄이고 있다는 것과 세계를 통하여 그들의 이익을 줄이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익 대신, 실제 상실로 부자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반사 작용으로 (벼락 경기)와 통화팽창으로 대중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손해를 입기보다는 가장 이익을 본 계급이 가장 손해를 입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다.”고 한다.

●(저자)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이유들로, 임금 노동자들은 가능하면 입법으로, 아니면 어떤 이유로나 대중의 발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대중의 관심이 보호되고 있지 않은 국가에서는 강제로 그리고 무법으로 다음의 결과들을 얻으려고 움직이고 있다:

- (1) 임금의 감소 없이 노동의 숙련과 어려움에 비례하여 노동시간이 단축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의 증가 없이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그래서 더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구매수단을 급여함으로써 다가오고 있는 과잉생산을 균등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 (2) 현재 비율보다 훨씬 적게 돈에 이자율을 고정시키고 제한할 것과 따라서 차용인이나 빈곤한 계급에 대해 대주의 **관용**을 강요하게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만일 대주들이 이 제안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의 자본이 무익해지거나 묵혀질 것이다.
- (3) 철도는 그들의 종업원인 정부 공무원으로 운영된 국민의 재산이 되게 하거나, 입법을 조치하여 철도의 자유와 요금, 등을 제한하고, 공중에게 더 낮게 봉사하도록

하는 식으로 철도의 운영을 강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철도는 여러 다른 부문의 상업에서 경험한 일반 가치의 감소를 따르기 위하여 자본을 삭감시키는 대신, 인플레이 된 가치의 기간동안에 부설된 철도는 자본의 실제적 증가 없이, 원래의 대 자본 주식을 2배나 3배로 증가시켰다. (보통 자산규모를 과대평가해서 발행되어 그들의 주식에 **물 타는** 것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큰 철도회사들은 이 철도들을 오늘날 **새로** 부설하는 가격에 평균 4배가되는 주식과 사채발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배당금을 지불하기에 애쓰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반 대중이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 농민들은 값비싼 운송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그들은 가끔 곡식을 연료로서 사용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농민의 이익에는 소득이 없이 국민들의 식품가격은 더 비싸다.

(4) 철도회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의 주주에게 그들의 현재 실제 가치에 약 4%의 배당금을 지불하고, 지금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듯이, 합동으로 협정을 맺음으로 경쟁을 방지함으로서, 그들의 현재 주식 가치의 3배나 4배에, 4%에서 8%를 지불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기술 직공들은 다음 점들은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1) 물탄 철도주식과 다른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의 투자한 자본의 이익의 감소가 불쾌하게 보이고, 이를 뽑아내는 것 같을 것이다. (2) 그들(주식 소유자들)은 국민이 허용한 특허를 사용하는데 대한 그들의 **권리들(?)**, 국민에게서 허위 가치평가에 근거한 막대한 이익을 빼내는데 대한 그들의 **권리들(?)**이 심하게 남용되고 있다고 느낄 것이다. (3) 기술 직공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것에 저항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기술 직공들)는 다음과 같이 느낀다: (1) 그들(주식 소유자들)은 일반대중이 매우 관대하여, 그들에게서 이미 얻은 수백만 달러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2) 대중은 축복이 있는 오늘날의 축복을 보다 균등하게 같이 나눌 때가 왔으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대중에게서 얻은 돈과 권력으로 살이 찐 모든 욕심 많은 주식회사는 억제되어, 적당한 가격으로 일반 대중을 봉사하게 법으로 **강요하도록** 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의 축복들을 대중에게 확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본을 대표하는 대 주식회사들은 큰 범위로 축복과 이익이 되고 있지만 그들은 이익의 한계점을 지나, 국민들의 주인이 되고 있으며, 만일 억제되지 않으면 임금직공들은 빈궁과 노예상태로 곧 전락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 보고 있다. 대체로 모두 부유한 사람들로 구성된 주식회사들은 미국의 일반 대중에 대하여, 대브리튼과 모든 유럽의 귀족들이 거기에 있는 대중과 유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관계를 재빨리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단지 미국의 주식회사들은 더 강력하다.”

임금직공들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는 조직이 필요하다. 우리는 대중의 협력이 있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큰 세력과 영향에 항거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조합, 등으로 조직한다 할지라도, 우리 목적이 어느 계급에 대한 무정부 상태나 불의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국민 대중인 우리는 부와 권력을 가진 그들에게 적당한 제한을 둠으로

서 우리 자신의 권리와 우리 자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다만 바랄 뿐이다. 그들의 부와 권력이 억제되지 않으면 우리를 짓밟을지 모르며, 올바르게 이용되고 억제된 부와 권리는 모두에게 보다 일반적인 행복이 될 수 있다. 한 마디로 그들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우리는 황금률을 **강요**하겠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 7:12, 눅 6:31)

- (저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은 만일 적당하고 정당한 수단이 현실화하면, 만일 부유한 사람들은 그들의 현재 재산으로 만족하고, 대체로 큰 국민대중과 모든 계급의 상태의 영구한 향상에 협력하면, 만일 임금직공들이 정당한 수요액에 만족한다면, 만일 사랑과 정의의 황금률이 이렇게 실행될 수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현 상태에서 강요 없이 이 법칙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세상의 기술 직공들 가운데 그들의 생각이 온건하고 올바른 사람들이 다소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못하고 그들의 관념과 요구가 모든 이성을 벗어나 극단적이고 불의하고 거만할 것이다. 자본가 측이 양보하면, 할 때마다 그러한 요구들과 관념들이 더해질 뿐일 것이다. 그리고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거만과 지배는 두 배로 가혹하다는 것을 경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알고 있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다. 다소는 노동계급층에 충분히 동정하여 필요한 개혁들을 점진적으로 초래할 그러한 조정들을 함으로서 그들의 동정을 기꺼이 실천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람들은 매우 소수이고, 주식회사의 운영에 있어 전혀 무력하고, 또 사기업에 있어서 대부분이 무력하다. 만일 그들이 상인들이나 제조업자들이라면 그들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거나 그들의 임금을 올릴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면 경쟁자들이 상품을 시장 가격보다 싸게 팔 것이고, 그래서 그 자신들과 그들의 채권자와 고용인들에게 재정상의 재난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와 날”의 큰 환난의 필연적인 원인을 알고 있다. 이기심과 그 자신들의 이익 외에는 모두에게 무감각이 문제의 양면에 있는 대다수를 지배할 것이다. 임금직공들은 그들의 이익을 조직하고 단일 화 할 것이나, 이기심이 연합을 파괴할 것이다. 그리고 그 원리 때문에 주로 자극되고 있는 각각은 그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반란을 꾀할 것이다. 알지 못하고 거만한 대 다수가 지배권을 획득할 것이며, 우수한 계급은 그들의 지성이 조직한 것을 저지하기에 무력하게 될 것이다. 자본가들은 그들이 더 양보하면 할수록 양보가 더 요구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들은 이윽고 모든 요구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결심할 것이다. 반란이 결과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대체로 불안과 불신으로 자본을 공과 사기업에서 회수할 것이며 기업의 불경기와 재정적 공황이 뒤따를 것이다. 이 수단으로 실직된 수천 명의 사람들은 마침내 절망 상태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법과 질서는 쓸어버려질 것이다. 산들이 그 폭풍의 바다에 삼켜질 것이다. 이렇게 사회적 땅은 용해될 것이며, 정부의 하늘(교회와 국가)은 사라질 것이다. 교만한 모든 자들과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곡초처럼 되고 말 것이다.(말 4:1) 강력한 사람들이 비통하게 울 것이고(사 33:7), 부유한 사람들이 울며 부르짖을 것이다.(약 5:1) 두려움과 비통이 모든 대중에게 있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현명하고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예고하신 바와 같이, 사람이 거주하는 땅에 닥칠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예상 때문에 사람들은 기절하게 된다.(눅 21:26) 이 전

반에 걸치는 과열에 있어서 (모든 교파들을 포함하여) 이름 뿐인 교회는 점진적으로 정부들과 부유한 사람들 쪽에 더욱 더 다가가게 되고, 백성의 많은 영향력을 잃고, 마침내 정부들과 함께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불타고 있는 하늘은(교회의 지배)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질 것이다.(벧후 3:10)

이 모든 환난은 단지 세상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매우 현명하게 잘 계획하고 조정할지 몰라도, 무지함과 이기심이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에 앉아 지배하는 한 그들의 모든 계획이 무익함을 증명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준비할 것이다. 그 환난은 모두에게 다음 사실을 확신시킬 것이다: 어려움을 바로잡는 오직 가능한 방법은 강하고 의로운 정부를 세움으로, 모든 계급을 정복하고, 호의적인 영향 밑에서 인간의 돌 같은 마음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본래의 형상으로 바뀌질 때까지 의로움의 원칙을 실시함으로 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이 날의 환난의 징계와 교훈으로 안내하시는 그리스도의 천년통치와 천년통치를 통하여 모두를 위해서 성취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겔 11:19, 36:25,36, 렘 31:29-34, 슥 3:9, 시 46:8-10)

비록 이 환난의 날이 인간의 타락되고 이기적인 상태의 자연적이고 피할 수 없는 결과이며, 소수를 제외하고는 경험과 강제가 복종을 강요할 때까지 모두가 그의 율법과 지시를 무시하리라는 것을 미리 아신 여호와께서 환난의 날을 완전히 예견하시고 선언하신 것일 지라도, 다가오는 정세를 깨닫는 모두는 스스로와 그들의 일상 용무를 적절히 정리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온유한**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리스도의 몸뿐이 아니라, 세상의 겸손한 사람들에게 말한다. “여호와를 찾아라. 그의 판결(그의 뜻)을 지켜 행하는 땅의 모든 온유한 사람들아, 의를 찾고, 온유함을 찾아라. 혹시 너희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슥 2:3) 아무도 그 환난을 완전히 피하지 못할 것이나, 의로움을 찾고 온순하여 기뻐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나을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사건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 환난과 그 결과에 대한 성경의 설명도 역시 흥미롭게 할 정의에 대한 그들의 공감뿐 아니라, 그들의 사는 방법, 그들의 생각과 행위의 습관들이 모두 서로 겹쳐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보다 고생을 덜 하게 할 것이다. -특히 괴롭히는 공포와 전조들로 야기되는 고통.

주의 날에 있는 사건들의 추세는 성서적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매우 속기 쉽게 될 것이다. 과거의 여러 긴 시대와 그 여러 시대의 더딘 시행에 비교하여, 주의 날은 불이 겨를 태우는 것(슥 2:2)처럼 갑자기 올 것이다. 그러나 주의 날에 관한 모든 기록된 일들이 24시간 내에 성취되리라고 예상하는 어떤 사람들이 잘못 기대하는 것처럼 맑은 하늘에서 번개 불처럼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다. 주의 날이 “밤의 도적같이” 올 것이라는 것은 도적이 예기치 않은 때에 드는 것과 같이, 주의 날의 다가움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살며시 관찰되지 않게 올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 날의 환난은 경련 하는 상태에 있을 것이다. 그 환난은 그 날이 닥쳐 올 때 마지막의 경련 때까지 보다 빈번히, 보다 격심해지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경련일 것이다. “임신한 여자에게 닥치는 **진통처럼**”(살전 5:2,3)이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다. 고통의 완화는 오직 사물의 새로운 질서인 권력과 이기심 대신에 정의와 사랑이 법이 될 의가 깃들여있는(벧후 3:10,13) 새 하늘(그리스도의 영적 지배)과 새 땅(재편성된 사회)의 탄생과 더불어만 올 것이

다.

그 새 시대의 노동의 진통들이 현 정치기구에 제기될 때마다 그 기구의 힘과 용기는 더 작아지고, 고통은 더욱 심해짐이 발견될 것이다. 사회의 의사(정치 경제학자)가 고통의 완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돕는 것이고, 불가피한 출생의 경과를 현명하게 지도하는 것, 즉 그 대 사건(환난의 날)에 대비한 길을 점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만일 그들이 원하더라도, 그것을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 사건(환난의 날)이 실현될 것이라고 공포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사회의 의사들은 실제의 병, 그 상황의 필요성과 긴급함에 대해 전혀 모를 것이다. 이 의사들은 억압적인 조치를 기도할 것이다. 환난의 각 발작이 경과할 때마다 그들은 저항적인 수단의 적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황을 이용할 것이며, 그 때문에 고통이 증가될 것이다. 그들은 그 출생을 오래 미루지 않는다고 해도 그들의 의료과오는 그들의 환자의 죽음을 재촉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물의 낡은 질서는 새로운 질서를 낳는 진통 가운데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제안한 강력한 상징을 제쳐놓고 명백히 이야기하기로 한다. 자본과 기계의 지배에서 해방을 위한 대중들의 노력은 **미숙**할 것이다. 몇 번이고, 대중들이 억지로 헤치며 나아가서, 그들에게 너무 적게 성장하는 “수요와 공급”의 굴레와 한정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한다고 해도, 계획과 조정은 불완전하고 불충분할 것이다. 각 성공하지 못한 시도는 드디어 단체들과 정부들을 현재 제한하는 권력이 그것의 최대 한정에 이르고, 사회조직체의 기반이 산산이 깨어지고, 법과 질서는 자취조차 없어지고, 널리 보급되어 있는 무정부 상태가 “나라가 생긴 이래 그때까지 있던 적이 없는”(단 12:1), 그리고 그 후 “결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고난에 대하여 예언자들이 예고한 **모두**를 일으킬 때까지, 사물의 새로운 질서를 그것의 현재 한정이내에 유지시키는 능력에 대한 자본의 신임을 증가할 것이다. 부언 된 보증(마 24:21)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바로 적절한 때에 장막이 제거되고 빛이 들어짐

이집트와 이집트 국민들에게 내린 재앙에서 이스라엘의 구출은 모세가 상징한 모세보다 더 위대한 자의 손으로 세상의 다가오는 해방을 예증하는 것 같다. 그것은 사탄과 죄와 과오로 인간을 속박하기 위해서 그가 고안한 모든 매개적 수단에서 구원이 될 것이다. 이집트에 내린 재앙들이 제거되자마자, 완고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듯이, 주의 날의 고통에서 일시적인 완화도 어떤 사람들을 완고하게 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국민들이 이스라엘에게 말했듯이 그들은 빈곤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게으름 피우고 있어!” 그래서 불만해 하지! 라고 말하고, 아마 이집트 국민들과 같이 부담을 늘리려고 시도할 것이다.(출 5:4-23) 그러나 마지막에는 파라오(Pharaoh)가 마지막 재앙의 한밤중에 행동했듯이, 완고한 사람들은 그들이 오래 전에 빈곤한 사람들에게 더 관대하게, 더 현명하게 행동하기를 바랄 것이다. (출 12:30-33) 유사점을 더욱 명시하기 위하여 다음 두 가지를 상기 한다: (1) 주의 날의 환난들을 “분노의 일곱 대접”이나 “마지막 일곱 재앙”이라고 부른다. (2) 모든 산(왕국)을 사라지게 하는 **큰 지진**(혁명)은 일곱 재앙의 마지막 재앙 때까지 일어나지 않는다.(계 16:17-20)

이 환난의 날에 관한 또 다른 고려는 그 환난의 날이 바로 **그 적절한 때**(하나님

의 적절한 때)에 왔다는 것이다. 그 증거는, 이 책의 다음 권에 신약성경의 예수님과 사도의 예언자들뿐이 아니라, 구약성경의 율법과 예언의 증언들에서 예증되어 있다. 그 증거는 환난의 날이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천년통치의 초기에 있게 된다는 것이 연대순으로 밝히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또한 틀림없이 보여주고 있다. 환난을 촉진시키는 것은 천년시대에 다가오는 회복의 일을 위하여 필요한 예비이다.

악의 6천년 중간시기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의의 강력한 정부의 설립할 지정된 때까지, 만일 타락한 인간에게 이 현재 노동 절약하는 기계가 더 일찍 이루어진 발달이나, 판 방법으로 한가한 시간을 많이 주었다면, 그들에게 절대 피해가 되었을 것이다.

경험이 “게으름은 죄악의 어머니다”라는 격언을 생기게 했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증명해 준다. “너는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며 빵을 먹을 것이다.”(창 3:19)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같이, 자비롭고 지혜로우며, 그의 피조물의 궁극적인 이익을 위해서이다. 우리가 이미 증진하는 것을 보고 있는 주의 날의 환난은 하나님의 계획의 지혜를 확증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 바와 같이, 환난의 날은 노동 절약의 기계로 과잉생산 한 결과와 여러 가지 사회의 요소들의 주요부분이 각 부분에서 생기는 이기심으로 그 자신들을 새로운 환경에 순응하기에 무능력함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의 증명

이것이 사물의 새로운 질서의 소개를 위한 하나님의 적절한 때임을 증명하는 반박할 수 없는 논리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예언하신 때에 예언하신 결과들과 더불어, 무지함의 장막을 제거하시고, 지성과 발명의 빛을 점진적으로 인류에게 비춰주시고 계시는 것이다.(단 12:4,1) 만일 지식이 더 이르게 왔더라면, 그 환난은 더 이르게 왔을 것이며, 사회가 사회의 폭풍과 용해 후에 재편성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기에 의가 널리 보급되고 깃들여 있는 새 땅(사회 제도)이 **아니라**, 죄와 사악이 지금보다 더욱 더 그득한 새 땅(새 제도)이었을 것이다. 노동절약 기계의 공평한 분할은 조만간 노동시간을 점점 더 짧아지게 했을 것이다. 따라서 본래의 보호에서 풀려, 타락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타락한 인간은 그의 자유와 시간을 정신적, 도덕적, 신체적 향상에 사용하지 않고, 과거 역사가 증명하듯이, 경향은 방탕과 사악으로 향하고 있었을 것이다.

지금 장막이 부분적으로 제거되고 있음은 인류를 위해 수천 가지의 편리한 도구를 준비해 두고 있으며, 따라서 회복시대 시작에서부터 이따금 무덤에서 깨 일어날 동료들을 먹이고 입힐 것을 준비하는 시간뿐이 아니라, 교육, 도덕, 육체의 발달을 위한 시간을 주게 한다. 그리고 그 위에, 장막이 부분적으로 제거되고 있음은 인류에게 이익이 되게 될, 바로 그 때에 환난의 때를 밝힌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것(장막이 제거됨)은 하나님의 임명에 따라, 모두를 구원하신 그가 철봉의 엄한 지배로, 그들이 원래의 완벽과 영생으로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조력과 더불어 인류를 축복하기 시작하게 되는 천년 기 바로 시작 때, 인류에게 자치하기에 무능함을 깨닫게 하는 교훈을 줄 것이다.

성도들의 의무와 특권

환난의 때에 성도들의 상태와 그것에 대한 그들의 타당한 태도

이 환난동안에 성인들의 의무와 지금 현저하게 대두되는 두 대항하는 계급들에 대한 그들의 올바른 태도에 관하여 한 중요한 질문이 일어난다. 성도들 중 얼마는 이 불타는(벧후 3:10) 기간의 적어도 잠시간 아직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는 것이 가능하게 보인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 빵과 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명료하게 약속되어있지만, 그들의 태도는 그들이 기적적으로 보호될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서 권고를 받았으므로, 세상에 그들 찬 걱정과 절망적인 공포를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서 다른 사람들의 태도와 다를 것이다. 그들은 환난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전 세상을 축복하기 위한 예비라는 것을 알아보고, 모든 환난 중 줄곧 기뻐하고 위안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시 91과 사 33:2-14, 15-24에 강력히 진술되어있다.

따라서 신의 보장으로 위안을 받고 은총을 입었으므로, 성도들의 첫 의무는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일반적인 환난과 불만 가운데서, 그리고 성도들이 환난을 함께 경험하고, 그 밑에서 고생하는 바로 그 동안에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예언하신 영광스러운 결과를 예상하여, 희망을 안고 있고, 즐거워하고, 언제나 기뻐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자족**과 더불어 이 경건한 정성은 큰 이득의 수단이다”라고 썼다.(딤후 6:6) 이 말이 언제나 참말이었지만, 주의 날에 불만이 모든 세상계급들 가운데 주된 병일 때, 그것은 두 배의 힘을 가질 것이다. 이 불만을 가진 세상계급들에게 성도들은 주목할 만한 예외가 되어야 한다. 불만이 것처럼 만연된 적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인간이 이처럼 많은 호의와 축복을 즐긴 적이 없다. 우리가 어디를 드러다 보든지, 그 모든 영광을 누리던 솔로몬조차도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편의와 호화로 가득 찬 부유한 사람들의 대 저택이나, 취미, 안락, 예술과 사치의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절약하며 절제하는 임금직공의 안락한 가정이든, 어디를 드러다 보든지, 모든 방면에 있어서, 현재의 풍부한 공급은 창조 이래 모든 다른 시대를 훨씬 초과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불행**하고 불만해 있다. 그 사실은 이기적이고 타락된 마음의 욕구는 한도를 모른다는 것이다. 이기심이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다 볼 때, 모든 세상이 미친 듯이 부를 추구하고, 돌진하고, 부여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다. 몇 사람만이 성공적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사람들은 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어서 질투하고 못마땅해 한다. 그래서 모두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불만족하고 비참해 한다.

그러나 성도는 그 투쟁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야 한다. 성도의 헌신의 서약은 더 높은 하늘의 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매달리고, 달리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과 사도들의 행로와 본보기에 유의하기 때문에 세속적 야망을 단념하고 **알맞고 필요한** 것들을 장만하는 것 외에는 세속적인 것들을 위해서 노동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경건한 정성과 더불어 **만족**이 있다. 그들이 야망이 없어 서가 아니라, 야망을 하늘 쪽으로 돌려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며, 하나님께 향해서

부유케 되기 위한 노력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이다.(마 6:20, 눅 12:21)

위에 말한 것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드러난 그의 계획의 지식 때문에 그들은 이세상의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만족해하고 있다. 이들은 즐겁게 노랴를 부를 수 있다.

“내가 무슨 운명을 받아도 만족한다.
나를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아 슬프도다!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이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그득한 불만에 빠져 들어가 있으며, 주님의 발자취를 떠나서 그들이 달성하건 못하건 세속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불만을 함께 나누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지도 못하는 만족과 평화를 실감하지 못하고, 그들의 장래를 거는 무모한 모험을 하며, 세상의 길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의 즐거움을 스스로 잃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에게 탐욕의 투쟁과 자만심과 불만을 버리고 더욱 높은 부유함과 그 더욱 높은 부유함이 주는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라고 촉구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짐하여 말한다.

“확실히, 자족과 더불어 이 경건한 정성은 큰 이득의 수단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다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유해지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성공하거나 못하거나 유혹과 덧과 여러 가지 무분별하고 유해한 욕망에 **빠집니다**(침몰한다). 그것들은 사람을 멸망과 파멸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함은 부유하건 빈곤하건 온갖 해로운 일의 뿌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랑을 **추구하다가** 믿음에서 떠나 그릇된 길로 인도되었으며, 많은 고통으로 온통 자기를 찢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러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도리어 의와 경건한 정성, 믿음, 사랑, 인내, 및 기질의 온화함을 추구하십시오.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굳건히 잡으십시오. 이를 위하여 그대는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한 공개적 선언을 하였습니다.”(딤후 6:6-12)

만일 성도들의 본보기가 이렇게 만족과 즐거운 기대와 현재의 시련을 다가오는 좋은 시대의 확실한 소망 가운데서 기꺼이 하는 순종의 하나라면, 그러한 산 본보기만으로도 세상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교훈들이 된다. 그 본보기 위에, 성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들의 권고는 그들의 믿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기쁨과 병을 고쳐주는 향유의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시대가 오는 것을 지적해 주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왕국을 그들에게 전도하고, 현재의 환난의 실제의 원인과 유일한 구제책을 보여 주기 위해, 알맞은 때를 이용하여야 한다. (눅 3:14, 히13:5, 빌 4:11)

가엾은 세상은 실제의 병뿐이 아니라, 환상의 병과 특히 인간을 괴롭히고 걱정케 하는 이기심과 자만심과 야망 때문에 오는 불만을 만족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신

음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문제의 양면을 볼 수 있는 한, 기꺼이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준비하신 많은 축복을 그의 적절한 때 그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져오게 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권고해 준다.

실제나 공상의 상처와 과오를 자세히 조사하고 자극함으로서, 우리가 도움을 주고 축복해야 할 사람들을 해쳐서, 따라서 그들의 불만을 늘리고, 그러므로 그들의 불안을 퍼뜨릴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준 **속죄물**의 기쁜 소식과 그 결과로서 일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올 **축복**들을 전도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성취함으로서, 우리는 왕국의 참된 포고자들 (왕국의 평화의 대사들)이 될 것이다. 따라서 기록된 바, “산(왕국)위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이, 평화를 널리 알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마지막 구성원들인) 그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사 52:7)

“여호와와 의 날”의 환난들은 좀처럼 주지 않는 다가오는 행복의 기쁜 소식을 전도할 기회를 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상처들을 감아주고, 위안과 기쁨의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는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되는 사람들은 행복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노동이 헛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다. 왜냐하면 주께서 땅에서 재판하실 때에 세계의 거주자들이 의를 **배울 것이기** 때문이다.(사 26:9)

하나님의 자녀들의 동정은 하늘 아버지의 동정과 같이, 대항하는 계급의 사람들이 옳게 되고 관대하게 되기를 바라나, 그들의 노력들이 그들의 타락된 천성의 약함뿐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환경, 다른 사람들과 친밀함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함 때문에 막히고 방해받는 대항하는 계급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동정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노예 신분에서 무슨 구원을 얻기 위하여 애쓰며 신음하는 피조물에게 주로 동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계급에 속하든, 거만하고 만족을 모르는 욕구와 노력을 기울이는 부류에게는 동정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어조는 침착하고 합리적이며, 원칙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항상 평화를 위한 것이라야 한다.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과 정치나 사회적 문제에 관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예언한 해결 이외에 아무런 참된 해결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헌신한 사람들의 임무는 무엇보다도 먼저 (1) 그들이 여호와와 의 병거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게 하는 것과 (2) 그 다음에는,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출 14:13)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그렇다고 그들이 이 투쟁에 참여하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이 다른 매개들을 통하여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의미에서이다. 그러한 모든 것들에 개의치 않고, 그들은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 모든 계급을 위한 유일한 구제책이며, 그들의 유일한 소망인 것으로 그 자신들의 사명을 추진해야 한다.

연구 16

끝맺는 사고

- 진리를 위한 우리의 의무
- 그것의 대가, 그것의 가치, 그것의 이익

진리를 위한 우리의 의무

전 여러 장에서 우리는 자연의 빛이나 계시의 빛이나, 다음 사실들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1) 지성과 지혜를 소유하시고, 전능하시며,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이시라는 것. (2) 그는 모두의 최고이시며 정당한 주시이라는 것. (3) 유생물과 무생물 모든 피조물은 그의 지배에 종속되고 있다는 것. (4) 성경은 그가 인간에게 기꺼이 드러내시는 한에서, 그의 성품과 계획의 계시라는 것.

성경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사악이 지금 창조주의 상당한 수의 피조물 가운데 우세하고 있지만, 사악은 오직 제한된 기간과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현명한 결과를 위하여 묵인하심으로 존속한다는 것과 어두움이 현재 땅을 덮고, 흑암이 사람들을 덮고 있지만, 그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빛이 모든 흑암을 없애고,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차게 될 것이라는 것.(사 60:2)

우리가 이해한 것은 그의 위대한 계획은 여기까지 그것의 성취를 위해서 여러 시대를 필요로 했다는 것과 그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아직 또 하나의 시대가 필요하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을 거의 잊으신 것으로 보인 과거의 전 암흑시대에, 그 모든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의 불가사의한 일들이 인간에게서 현명하게 숨겨졌지만, 그들의 미래의 축복을 위한 그의 계획은 조용히 그러나 웅대하게 성취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또 이해한 것은 세상에 지금 날이 새려고 하는 그 날(시대)은 세상의 재판(시험)의 날이라는 것과 모든 이전의 예비는 인류가 **개인들로서** 영생을 위한 시험을 받게 될 때, 일반적으로 그들에게 되도록 호의적인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을 위한 것이다.

6천년의 긴 기간은 인류의 수를 크게 증가 시켰으며, 인류들이 사악의 지배 밑에서 받은 타격과 고통은 그들이 재판을 받게 될 때에 크게 유리하게 될 경험을 그들에게 주었다. 전체적으로 인류가 비록 6천년동안 고통을 겪도록 이렇게 묵인되어왔지만 그래도 개인들로서 그들은 그들에게 주신 경주 코스를 짧은 몇 해 안에 달렸다.

우리가 본 것은 인류가 이 필요한 단련을 받고 있는 동안, 그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과 인류 대부분은 굴욕 상태에 있는 구속자를 인식 못했으며,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으신 이가 그들을

구하기 위하여 **이런 식으로** 오시리라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수행하실 때 함께 나누는 왕국의 명예를 받을 두 무리를 과거 여러 시대동안 선택하고 계시다는 것과 선택받은 이 두 무리들은 하나님 왕국의 두 가지 면을 구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예언자들에게서 배운 것은 이 왕국이 땅에 곧 설립하게 되어있다는 것과 왕국의 현명하고 올바른 행정 밑에 세상 모든 가족들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가를 스스로 증명하기 위한 가장 호의적인 기회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귀중한 피로 그들이 구속함을 받은 결과로, 거룩함의 대로(사 35:8)가 나서, 주님의 구속된 사람들(모든 인류 - 히 2:9)이 그 대로에서 걸을 수 있다는 것과 그 대로는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상당히 쉽게 만들어진 공중의 통로이며 모든 걸림돌들은 치워지고,(사 62:10) 모든 유혹과 꼬임과 함정도 치워질 것이며, 완벽과 영생을 얻는 길로 가는 모든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심판이나 직권은 여호와께서 세상의 판사(통치자)로 임명하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다시는 굴욕 상태가 아니라,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시고, 다시는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의로 재판(통치)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공판은 판사가 판사석에 앉고, 그 전에 큰 준비는 있을 수 있지만, 고정된 시간에 개회중일 때까지 결코 시작할 수 없다. 그 때에 왕이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고, 그 앞에는 전 세계 국민이 모일 것이며, 그는 성서의 책들을 그들에게 밝혀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면서, 그 시대에 그들의 행함에 따라 그들을 재판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호의와 도움 밑에서 그들의 행동에 따라, 그는 그들 중에 누가 천년시대 후에 올 영광에 넘치고 기쁜 끝없는 시대에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가를 결정할 것이다.(마 25:31, 계 20:11-13)

우리가 본 것은 그의 왕국을 지상에 세우기 위한 메시아의 재림은 모든 인간계급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 사건이고, 완전히 이해되었을 때,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올 대 사건이라는 것과 그의 재림은 주님의 헌신한 성도의 “적은 무리”가 기뻐할 가장 큰 이유가 있는 날이고, 약혼한 처녀 교회가 기쁨으로 신부 곧 양의 아내가 되는 기쁜 날이며, 여인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의 팔에 기대어 광야에서 올라와서(아 8:5) 그의 영광스러운 상속에 참가하는 기쁜 날이고, 그 머리와 더불어 영광을 입은 참된 교회가 신의 권위와 권능을 부여받게 되고, 세상을 위하여 완전한 만유의 회복의 결과를 가져올 위대한 일을 시작할 날이며, 세상을 위해서 대 적인 사탄이 묶이고, 인류를 6천 년간 붙든 족쇄가 부서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듯이 전 세상을 가득히 채우는 기쁜 날일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들의 지식과 그런 날들이 문에까지 가까이 와있다는 증거들은 모든 사람에게, 그러나 특히 신의 본성을 상으로 받기를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헌신 한 자녀들에게 강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우리는 그들의 구속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그들이 알고, 머리들을 들고 기뻐하는 동안, 모든 무거운 것과 장애를 벗어버리고, 그들이 시작한 끈기 있는 경주를 인내하며 달리기를 그러한 사람들에게 강권한다.(눅

21:28, 히 12:1) 모든 피할 수 없는 약점은 우리 주 그리스도가 주신 속죄물의 공로로 완전히 덮여 가리어지고, 당신의 희생과 자기부정들은 우리의 구속자시며 주님이신 오직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드리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와 자기의 피할 수 없는 약점과 완벽치 못한 점에서 눈길을 돌리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데 족한 힘을 그의 말씀 가운데 약속해 주셨음을 상기합시다. 그 힘은 그의 성품과 계획의 **지식**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위들의 **지식**에서 끌어낸다. 따라서 베드로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의 정확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당신에게 증가하기를 빕니다. 그 분의 신의 권능은 생명과 경건한 정성에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었으니 곧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게 된 부패를 피한 다음, 그 약속들을 통하여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벧 후 1:2-4)

그것의 대가, 그것의 가치, 그것의 이익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을 위해서 달리는 각 사람에게 공급할 것을 이렇게 제안하시는 이 지식과 힘을 얻기 위해서는 당신의 헌신서약의 성실함을 확실히 시험하실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모든 시간과 당신의 모든 재능들을 주님께 헌신하였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중 얼마만큼을 당신은 주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헌신서약에 따라서 모두를 아직도 기꺼이 포기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길을 받아드리고, 그의 훌륭한 일을 하는 시간을 내기 위하여 당신 자신의 계획과 방침,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이론들을 아직도 기꺼이 포기하기를 원합니까?

당신은 세상의 교우관계와 사회적인 인연의 대가로 이것을 기꺼이 하기를 원합니까? 이 자기부정을 요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면서, 진실로 헌신한 사람들에게 마음의 원기를 돋우는 이 영광스러운 주제들을 연구하기 위하여 당신은 다른 일들에서 시간을 기꺼이 포기하기를 원합니까? 만일 모두를 헌신하지 않았거나, 모두를 주님께 헌신했을 때 사실은 절반만을 뜻하였다면, 당신은 다른 시대 이상으로 현재(천년시대의 새벽) 부수적인 믿음의 모든 시험을 위해서 필요한 힘을 얻기 위하여 감춘 보물을 찾듯이 그의 말씀을 찾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기를 꺼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지를 준다는 것은 이 공부에 필요한 시간과 활력을 주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의 희생의 진심이 완전히 시험될 것이며, 당신이 그 왕국의 명예를 받을 이기는 교회인 그 “적은 무리”에 구성원이 되기에 합당한가 합당치 않은가를 증명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전력을 다하고, 그의 진리를 성실하고, 정직하고, 헌신 한 마음으로 받아드리면,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계획에 대한 사랑과 좋은 소식을 알리려 하고, 복음을 전도하려는 욕망을 당신 안에 일어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후, 그것이 생활의 전적으로 열중케 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세상과 많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의 교인들에게서 **마음속으로** 분리시킬 뿐이 아니라, 그런데서 아주 분리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별나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일단에서 배척받고, 그리스도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고 어리석다고 여기게 될 것입

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 바와 같이, 우리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고후 4:8-10, 눅 6:22, 요일 3:1, 고전 3:18)

당신은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을 통하여 주님을 알기 위하여 기꺼이 계속 따르기를 원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대로 따르기 위하여 모두를 기꺼이 포기하기를 원합니까? 당신 자신의 욕망뿐이 아니라, 친구들의 소원을 무시해서라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까?

이 책을 읽는 많은 헌신한 사람들이 이 책으로, 신의 계획을 더 분명히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열의와 열정적인 정신으로 소생 할 수 있어서, “수반된 희생이 무엇이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알고 섬기기 위하여 계속 따르겠다.”고 그들이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고상한 베레아 인들(Bereans, 행 17:11) 같이, 앞서 소개한 것을 증명하는데 열심히 스스로 종사하기 바랍니다. 상반되는 전통과 인간의 교리가 아니라, 오직 정확하고 신에 의해 공인된 표준(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증명하십시오. 우리가 그만큼 많은 성서들을 인용한 것은 그러한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설명한 신의 계획을 전에 신봉하고 성서적이라고 추측하였지만, 성서적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은 많은 관념과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은 무익할 것이다. 신의 계획은 완전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자체와 일치를 이룬다는 것과 성서가 그 계획의 위대하신 저자에게 속한다는 성품과 완전한 일치를 이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계획은 지혜, 공정, 사랑, 정의의 놀라운 진열이 다. 그 계획은 인간의 발명이 미치지 않으며, 인간의 이해능력이 거의 미치지 않는 초인간적 의도 그 것 자체의 증거를 지니고 있다,

의심할 바 없이, 여기에 제공된 계획과 일치하여 해결을 구하면서, 여러 점의 질문이 일어날 것이다. 주의 깊고 세심한 성경 연구는 많은 것들을 즉시 해결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여러분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아무 질문도 여기에 제공된 견해와 완전히 일치되는 충분한 대답이 없이 나아갈 필요가 없다’. 다음 권은 이 하나의 계획의 여러 분야들을 각 단계마다 단지 **진리**만이 자랑할 수 있는, 비길 때 없는 조화를 드러내면서 상세히 설명한다. 다른 아무 신학체계도 성경의 **각** 말씀마다 모두 그 신학체계 내에서 조화한다고 주장조차 하지 않고, 시도한 적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단지 성경뿐이 아니라, 신의 성품과 신성화된 일반 상식과 이루는 이 조화는 성실한 독자의 주의를 이미 사로잡고, 희망과 자신감뿐이 아니라, 경외로 그를 채웠음에 틀림없다. 그것은 진실로 놀라운 일이지만, 진리와 하나님의 무한히 슬기롭고 자비로운 계획에서 우리가 예기해야 할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성경이 이 관점에서 이렇게 밝혀지고, 놀라운 것들을(시 119:18) 드러내고 있지만, 인간의 신조와 전통에 비치는 현재의 빛은 정 반대의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간의 신조와 전통은 그것들의 숭배자들에게서도 불완전하고 기형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그러므로 뚜렷이 무시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시인하고 있지만 그들은 부끄러워서 그것들을 좀처럼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이 인간의 신조와 전통에 붙은 수치는 성경으로 퍼지고 있어, 성경이 이 사고의 기형들을 신의

기원이라고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소위 여러 진보한 사상가들은 자유로 그들의 견해에 맞지 않는 성경의 여러 부분을 부정하기 시작하고 있다. 바로 이때에 그의 자녀들 앞에 이 참으로 영광스럽고 그의 말씀의 각 부분과 항목마다, 하나도 거부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계획을 밝혀주고 있으니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감명 깊은가! 적절한 때에 진리는 믿음으로 식구가 된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어, 그것으로 그들을 자라게 할 수 있게 한다.(마 24:45) 진리와 접하게 되어, 그것의 특성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나 진리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진리를 받아드리고 좇아 행동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진리를 거부하고 경멸해야 한다. 그것을 무시한다고 책임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를 스스로 받아드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역시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진리는 모든 믿음으로 식구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이며, 진리를 받아드리는 각 사람은 그것의 채무자가 되고, 만일 충실한 관리인이라면, 하나님 가정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진리를 나누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빛을 비추시오! 만일 그 빛이 어두워지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마 5:16, 6:23) 빛을 들어 올리십시오! 사람들을 위해서 표준을 들어 올리십시오!

신의 위엄

“불가사의의 위는 분이 앉아 계신 것을 보라
 하늘 높이- 그의 밑에는 베들,
 발판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며 움직인다.
 세상의 어두운 시대를 직물로 쓰시고,
 왕과 현인들을 씨줄로 쓰시고,
 귀족들과 그들의 급사들을 쓰시고,
 모든 지위와 모든 활동무대를 쓰시고,
 왕좌들은 그의 물렛가락 안에 실감개들이다.
 군대들은 실감개들을 질주하게 하고 급히 달리게 하고
 직물은 씨줄로 거침없이 흘러야한다:
 일어서고 넘어지며 나라들은 소멸할 것이다!
 위는 분의 뜻에 따라 그들은 사라진다!

“조용히 불가사의의 위는 분을 보라
 그의 물렛가락을 여기저기 던지라
 소란과 야단법석 떠는 혼란 복판에,
 위는 분은 잘 알고 계신 것 같다.
 각 동작과 동요가 무엇인지를,
 각 용해와 혼동이 무엇인지를,
 장대한 결말에는 보일 것이다!

“영광스러운 경이! 얼마나 굉장한 위엄인가!
둔한 사람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우화의 시대도 알지 못하고,
 오직 믿음만이 불가사의를 볼 수 있고,
 역사의 경로를 따라 어떤가를 볼 수 있다.
 현인들의 발이 가는 곳에,
 가장 아름다운 눈에게 가장 사랑스럽고,
 장려한 불가사의의 타페스트리가 놓여 있다!
 부드럽고 반반하여 언제나 펼치고 있는,
 마치 천사의 걸음을 위해서 만들어진 듯이-
 술로 장식한 원형들이 항상 서로 닿으면서.
 각 형태마다 격자무늬가 있다,
 더 명백한 모양과 더 부드러운 색조들
 각각 밝게 비친다. 얼마나 수수께끼 같은가!
 한 가운데에 보석을 박은 십자가에서.

“이것이 말인즉, 어떤 사람은 그것을 거부한다.
 그것의 빛이 모두 반사되는 것을;
 타페스트리의 줄이 주어진 것을
 하늘에서 빛나는 태양으로!
 “믿게 된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위대하신 하나님 당신께서 홀로 위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과 역사의 빛 가운데서,
 세상의 어두운 불가사의를 나타내시며
 그리고 직물과 씨줄이 줄어지는데 따라,
 장려하고 영광스러운 완성이 온다.
 황금시대가 시작할 때
 예언자들과 현인들로 오래 전 예언된.”